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5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인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보고서

- 인천지역 -

2005. 2. 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 인천 -

제출일: 2005년 12월 10일

연구 참가자

책임연구원: 이우재

공동연구원: 나준식, 노현기

일러두기

1. 본 자료집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진행하는 1950년부터 1992년까지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인천지역 자료입니다.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는 일지를 중심으로 기록 정리하였습니다. 사건기록과 단체기록을 통해 상세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3. 사건기록, 단체기록,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일지, 인천지역 87년 7월 이후 노동일지 순으로 수록되었습니다.
4. 사건기록과 단체기록은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자료, 출판된 책자, 신문, 관련자의 구술에 의해 기록했습니다.
5.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일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사일지」의 인천지역자료에 출판서적, 각 단체 기관지 등 간행물을 참조해 작성한 것으로 비고에 출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인천지역 87년 7월 이후 노동일지는 본 작업에 참여한 노현기가 1997년 작성해 놓은 것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출처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7. 사건과 단체 기록은 날짜순으로 배열한 것이며 참고자료는 별도 파일로 제출하며 본 자료집에는 별도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8. 사건기록과 단체기록에서 누락된 사건이나 단체는 제한된 시간과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상세 기록에서 누락된 것은 중요도에 따라 누락된 것이 아님을 양해드립니다.

목 차

일러두기.....	1
목차.....	2
I. 작업 진행 경과.....	4
II. 인천 지역 사건·단체항목 목록.....	6
1. 사건항목 목록.....	6
2. 단체항목 목록.....	7
III. 사건항목 기초조사.....	8
1.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	8
2. 정의구현을 위한 기도회와 김병상 신부 구속 사건	20
3. 인하대 78년 유인물 사건	22
4. 80년 인하대 학생 시위.....	24
5. 송도고등학교 동창생 광주항쟁 유인물 살포 사건	26
6. 이우재 등 광주항쟁 유인물 살포 사건	27
7. 인하대 서클 청진회 사건.....	29
8. 인하대 82년 11월 시위	32
9. 인하대 이승만 동상 철거 시위 사건	33
10.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	35
11. 인하대 김성진 경찰 폭력 사건	38
12. 대우자동차 85년도 파업	40
13. 안성규 등 기러기 팀 가두시위 사건.....	43
14. 5.3인천항쟁	45
15. 부천서 성고문 사건	50
16. 인천의 6월항쟁	58
17.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65
18. 대우중공업 노조 민주화투쟁	68
19. 중앙병원 산업재활원 산재노동자들의 투쟁과 산재노동자 김성애 투신자살 사건.....	71
20. 세창물산노조 송철순 사무국장 추락사망 사건과 위장폐업 철회 투쟁	75
21. 경동산업 노동자 투쟁과 9.4 집단분신 사건	79
22. 협신사 노동자 이재호 피살 사건	84
IV. 단체항목 기초조사.....	86
1. 인천 가톨릭노동청년회.....	86
2.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88
3. 앰네스티 인천 지부	90
4.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93
5.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100

6.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103
7. 인천지역노동자연맹	107
8.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115
9. 인천민주노동자연합	117
10.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119
11. 인천지역민주노동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130
12.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135
13. 인천문화운동연합	137
14. 기차길옆 공부방	139
15. 인천민중연합	140
16.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	147
17. 인천여성노동자회	150
18. 인천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	152
1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155
20.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167
21. 인천기독교사회운동연합.....	169
22.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171
23. 인천지역주민회	174
24. 인천지역노동조합활성화추진위원회	175
25. 인천지역공부방연합회	177
26. 인천지역대공장노동조합연대모임	178
27. 실업극복 인천본부 남동지원센터.....	180
V. 참고 자료.....	182

1. 작업 진행 경과

1. 연구조사 팀 구성과 회의 진행

1) 5월 30일 연구 실무진 구성 후 매주 월요일마다 점검회의.

중간에 공동연구원 김창수를 나준식으로 교체.

2) 조사 일정

8월 15일까지 민주화운동 일지 일차 완성

9월말까지 자료수집 및 추재.

9월 28일 1차중간보고서 제출

11월말까지 집필

12월 2일 2차중간보고서 제출

12월 12일 최종보고서 제출

3) 조사 방식

연구 조사팀이 과거 인천에서 직접 민주화운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주변의 민주화운동 동료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동료들에게 중간마다 작업 결과물을 보여주어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확인을 받았다.

4) 역할 분담

이우재: 전체 총괄

나준식: 시민, 학생

노현기: 노동(이재성이 업무 보조)

2. 작업 진행 방식

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일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사건일지(민주화)와 성공회대학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민주화운동사전편찬자료에서 인천지역 사건을 뽑아, 그것을 일차 자료로 삼아 작성했다. 여기에 신문, 운동단체 유인물, 책자 등 각종 자료를 통해 발굴된 기록을 갖고 일지를 보충했다.

2) 민주화운동 일지는 가능한 한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여, 일지만 읽어도 그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처도 명기하여 이후 연구에 도움이 되게 했다, 기록끼리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비교에서 그것을 밝혔다.

3) 사건이나 단체의 부문 별 분류는 시민, 학생, 노동으로 삼분했다.

4)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의 노동운동 일지는 별도로 작성했다.

5) 기초 조사의 대상이 된 사건이나 단체는 일지를 토대로 선정한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첨가했다. 대상이 된 사건이나 단체는 가능한 한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이 큰 것을 중심으로 했으나, 그것은 본 연구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삭제했다. 단체의 경우는 자료의 부족으로 서술할 내용이 없는 경우라도 가능하면 그 이름이라도 기록하여

후일 연구에 참고가 되게 했다.

6) 사건이나 단체에 대한 기초 조사는 당사자들의 판결문이나, 구술 등에 많이 의존했다.

7) 노동 사건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그 흐름이 일관된 것이라면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리했다.

II. 인천 지역 사건·단체항목 목록

1. 사건항목 목록

시 기	사 건 명	관련단체, 인사	부문
1972-1980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	동일방직노조, 산선 등	노동
1977.8.29	정의구현을 위한 기도회와 김병상신부 구속사건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 원회, 김병상신부	시민
1978.9-11	인하대 78년 유인물 사건	조용호, 안영근 등	학생
1980.5	80년 인하대 학생 시위	조용호, 안영근, 곽한왕	학생
1980.5-6	송도고등학교 동창생 광주항쟁 유인물 살포 사 건	이교정, 이수하, 이완규	학생
1980.5-8	이우재 등 광주항쟁 유인물 살포 사건	이우재, 조용호, 관한왕	학생
1981.5.21	인하대서클 청진회 사건	민영수, 홍문표 등	학생
1982.11.8	인하대 82년 11월 시위	이우청, 최진우	학생
1983.10.6	인하대 이승만 동상 철거 시위 사건	황홍규, 이민재, 윤호영, 이 기선	학생
1983.10-1984	블랙리스트 철폐투쟁	김용자, 최연봉, 안순애, 서 기화, 김지선 등	노동
1984.9.6	인하대 김성진 경찰 폭력 사건	김성진	학생
1985.4	대우자동차 85년도 파업	홍영표, 송경평, 박재석 등	노동
1986.2.1	안성규 등 기러기팀 가두시위 사건	안성규, 곽성순, 이상훈 등	학생
1986.5.3	5.3인천항쟁	인사연, 민통련, 인노련, 서 노련 등	시민, 노 동
1986.6	부천서 성고문 사건	권인숙	노동, 시 민
1987.6	인천 6월항쟁	4.13호헌분쇄 및 민주개혁 을 위한 인천공대위	시민, 학 생, 노동
1987.7-8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노동
1987.8	대우중공업 노조 민주화투쟁	대우중공업 노조, 염성태, 유창렬 등	노동
1987.8-11	중앙병원 산업재활원 산재노동자들의 투쟁과 산 재 노동자 김성애 투신자살 사건	김성애, 김영술	노동
1988.6-1989. 5	세창물산노조 송철순 추락사망 사건과 위장폐업 철폐투쟁	송철순, 원미정 등	노동
1987-1989	경동산업 노동자 투쟁과 9.4 집단분신사건	강현중, 김종하 등	노동
1989.10.28	협신사 노동자 이재호 피살 사건	이재호	노동

2. 단체항목 목록

활동 시기	단 체 명	부문
1966-	인천 가톨릭노동청년회	노동
1976.10-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시민
1978.12-1980.5	앰네스티 인천 지부	시민
1984.11-1992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시민
1985.2-1986.2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노동
1984.4-1992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시민
1986.2-6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노동
1985.12-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노동
1987.3-1993	인천민주노동자연합	노동
1987.6-1992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노동
1987.8-1988.10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노동
1987.7-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노동
1987.11	인천문화운동연합	시민
1987-	기차길옆 공부방	시민
1988.3-2000.12	인천민중연합	시민
1988.2-1991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	노동
1988.1-	인천여성노동자회	노동
1988.5-1990	인천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노동
1988.6-1995.12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노동
1988.10-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시민
1989.6-	인천기독교사회운동연합	시민
1988.10-1992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노동
1989.2-	인천지역주민회	시민
1990.5-1995	인천지역노동조합활성화추진위원회	노동
1990.3-	인천지역공부방연합회	시민
1990-1992	인천지역대공장노조연대모임	노동
1991-	실업극복인천본부 남동지원센터	시민

III. 사건항목 기초조사

1.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

발생일 : 1972년 -

관련일지 :

<동일방직노조 전사(前事) - 동양방직 시절>

* 1946.05.01; 종업원 900여명 메이데이 행사 참여

* 1946.05.05; 종업원 900여명이 메이데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자 회사측은 메이데이 에 쉬는 대신 5월 5일 일하라고 함. 종업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측은 노조위원장 윤한수 외 3명을 태업을 이유로 경찰에 넘겼다. 이에 격분한 종업원들이 이들의 즉시 석방을 회사측에 요구했으나 공장장은 오히려 다시 경찰을 불러 신홍례 외 8명을 검거하고 종업원들에게 대한노총에의 가입을 강권했다. 그러자 종업원들은 '악질모략을 타도하라'고 절규하면서 앞의 8명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경찰측과 교섭한 결과 종업원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문제는 일단락됨.

* 1946.05.08; 회사측은 5.5태업을 이유로 윤한수 노조위원장을 경성본사로 전근시키는 한편 허가 일자에 2일 늦었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돌아온 종업원 김정애를 해고시켰다. 이에 노조측은 1. 악질공장장, 사무원의 해고 2. 김정애의 즉시 복직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 1946.05.25; 종업 후 외출자유와 8시간 노동제의 실시, 노조승인, 후생시설의 정비확충 등 9개조의 요구를 제시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이에 노조측이 군정청, 경찰서, 시청 등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했다. 5월29일에는 군정청 섬유과장 샤택트가 공장을 찾아와 5월30일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언명했다. 그러나 샤택트는 '전평의 지시를 받는데 대해 승인할 수 없으니 노조의 재조직과 간부명단을 군정청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공장측도 '이 이상 모르겠다'고 계속 강경자세로 나오자 동방종업원 일동은 좌정투쟁을 개시했다. 그리하여 무장경관이 출동하고 5월30일에는 노동조정위원회가 열렸고 공장장은 기계가동 정지를 명령했다. 또한 경관 입회하에 각 직장에서 15명의 해고를 선언했으며, 그날 밤에는 기숙사 공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해고자를 강제로 트럭에 실어가려고 하였으나 전 종업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MP까지 출동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 1946.06.15; 회사측은 전평과 노동당국간의 원칙적 양해를 무시하고, 복귀한 쟁의단을 계속 박대하였다. 이날 해고된 종업원의 복직을 못하게 하려고 200여 직공들에게 작업복을 미끼로 백지날인을 강요하여 받았으며, 해고당한 19명의 복직 반대의 결의를 위하여 관제집회를 열었다. 또 19일에는 일반공원에게 '민주주의가 좋으나, 공산주의가 좋으나'는 질문을 내고 백지에다가 날인할 것을 강요하여, 이것으로 해고당한 19명의 복직 반대의 결의로 이용하려는 수단을 썼다.

* 1946.06.22; 회사측의 합의 무시에 노동국 보조관이 동양방직을 방문했다. 노동국 보조관 할라웨이는 노동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결안이 무시되는데 격분하여 6월22일 전

평의 문은종을 대동, 인천 동방공장에 급행하여 회사측 직원과 낙인을 강요당한 직공들을 모아 대질시켜 공장측의 비양심적 모략을 폭로한 다음 회사측에 해결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섬유노조 동일방직지부 여성지부장 당선이후>

- * 1972.05.10; 전국섬유노조 동일방직지부 한국 최초의 여성지부장으로 주길자 피선
- * 1975.02.10; 주길자 지부장 후임으로 이영숙 지부장 당선
- * 1976.04.03; 이날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측이 대의원 고두영 등을 불참케 하여 무산됨. 남자 근로자 3백여명, 여성근로자 1천여명이 시위
- * 1976.04.23; 4월3일 무산된 대의원대회 개최를 시도했으나 회사측의 방해로 또 무산.
- * 1976.06.19; 여성노동자 500여명 회사측의 어용노조 결성에 반대하여 농성 시작
- * 1976.07.22; 섬유본조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측의 방해로 무산.
- * 1976.07.23; 이영숙지부장, 이총각 총무부장 연행에 항의하여 조합원들 밤늦게까지 시위
- * 1976.07.24; 이영숙지부장 등 연행 관련 전면파업. 이영숙 지부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 * 1976.07.25; 나체시위사건
- * 1976.07.29; 섬유노조위원장에 김영태 당선
- * 1976.12.25; 사무직원 노조가입정책에 항의농성
- * 1977.01.05; 노동청과 수습책 7개항에 합의
- * 1977.01.06; 동일방직사건수습투쟁위원회가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사건해부식'
- * 1977.04.04; 조합원들이 대회장을 에워싸며 호위한 가운데 대의원대회 개최. 참석대의원 31명 전원의 지지로 이총각 지부장 당선
- * 1977.04.24; 노동청 규탄대회, 동일방직노조가 주최하고 종교단체 등 12개 단체가 후원
- * 1978.02.21; '똥물투척' 사건 발생
- * 1978.03.10; 노동절 행사장 시위, 명동성당에서 단식항의농성
- * 1978.03.23; 명동, 답동성당 단식농성 중단
- * 1978.03.20; 동일방직, 원풍모방, 방림방직, 진로주조, 해태제과 등 노동자 30여명이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이 주최하는 인권강좌 참석 후 같은 건물 9층 기독교방송국에 진입하여, 언론의 무관심에 항의
- * 1978.03.20; 동일방직 사건과 관련하여 교권수호를 위한 기도회 개최, 김수환 추기경 강론 및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평신도협의회에서 성명서 발표
- * 1978.03.24; 회사측, 각서 불응 노동자에 해직통고
- * 1978.03.20; 동일방직노조 동부서에 치안유지병력 파견 요청. 동일방직 노조에서 폭력적인 선거 방해를 예상하고 인천 동부경찰서에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 병력 4-5명을 공문으로 요청.

- * 1978.03.12; 이총각지부장 천주교 사제와 신자들에게 편지 발송
- * 1978.03.26; 여의도광장에서 새벽에 열린 부활절연합예배 중 노동자 6명이 단상을 점거하고 시위 전개. 동일방직, 방림방직, 산업선교 용공비방사건 등에 항의. 노동3권 회복, 박정희정권 퇴진 등 호소. 남영나일론 김현숙, 동일방직 정명자, 삼원섬유 김복자, 방림방직 김정자, 원풍모방 장남수, 남영나일론 진해자, 청계노조 전태삼 등 6명 구속.
- * 1978.04.07; 동일방직을 비롯한 해고근로자들의 부활절(3월26일) 예배사건으로 6명이 구속되자 동일방직사건긴급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채택
- * 1978.04.01; 124명 해고통보
- * 1978.04.26; 해고노동자 65명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회사에서 농성. 이총각, 김인숙 구속
- * 1978.05.16; 해고노동자 5명과 JOC회원 2명 부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섬유노조 김영태 위원장을 비난하는 유인물 배포.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
- * 1978.06.04; 해고노동자(김명자, 김영숙)와 김종국(성남주민교회 청년부), 성남공단에서 동일방직 사건 관계 유인물 살포
- * 1978.07.18; 해고노동자 14명, 회사농성사건 재판 방청 후 회사측 증인들과 시비끝에 연행되어 7명이 구류 20일.(날짜 부정확)
- * 1978.09.22; '동일방직해고근로자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도회' 중 기독교회관에 경찰 난입. 김주호 '박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외침과 관련되어 구속. 여기서 <동일방직 민주노동운동수호투쟁동지회> 결성
- * 1978.09.12; 이총각 등 10명 유죄선고
- * 1978.10.19; 부산에서 동일방직 노동자 선거법위반사건 선거공판에서 방청객들과 경찰 충돌
- * 1979.02.25;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일동이 오후 6시 인천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동일방직 사건 1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주제로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봉쇄로 무산됨.
- * 1980.02.14; 124명 해고 여성근로자 대표 최연봉이 김영태 노총위원장을 서울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 * 1980.04.11; 동일방직해고근로자복직추진위원회, 복직요구 가두시위. 9명 연행. 서경석, 정명자 등 2명 구속
- * 1980.04.25; 해고노동자 28명 노총회관서 복직과 노총위원장 면담요구하며 철야농성
- * 1980.05.09; 동일방직해고근로자복직추진위원회, 근로자의 복직과 재취업을 방해한 김영태 노총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단을 뿌리다 구속된 정명자와 교회사회선교협의회 서경석 총무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 * 1980.05.13; 동일방직 해고자와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김영태 노총위원장과 금속노조 김병룡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농성.
- * 1980.05.17; 한국노총 위원장실 점거농성 강제해산

* 1980.10.28; 동일방직 관련 조화순, 김동완 목사 등 구속. EYC간사 김철기도 구속

배경 :

동일방직(인천 동구 만석동 37번지)은 일제시대 도오요방직(동양방직) 인천공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5대 방직업체인 동양방직이 조선의 연소자나 부녀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 1934년 10월 1일부터 동양방직 조업을 시작했다. 일제시대 사실주의 작가인 강경애의 「인간문제」는 동양방직 노동자들과 인천부두를 배경으로 하여 일제시대 동양방직의 근무조건과 노무관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해방이후 미군정청에 귀속되어 동양방직공사(후에 명칭이 제일방직공사로 바뀜)에 흡수됐다가 1948년 제일방직공사에서 분화돼 동양방직공사로 바꾸었고, 공장장이었던 서정익이 초대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1955년 8월5일 이승만정권의 귀속면방업체 민영화 방침에 따라 이사장 서정익이 동양방직공사를 인수해 동양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66년 1월 회사명을 동일방직주식회사로 변경했다.

동일방직은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더불어 급성장했다. 60년대 후반 수출 순위에서 수위에 들어갔으며, 69년에는 안양공장을 건설하고 서정익이 수출철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박정희의 초기 경제개발계획이 섬유, 고무 등 주로 나이 어린 여성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 집중됐던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동양방직은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의 핵심노조로 1946년 메이데이 집회에 900명이 참가할 정도였으며, 인근 사업장에 파업을 선동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동양방직은 메이데이 집회 참가를 기점으로 노조탄압에 나서는데 메이데이 휴무 대신 5월5일 대체근무를 하라는 것이 발단이였다. 동양방직측은 노동조합이 전평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였다.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을 해고하고, 농성 주동자들을 경찰에 넘기면서 '대한노총 가입을 강권하였다'. 당시 노동자들의 격렬한 항의농성에 전평의 요청으로 미군정청 노동국, 동양방직 그리고 전평이 협상을 하여 합의에 이르렀지만, 회사측이 합의를 파기해 미군정청 노동국 보좌관도 '격분해' 전평 문은종을 대동하여 동양방직 공장에 급행하기도 했다.

어쨌든 1946년도에 대한노총 산하로 들어가 초대위원장에 채경석을 선출한 것을 보면 노조 핵심 간부들을 제거하고 전평을 탈퇴시키기 위한 공작이 그해 곧바로 성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노총이 산업별노조 체계인 한국노총으로 바뀌어 「섬유노조 동일방직지부」로 편제돼 있을 시절, 섬유노조가 69년 전국 18개 면방직업체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때 동일방직 지부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회사측이 '공격적 직장폐쇄¹⁾'를 단행해 섬유노조가 이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한 일이 있는데, 이때 동일방직노조는 방직업체의 사주에 의해 움직였다고 한다.

1) 공격적 직장폐쇄; 직장폐쇄는 노동자가 파업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회사측의 합법적 대항수단이다. 즉 노동자(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때 사용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직장폐쇄를 할 경우 이를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한다.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한편 경기도 고잔 달월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조화순 목사는 “「도시산업선교회(산선)」에서 일하자”는 조지 오글 목사와 조승혁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1966년 11월1일 동일방직에 입사했다. 당시 산선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남성은 1년, 여성은 6개월 이상 공장생활을 해야 한다는 자체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조화순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소설 『상록수』의 채영신을 닮고자 했던 조화순 목사는 농촌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산선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조화순 목사의 완강한 거절에 조승혁 목사가 “사실은 산선에서 일하려면 남자는 1년, 여자는 6개월 이상 공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산선에서 일하기로 했다가도 그 이야기만 하면 모두다 거절한다”고 이야기하자 조화순 목사가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어쨌든 동일방직에 입사하여 초기 공장생활과 상급자의 욕설 등에 매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던 조화순목사는 활발하게 소모임을 조직했으며, 동일방직을 퇴사한 뒤에 본격적으로 산선 실무자로 일하면서도 동일방직을 담당하게 돼 매주 목요일마다 동일방직에 갔다. 꽃꽂이 모임, 한자 모임, 요리 모임 등등 다들 못배워 한이 되었고, 어린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외로웠던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은 소모임에 매우 열성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또 각종 소모임이 활성화되면서 회사 분위기도 좋아져 회사측에서 조화순 목사에게 강연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산선은 이런 소모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취미교실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인간’이며 ‘소중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교육시키는 일도 활발히 진행했다.

비슷한 시기 가톨릭노동청년회(JOC)도 동일방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업을 진행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똥물사건 당시 지부장이었던 이총각은 66년도에 입사하여 67년부터 JOC활동을 했다고 한다. JOC에서 일종의 ‘노동운동가 자격증’과 같은 ‘투사선서’를 이총각이 69년 12월에 받았고, 이어 동일방직 유재길, 김연심, 김민심 등이 투사선서를 받았으며, 서계숙은 투사선서는 안받았으나 JOC활동을 같이 했다고 한다.

1972년 5월10일 동일방직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사측의 지원을 받은 남자후보들을 큰 표차로 물리치고 주길자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전체 대의원 41명중 25명이 주길자 후보를 지지하여 결선투표도 없이 단번에 지부장에 당선된 것이다. 전국 최초로 여성 지부장이 탄생돼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을 알린 것이다.

주길자 지부장이 당선될 당시 전체조합원 1,383명 중 1,214명이 여성들이었지만 지부장은 남자가 맡은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여성이 지부장으로 당선되기 전 이미 내부에서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 주길자 지부장을 선출한 25명의 여성대의원을 선출하는 대의원대회가 있었던 것이다.

조화순 목사에 따르면 당시 회사에서는 여성이 대의원, 혹은 지부장에 출마하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작전을 짠 것이 산선회원들이 서로 짜고 남성을 추천하여 남성후보자 수를 늘려서 회사측이 미는 후보의 표를 분산시키는 전술을 썼다고 한다²⁾.

2) 이같은 전술은 간접선거로 위원장을 뽑거나 80년대 초반 노사협의회를 뽑을 당시 많이 이용했던 전술인 것 같다. 84년 대한마이크로에서도 노사협의회 대표로 여성을 선출할 때 같은 방식으로 남성 후보의 표를 분산시켰다.

내용 :

동일방직은 일반적으로 나체시위 사건과 똥물투척 사건을 중심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른바 나체시위 사건은 자본과 정부 그리고 상급조직인 섬유노조의 노조파괴 공작의 출발 선상에서 나온 노동자들의 저항이었다. “그때부터 정말로 지긋지긋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잔인한 노조파괴 시도와 처절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됐다. 즉 적어도 1972년부터 1976년 2기 이영숙 집행부까지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또한 흔히 ‘똥물투척사건’에 당시 중앙정보부와 회사측 그리고 섬유노조가 함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섬유노조가 이른바 똥물사건 이후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었다.

여기서는 본격적인 탄압이 들어오기 전의 4년동안 노동조합이 어떻게 활동해왔는지에 비중을 두려고 한다. 이 시기의 활동이 어찌면 76년부터 78년 2월까지 ‘끊이지 않는’ 탄압과 파괴공작에도 단결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배경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이다.

아울러 78년 똥물투척이후 이와 관련한 섬유노조의 움직임에 더 비중을 두고 서술한다.

1. 회사 분위기

1300-1400명(그중 2/3가 여성)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던 동일방직은 누구나 부러워하고 입사하고 싶은 회사였다. 동일방직에 입사하기 위해 관리자들에게 ‘뺨’을 쓰는 것은 흔한일이었고 관리자 집에서 식모살이를 자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동일방직 일은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솜공장을 다닐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저긴 대학인가 보다”고 생각했던 동일방직을 입사하고 보니 공장이었다던 최연봉은 입사후 몸무게가 8킬로가 빠졌다고 한다. 다른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동일방직에 처음 입사하여 ‘양성’이 되면 모두다 운반공을 거쳐야 하는데 각 부서 기계마다 수레를 끌고 실을 날라야 하고, 커다란 기계 몇 대를 한 사람이 봐야 하는데 움직임이 빨라야 실이 끊어지지 않게 원활히 작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양성이 되면 아침마다 ‘1분에 140보 걷기’ 연습을 시켰다고 한다. 매일 아침마다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140보 걷기”를 하였고 빨리 걸었다고 칭찬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조장, 반장들한테 욕설은 일상이었고 월급날이 되면 조장, 반장한테 내복 등을 ‘뇌물’로 주기도 했다고 한다. 노조 결성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물’을 줬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현장온도가 높아 ‘온몸에 땀을 짖 빼면서’ 일을 해야 했고, 현장 안에는 100미터 앞이 안보일 정도로 뿌연 솜먼지가 짝 찻는데도 탈의실이 없어 현장에 옷보따리를 싸놓고 일해야 했으며, 목욕시설이 없어 목욕도 못 했다고 한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충청도에서 올라와 자취를 했는데, 방값도 비쌌고 3교대로 일하느라 밥을 해먹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2. 노동조합의 근무조건 개선활동³⁾

여성지부장이 된 이후 ‘조합비만 떼고 그 이전 무엇을 하는지 알수 없던 노동조합’이 180도 달라졌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기숙사, 목욕시설, 탈의실 등이 교섭안건으로 올라갔고 학교가 마지막에 생겼다. 당시 고등학교 설립의 문제는 노조가 요구하기도 했지만, 회사측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굵직한 요구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여성이 아니면 간파하기 어려운 내용이 관철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작업복 재질이었다. 1년에 두 번씩 지급하는 작업복이 광목에 물(염색)만 들인 것이어서 빨래를 한 후에는 반드시 다림질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것이다.

생리휴가를 실질적으로 관철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컸던 것 같다.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조합원에게 “오늘이 그날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면박과 수치심을 주기 일쑤였다. 그런데 한 조합원이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를 던지면서 “오늘이 그날인지 니들이 봐라.”하며 관리자에게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충각은 식사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교섭할 때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와인과 직포는 기계를 세울 수 있어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올 수 있었으나 정방은 기계를 세우면 실이 끊어졌다. 10분만에 식사를 하고 와 교대를 해 줘야 다음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조는 행동으로 개시했다. 기계를 세우고 식사를 하고 왔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식사질 개선, 쉬는 시간 확보, 솜면지를 발아들이는 대형 집진기 설치(온도 조절 기능도 어느 정도 돼 이걸 설치하니깐 좀 덜 더웠다고 한다), 두 번 이상 늦으면 하루 결근으로 치는 것도 폐지시켰다⁴⁾. 또 폐결핵 환자가 많았는데 2-3기가 돼야 쉴 수 있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찍는 X-Ray 결과를 폐결핵 2-3기된 사람들 것은 벽에 붙여놨다. 노조는 이걸 벽에 붙이지 못하게 하고 무급으로 쉬는 폐결핵 환자들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했다.

남녀, 혹은 관리직과 생산직과의 차별은 더욱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남자들은 10시30분, 오후 3시30분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여성들은 쉬는 시간이 없었다. 쉬는 시간이 달라서 지켜지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또 식당에 불이나 새 식당을 짓기 전에 노무과 옆에 천막을 치고 임시식당으로 썼는데 그것조차 칸막이를 하고 1/3은 관리자 식당, 나머지는 생산직 직원들의 식당으로 사용했다. 물론 식단도 차이가 났다. 이런 눈에 띄는 차별을 없애는 것 뿐만 아니라 욕설, 몸수색 등 인권유린 사항도 단호히 배격했다.

3)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에는 주길자 집행부 시절을 자료가 없어 거의 다루질 못하고 이영숙 집행부 초기 과정만 다루고 있다. 거의 전 기간 교섭대표였던 이충각을 비롯해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기록했다. 그러나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4) 6-70년대만 해도 시계가 귀했다.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없는데 3교대 근무였기 때문에 제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라이오로 시간을 알았는데 새벽 6시에 출근하는 조일때 밤새 라이오를 켜놓고 자면 새벽 방송시간에 라디오가 나와 그걸이용해 잠을 깬다고 한다.

이런 활발한 활동이 가능했던 이면에는 산업선교회, JOC, 섬유본조, 그리고 지부의 자체교육 등 활발한 교육과 소모임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무엇보다 이런 교육과정에서 집에 생활비를 보내고 오빠나 남동생 학비를 책임져야 했던 여성조합원들이 관리자들에 욕설을 듣고 일이 힘들어도 ‘팔자려니’ 했다가, 노동자에게도 권리가 있고 똑같은 인간임을 깨닫게 된 것이 큰 힘이 됐다.

고등학교를 합격해 놓고도 가지 못했던 최연봉은 학교를 가기 위해 충청도에서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동일방직에 입사한지 얼마 안 돼 ‘한문을 가르쳐 준다’고 하여 산선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최연봉은 지금도 조화순 목사가 “야 개네들(관리자)도 똥누고 너네도 똥누. 다 먹어야 하고 똥누야 하는 인간이야. 개네들은 뭐 고상하다고 똥도 안누는줄 아냐.”하는 말이 무척 마음에 와닿았다고 한다. “아! 맞아. 재네들도 똥누지.” 산선 회원이라고 하여 엄청나게 시달렸던 최연봉은 관리자한테 불려가 시달릴때마다 ‘야 너도 똥누고 나도 똥누. 다 똑같은 인간이야.’라고 속으로 되뇌었다고 한다.

또하나 이총각은 ‘노사교섭의 힘’은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역량에서 나온다고 하며 이를 위해 “조합원을 끊임없이 교육시켰다”고 한다. 간부들은 조합원들에게 대단히 헌신적인 언니노릇을 했다. 산선과 JOC의 교육뿐만 아니라 고대노동문제연구소, 크리스찬아카데미 등의 교육,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간부들을 보내고 섬유노조 본조로부터도 단체협약, 회의진행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영숙 집행부 시절에는 오후 2시 퇴근조를 30명당 1조씩 편성하여 노조사무실에 빵과 우유를 준비해놓고 두시간씩 ‘노동조합이 뭔지,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법’ 등을 교육했다.

이런 활발한 노조활동에 회사측은 신입사원들을 모아 놓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얼씬도 하지마라” 등의 악선전을 퍼뜨렸는데 한번은 노동자 한 명이 조합사무실 문을 빼꼼히 열고는 “어. 멀쩡하게 생겼네.”라고 말하고 교육을 받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 회사측이 하도 무섭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게 생긴 줄 알았다는 이 신입사원도 후에 열심히 활동하는 조합원이 됐다고 한다.

3. 회계장부 압수와 이영숙, 이총각 연행 그리고 ‘나체시위’

여성지부장이 당선된 이후 조합활동이 활기를 띠자 회사측은 대의원이나 간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과 차별을 가했다.

회사측은 76년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남자조합원들을 이용해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한 공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남성노동자들을 노동조합 파괴공작에 이용한 것이다. 회사측은 76년 2월 대회를 앞둔 대의원선거에 노골적인 개입을 하였는데, 총 47명의 대의원중 21명이 남자로 공개적으로 노조를 반대하거나 회사측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노동조합을 확고하게 지지한 대의원은 23명이었다. 회사는 대의원 매수작전을 펴기로 하고, 4월1일 인천시내 화신여관에서 노무차장 한옥두 등 관리사원 5인이 고두영 등 5명의 대의원을 만나 대의원대회 불참을 지시하고, 다음날에는 아예 대의원들 집을 찾아다니며 돈을 뿌리고 다녔다.

24명이 빠져 결국 대의원대회가 무산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4월23일 대의원대회가 다

시 열려 고두영 등은 이영숙 집행부 불신임을 위해 규약개정을 시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회에서 강성례 대의원이 자신이 집에 없을 때 고두영이 형부한테 주고간 2만원을 내던져 고두영 일파가 황급히 돈을 주워 도망가면서 일단락되었다. 이때부터 동일방직 노조에 본격적인 시련이 찾아왔다.

대리 → 담임 → 반장 → 조장 → 생산라인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는 노조활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대의원이거나 간부활동을 하면 조장들이 화장실가는 시간까지 잤다. 화장실가서 조금 늦게 오면 시말서를 쓰게 했다. 돈뿌린 사실을 폭로한 강성례 등에게 출근정지, 작업변경이 내려졌고, 대의원 정의숙은 야간작업시 잠깐 졸았다고 무기한 출근정지시켰다. <저희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제하에 정의숙 명의로 조합원들과 신문사 등에 발송한 호소문에는 부서 조합원 84명 중 62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가지고 사장집에까지 찾아갔다고 한다.

한편 섬유노조는 제67차 중앙위에서 동일방직 건을 진상조사해 고두영 등을 징계처분 하였으나, 이들은 징계에 불만을 품고 서울지법 인천지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자파 대의원 서명을 받아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경기도지사는 소집권자를 고두영으로 지명하여 7월23일 대의원대회 개최를 명령했다.

다행히 섬유노조 68차 중앙위는 고두영 등 4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을 재확인해 노조는 본조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보고대회를 열기로 하나 회사측의 방해로 무산된 채 7월23일을 맞이했다.

7월23일 오전 동부경찰서가 지부장 이영숙을 연행해간 가운데 고두영 등은 기숙사 강당문을 잠근 채 자파 대의원 24명만을 모아놓고 대의원대회를 시작, 불신임에 관한 정족수 조항을 삭제한다는 결의사항을 보고하고 지부장 불신임을 통과시켰다.

이미 회사측이 기숙사를 못질해 놓은 상태였으나 기숙사 조합원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문을 부수고 나와 200여명이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자 경찰은 지부장을 일단 귀가시켰다가 2시 교대시간이 끝난 후, 다시 이영숙지부장과 이총각 총무를 연행했다.

이때 연행사유는 동부서 형사들이 주길자 집행부시절의 회계장부를 가져다가 거기서 나온 오류를 갖고 두사람을 연행한 것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조합원 간담회 등을 할 때 다과나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뗄 수 없는 경우 다른 곳에서 영수증을 끊어다 쓴 것을 사유로 두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사안이 아니니까 다른 증거를 추가로 가져오라"며 24일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추가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사람이 연행되자 조합원들은 다시 농성을 시작했다. 야간이 되면서 밤10시 출퇴근자가 가세하여 400여명으로 불어났고, 이튿날인 24일에는 농성조합원 수가 800여명으로 불어났다. 농성장에 들어오지 못한 조합원들 300여명은 밖에서 호응했다. 그리고 이날 밤 10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영숙지부장, 이총각 총무 석방 △자율적인 노조활동에 회사측 개입말 것 △7.23 대의원대회 무효 △고두영 물러가라 △한옥두 노무차장 물러가라 등이 요구조건이었다.

이른바 나체시위가 벌어진 7월25일, "시퍼런 옷을 입고 야구방망이 같은 것을 꿈무니

에 찬” 경찰이 출동했다. 23일부터 식사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이 왔다!”는 소리와 함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한 곳으로 모였다. ... 두려움과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우리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한덩어리로 뭉쳐졌다. 그러나 힘이 약한 여자들이 아닌가. 기어이 올것이 왔구나. ‘벗고있는 여자몸엔 경찰 아니라 그 누구도 남자들은 손을 못댄대’ 하는 누군가의 다급한 음성은 서로 앞을 다투어 우리들의 옷을 벗게 했다.” 그러나 간부들은 아무도 스스로 옷을 벗지 않았다고 한다. ‘간부들을 먼저 살려놓고 보자’고 생각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기 전에 옆에 있는 간부들 옷부터 벗겨줬다.

그렇게 농성을 벌이던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주동자만 내놓으라’는 경찰의 이야기에 “우리모두가 주동자입니다”고 답변했다. 결국 회사 간부가 지목해준 대의원들과 완강히 저항하는 조합원들까지 72명이 연행됐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차에 매달리거나 뛰어서 동부서로 향했다.’ 이때부터 78년 2월21일 똥물사건이 일어나 124명 조합원이 해고되기까지 동일방직 노조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저녁에 잠들 때면 아침이 오지 말았으면……”할 정도로 ‘지긋지긋한’ 탄압과 파괴공작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동일방직을 둘러싼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었다. 7월29일 섬유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부산지부장 김영태가 위원장 방순조를 밀어내고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명분은 ‘동일방직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탄압의 강도가 세질수록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더 처절해졌다. 뿐만 아니라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엄혹한 긴급조치 시절에 같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인, 양심적 지식인, 언론인들까지 등 재야세력을 움직였다. 전태일 죽음이후에 다시금 한국사회 민주화운동 세력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섬유본조까지 가세한 그칠줄 모르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77년 대의원 선출에서 집행부 지지세력이 다수를 얻는데 성공하여 4월 4일 대의원대회에서 이충각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4. 똥물투척사건에 정부(중앙정보부)와 섬유노조의 역할

동일방직노조 탄압은 적어도 나체시위가 발생할 때까지는 회사측의 공작이었고, 동부경찰서와 경기도는 지원의 차원에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원’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자본의 관리에 의해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섬유노조 위원장에 김영태가 당선되면서, 그 이전 동일방직 지부 편에서 움직이던 섬유노조가 180도 달라져, 급기야 조직행동대를 동원하여 사태를 주동했다. 그리고 대략 이시점부터 중앙정보부와 경찰 그리고 노동청까지 가세하여 탄압에 나섰던 것으로 보이며, 각종 자료들을 종합할 때 적어도 노동조합을 완전히 꺾 생각을 갖고 있던 똥물사태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와 섬유노조가 긴밀한 합동작전을 폈다.

우선 섬유노조는 김영태 위원장 당선 이후부터 매 사안마다 회사측 대의원인 고두영이나 회사측 편을 들었다. 본조의 동일방직수습대책위 이풍우위원장이 회사측 의도대로 노조가입대상을 계장까지 확대시키려 한 것이나, 본조가 지부와 별도로 조합원교육을 하면서 집행부를 지지했던 간부나 대의원을 ‘반노조’세력으로 만들어간 과정이 그렇다. 이충각의 증언에 따르면 이영숙 집행부가 들어서고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남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질편한 술자리'가 잦아졌다고 한다. 또 반도상사노조 초대위원장 이었던 한순임이 교육을 시켰는데 한순임의 교육은 열성적인 조합원을 돌려놓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즉 민주노조의 위원장이었고 산선에도 가담했던 한순임이 “나도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이 설득력 있었던 것이다. 박복례, 문형순 등은 노동조합 간부까지 했으나 회사편에 섰다. 문형순은 이총각과 지부장 경선에 나섰고, 박복례는 똥물사건에도 핵심적으로 가담했다. 이에 노조측에서는 술집으로 혹은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가담자로 만드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최소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은 막기 위한 것이었다. 동사무소로 가서 회사편에서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의 집주소를 알아내 찾아가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고 한다. “미안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수 없다.” 이총각은 이 남자들 때문에 술을 처음 배웠다고 한다. 이야기하려면 같이 마셔야 하니깐.

동일방직 노조탄압 전 과정과 124명이 해고되기까지 중앙정보부, 경찰, 노동청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정황으로 분명했으나, 공식적으로는 ‘노-노 싸움’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심사가 진행될 당시 상당기간 동안 동일방직 해고자들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가 나서서 탄압했다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었다.

그 상황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서울대 최종길 교수의 동생 최종선이 증언을 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최종선은 똥물투척사건이 있기 직전인 78년초 중앙정보부 경인지부에 노사담당관으로 부임하여 동일방직을 담당했다.

최종선은 2001년 3월19일 민주화운동명예회복위원회 심사과장, 노동문제 전문가 몇명, 그리고 이우정 교수 앞에서 A4용지 약 4쪽 정도 분량의 증언을 했다. 여기에서 98년 똥물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와 섬유노조의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

최종선의 증언록 일부를 인용한다.

“그 자리에서 재차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밝히지 않을 경우 강제구금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자 이 두사람은 그때서야 ‘정말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묻느냐, 위(중정 2국을 지칭)에서 다 알고 있다’면서 체격이 작은 사람은 자신을 ‘전국섬유노조 조직국장 우종환’이라고, 체격이 큰 사람은 자신을 ‘조직행동대장 맹원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뭣하러 왔느냐’는 질문에는 ‘동일방직 노조 깨부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 중략 ... 이들이 말하는 내용의 진위도 확인하고 판단도 세워야 하겠기에 간석동 경기지부 사무실로 돌아와 최모 지부장과 허모 정보과장에게 즉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중략 ... 그런 과정에서 본부 2국(보안정보국) 경제과의 최모 담당관과도 한 두차례 통화했습니다. 본부와 지부 사이에 의견조정이 되지 않자 결국 본부로부터 ‘경기지부는 이 일에 빠지라’는 연락이 왔고 마침내 저는 ‘빠지겠다’는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중앙정보부 경기지부의 노사담당관 의견도 무시하고 중앙정보부 본부와 섬유노조가 합작하여 똥물투척사건을 일으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종선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태의 수습에는 본부 2국이 빠지고 경기도경과 중정 경기지부가 담당했다. 최종선은 이

사태로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을 벌이자 “상황을 장기전으로 끌고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1단계로 단식농성장의 수돗물과 전기를 끊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선은 “농성자들을 전원 해고시키도록 조치했고, 노조는 다시 집회를 열어 박복레 집행부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본부(중정 2국-편집자주)에서 작성하고 관리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똥물투척사건 이후 섬유노조 김영태의 ‘국제적인 은폐작업’

푸른 작업복 여기저기에 똥물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서 있는 두 명의 여성노동자의 사진과 함께 배포된 <가난해도 똥을 먹고 살지는 않았다>는 호소문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줬다. 사진은 동일방직 정문 맞은 편에 있는 사진관 유일영상 주인이 찍은 것이었다. 맞선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 등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평소 사진이 필요할 때 이용했던 이 사진관 주인은 엄혹하던 시절임에도 똥물투척사건이 터지자 ‘사진을 찍어 달라’며 달려온 이충각 지부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호소문을 받아본 세계노동단체는 경악했고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리 밀라노에서 4월7일 국제섬유노련 의장단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국제섬유노련 부의장이자 일본 섬유노련 의장인 우사미는 김영태에게 국제섬유노련 의장단 회의에서 한국의 동일방직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대책을 세우라고 귀뜸해주었다. 김영태 섬유노조 위원장이 밀라노로 가 우사미 회장과 사전에 대책회의를 했다. 이들은 "한국문제를 의제에서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실패할 경우 의장단 회의에 한국 대표를 참석시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때 우사미 회장이 유도질문을 한다"고 협의했으며, 우사미 회장과 김영태 위원장이 사전협의를 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작전까지 짰다.

BBC방송의 보도나 똥물을 뒤집어 쓴 동일노동자들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노동자들이 이렇게 당하도록 섬유노조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의장단의 질문에 김영태 위원장은 "똥물사건은 (노동자들에 의해)날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옷에 묻은 것은 똥물이 아니라 잉크다. 동일방직 작업복 색깔은 똥물의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똥이)묻는다 해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며 사진속의 노동자들이 ‘포즈’까지 취하고 있는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항변하고 섬유노조의 조직행동대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됐다’고 했다. 김영태 위원장의 작전은 성공을 거두어 한국문제는 의제에서 삭제됐고, 한국에 국제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한국섬유노조의 초청형식을 띄웠고 ‘조사단’의 일정도 섬유노조가 짰다. 그 일정에서는 당연히 똥물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도 빠졌다. 그사이 동일방직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개조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124명의 동일방직 해고자 명단을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뿌린 김영태 위원장의 행위는 "섬유노조를 뒤흔들려는 도시산업선교회가 직인까지 위조해 만든 것"으로 둔갑됐다. 이같은 사실은 고 전태일의 동생 전순옥이 영국 유학시절 국제 노동단체의 자료들에 동일방직 똥물투척사건을 놓고 하나같이 ‘똥색작

업복에 잉크가 묻은 것'이라고 돼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자료를 뒤지던 중 섬유노조 내부 보고서를 입수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밀라노 회의에 김영태 위원장과 동행했고 국제섬유노조 조사단 안내를 했던 조한천 당시 섬유노조 국제부장(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2001년 7월 매일노동뉴스 노현기 편집부장과 전화 인터뷰에서 “똥물사건을 축소한 측면이 있다”고 시인하고 “조사단이 방문했을 때에도 (섬유노조는) ‘관계기관’의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동일방직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관련인물 : 조화순, 이충각, 최연봉 등

관련단체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섬유노동조합

관련자료 :

1.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출판사,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엮음.
2. 조화순, 이충각, 최연봉, 윤춘분, 최명희, 김인숙, 석정남, 김용자 등 구술
3. 전 중앙정보부 경기지부 노사담당관 최종선 증언록 및 증언 사진
4. 매일노동뉴스 2001년 7월23일자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
5. 매일노동뉴스 2001년 7월23일자 “똥물사건은 날조됐다...똥색작업복에 잉크가 묻은 것”
6.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출판사, 이옥지 지음
7. 『한국노동조합운동사』 한국노총 지음

관련사건 :

연표 참조

2. 정의구현을 위한 기도회와 김병상 신부 구속 사건

발생일 : 1977년 8월 29일

관련일지 :

- * 1977년 8월 29일 정의구현을 위한 특별기도회
- * 1977년 9월 5일 김병상 신부 석방 기도회
- * 1977년 9월 12일 김병상 신부 구속 항의 단식

배경 :

1976년 3.1명동사건으로 함세웅 신부를 구속한 것에 항의하여 전국적으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의 기도회가 열렸다. 이에 인천에서도 77년 8월 29일 답동성당에서 기도회가 개최되었다.

내용 :

1977년 8월 29일 저녁 7시 30분, 인천교구 주교좌성당인 답동성당에서 인천교구 사제단이 주최하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후원하는 “정의구현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는 전국 각 교구에서 모인 사제 약 80명과 인천은 물론 서울에서도 온 신자 약 2천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강론은 지학순 주교가 맡았는데, “교회의 사명과 쇄신”이라는 제목이었다.

미사 뒤 2부 때는 1976년 3.1명동사건으로 구속된 함세웅 신부의 상고이유서가 낭독되었다. 이날 기도회 때 김병상신부(당시 인천교구 부교구장)는 가톨릭회관에 대형 확산기를 설치해 미사 진행 내용이 시민들에게 전해지도록 했다. 그리고 “유신헌법 철폐”라고 적힌 현수막을 본당 사제관 2층 벽과 가톨릭회관 벽에 각각 내걸었다.(당일 가톨릭회관 벽에 내건 현수막은 아무도 모르는 새 누군가에 의해 뜯겨져 사라졌고, 확산기 하나의 연결선도 잘려졌다.) 또 지학순 주교의 강론과 함세웅 신부의 상고 이유서 <나는 왜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가?>를 담은 유인물 5백장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관계기관은 신자 가정에 반장, 통장, 경찰을 풀어서 이 유인물을 거두어들였다. 각 학교에서는 천주교 신자 명단을 만들어 가방 조사를 통해 유인물을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꾸짖고, 그 후에는 기도회에 참석할 수 없게 밤늦게 집으로 돌려보냈다.

9월 3일 새벽 4시 30분 8월 29일 기도회를 주관한 김병상신부와 황상근신부(당시 도화동천주교회 주임사제)가 연행되었다. 황신부는 그날 저녁 풀려나왔지만, 김신부는 오후 5시쯤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김병상신부가 구속되자 김신부의 석방을 요구하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뒤인 9월 5일 저녁 7시 30분 답동성당에서 사제 약 40명과 신자 약 천2백명이 모여 김병상 신부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의 강론은 오태순신부가 맡았고 구속된 양심수와 김 신부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9월 7일에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김신부(당시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구속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인천교구는 9월 11일부터 김신부가 석방될 때까지 날마다 오후 6시에 답동성당에서 합동 미사를 바치기로 하였다. 9월 12일에는 다시 답동성당에서 김병상신부를 위한 특별 미사가 열렸는데, 이날 기도회에는 인천교구장 나길모주교와 원주교구장 지학순주교, 사제 약 70명, 신자 약 천1백 명이 모여 기도회를 열었다. 나 주교는 이날 기도회에서 “교회는 등불이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강론을 하였다. 이날 기도회가 끝난 후 김신부와 함께 1969년에 서품을 받은 16명의 사제가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이름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천교구 가톨릭회관(답동 소재)에서 1주일 동안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이날 기도회와 관련되어 전주교구 문규현 신부가 22일 아침 8시쯤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다음날 23일 오후 6시에 풀려나기도 하였다. 16일에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도 단식기도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으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단식기도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김병상신부의 구속에 항의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교회의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김 신부는 15일만인 9월 17일 오후 4시 30분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났다.

관련인물 :

인천교구 김병상신부

관련단체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관련자료 :

1. 『암흑 속의 햇불』 제2권,
2.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한국가톨릭인권운동사』, 명동천주교회
3. 인천교구사편찬위 『인천교구사』, 가톨릭출판사
4. 천주교 답동교회 『답동대성당100년사』

3. 인하대 78년 유인물 사건

발생일 : 1978년 11월 14일.

관련일지 :

- * 1978년 9월 28일 1차 인하대 유신헌법철폐 주장 유인물사건
- * 1978년 10월 17일 2차 인하대 유신헌법철폐 주장 유인물사건
- * 1978년 11월 3일 3차 인하대 유신헌법철폐 주장 유인물사건
- * 1978년 11월 14일 4차 인하대 유신철폐 주장 유인물사건

배경 :

유신헌법으로 학내 모든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었으며, 인천에서는 성직자, 노동자, 시민들이 동일방직 사건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었다. 이에 조용호를 비롯한 인하대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학내에 배포했다.

내용 :

인하대 씨클 지성의 회원들이 주도한 유신반대 시위는 1978년 9월23일 조용호(응용물리학과 2), 안영근(행정학과 2)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들 2명은 학교 농구장에서 안철권(법학과 2), 이기영(법학과 2), 승전대학교 김동민(문리과 2)과 함께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기로 했다. 유인물 작성은 조용호와 안영근이 맡기로 하고, 학교 5호관 306호실에서 ‘민주회복에 관한 인하대생의 선언문’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서 초안을 작성했다. 내용은 '헌 정권은 재벌의 꼭두각시가 다 되어 버렸다', '언론 탄압이 극에 달했다', '대통령선거 찬성률 100% 기적의 창조로 참된 민주주의 실현은 뜬 구름이 되어버렸다', '긴급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유신 헌법을 철폐하라'는 것이었다. 등사는 김동민이 27일 주안 동부감리교회에서 약400매정도 하기로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28일 학교에서 각자 구역을 나누어 살포하기로 했다.

당시 주안 동부감리교회는 72학번 박종승이 만든 노동야학이 있었다. 이 야학을 통해 70년대 초반 학번의 인하대 선배와 70년대 후반 후배들이 만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시국에 관해 토론도 벌이곤 하였다.

28일 12시20분경 조용호, 안영근, 안철권, 이기영 등은 1호관, 2호관, 5호관, 7호관 강의실과 복도에 준비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것이 78년 첫번째 인하대 유신철폐 유인물사건이었다.

두번째 사건은 조용호, 김명식(국어학과 2), 곽한왕(국어학과 2) 등이 주동이 되고 김승일(법학과 2 휴학중)이 합류하여 실행되었다. 10월 11일 12시 20분경 인하대 1호관 다방에서 조용호, 김명식, 곽한왕이 만나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살포하기로 결의했다. 12일 곽한왕은 '인하인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 초안을 작성했다. 그 내용은 '괴수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유신체제는 권력 유지를 위한 온갖 악랄한 수단으로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있다. 유신헌법 하에 시행된 대통령 선거는 무효이다. 학원 자율화 보장하라.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주장하기 위해 10월1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거행되는 민중거사에 참여하자'는 것이었다. 13일 김명식이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유신헌법은 일개인의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정치 체제이다. 유신체제를 폐지하고 민주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자'는 내용의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다.

14일 곽한왕과 김명식이 작성한 성명서 초안을 조용호에게 전달했다. 조용호는 김승일에게 인쇄를 의뢰하여, 주안 동부감리교회에서 유인물을 300매 정도 인쇄했다. 준비가 모두 끝나자 유인물 살포는 17일 아침시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당일 오전 8시경 학교 2호관, 4호관, 5호관의 강의실에 유인물이 살포되었다. 이것이 두번째 유신철폐 유인물사건이다.

11월 3일에는 김상우(기계 2), 박성룡(기계 2), 김영한(무역 3), 서병희(가정 2) 등이 유신철폐를 요구하며 유인물을 살포하고 학내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이것이 세 번째 사건이다.

11월13일 조용호, 안영근, 양홍영(기계 2)이 주동하고 김승용(무역 3)이 가세하여 3일 유신철폐 시위로 구속된 김상우외 3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결의했다. 성명서는 조용호가 작성하기로 했다. 조용호는 '내 친구들에게'라는 선언문에서 '얼마 전 전남대 학생이 자유와 진리를 외치다 총 맞아 죽었고, 대구에서 대학생들 만여명이 구속 학생을 구하기 위해 시위를 하였다. 우리의 친구 상우도 학생의 권리를 찾자는 전단으로 철장에 갇히게 되었다. 내 친구를 찾으러, 자유와 조국의 보람된 앞날을 찾으러, 주저 없이 나섭시다.'라는 내용을 쓰고, 김승용에게 500매를 인쇄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벽보용 포스터 '구속 학생 석방하라' 5매도 제작했다. 계획은 14일 학내 2호관, 5호관, 7호관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학생들이 모이면 포스터를 붙이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대규모 유신반대 시위를 벌이는 것이었다.

당일 12시 20분경 조용호는 7호관, 안영근은 5호관, 양홍영은 2호관의 비상벨을 눌렀다. 그러나 비상벨은 작동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모으는데 실패한 그들은 각 강의실에 유인물을 살포하고, 시위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것이 네 번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용호(징역2, 자격정지2년), 김명식(징역1년6월, 집행유예3), 곽한왕(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안영근(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양홍영(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은 학교에서 모두 제적됐다. 같이 행동했던 서병희, 김영환은 제적, 안철권은 무기정학, 김승용, 이기영은 유기정학을 받았다.

관련인물 : 조용호(응물2), 김명식(국어2), 곽한왕(국어2), 안영근(행정2), 양홍영(기계2), 서병희(가정2), 김승용(무역3), 이기영(법학2), 안철권(법학2), 김상우(기계2), 박성룡(기계2), 김영한(무역2)

관련단체 : 인하대 씨클 「지성」

관련자료 :

1.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형사2부 조용호 판결문
2. 1980년 2월6일자 인하대 학보
3. 암흑속의 횃불 제3권.

관련사건

4. 80년 인하대 학생 시위

발생일 : 1980년 5월 7일

관련일지 :

-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저격
- * 1980년 5월 7일 인하대 시국선언문 및 시위
- * 1980년 5월 8일 인하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 낭독 및 시위
- * 1980년 5월 9일 인하대 시국성토대회
- * 1980년 5월 12일 인하대 교수 시국선언문 발표
- * 1980년 5월 15일 인하대, 인천대, 인천교대 연합시위

배경 :

10.26 이후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사회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80년 2월에는 시국관련 제적생들이 학교에 복교하면서 학원과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 대한 요

구가 시작되었다.

내용 :

인하대에서는 80년 2월 시국관련 학생들이 복교하면서 2월18일 학원민주화추진위(가칭)가 결성되었다. 한편 복교생들은 사회과학연구회(곽한왕, 국어2), 한국사회연구회(조용호, 응물2), 아카데미(안영근, 행정2), 기독교학생회(양홍영, 기계2) 등 서클을 조직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복교생들은 2월 28일 각 단과대와 신문사(이병, 경영4) 공동주최로 학원민주화 공청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학도호국단을 폐지 할 것 2) 직선에 의한 총학생회 구성

3)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4) 교수임용제 폐지 및 어용교수 각성.

이후 학내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하고 4.19기념 강연회를 주최하는 등 학내 민주화를 위하여 착실히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5월이 되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학내 시위를 통해 민주화투쟁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5월7일 인하대에서 주최는 총학생회가 하고 실질적으로는 비상대책위에서 주관한 집회가 열렸다. 대운동장에서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국선언 결의문을 통해 '정부주도 개헌중지', '명분없는 계엄령 조속히 해제하고 군부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내 시위를 하던 중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원래 계획은 학내 집회 후 해산하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이다 보니 5백여명의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사대부고 정문을 빠져나가 가두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당시 현장책임자였던 복교생 안영근은 이러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고 학생들과 같이 행동했다. 학생들이 학익동, 독쟁이, 인천교대 앞까지 행진을 하자 경찰도 당황하다가 인천 공설운동장 앞에서 방어선을 치고 진압에 나섰다. 경찰과 대치하던 학생들은 후발대가 합류하면서 학생이 1,500여명으로 늘어나자, 한편은 공설운동장, 제2장로교회, 신흥동, 답동을 거쳐 동인천으로, 또 한편은 도원동, 배다리, 청과물시장을 거쳐 동인천으로 진출하여 연좌시위에 들어갔다. 가두시위 후 학생들은 학교로 재집결하여 부마민주항쟁 희생자에 대한 추모식과 풍자극 및 자유토론회를 벌이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5월8일 오후 1시 10,000여명의 학생이 모였다. 학생들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여 유신잔당을 색출할 것을 애국심과 민족애에 호소했다. 그리고 이들은 계엄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 보장, 계엄철폐, 공화당은 자숙하라, 신민당은 각성하라, 재야 인사 단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내 시위를 전개했다. 이때 후문가에 3대의 군 병력 버스가 도착하여 위협적인 무력시위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동요했으나, 학생 대표가 나아가 군에게 자극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군은 스스로 철수했다. 이후 학생들은 햇불시위 및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5월 9일, 철야 농성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5월 7일 시위 때 연행된 학우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12시경 연행 학생들이 석방되자 3,000여명의 학생들이 이

들을 환영하며 학내 시위를 전개했다.

5월 12일 인하대 교수 130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현재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은 학생들의 순수한 양식의 발로로 생각하며 이를 지지한다, 학원 자유는 보장 되어야한다, 현 시국의 조속한 해결방법은 계엄령 해제뿐이다.

5월 13일 저녁 연세대 학생들이 광화문으로 진출하여 80년 최초로 서울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5월 15일 인하대 학생 3,000명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학익동, 주안, 제물포로 진출했고, 인천대 학생들은 제물포, 송의동으로 진출했다. 학생들은 인천교대생들과 합세해 그 수가 1만여명에 다달았다. 학생들은 한편은 답동에서 동인천으로, 또 한편은 배다리에서 동인천으로 행진을 하면서 '계엄철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동인천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학생들 중 일부는 전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 서울지역의 대학생들과 연합시위를 전개했다. 시위 후 일부는 동국대에서 연합 농성에 들어갔고 또 다른 일부는 학교에서 보내준 버스를 타고 인하대에서 철야농성을 했다.

5월 16일 인하대 학생들도 군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일단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17일 밤 계엄 사령부는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18일에는 한국 근대사의 최대의 비극인 광주항쟁이 시작되었다.

관련인물 : 조용호, 양홍영, 안영근, 곽한왕, 이병

관련단체 :

1. 인하대 총학생회 및 각 단과 대학학생회, 서클연합회
2. 인천대 학생회
3. 인천교대 학생회

관련자료 :

1. 인하대 학보, 1980년 5월.
2. 『우리 강물이되어1』, 경향 신문사

관련사건 :

1. 1980년 8월 10일 이우재, 조용호 등 구속

5. 송도고등학교 동창생 광주항쟁 유인물 살포 사건

발생일 : 1980년 5월 22일

관련일지 : 1980년 5월 22일 ~ 30일 부평, 주안, 광주항쟁 유인물 살포

배경 :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내용 :

80년 서울의 봄 민주화시위에 참가했던 송도고등학교 동창인 이교정(인하공전), 이수하(인하대), 이완규(서울대)는 5.17계엄확대와 더불어 광주항쟁이 시작되자 5월 20일경 함께 모여 광주의 봉기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교정 등 3인은 우선 가까운 동지들을 규합하기로 하고 각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였다.

이교정은 송도고등학교 동창인 김경호(경희대), 남종욱(국민대), 이사준(외국어대) 등에게 연락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동의받았다. 이수하는 이대생 염미연 등과 연락하여 행동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완규는 서울대 동문을 중심으로 협의하였다.

5월 22일경부터 5월 30일까지 이들 3개의 그룹은 인천의 부평, 주안 일대와 각 고등학교 등에 광주항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전두환 일당을 처단하자는 유인물을 만들어 3차례 배포하였다.

3개 그룹들은 광주항쟁이 무산되자 다시 투쟁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대대적인 대자보 홍보 작업을하기로 결정하고, 동인천역 앞에서 답동 방향으로 좌우 거리에 대규모 대자보 작업을 시도하다가 6월 중순경에 현장에서 이교정과 이사준 등이 경찰에 체포되어 조직의 전모가 알려졌다.

당시 이수하는 현장에서 탈출하였고, 이교정, 이완규 등은 경찰에 연행되어 통닭구이 등의 갖은 고문을 당하였다. 이교정과 이완규는 8월초까지 인천 중부경찰서에 억류되어 있다가 안양교도소 군법회의로 송치되었다. 이수하는 인천지역의 다른 조직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다 80년 8월11일경에 체포되었다. 이교정과 이완규는 계엄포고령 10호 위반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9월초에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이수하는 80년 12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이후 이완규와 이수하는 군에 강제징집을 당했고, 이교정은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다.

관련인물 :

이교정, 이완규, 이수하

관련단체 :

관련자료 : 이교정 서술

관련사건 :

6. 이우재 등 광주항쟁 유인물 살포 사건

발생일 : 1980년 8월 10일

관련일지 :

- * 1980년 5월 하순 광주항쟁 유인물 살포
- * 1980년 6월 23일 광주항쟁 유인물 살포 및 국도변 담벽 낙서
- * 1980년 6월 25~27일 광주항쟁 유인물 편지 우송
- * 1980년 7월 14일 광주항쟁 유인물 제물포 주택가 배포
- * 1980년 8월 3일 <민중의소리> 동인천 배포

배경 :

5.17 비상계엄 확대 이후 모든 언론이 통제되어 광주항쟁의 진실이 왜곡되어 알려지고 있었다.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관제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었다. 왜곡된 광주의 진실과 군사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인천 거주 대학생들이 행동에 나섰다.

내용 :

80년 이우재(서울대4)는 5.17 비상계엄 확대 이후 수배 중인 상태에서 5월 23일경부터 인천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도피 생활 중 79년도에 긴급조치로 구속되어 서대문 서울구치소에 있게 된 고등학교 후배 조용호(인하대3)와 조용호의 친구인 양홍영(인하대3)도 80년 5월 시위 관계로 도피 중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부평 삼릉 소재 자취집을 구해주고 가끔 그들 자취방에서 숙식하곤 했다.

그러던 중 이우재가 이들 2명에게 유인물을 만들어 광주 사태에 관한 내용을 인천시민에게 알리자고 제안하였다. 이들 2명은 이에 동의하고 80년 5월 하순 1차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하였다. 조용호, 양홍영은 자취방에서 이우재가 작성한 <4천만 애국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제하의 광주사태 등에 관한 유인물을 16절지 갱지 400매 가량을 등사한 후 부평고등학교 부근 주택가 등의 편지함과 대문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살포했다.

한편 이우재는 6월 중순경 조용호 등과는 별도로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남(서울대의대 본과2)을 만나 광주항쟁과 전두환 군사독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하여 후배들을 동원하여 담벽이나 화장실에 낙서를 하거나, 직접 서신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정남은 낙서의 구호를 “전두환 타도하자”, “계엄령 철폐하라”고 정한 후 대학 후배인 권병기(서울대의대 본과1)에게 이를 제안했다. 당시 인천에는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독서모임인 기러기라는 사회과학 씨클이 있었고, 권병기는 그 팀의 리더였다.

6월20일 권병기(대학 본과1)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제안받은 후,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21일 인천시내에서 거주하는 대학생 모임인 기러기 회원 및 재인회 이건형 등 5명과 시행 방법을 논의했다. 방법과 장소 시행 시기를 결정하자 이들은 이를 후 실행에 옮겼다.

6월 23일 21;00부터 제물포역에서 석바위 사거리까지 국도변의 담벽 등에 약속한 구호

와 “계엄속에 굳혀가는 전두환의 독재조직” 등의 구호를 매직펜으로 낙서했다.

그리고 6월 25~27일까지 “광주시민 70%는 죽어도 좋다. 안보를 독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유류파동을 빙자한 유가인상 단행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착복하였다” 등의 내용을 각자 편지지에 먹지를 대고 여러 장 자필로 작성하고는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주소를 보고 여러 사람에게 편지로 우송하였다.

7월 3일 이우재, 조용호, 양홍영은 자취방에서 인천 선배인 이호웅으로부터 받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명의의 광주항쟁 유인물 <폭도는 누구인가>를 16절지 갱지 400매 가량을 등사한 후 7월 14일 이번에는 제물포역 앞 주택가에 배포했다.

8월 3일 이우재는 조용호, 양홍영, 나중에 동참한 곽한왕(인하대3, 조용호, 양홍영과 함께 인하대 5월 시위로 수배중)과 함께 자취방에서 이호웅으로부터 받은 유인물 <민주소식>에 기초하여 “민주시민과 학생을 내란혐의와 공산당으로 몰아세운다”는 내용으로 된 <민중의 소리>를 8절지 갱지에 신문형식으로 450매 가량 등사하여 인천 중구 인현동 소재 인현빌딩 옥상에서 살포했다.

사건 이후인 8월 10일 양홍영이 도피 자금을 구하기 위해 의정부에 있는 누이에게 찾아갔다가 잠복중인 형사에게 연행됐다. 그 후 이우재, 조용호, 곽한왕, 이정남, 권병기 등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계엄의 부당성과 광주항쟁 소식을 인천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힘이 되었다.

관련인물 :

이우재, 조용호, 양홍영, 곽한왕, 이정남, 권병기, 이호웅

관련단체 :

1. 인천 전철 통학생 독서모임 「기러기」. 「재인회」

관련자료 :

1.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이우재 계엄법위반 판결문.
2. 『암흑속의 햇불』 제5권

관련사건

7. 인하대 서클 청진회(靑進會) 사건

발생일 : 1981년 5월 21일

관련일지 :

* 1981년 5월 17일 인하대 반정부 페인팅사건

* 1981년 5월 21일 인천제일교회 시위 사건

배경 :

1980년 9월 인하대 사회과학서클 청진회는 한국 사회의 모순점을 공부하고, 사회 비리를 민중에게 알리는 행동을하기로 결정했다.

내용 :

1980년 9월 중순 민영수(산업공학 2), 송영수(고분자 공학 2)는 인문,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비공개 씨클을 조직하자고 합의했다.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민영수는 김홍태(토목공학과 1), 홍문표(역사교육학과 1)를, 송영수는 김청유(생물학과 1)를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81년 2월말까지 그들은 경제사관, 서양경제사론, 전환시대의 논리, 자본주의 발전이론, 민중과 지식인, 후진국 경제론, 한국 경제의 후진성 등을 공부하면서 한국사회의 모순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송영수와 민영수는 81년 3월말 신입회원을 더 모집하기로 하였다. 민영수는 이기형(토목과 2), 함문성(전기과 1), 유홍근(경제과 1), 이종길(재료과 1), 박태홍(기계과 1), 이시행(역사과 2), 허찬(경제과 1)을, 송영수는 서주석(기계과 1), 최명순(역사철학과 1), 이동수(경영 1)를 신입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초기 회원 5명은 비공개 씨클의 이름을 '청진회'라 결정하고, 회장에 송영수를 추대했다. 신입생 환영식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송영수는 '젊은 지성인들은 아는 만큼 행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인사말을 한 후 사회과학 서적을 열심히 연구, 토론하자고 제의했다.

청진회 회원들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으면서 빈민촌에는 한국 사회의 모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런 곳에서 직접 모순점을 발견하자고 토론했다. 베트남 전쟁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베트남의 통일을 계기로 약소국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베트남은 패망이 아니라 민족적 통일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동학 혁명을 공부하면서 한국혁명의 시발은 동학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또한 중국 공산주의 혁명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중국과 같이 한국도 사회주의혁명으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고 토론을 했다.

4월말경 청진회 회원들은 1박2일 일정으로 강촌 유원지로 MT를 갔다. MT 첫날에는 의병전쟁이라는 주제로 토론하여 한국의 투쟁의 역사는 동학을 시초로 한 의병운동으로서 빨치산 투쟁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는 게릴라 투쟁이 불가능하다, 다른 길을 모색한다는 토론을 했다. 다음날에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책에 대해 토론하면서 독일의 히틀러 파쇼체제가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현 체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5월 초순경 청진회 회원들은 영종도에서 한국의 지식인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지식인이 사회 모순과 비리를 알았다면 민중에게 알려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이 식민지 수탈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3.1운동은 동학혁명의 기운이 의병투쟁으로 이어지다 3.1운동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오늘날 이러한 민

중민족적차원의 반제반팃쇼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시위를 준비하기로 했다. 민영수, 홍문표, 김홍태, 이동수는 81년 5월17일 인하대학교 1호관 앞 비행기에서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대학내 낙서를 준비했다. 민영수는 낙서문안을 작성하고 백색면장갑을, 홍문표는 면장갑, 스타킹, 드라이버를, 김홍태는 페인트3통(적색2통, 백색1통), 붓2개, 면장갑을, 이동수는 면장갑, 스타킹을 준비했다. 23시50분경 숲속에 은신하고 있던 이들은 수위의 감시를 피해 8호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홍문표와 이동수는 망을 보고, 민영수와 김홍태는 8호관 2층 206호실 강의실 뒷면에 '전두환은 자폭하라', '국풍81 중지하라', '관제언론제도 철폐하라', 바닥에는 '민족 고혈착취자, 섬놈과 양키는 자국으로 꺼져라'고 페인트로 썼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와 좌측벽면에 'YANKEE GO HOME', 우측면에 '전팃쇼 물러가라', '안보논리는 집권유지 자유 박탈의 수단이다', 바닥에는 '우리나라는 질곡에 빠졌다. 전팃쇼 정권 물러가라'고 쓰고 02시부터 04시30분경까지 1호관 입구 좌측 아스팔트 위에 '전팃쇼 정권의 노예가 아니다. 졸업 정원제 폐지하라', 우측 아스팔트 위에는 '60프로 노동자의 보호는 노동삼권에 있다. 노동 삼권 보장하라'고 적었다. 그리고 2호관으로 이동하면서 좌측 아스팔트 위에 '국풍 81 중지하라'고 적색, 백색페인트로 써놓고는 모두 귀가했다.

그러던 중 민영수, 송영수는 5월21일 인천 제일교회에서 열린 제1회 선교대회에 참석한 뒤 제일교회 출신 한태환, 김종은, 문광석, 이민우, 정희운, 강우경, 김재봉, 서광석 등과 함께 21시경 귀가하면서 '노동 삼권 보장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교회 입구에서 인천축현초등학교까지 약 200여명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었다.

그러던 민영수가 조사를 받던 중 페인트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진회 회원들이 연행되었다. 조사 중 민영수는 80년 12월 20일 씨클연합회 사무실에서 학교 소유의 등사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절도죄가 추가됐다.

그리고 같은해 5월 19일 집에서 라디오를 통하여 '전두환 팃쇼도당이 조용하고 평온한 광주 시내에 공수부대를 투하시켜 광주시민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여대생은 칼로 유방을 도려내며 보이는 사람마다 갈기갈기 찢어 목을 벤 다음 총구에 매달고 있다'는 북한방송을 10분간 청취하여 기억하고 있다가 김홍태, 송영수, 백승호에게 말했다는 죄목과 81년 강촌 유원지로 MT가서 우연히 습득한 북한 뼈라 1매를 습득하고 있다가 하숙방에서 함문성에게 뼈라를 보여주며 북한 노동자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는 죄목, 그리고 80년 5월16일 서울역 부근 여관에서 탁상용 라디오로 인하대학교 학생 약 4,000명이 전철을 이용하여 서울로 진입하고 있다는 북한 방송을 5분간 청취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홍문표, 김홍태, 김청유 등에게 이야기 했다는 죄목이 추가되어, 민영수는 국가보안법7조1항이 더 추가되었다.

송영수와 홍문표는 민영수에 들은 이야기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10조 불고지죄가 추가되었다. 이 사건으로 민영수는 징역2년 및 자격정지2년, 송영수는 징역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 홍문표는 징역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김홍태는 장기간 도피 생활을 했다.

관련인물 :

민영수, 송영수, 홍문표, 김홍태, 이동수, 김청유

관련단체 : 인하대 청진회

관련자료 : 수원지법 형사1부 홍문표 판결문

관련사건

8. 인하대 82년 11월 시위

발생일 : 1982년 11월 8일

관련일지 : 1982년 11월8일 인하대 군부독재타도 유인물살포시위

배경 :

내용 :

최진우(조선공학 4), 이우청(역사교육학과 4)은 학내 이념 씨클인 대우회와 인동회에서 활동을 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군부정권을 민주주의를 압살한 정부로 규정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대외 종속의 안보경협으로 민족자결권마저 포기한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정부의 대일 자세가 굴욕적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했다.

10월26일 이우청은 자신의 집에서 최진우와 유인물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안보경협 비판을 중심으로 하고, 원풍모방사건, JOC사건 등 노조탄압사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원풍모방사건은 노조간부 해고, 노조활동 규제 등으로 노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사건이었으며, JOC사건은 노동사목을 담당한 마틴 라우어리 신부와 윤수산나 수녀를 빨갱이라고 허위선전하고 JOC회원을 연행 조사함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가톨릭 정평위는 성명서를 통해 800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은 경고와 응징의 원칙보다는 화해와 사랑의 원칙으로 포용해야 정의로운 민주복지 사회의 이념을 실천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이우청은 유인물 등사를 책임지고, 최진우는 구호를 외칠 때 필요한 핸드마이크와 유인물 제작용지를 준비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11월2일 이우청의 집에서 '행동 할 것인가, 굴복을 할 것인가'의 제목으로 유인물을 최종 작성했다. 유인물 내용은 군부 팃쇼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있다, 안보경협은 매춘행위다, 원풍모방 및 모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우리 일만오천 인하인은 위의 사항이 관찰 될 때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이었다.

11월5일 인천 송림동성당 서해야학 교무실에서 이우청은 이런 내용의 유인물 8절지

400매를 인쇄했다. 6일 12시경 인천 인현동 동인천 부근의 아리아 경양식 집에서 이우청, 최진우는 8일 12시30분을 시위결행 일시로 결정했다.

당일 6호관 3층 난간에서 최진우가 유인물 200매를 살포하면서 핸드마이크로 시위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신호에 맞춰 이우청은 9호관 강의실 입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마침 점심시간으로 2,000여명의 학생들이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6호관 3층 난간에서 최진우는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반민족적인 안보경험을 즉각 중지하라’, ‘원풍노조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언론기본법을 해제하고 모든 언론은 진실을 정확히 보도하라’, ‘구속된 모든 민주인사, 학생,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의 투쟁은 자유와 민주를 위한 투쟁이다’, ‘인하인이여 가자 투쟁의 대열로’, ‘우리 1만5천 인하인은 위의 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을 천명한다’, ‘학원 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우청이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모입시다 학우여’를 외치자 4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어 구호를 외치며 ‘흔들리지 않게’, ‘정의가’, ‘농민가’, ‘오 자유여’, ‘해방가’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교내 시위를 벌였다.

6호관 현장에서 최진우는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학생들에게 동참을 외쳤다. 학생들은 6~7개 그룹으로 50~70명 정도가 교내를 돌며 격렬하게 교내시위를 1시간 20분정도 전개했다. 경찰과 교내에서 대치 중 이우청과 최진우는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최진우는 징역1년, 이우청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관련인물 :

이우청(역사교육 4), 최진우(조선공학 4)

관련단체 :

1. 인하대 이념 서클 대우회
2. 인하대 이념 서클 한사회

관련자료 :

- 1)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 최진우 판결문
- 2) 1982년 11월 인하대 학보

관련사건

9. 사건명 : 인하대 이승만 동상 철거 시위 사건

발생일 : 1983년 10월 6일

관련일지 : 1983년 10월 6일 인하대 이승만 동상 철거 사건

배경 :

이승만이 인하대학교 설립에 아무런 공헌이 없음에도 마치 설립자인양 학교 교정에 동상이 세워져 있어 그것을 철거하여 학교 분위기를 일신하려고 했다.

내용 :

인하대학생 황홍규(인하대 행정4), 이민재(인하대 행정4), 이기선(인하대 화공과4), 윤호영(인하대 철학3) 4명은 83년 9월30일 인천 답동 신포시장 횃집에 모여 시위 시기, 방법, 유인물의 제작 및 동상 철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했다.

그에 따라 윤호영(철학3)은 '우리 조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 가'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는 폭력에 의하여 성립된 비정통적인 정권으로서 그 정당성을 외세에 구걸하고 있으며 소수 재벌과 결탁함으로써 민중을 수탈하고 대규모 금융 부정사건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교과서 왜곡 사건은 독립 기념관 건립 운동으로 추진하고, 민중의 비판적인 의식을 프로 스포츠로 마비시키고, 언론을 통제함시켜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했다.

이기선(화공과4)은 '학원 탄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당국이 사복경찰 학원 투입, 졸업정원제 강행, 학도호국단체도 유지 등 학원 정책을 통해 학원의 자치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유인물을 작성했다.

황홍규(행정4)는 '이승만 동상에 관한 일만오천 인하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승만은 민족 분단을 촉진시켰고, 친일파를 등용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말살하였으며, 독재정치를 자행하고, 하와이 교포와 국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인하대학교의 설립에는 아무런 공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인하대학교의 설립자인 것처럼 동상이 교정에, 그것도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방학 중에 몰래 세워진 것은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서 불법적이고 치욕스러운 것으로 이는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유인물을 작성했다.

10월3일 인천 월미도에 있는 여관에 모여 이민재가 등사원지를 쓰고 황홍규, 이기선이 등사하여, 8절지 갯지 200장에 윤호영, 이기선의 글과 황홍규의 글 200여장을 제작했다. 그리고 시위는 10월6일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개막되어 전두환이 인천에 오고, 학교에서 일부 경기가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온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부터 시위에 필요한 밧줄, 메가폰 2개, 각목, 유인물을 포장하여 각각 나누어 가지고 당일 개별적으로 학교에 도착한 이들은 학교 10호관 지하 화장실에 11시 50분경 집결한 후, 황홍규, 윤호영, 이기선은 각목으로 햇불을 만들고, 그 사이 이민재는 10호관 학회실에 유인물을 돌리고 와서, 12시10분경 각각 햇불을 들고 유인물을 뿌리면서 '민주학생 동참하라', '민주주의 햇불을 들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내를 시위하며 후문가로 행진했다.

12시35분경 이들이 인경호수 앞 이승만 동상에 이르자 150여명이 학생들이 모였다. 황홍규가 '독재의 상징인 저 동상을 끌어 내리자'고 외치자, 윤호영이 동상에 올라가 밧

줄을 동상 팔목에 감아 학생들에게 던져 동상을 끌어내리게 했다. 이때 윤호영은 쓰러지는 동상에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이후 200여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12시50분경 후문가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팻쇼타도’, ‘언론자유 보장하라’, ‘학원사찰 중단하라’, ‘학원 민주화 보장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다. 교문 밖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의 저지에 밀려 학내로 들어온 시위대는 13시10분경 300명 이상으로 학생수가 늘자 다시 후문가로 가두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13시30분경 이민재, 14시30분경 황흥규, 이기선이 경찰에 체포되자 시위 학생이 400명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에 시위대는 전국 체전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축구장에 진입해 17시30분까지 격렬하게 시위했다. 이날의 시위는 학교신문 사회면 구석에 단 3줄로 아무 설명도 없이 기사처리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윤호영은 다리 부상으로 평생 불구가 되었다. 이들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위 중 연행된 다른 4명은 강제입대되었고, 8명은 구류, 4명은 훈방 처리됐다.

관련인물 :

황흥규, 이민재, 이기선, 윤호영

관련단체 :

관련자료 :

1. 1983년 10월 인하대 신문
2. 인천지방법원 윤호영 판결문
2. 암흑속의 햇불 제5권

관련사건

10.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

발생일 : 1983년10월17일 - 1984년

관련일지 :

- * 1983.10.17; 동일방직출신 등 블랙리스트에 의해 해고
- * 1983.12.16; 블랙리스트 해고노동자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실에서 단식 및 철야농성. 경찰이 난입, 농성중인 여성근로자들을 폭행한 후 연행.
- * 1983.12.17;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인천에서도 태평특수섬유 김용자, 김옥섭, 안순애가 블랙리스트를 이유로 해고당하고 삼익가구 서기화, 신도 신정희도 같은 이유로 해

고당하자 인천 가톨릭노동청년회(JOC)가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사건 경위서' 작성 배포.

* 1983.12.19; 농성 중 강제연행된 블랙리스트 해고노동자 모두 석방됨. 이들은 다시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 앞에서 농성. 농성 중 직원들의 구타로 서기화가 다리에 3주 진단의 부상을 당함. 경찰이 다시 해고자들을 연행.

* 1983.12.20; 블랙리스트 해고 철폐 농성 중 부상한 서기화를 경찰이 병원서 연행. 이에 동료 노동자들이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에 모여 단식농성.

* 1983.12.21; 경찰이 김용자, 김옥섭, 김지선, 신정희, 안순애, 서기화 등 6명을 폭행혐의로 구속.

* 1983.12.26; 인천 가톨릭노동청년회 블랙리스트 해고노동자 구속관련 '인천지역 노동자 해고와 구속사건' 경위서 작성 배포.

* 1983.12.27; 블랙리스트 철폐 농성 중 구속된 노동자들의 가족과 동료들이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구속자 석방, 블랙리스트 철폐, 전원복직 등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

* 1984.02.01; 블랙리스트 해고 철폐 농성하다 구속됐던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6명 석방

* 1984.06.20; 블랙리스트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대회

배경 :

블랙리스트는 1978년 4월 섬유노조위원장 김영태에 의해 처음 작성, 전국의 사업장에 배포돼 사회문제가 됐다⁵⁾. 국제섬유노조 의장단 회의에서도 김영태위원장에게 동일방직 똥물사건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대해 추궁했다. 김영태는 블랙리스트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자신의 직인을 위조해 만든 조작문서”라고 답했다. 물론 당시에도 공안당국의 협조없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배포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중앙정보부 경기지부 노사담당관이었던 최종선의 동일방직 관련 증언록에 따르면 “본부(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적혀 있다.⁶⁾

그렇지만 당시 동일방직 노조간부들도 블랙리스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감하지 못했다고 한다.

내용 :

1. 83년 블랙리스트 작성 이전 투쟁과 생활⁷⁾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82년 말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124명 모두가 함께 싸울 수는 없었다. 당장 본인들이 먹고 살아야 했지만 모두들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당장 급한 노동자들부터 취업을 했다. 그러나 78년 9월 경 박청근, 구해금, 박희옥 등이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해고됐

5) 처음 소문으로 듣고 입수작업을 해 한국노총에 있는 사람이 구해줬다고 한다. 김용자는 김금수가 구해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누구인지 확신이 서진 않는다고 한다.

6) 동일방직 사건기록 참조

7)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김용자의 증언을 토대로 함.

다. 블랙리스트로 해고된 사람들과 그 외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은 온갖 살림살이를 모두 다 들고 동일방직 본사로 몰려가 복도에 그 살림을 모두 늘어놓고 복직투쟁을 했다.

“팀으로 짜서 취업하라고 했는데 모두다 해고당했어. 막막해서 짐싸고 서울역앞 동일방직 본사로 가서 복도에 연탄집게, 칼, 도마, 석유곤로, 냄비, 그릇 같은 다 꺼내 놓고 해고자 다섯명하고 최연봉, 나 안순애 이런 사람들이 농성을 했어. ‘너희들이 취업을 막으니 살 집이 없어 여기서 살겠다.’ 몇시간안에 끌려나왔지만.” 그런식으로 누군가 해고될 때마다 함께 대처했다고 한다. 또한 먼저 취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운동 등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먹고 살기위해서 들어간 현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계속 해고되면서 두려움과 막막함 등으로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를 고민하기도 했다고 한다.

82년 동일방직 해고투쟁을 마무리 짓고(그때 이미 빨리 취업한 사람들은 몇 번씩 해고당했다고 한다), 각자 현장에 들어가며 열심히 살자고 격려하며 헤어졌다.

간부들은 대부분 동생이나 언니 주민등록증을 갖고 취업을 했다. 말하자면 ‘위장취업’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그간 투쟁을 하느라 돈한푼 없으니 기숙사가 있는 회사를 찾아서 입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리 등 지방으로까지 갔지만 대부분 석달 안에 해고됐다.

김용자의 경우 가장 많은 해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대농방직, 경한상사, 성수산업, 제물포여객, 선진여객, 향도운수, 삼호염직, 태평특수섬유 등에서 반복된 해고를 겪었다. “계속 해고되니까 정말 막막하고 살기가 힘들더라. 기숙사에서 쫓겨나니까 살 곳도 없지. 돈도 없지. 조목사님⁸⁾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받는 것도 한두번이지. 그래도 갈때가 없으니까 밤에 산선에 가서 혼자 자는거야. 그때는 산선 놓고 하두 빨갱이라고 떠들어댈 때라 밤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깡패들이 밤마다 몰려와서 산선에 돌던지면서 욕하고 그래. 정말 살 맛 안나더라.”

2. 83년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

그 사이 블랙리스트는 계속 확대되었다. 동일방직과 70년대 민주노동자 뿐만아니라 80년대 활동을 시작한 노동자들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반복된 해고를 당했다.

그런 와중에 83년 10월 태평특수섬유서 김용자, 김옥섭이 해고되고 삼익가구에서 서기화가 해고되었다. 이후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던 동일방직 출신 안순애도 태평특수섬유서 해고됐으며 역시 블랙리스트를 이유로 신정희 등도 잇따라 해고되었다.

이에 인천도시산업선교회(산선),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JOC) 관계자와 김용자, 김지선, 김명종, 서기화, 안순애, 김옥섭 등이 노동자 생존도 파괴하고 노동운동 발목을 잡고 있는 블랙리스트를 사회문제로 삼아야 한다며 투쟁을 계획했다. 이들은 당사자들을 1진으로 하고 2진, 3진까지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인천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실에 철야 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들은 경찰이 투입돼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끌려나와 연행되었지만 석방 뒤에 다

8) 조화순 목사를 말함

시 농성에 들어가 김용자, 김옥섭, 김지선, 신정희, 안순애, 서기화 등 6명이 구속되었다. 당시 첫 번째 농성과정에서 서기화와 김명종이 크게 다쳐 입원했는데 서기화는 병원에서 연행돼 구속되었다. 또 1, 2, 3진으로 계획했던 투쟁에서 김지선은 원래 1진이 아니었으나 상황을 보기위해 현장에 있다가 격렬하게 싸움이 붙으니까 같이 항의하다가 구속되었다.

이들의 투쟁은 실제로 블랙리스트를 사회문제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무엇보다 근로감독관실 농성 중에 근로감독관 책상 위에서 또다른 블랙리스트를 발견해 행정당국이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였다. 구속, 석방 이후에도 근 1년간 지속적으로 가족과 함께 각 학교, 집회 등을 찾아다니며 블랙리스트철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종교, 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블랙리스트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하고 집회, 시위가 계속되는 등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국회 대정부 질의⁹⁾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관련인물 :

김용자, 안순애, 서기화, 김지선, 김옥섭, 신정희, 김명종

관련단체 :

1. 인천도시산업선교회
2.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관련자료 :

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진보 3부작』, 문화방송 교양제작국
2. 『한국노동운동사 100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지음
3. <블랙리스트사건의 개요> - 83년 투쟁 당사자들이 작성한 농성사건 개요
4. 전 중앙정보부 경기지부 노사담당관 최종선씨 증언록
5. 김용자 구술

관련사건 :

사건기록 중 동일방직노동조합 투쟁

11. 인하대 김성진 경찰 폭력 사건

발생일 : 1984년 9월 6일

관련일지 :

* 1984년 9월 4일 인하대 전두환 방일반대 성토대회

9) 이때 노동부장관은 “블랙리스트는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답변했다.

* 1984년 9월 21일 김성진 구타사건 학생대책위 결성

배경 :

인하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학자추위)에서 9월 4일부터 3일간 전두환 방일반대성토대회를 개최하였다.

내용 :

인하대 학자추위는 9월 4일 불평등한 한일관계를 알리기 위해 심포지움을 열었다. 심포지움에서는 대일예속성, 한국 내 일본기업의 실태, 일본문화의 침투,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등에 대한 논문 발표 후 토론이 있었다. 심포지움이 끝난 후 학생들은 전두환 방일반대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시위 중 김기현(철학4)등 10여명의 학생이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5일에도 방일반대 성토대회 및 연행 학생석방을 주장하며 후문가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연일 계속되던 시위는 6일 오후11시경에도 후문가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날 시위 중 김성진(복학생, 토목3), 최명순(사학4)이 연행됐다.

한편 복학생 및 2학기 복학 예정자 8명은 4일부터 6일까지 학도호국단 제1회의실에서 전두환 방일반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었다. 농성 중 복학생들은 방일반대를 요구하며 일장기를 소각했다.

연일 계속되는 시위와 복학생의 일장기 소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시위 주동자와 소각 사건 주동자를 찾아내고자 했다. 마침 연행된 김성진은 복학생으로 1982년 군입대 중 충주 오석교회 전도사 장석재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미문화 방화사건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보안사에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자3년을 받은 경력이 있었다. 김성진은 학교 근처 파출소로 연행되어 구타를 당한 후 인천 동부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정보과 형사 최낙영과 최훈철은 상부의 지시로 시위주동자임을 시인하라며 날인을 강요했다. 김성진이 혐의를 부인하자 고문과 폭행을 가했다. 계속되는 고문과 폭행으로 김성진은 '목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었다.

이들은 김성진의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자, 폭행 사실을 감추려고 학교 뒤 당구장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허위 조서를 작성하고 강제로 날인시켰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풀어주었다. 김성진은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동인천 길병원에 입원했고 8주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러한 소식에 분노했다. 김성진과 복학생들은 우선 경찰에서 폭행당한 일을 공신력있는 사람이 증언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러한 소식이 부평1동 호인수 신부에게 연락되었다. 호인수신부는 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로부터 폭행에 의한 부상임을 확인했다. 학생들도 폭행사건에 분노하며 경찰에 항의하고, 13일 검찰에 폭행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폭력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21일 인하대에서는 김성진 구타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학내 시위에 무관심하던 학도호국단 대표도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책위원회에 참

어했다. 학도호국단 대표, 복학생 대표, 학술회 대표, 서클 대표 등 학내 대표들이 모두 학장실에서 모여 대책위 구성 및 경과보고를 갖고 위원장에 박규홍(행정 3), 상임위원에 복학생 대표 안영근(행정 3), 학술회 대표 이광현(불문 3) 등 10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에 항의서를 제출하고, 치료비 모금 활동도 전개했다. 25일 대책위는 학내 집회를 열고 경찰 폭력일지, 경찰서장에게 보내는 글 및 결의문을 채택하고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며 격렬하게 시위를 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투쟁과 인천의 양심적인 인사들의 노력으로 경찰은 결국 폭력사실을 인정하였다. 경찰은 모든 치료비를 지불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했다.

관련인물 : 인하대 김성진(토목3)

관련단체 : 인하대 김성진 구타사건 관련 비상대책위

관련자료 :

인하대 1984년 9월 6일, 13일, 21일, 25일자 학보.

12. 대우자동차 85년도 파업

발생일 : 1985년 4월

관련일지 :

1. 85년 파업 이전 중요일지

- * 1967.09; 신진자동차 노동자 241명이 노조 결성을 시도했으나 주동자 5명 해고됨. 분회장이 회사측에 납치되어 승진발령돼 실패로 끝남.
- * 1969.09; 신진자동차 노조 결성시도, 사전발각돼 주동자 8명 전출돼 노조결성 실패
- * 1971.05.18; 전국금속노조 경기지역지부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분회(분회장 김창수) 결성됨.
- * 1971.06.17; 회사측이 분회장 김창수를 해고하고 경비를 동원하여 내쫓자 조합원들 60명 농성, 김창수 등 6명 구속. 18일 농성해산
- * 1971.06.18; 신진자동차 지부승격 노조대회(회사측 공작), 회사측이 부분회장 강영박 명의로 지부승격 노조대회 개최(비조합원 포함 700여명 참석)
- * 1973.12.15; GMK(대우차 전신) 주 44시간노동 쟁취'

2. 85년 파업일지

- * 1984.11.10; 500-700여명 군복무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
- * 1984.11.12; 노동자 500명 농성
- * 1984.12.23; 군복직자 처우문제를 주도해온 학생출신 송경평 해고
- * 1984.12.26; 대우자동차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 결성

- * 1984.03.02; 대우노조정상화추진위 소식지 7호를 통해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27%), 노조집행부는 16,3%
- * 1984.03.25; 추진위 집행부안을 지지하되 집행부가 요구안 관철에 앞장설 것을 요구
- * 1985.04.09; 점심시간(12시)에 5백여명이 집회를 열고 집행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 이후 일부 부서 파업, 조합원들은 임금교섭위원회에 대의원대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 위원장이 포함시키기로 함.
- * 1985.04.11; 1차 임금교섭(2차 교섭 15일 열기로). 오전 간부합동회의¹⁰⁾ 열고 회사측이 요구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할 것을 결의.
- * 1985.04.16;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조합원 2000여명이 파업농성에 돌입. 기본급 인상 18.7%, 근속수당 신설 등을 요구. 인천지부도 파업.
- * 1985.04.19; 파업3일째, 400여명의 노동자들이 기술센터(3층)를 점거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감. 노조집행부와 대의원 일부 빠져나감.
- * 1985.04.20; 관리직 사원들 지지성명 발표
- * 1985.04.21; 파업 6일째. 가족 20명이 50명분 식사를 가져왔으나 안 넣어줘 실랑이 벌임. 경찰병비 강화됨. 가족 2백명 정문근처서 시위. 청천4거리서 진압경찰과 새벽까지 투석전. 사측 계열사 사원 2천명을 동원하여 파업파괴 기도.
- * 1985.04.22; 출근길 조합원과 지역노동자 1000명 시위 정문돌파 시도. 출고장앞서 판매직과 기술직 사원 3백명 파업반대 농성. 주안역 뒤 인천지역 대학생 가두시위
- * 1985.04.23; 홍영표-김우중 단독협상, 파업을 선동한 혐의로 송경평을 노동쟁의조정법 상의 제3자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 노조집행부 회사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농성장에 합류하려는 조합원들을 막고 “집행부 중심으로 협상 재개하겠다”고 주장. 철야농성장 분위기 격앙됨.
- * 1985.04.24; 홍영표-김우중 단독협상 25일 새벽까지 계속됨. 노조집행부 자신들이 협상 주체라며 농성장과 노사협상장에 나타나 항의
- * 1985.04.25; 새벽 임금인상 12.3%, 품질관리수당, 근속수당 신설 등에 합의. 농성해산. 농성 노동자들 회사 버스로 부평경찰서로 연행됨. 그간 연행됐던 노동자 19명 구류 3-11일 받음. 노동부는 회사측 신분보장 약속과 관계없이 농성관계자를 법대로 처벌하고 회사를 문책하겠다고 발표.
- * 1985.05.04; 파업주동 노동자 5명 구속, 6명 불구속입건(5.13. 5.19 추가 구속 2명), 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농성 노동자 대표 홍영표 등 5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구속. 10월19일 1심 공판이 열려 홍영표, 박재석에게 징역 2년, 유선희 등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상국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노동자 8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됨.
- * 1985.05.13;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사목연구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14개 단체 공동으로 대우자동차 파업에 따른 노동자 구속과 관련하여 '노동악법개정하고 구

10)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은 상집회의, 대의원대회 이외에 간부합동회의가 있다. 간부합동회의는 부평공장의 노조집행부(본조간부)와 부평공장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회의구조로 각 지부까지 포함한 전국의 대의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속 노동자를 석방하라'는 성명서 발표.

배경 :

김우중이 인수하기 전 신진자동차 시절인 71년 5월18일 인천도시산업선교회(산선) 회원인 김창수(분회장)의 주도로 어렵게 노조를 결성한 이후 분회장과 핵심 조합원 해고, 어용지부장 당선 등의 시련이 있었다. 그러나 72년 조합원들이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어용지부장을 밀어내고 이진엽지부장, 이성균 사무장을 선출한¹¹⁾ 후 73년도에 이미 주 44시간노동을 쟁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들은 모두 김우중이 인수한 이후 박정희 정권 말, 전두환 정권 초반부에 다시 빼앗겼다. 노동조합은 70년대의 활기를 잇은 채 계속해서 조합원들로부터 어용이라 지탄받는 인물들이 당선됐다.

80년대 들어 대우그룹과 대우자동차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국내 굴지의 대재벌로 거듭났다. 그러나 당시 어디나 그랬듯이 눈에 띄는 성장에 비해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학생출신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에 다수 입사하고 현장 노동자들 중에도 다수의 노동운동가가 양성된다. 대우자동차 85년 파업은 송경평, 홍영표, 박재석을 비롯한 학생출신 노동자들이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조합원들의 불만을 수렴하여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대중적 항의를 조직하여 신뢰를 얻은 결과였다.

내용 :

84년 하반기 송경평은 '군복무기간 근무인정' 등을 요구하며 군복직자들과 500-700여 명이 사내에서 집회, 시위를 벌이고, 교묘히 상여금을 삭감지급하는 것에 조합원들과 노조사무실에게 항의하는 등 노조집행부의 어용성을 조합원들에게 확인시켜 나갔다. 대의원 홍영표는 이런 현장분위기를 이어 대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두달간에 걸쳐 부평공장에서 …… 싸움과정에서 드러난 현 조합 집행부의 무능력과 반조합적 체질을 개선하는 길은, 오직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통하여 진정 조합원을 위한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뿐"이라며 조합원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할 때는 총사퇴하겠다는 <결의문>을 12월21일 발표하는 등 현장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같은 성과로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직전 "대의원 대표(홍영표)를 교섭대표에 포함시켜라"며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연좌시위를 벌여 관철시켰다. 민주파가 85년 임금인상투쟁의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확보한 셈이다.

이같은 무기 덕분에 대우자동차노조 85년 파업은 어용노조를 제끼고 송경평, 홍영표 등 학생출신 노동자들이 발화부터 마무리까지 공개적으로 주도할 수 있었지만,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체계로 보면 대단히 공식적인 조직의 결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즉 부평공장의 상집간부(본조간부)와 대의원들이 모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위인 '간부합동회의'에서 4월11일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결국 15일 2차 교섭이 결렬된 후 다른 사람이 아닌 김영만 노조위원장이 부평공장 2천명 조합원 앞에서 파업을 선포했다. 또 파업돌입 이후 파업대책위도

11) 이때는 신진자동차를 GM이 인수 회사명칭이 'GM코리아'였다.

간부합동회의에서 구성했다. 물론 노조집행부는 파업중간에 몰래 빠져나갔다.¹²⁾

당시 전국을 뒤흔들었던 대우자동차노동자들의 파업에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부, 인천지역사회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국의 사회운동세력이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또 학생과 지역의 노동자들은 대우자동차 인근 청천동지역, 주인, 부평일대에서 수차례 지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우자동차 파업은 4월25일 새벽 열흘만에 김우중회장과 ‘노동자대표 홍영표’의 단독협상을 통해 타결되었다.

<합의내용>

“1.기본급 8%인상 2.품질관리수당 2% 3. 근속수당 2.1% 신설 3. 6-7월에 기본급의 50% 생산장려금 지급 4. 위험, 유해수당의 신설 고려 5. 기숙사 8월내 신축 6. 사원숙소 건립(본인 20%, 회사 50%, 용자 30% 부담)을 고려하겠다. 파업책임을 묻지 않겠다. 농성자의 신분보장 요구에 회사측이 노력하겠다고 약속.”

그러나 대우자동차 85년 파업은 합의내용 자체보다는 큰 파장이 있었다. 푸른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대표 홍영표’가 평소 감히 고개들고 쳐다볼 수도 없던 ‘재벌총수 김우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섭장을 걸어 나오는 모습이 던진 충격이었다. TV 주요 뉴스마다 방영되고 신문마다 사진으로 실린 장면은 아무리 해도 같을 수 없을 것 같은 노동자와 재벌총수도 ‘동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재벌총수와도 맞대결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관련인물 : 송경평, 홍영표, 박재석, 이용선, 유선희 등 다수

관련단체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관련자료 :

1. 『대우자동차 파업농성』,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자료집
2.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지음
3. 『아름다운 저항』, 작은책출판 방현석
4. 1984년 12월21일자 홍영표 외 대의원 15명 <결의문>
5.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투쟁일지> - 당시 대우자동차 파업주도자들이 적은 일지
6. 그 외 유인물 다수, 신문보도

관련사건 :

13. 안성규 등 기러기 팀 가두시위

12) 굴포천의 지류인 ‘세월천’이라는 대단히 오염된 소하천이 대우자동차 안을 통과해 굴포천으로 합류하는데 김영만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들은 조합원들의 눈을 피하느라 이 하천으로 도망쳐 나왔다는 설이 있다.

발생일 : 1986년 2월 1일

관련일지 : 1986년 2월 1일 부평4공단 유인물살포사건

배경 :

전두환정권을 물리치기 위하여는 노동자가 투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하면서 학생시위도 학내에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공단지역에서 일으켜야 한다는 공단지역 가투론이 인천지역내 대학생들 사이에 보편화하였다.

내용 :

1986년 1월 26일 안성규(한양대4)는 인천에서 같이 독서회(기러기)를 하던 곽성순(서울대4), 김경준(서울대4), 이상훈(연세대3)과 함께 전두환정권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하기로 하고 시위 장소에 대해 고민하던 중 노동자들이 많이 밀집하여 있는 부평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에서 노동문제를 갖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당시 노동자가 투쟁의 주체로 등장할 때만 민주화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선동 차원에서 공단지역 가투시위가 일상화된 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에 27일 현장 답사를 했으나 오후에는 공단지역에 전경들이 배치되어 있어 시위 시간을 전경이 배치되기 전인 아침 출근 시간으로 정했다. 28일 아침에 안성규가 4공단 현장답사를 하고 29일에는 김경준, 이상훈이 다시 현장을 답사하여 아침 공단지역의 상황을 파악했다. 29일 이들 4인은 주안역앞 레스토랑에 모여 시위 시간을 2월1일 아침 7시 30분으로 정하고, 곽성순과 이상훈은 부근 공장굴뚝 위로 올라가서 구호를 외치고, 안성규는 김경준과 같이 시위대를 이끌고 가두로 행진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역할 분담을 정한 후 필요한 자금을 분담하고, 시위 때 쓸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 곽성순 집에 모여 등사기로 유인물을 준비했다. 유인물의 내용은 '일어나라! 천만 노동자여! 군사독재 타도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불황과 경제파탄의 책임은 외세 군사독재정권, 독점재벌에 있다. 군사독재 타도만이 우리 노동자의 살 길이다! 파업투쟁으로 군사독재 타도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시위 때 할 연설 내용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노동자 여러분, 바쁜 출근 시간의 발거움을 멈추고 여기 분노에 찬 함성을 들어 보십시오..... 군사독재 타도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파업투쟁으로 임금인상 실현하자, 기만적 현 정권은 퇴진하고 현 정권은 민중 앞에 참회하라'로 정했다

2월1일 아침 7시30분 4공단 삼화고속버스 정거장에 도착한 이들은 사전에 독서회 기러기에서 동원된 약 3,40명의 학생들이 모이고 출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자 곽성순, 이상훈은 플래카드 1개, 유인물 100여매, 확성기를 소지하고 약 50미터 떨어진 삼송공업주식회사의 담을 넘어 공장 굴뚝에 올라가 '독재타도, 임금인상' 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군부독재 타도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준비한 연설을 했다.

이와 동시에 안성규, 김경준은 그곳에 모여있던 학생 50여명을 선동하여 각목과 화염

병,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미리 준비한 ‘군부독재 타도’, ‘생활임금 쟁취’라고 쓴 플래카드를 든 후 ‘군부독재 타도’, ‘생활임금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중 이들은 부평경찰서 공단파출소에 화염병과 돌을 던져 타격을 가하고, 효성동 사거리까지 약 1km를 진출하며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 4인은 이 시위로 집시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을 살다가 87년 7월 10일 특별사면되었다.

관련인물 :

안성규, 곽성순, 김경준, 이상훈

관련단체 :

인천 대학생 독서회 기러기

관련자료 :

인천지방법원 이상훈 판결문

관련사건 :

14. 5.3인천항쟁

발생일 : 1986년 5월 3일

관련일지 :

1986년 5월 3일 인천시민회관

배경 :

1985년 후반 야당인 신민당에 의해 개헌논의가 시작되었으나 1986년 1월 전두환이 국정 연설에서 임기내 개헌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화세력의 대대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1986년 2월 4일 서울대에 15개 대학 1천여명이 모여 “파쇼헌법 철폐투쟁 및 개헌서명운동 추진본부결성식”을 거행하였고, 1986년 2월 12일에는 제1야당이던 신민당과 김영삼, 김대중씨가 공동의장으로 있던 민주협이 2.12 총선 1주년을 기해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1986년 3월 5일에는 민통련(23개 단체)과 민주인사 303인이 “군사독재 퇴진 촉구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선언했다.

86년 3월 11일 신민당은 개헌추진위원회 각 도별 지부 결성식 겸 개헌 현판식대회를 거행했다. 3월 30일 광주에서는 오후 6시 대회 시작 전에 이미 40만의 인파가 모여 “전두환은 물러가라”,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밤늦게

까지 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5일 대구 대회에서는 경찰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1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신민당 현판식과는 별도로 경북민통련 주최로 “군사독재 타도”, “민주정부 수립”,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대전, 청주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4월 29일 김영삼, 김대중은 학생, 노동자들에게 반미, 용공, 폭력투쟁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는 당시 김세진, 이재호의 분신으로 흥분해 있던 학생들을 크게 자극하였다. 4월 30일 전두환은 청와대 3당 대표회동에서 국회가 합의하면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동을 보고 민주화운동세력은 신민당이 전두환과 야합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신민당 인천 현판식이 5월 3일로 예정되었다.

내용 :

민통련 중앙집행위원회는 신민당의 개헌추진 지부결성대회 및 현판식이 민중의 민주화 열기가 고양되고 국민의 참여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신민당 행사로 외면하지 않고 민통련이 목적하는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달성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5월 3일 인천 집회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므로 많은 군중이 동원되는 대규모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집회에 필요한 준비는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에서 책임지고, 민통련 전체 차원에서 대처한다.
3. 슬로건은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로 한다.
4. 인사련의 준비와 별도로 현장에서 살포할 유인물과 책자 등은 민통련 본부 홍보국장 박계동이 제작, 운반, 배포 책임을 맡는다.

이에 기초하여 인사연은, 의장 이호웅은 민통련 산하 가맹단체와의 연락 유지 및 총지휘를 담당하고, 편집실장 홍성복은 인원동원 및 시위물품 제작을 담당, 집행국장 이우재는 인천대 학생회장 이재영, 인하대 학생 이용주(3년 제적), 이상명(4년) 등을 만나 학생동원 500명이상 책임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시위에 필요한 준비물은 인천 심정동성당 이성득 신부의 도움으로 성당 2층에서 준비하였고, 플랭카드 15개, 민통련 명의 현수막 1개, <인천의 소리> 유인물 10,000매, 스피커 3개, 핸드마이크 등도 준비하였다.

5월 2일 17:00 인천 맥아더동상 앞에서 인사연 의장 이호웅, 민통련 강원도지부 간사 최윤, 경북지부 간사 권오국, 민불련 간부 서동석,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 홍보부장 신영일,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이광철, 부산민주시민협의회 간부 이호철, 충남민주화운동협의회 간부 이준,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재수 등 실무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고잔 성당으로 이동하여 5월 3일까지 주안1동 성당에 모든 시위용품을 운반한 후 동원된 인원을 12:00에 집결시켜 14:00 인천시민회관 네거리를 확보한 뒤

시위를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현장 지휘 및 상황판단은 인사연의 이호웅 및 민통련의 조춘구가 담당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우재로부터 인천의 노동운동조직과 접촉하여 연합시위를 준비했으나, 노동자 조직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인기노련),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등은 독자적으로 “삼반정권타도 및 삼민헌법쟁취 실천대회”를 당일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상황보고를 들었다.

5월 3일 신민당 대회 시작 2시간전인 12시경 주안역 광장에서 인노련, 서노련, 기노련 중심의 시위대가 주안시민회관 사거리로 행진하면서 “일천만 노동자 요구에 등 돌리는 신민당 개헌 생색말라”, “노동자 농민 피땀 짜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노동자가 주인되는 삼민헌법 쟁취하자” 등의 구호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처음으로 시위를 시작하였다. 인천시민회관 주변 시가지에도 학생, 노동자 등 2000여명이 합세하여 스크럼을 짜고 “독재정권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 수립하자”, “속지말자 신민당 몰아내자 양키놈”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미일 외세 물러가라”, “민주정권 수립하자” 등을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면서 경찰과 격렬히 대치했다. 12시 30분경 주안1동 성당 앞에서 이우재, 홍성복, 이호웅 등 인사연 실무자들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라는 현수막을 선두에 세우고 50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리어커에 설치된 마이크로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회관으로 진출했다. 주안사거리에서 시민회관으로 행진하던 자민투는 4월 28일 “반전반핵 양키고흠, 미제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김세진, 이재호에 자극받아 “미제국주의와 전두환은 즉각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시민회관에서 신기촌 방면에서는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회원들이 집결하여 민민학련 중앙집회를 열었다. 각각의 시위대들이 합세하여 4000여명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군중들이 “인천을 해방구로”, “해방인천만세”, “천만노동자 해방투쟁 승리 만세”, “철천지 원수 미제와 그 앞잡이 깡패적 반동정권의 심장부에 해방의 칼을 꽂자” 등의 유인물을 살포하였고 시민회관 사거리가 완전 시위대에 점거되었다.

이때 나온 각 단체의 유인물 중 노동자 분야는

1. 「인천지역노동자동맹」 명의의 <삼반정권 타도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2. 「5.3노동자투쟁위원회」 명의의 <미국의 사주에 의한 개헌 술책을 폭로한다>
3.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명의의 <삼반정권 타도하고 해방된 민중 세상을 건설하자>

학생 분야는

1. 「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합」 명의의 <신민당 이시여! 민정당의원 먹살만 잡지 말고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군사파쇼 정권 타도의 대열에 동참하자>
2. 「서울대학교총학생회」 명의의 <애국 시민 여러분께>
3.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명의의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 창립에 부쳐>
4. 「민족해방과 민주쟁취를 위한 기독교학생투쟁위원회」 명의의 <민주, 애국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5. 「감리교신학대학원 학사원우회」 명의의 <현 시국을 보는 우리의 입장>

6. 「인천민주학생일동」 명의의 <군부파쇼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 수립하자>

재야 분야는

1.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명의의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2.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명의의 <특보, 파도처럼 밀려오는 민주화의 물결! 단결! 투쟁! 끝내 이기리라!>와 <인천시민과 더불어>

노동자, 학생 연합 분야는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 과 「반제반파쇼노동자투쟁위원회」,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명의의 <전국의 일천만 노동자여! 미제국주의 축출과 예속 군부정권 타도의 하나된 것으로 총 집결하자>와 <광주학살 5적 처단 투쟁 선언문>, < 광주학살원흉 군부파쇼, 미제국주의처단 및 헌법제정민중회의 쟁취를 위한 범국민실천대회에 부쳐>

기타 정체 불명의 <미제와 그 쫓만이를 이롭게하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수자!> 등이 있었다.

13시 30분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민통련 사무처장 조춘구, 민통련 정책연구실장 장기표, 민중불교운동연합 여익구, 민통련 인권위원장 곽태영, 광주사태 관련자 정동년, 인사연 이호웅, 이우재, 홍성복 등이 “민주화촉진 시민대회”를 시작하자고 결의하였다. 이어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에서 준비한 사물놀이패가 부근의 군중을 집결시키고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하였다. 이 집회에서 이호웅은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반독재 민주화 인천시민대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개회사를 한 뒤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낭독했다. 정동년은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장기표는 “오늘은 인천시민들이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민중항쟁에 결정적 계기를 이루는 날이다. 이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지에서 타오른 민주화의 불길이 오늘 인천에서 회오리로 치솟았으니 인천 시민들이여! 총 쫓기하자”고 연설을 하고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독재정권 지원하는 미국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안희대는 “오늘 성스러운 민중대회를 군부독재가 민중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제전으로 삼자”는 취지의 연설과 “재벌만 살찌우는 군사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익구는 “외세의 문화왜곡으로 종교조차 배부른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죽은 종교를 민중의 삶 속에 재현키 위하여 민중 속에서 투쟁하겠다”는 연설과 구호를 외쳤다. 신영일은 “광주의 피로 붉게 물든 군사독재 타도하자”는 취지의 연설과 구호를 외쳤다.

한편 시민회관 앞에서 모여 있던 2,000여명의 시민, 학생들은 시민회관에 입장하려는 신민당 이민우 총재, 김영삼 고문 등에게 “신민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로막아 신민당의 개헌추진대회 자체를 무산시켰다.

같은 시각 신기촌 방면에서는 민민투와 민민학련이 집회를 열고 “지금부터 우리의 적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을 선포한다”고 하고 민주정의당 인천 제1지구당사에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 시민회관 앞에 세워져 있던 신민당 소유 레코드 승용차에 불을 놓아

경찰을 향해 밀어 붙였다.

14시 30분경 주안초등학교 앞에서 200여명의 시민, 학생이 경찰의 접근을 막기 위해 대형 철제 버스 안내판 1개와 공중전화 박스 1개를 밀어 넘어뜨려 방어선을 구축했다. 시민회관 동쪽 차도 주안역 방향에서는 “미일 외세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성조기를 불태웠다.

15:45경 2,000여명의 시위대가 진입하는 경찰 가스차 1대를 포위한 뒤 무장해제시켰다. 16:30경에는 경찰 타이탄 트럭 1대를 빼앗아 적재한 최류탄 475발을 꺼낸 뒤 적재함에 불을 붙이고 방어선을 만들었다.

17:30경 이제까지 시위를 방관하며 방어에만 치중하던 경찰이 최류탄을 무차별 발사하고 곤봉을 휘둘러대며 닥치는 대로 학생과 시민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때 연행된 수가 324명이었다.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민통련 회원, 시민, 학생, 노동자 등은 석바위, 주안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치했고 일부는 주안역 철로를 지나 제물포로 이동하면서 계속 시위를 하였다. 20:20경에는 경찰에 밀리던 시위대가 남구 도화동 도화초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교통초소 및 인천 동부경찰서 형사기동대 봉고 차량 1대를 전소시키면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후 이날 인천 시내 몇몇 군데에서 기습 시위가 일어나긴 했으나 더 이상의 특별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전두환 정권은 이 사태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여 민주세력을 좌경폭력세력으로 몰아갔다. 5월 3일 저녁부터 KBS를 비롯한 어용 방송들이 5.3시위를 좌경용공세력에 의한 체제전복 기도로 규정했다. 그리고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불어 닥쳤다.

전두환정권은 5.3시위에 대하여 형법 115조 소요죄를 적용 129명을 구속하고 60여명을 지명 수배했다. 수배자 중에는 민통련 관계자 장기표, 박계동, 안희대, 인사연 관계자 이호웅, 이우재, 인노련의 양승조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정권은 고문도 서슴치 않았다. 서노련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군 보안사에 연행되어 잔혹한 고문을 받았다. 인하대 이용주(3년 제적), 이상명(4년)은 고문에 견디지 못해 인천 민정당 지구당사를 자신들이 방화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박종문(인하대4)은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이상명, 이용주가 방화범이라고 진술했다. 한휘석(서울대2)은 전경 내무반에서 2박3일 동안 구타와 물고문 그리고 전자봉으로 몸을 지지는 고문을 당했다. 여학생의 경우 눕히고 가슴 위에 올라가 입을 반창고로 막은 채 불 붙인 담배 2개를 코에 꽂고는 심한 욕설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자극, 환멸감에 빠져 모든 것을 답변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런 고문 끝에 마침내 6월 6일과 7일 5.3 수배자 수사 과정에서 서울대 권인숙을 발가벗겨 성고문하는 만행이 저질러졌다.

수배자의 가족들도 고통을 당했다. 이호웅(인사연 의장) 경우 집과 직장에 서너 명씩 잠복근무하고, 부인을 미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가, 처가 친척집에 사흘에 한 번꼴로 찾아가 딸을 이혼시키라는 폭언도 서슴치 않았다. 박계동(민통련 조직국장)의 경우 아파트 옥상에서 가족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였고, 처이모의 집을 망원경으로 감시하여

가족들이 노이로제에 걸렸다. 부인과 처제의 직장으로 찾아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공갈, 협박도 했다. 조춘구(민통련 사무차장)의 경우는 한밤중에 들어닥쳐 세든 사람까지 깨워 가택수색을 하였다. 이우재(인사련 집행국장)의 경우 옆집에 2명의 수사관이 세들어 살면서 감시하고 부인의 친구들과 직장의 직원들을 모두 신원조회하여 불안에 떨게 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민주화 열기에 밀려 수세에 몰린 정국을 5.3인천항쟁을 계기로 일거에 반전시키고자 획책했고 5.3인천항쟁을 이용하여 민주화운동세력을 송두리째 뿌리뽑으려 들었다. 전두환정권의 이러한 전면적인 탄압은 신민당과 재야의 공조관계 분쇄에 그 목적이 있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신민당을 타협 지향적이고 온건화시키는 효과를,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운동진영을 소수과격분자로 낙인찍으며 고립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노렸던 것이다.

관련인물 :

장기표, 이호웅, 이우재 외 구속자 129명, 수배 60명.

관련단체 :

1. 인사연
2. 민통련과 그 산하 단체.
3. 인노련, 기노련, 인기노련, 청피, 자민투, 민민투, 민민학련,

관련자료 :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다시보는 5.3인천항쟁>
2. 조선일보 1986년 5월 4일, 6일자
3.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 <이우재 판결문>
4. 5.3항쟁관련 <구속자 소식>, 1986년
5. 인노련, 인기노련, 기노련, 청피, 서노련 등이 발행한 성명서, 유인물
6. 민통련이 발행한 유인물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7. 민민투, 자민투 발행 유인물
8. 민통련 수배자 일동 <수배자 가족들에 대한 가공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9. 인사연 기관지 <인천의소리> 1986년 4월 30일자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5.3항쟁 인천 유인물 분석>
11. 5.3 인천시위 구속자 가족일동 <5.3인천 시위 구속자 가족의 호소문>

관련사건 : 1986년 6월 부천서 성고문 사건

15.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발생일 : 1986년 6월 4일

관련일지 :

1. 5.3인천항쟁
2. 1986년 7월 7일 가톨릭인천교구청년회, 대학생회, JOC,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인사연 등 인천지역 5개단체 '고문, 폭력정권타도를 위한 인천지역 민중투쟁대회'
3. 1986년 7월 30일 인천정의구현사제단 '성고문추방과 인권회복을 위한 미사'
4. 연표 참조

배경 :

5.3인천항쟁 이후 검찰은 수사 발표에서 '이 사건은 학원의 급진 좌경분자와 재야의 일부 과격 세력이 신민당의 개헌추진 인천, 경기지부 결성대회일을 현 체제전복을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날로 정하고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 아래 격렬한 폭력시위를 감행하여 치안 기능을 마비시킨 후 이를 이용 소위 민중 봉기를 유발하려 했던 사건'으로 규정했다. 발표 후 군사정권은 모든 검, 경 수사력을 동원하여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내용 :

권인숙(서울대 가정대4 제적)은 5월 28일 부천소재 (주)성신에 여공원으로 입사한 후 6월 4일 주민의 신고로 영문도 모르는 채 자신의 자취방에서 밤 9시경 부천서로 연행됐다. 5일 새벽 3시경까지 권인숙은 공문서(주민등록증)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양승조 등 인천 수배자들 중 지면관계가 있거나 소재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조사받았다. 아침 9시경 1층 수사계에 다시 끌려가 오후 6시경까지 공문서 위조와 수배자에 관한 조사를 받고 보호실에서 잠을 잤다.

6일 새벽 4시경 누군가가 권인숙을 상황실로 데려갔다. 서장 옥봉환은 권양을 보더니 '권양이 수사에 협조를 안하는군' 하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 서장이 밖으로 나간 후 상황실장은 권양이 너무 말을 안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온 사람들(5.3사태 수배자)과 한 팀이 아니냐고 하면서 형사 문귀동에게 자네가 맡아서 해 보게 하면서 수사를 지시했다.

문귀동은 권양을 1층 수사계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 새벽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1차 성고문을 했다.

우선 문귀동은 권양에게 네 죄는 정책변화로 풀려날 죄도 아니고 하니 수배자 중에서 아는 사람을 불러라, 불기만 하면 훈방하겠다고 강요했다. 권양이 끝내 모른다고 하자 문귀동은 '이년 안되겠군'하며 '나는 5.3사태때 여자만 다뤘다. 그때 들어온 년들은 모두 아랫도리를 발가벗겨서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다 불더라, 네 몸에 봉이 들어가면 안 불겠느냐'고 하면서 협박을 했다. 권양이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으니까 문귀동은 권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다. 권양이 상의 겹옷과 남방만을 벗고 티와 브래지어 및 바지를 입은 채로 있자 문귀동은 다른 형사1명을 불러 옆에 서 있게 한 후 스스로 권

양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풀어 밑으로 내리면서 ‘너 처녀냐, 자위행위 해 본적 있느냐?’고 묻고 브레지어를 들추어 밀어 올리면서 젖가슴 생김으로 보니 처녀 가슴 같지가 않다고 하는 수작을 하면서 곧이어 살려달라는 권양의 애원을 뿌리치고 권양의 바지를 벗겨 내렸다.

이에 권양이 극도의 굴요감과 수치심으로 공포를 이기지 못하여 엉겁결에 한 친구의 이름을 대자 문귀동은 그 친구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적으라고 요구했다. 권양이 친구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하자 문귀동은 옆에 있던 형사에게 고춧가루 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권양에게 책상위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기어이 자궁에 봉을 집어넣어야 말하겠느냐’라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권양이 친구의 자취하던 집의 위치를 적어 넣자 문귀동은 그 제서야 일단 수확을 거두었다는 듯 조사를 중단하고 권양의 바지 지퍼를 올리게 했다. 그러면서 다시 ‘진짜 처녀냐?’고 물었다.

뒤이어 대공과 형사들이 권양에게 수배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친구가 수배자들 중의 하나가 아닌지 확인하였다. 그 후 권양은 보호실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잤다.

6월 7일 아침7시경 문귀동은 다시 권양을 데리고 가서 ‘너 양승조 안다고 그랬지’라고 물으면서 더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라고 몇 번 다구치더니 보호실로 돌려보냈다.

아침 9시경 권양은 1층 수사과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상황실장, 정오도 경사, 문귀동 등 형사들이 모였다. 그들은 권양이 일러 준대로 친구의 자취하던 집을 방문해 보니 그런 사람이 자취한 일이 없더라고 하면서 집 주인과 대질시켰다. 대질신문 결과 거짓으로 판단되자 경사 정오도가 권양을 한 대 후려쳤고 상황실장은 권양에게 ‘앞으로 이제까지 대우한 것과 달라질테니 있다가 오늘 저녁에 두고 보라’고 협박했다. 옆에 있던 문귀동에게 ‘저녁때 그런 방법으로 조사해’라고 지시했다. 문귀동은 보호실로 데려가면서 ‘네가 이제까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니 그냥 안 두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날 낮 내내 권양은 보호실에서 대기하면서 불안과 초조에 떨었고 한시바삐 검찰청으로 송치되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밤9시 문귀동이 다시 권양을 1층 수사과 조사실로 불렀다. 당시 수사과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였고 청내는 모두 불이 꺼진 상태였다. 다만 건물 바깥에 있는 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방안에 물체를 어렵듯이 식별할 정도였다.

문귀동은 토요일 밤에 퇴근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척 화가 나 있었다. 문귀동은 권양에게 ‘독한년’ 이라 하면서 ‘남들은 다 퇴근했는데 네년 때문에 한밤 중에 또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위에서 ‘그년 악질이니 죽치라고 했다’라고 겁을 주고 다른 형사 2명을 불러 권양의 양 손을 뒤로 돌려 뒤수갑을 채우고 그 자세로 무릎을 꿇렸다. 안쪽다리에 각목을 끼워 넣고 넓적다리와 허리부위 등을 계속 짓밟고 때리면서 권양에게 친구의 본명과 출신학교, 사는집 등을 불도록 요구했다. 이 고문으로 권양은 넓적다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툭툭 부었다. 권양이 고통과 공포를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자 문귀동은 ‘이년이 어디서 소리를 껍껍 지르느냐, 소리 지르면 죽어버리겠다. 너 같은 년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욕박질렀다.

권양이 계속 친구와 수배자들을 모른다고 하자 옆에 있던 형사에게 고문 도구를 가져

오라고 소리쳤다. 형사가 검은색 가방을 가져오자 인천노동운동연합 소속 수배자 20명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편철되어 있는 서류철을 꺼내어 한 장씩 넘기면서 아는 사람을 대라고 다구쳤다. 권양이 계속 모른다고 하자 문귀동은 '이년 안되겠다'고 하면서 다른 형사들을 내 보냈다. 그리고 문귀동은 권양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2차 성고문을 자행했다.

방안에는 계속 불이 꺼져있었고 권양은 계속 뒤수갑을 찬 채로 문귀동과 단 둘이 약2평 정도의 방안에 남아 있었으며 주위에서도 전혀 인기척을 느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문귀동은 권양에게 아버지가 뭘 하느냐고 물어보자 권양은 거짓으로 식당에서 일한다고 대답했다. 문귀동은 비시시 웃더니 '간첩도 고문하면 다 부는데 네년이 독하면 얼마나 독하냐'며 권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였다.

권양이 웃웃만 벗자 문귀동은 권양의 브레지어를 위로 들어 올리고 바지를 풀러 지퍼를 내리더니 권양의 국부에 손을 집어넣었다. 권양이 비명을 지르자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욕박질렀다. 권양의 팬티마저도 벗겨버리고 의자 두 개를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놓고 권양을 한쪽 의자 위에 수갑찬 손을 의자 뒤로 돌린 상태에서 앉게 하고 문귀동 자신은 맞은편 의자를 바짝 끌어당겨 그 위에 앉아 권양의 몸과 밀착된 자세를 취한 다음 계속 수배자의 소재를 볼 것을 강요했다.

권양이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하였으나 문귀동은 들은척 않고 '너 같은년 하나 여기서 죽어도 아무일 없다'고 협박하였다. 이때부터 문귀동은 수시로 권양의 젖가슴을 주무르고 만지며 권양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벼대었다.

그 후 문귀동은 권양을 일으켜 세워 바지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윗도리 브레지어를 밀어 올려 젖가슴을 알몸으로 드러나게 해놓은 상태에서 뒤수갑을 찬 채로 앞에 놓인 책상 위에 엮드리게 한 후 자신의 아랫도리를 벗고 권양의 뒤쪽에 붙어서서 자신의 성기를 권양의 국부에 갖다 대었다, 떼었다 하기를 몇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때 권양이 절망적인 공포와 경악과 굴욕감으로 인하여 거의 실신 상태에 들어가자 문귀동은 권양을 다시 의자위에 앉히더니 담배에 불을 붙여 강제로 몇모금을 빨게하였다. 잠시후 문귀동은 권양을 의자 밑으로 난폭하게 끌어내려 바닥에 꿇게 하고 앉힌 후 자신은 의자에 앉아 권양이 자신의 성기를 정면으로 보도록 하는 자세로 조사를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문귀동은 권양의 얼굴을 앞으로 잡아 댕겨 입이 자신의 성기에 닿도록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으려 하다가 권양이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까 난폭하게 권양의 몸을 일으켜 세운 후 강제로 몇차례 키스를 시도하였다.

권양이 입을 벌리지 않고 계속 고개를 돌리니까 문귀동은 입을 권양의 왼쪽 젖가슴으로 가져가더니 유두를 세차게 빨기를 두어 차례 걸쳐 하였다. 그후 문귀동은 다시 권양을 책상 위에 먼저번과 같은 자세로 엮드리게 해 놓고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권양의 국부에 몇차례 갖다 대었다 떼었다하는 짐승과 같은 동작을 반복하던 끝에 크리넥스 휴지를 꺼내 그것으로 권양의 국부를 닦아내고 옷을 입혔다. 이때가 밤 11경이었다.

위와 같은 짐승과 같은 동작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문귀동은 집요하게 권양에게 아는 수배자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하였고 권양이 비명을 지르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욕박질

렸다. 또한 문귀동은 중간 중간에 권양을 쉬게 하면서 억지로 불붙인 담배를 입속에 강제로 밀어 넣고 물을 마시게하는 고문을 자행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갖은 협박을 하면서 수배자에 관한 추궁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악랄한 고문 고통을 이기지 못한 권양은 자신의 집을 찾아왔던 어느 여성 한 사람의 이름과 다니던 회사이름을 말했다. 만행을 저지른 문귀동은 권양에게 호헌하기를 '네가 당한 일을 검사 앞에 나가서 말을 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 검사나 우리는 한 통속이다'라고 하였다. 문귀동은 기진맥진해 있는 권양을 보호실로 데리고 가서 소지품을 챙기고 유치장으로 끌고갔다. 이때 이미 권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유치장에 입감 될 때는 몸수색을 위하여 속옷을 벗게 하는 것이 상례인데 문귀동은 여교도관을 부르더니 '내가 다 봤으니 몸 검사는 필요 없다, 독방을 주어라'고 지시하고 돌아갔다.

그후 권양은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유치장에서 열흘간 보냈는데 한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먹으면 계속 체했으며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또한 몇차례 자살 충동이 왔지만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로 가까스로 자살 충동을 이겨내었다.

6월16일 권양은 인천 지검에 송치되고 인천 학익동 소재 교도소로 옮겨졌다. 권양은 교도소 수감 후 동료 수감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권양의 소식이 교도소내 수감자들에게 알려지면서 교도소 양심수 70명은 문귀동의 구속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교도소측은 단식을 이유로 면회를 불허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 양심수 어머니들이 면회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하자 부분적으로 면회가 이루어졌다. 양심수 재소자들은 면회온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교도소 담장을 넘어 알려졌다. 양심수 어머니들은 즉각 인천 정평위에 사실 확인 요구를 했다. 인천 정평위는 서울에 확인 요청을 했다. 조영래 변호사가 인천으로 내려와 권인숙을 면회하고 증언을 들으면서 사실임을 확인했다.

인천 카톨릭 청년회는 우선 부천서와 문귀동과 그의 집에 항의전화를 했다. 문귀동 부인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항의를 했지만 계속되는 사람들 전화에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았다. 부천서에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전화 추적을 통해 통화자를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

7월2일 5.3인천항쟁 구속자 가족 40명은 부천서로 찾아가 문귀동 형사 구속과 서장 옥봉환 사퇴 및 구속을 요구하며 항의농성과 시위를 했다. 이 시위로 배영미씨가 구속되고 민순기등 4명은 구류 처분을 받았다.

7월3일 권양은 부천서에서 성고문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 지검은 같은날 권양을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 변조 혐위'로 구속 기소했다.

7월4일 문귀동은 권양을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검에 맞고소를 했다.

7월5일 권양 변호인 조영래외 8명은 '권모양(서울대4년 제적. 노동자)에 대한 부천경찰서 형사 문귀동의 성고문을 고발한다'는 고발장에서 문귀동과 서장 등 6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인천 지검에 고발했다. 그러자 문귀동은 권양을 무고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다.

인천에서는 인천교구 청년회, 대학생연합회, JOC와 기독교청년협의회, 인사연 등 5개 단체 공동 주최로 “고문, 폭력정권 타도를 위한 인천지역 민중투쟁대회”를 7월7일 인천 답동 카톨릭회관 5층에서 열기로 했다. 당일 7시30분부터 시작된 대회는 경찰의 원천 봉쇄로 30여명만 입장한 가운데 옥외방송으로 1시간30분가량 진행되었다. 개회사에 이어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가진 후 5.3인천항쟁 관련자에 대한 고문, 폭행, 권양에 대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했다. 이어서 민통련의 성명서 ‘부천경찰서 여대생 성고문 추행사건을 규탄한다’의 낭독이 있었다. 끝으로 인천 6개 단체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서는 ‘현 군사정권의 하수인 경찰과 정보기관이 자행하고 있는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만행은 그동안 억압받고 착취당해온 민중의 분노와 민중민주화운동의 성장에 초조해진 군사독재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최후의 발악적 광기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고문, 폭력탄압에 굴하지 않고 이 땅에서 군사독재가 영원히 추방되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그날까지 모든 민중이 민중민주운동의 깃발아래 총집결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경찰에서는 이날 하루종일 동인천 일대에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대회시작 1시간 전부터 인천 관내 4개 경찰서 병력을 총동원하여 대회장 입구와 주변거리를 완전 봉쇄, 시민들의 참석을 저지하였다. 당일 동원된 2,000여 경찰병력은 대회장을 겹겹이 포위하였고 회관으로 통하는 거리마다 수십명씩 떼지어 다니며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은 신포시장으로 통하는 골목들과 경동사거리 길에 모여서서 흩어지지 않고 옥외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대회에 참가하였다. 무력과 폭력으로 대회를 방해하던 경찰은 시민들이 흩어지지 않자 방해방송까지 하면서 집회를 봉쇄했다. 그리고 이에 항의 하던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했는데 그 중에는 인사연 총무 윤승권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회 후 시민들은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이다 해산했다.

7월11일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대책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정토구현전국승가회,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가 발족,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온갖 수단으로 민중민주운동을 탄압하는 군사독재의 퇴진’을 촉구했다.

12일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

15일 부천시 북부역 광장에서는 서울시내 5개 대학생들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규탄하며 기습적으로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서울대생 2백여명도 교내에서 ‘폭력, 성고문 타도를 위한 애국청년학도 제1년차 연대 투쟁실천대회’ 후 시위를 벌였다.

16일 인천지검은 가해자인 문귀동 경장을 철저히 수사해 사실 관계를 밝혀놓고도 부장 김수장 검사(후에 서울 지검장을 지내고 지금은 변호사 개업중), 주임 검사 남충희(현재 변호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성적 모독은 없었다고 발표하고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문귀동을 파면하고 조사계장과 수사과장을 직위해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성으로 수치심마저 팽개쳐 버린 채 고문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권양이 간첩들의 투쟁방식을 모방하여, 대중의 혁명적 투쟁을 선동하기 위해 ‘성

을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고'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설용 배경 보도자료와 함께 이를 잘 보도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촌지'까지 돌렸다.

당시 인천지검장으로 문귀동 수사를 지휘했던 김병희는 장세동안기부장을 만나고 온 서동권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발표문과 대통령 보고문에 성고문의 "성"자도 나와서는 안된다'는 안기부의 지침을 받았다.

18일 부천서 성고문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을 찾아냈으나 발표 과정에서 왜곡, 은폐시켰다고 주장했다. 회견 내용은 '검찰 발표에 따르면 문귀동은 6월6일 오전 4시~6시30분, 6월7일 오후9시~11시 등 2차례에 걸쳐 권양을 조사했다고 한다. 이 시간은 경찰의 평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난 시간이며, 권양이 잠을 자야 될 시간이었다. 이는 권양의 수면 시간을 박탈하고 새벽 및 밤시간의 적막과 어두움을 이용하여 권양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행위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귀동의 권양에 대한 고문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자니까 옷을 벗게 하면 수치심 때문이라도 자백할 줄 알고..... 재킷 등 상의 2벌만을 벗게했다"는 내용의 발표로 검찰조차 문귀동의 성고문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검찰은 부천경찰서 제2 조사실의 두 벽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성고문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권양의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 다음에 검찰은 문귀동의 동료인 부천경찰서 형사들의 증언과 유치장에서 권양과 함께 있던 수감자들의 진술을 들어 성고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6월6일 새벽 조사 때 입회한 부천경찰서 이흥기 형사도 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권양과 유치장에 함께 있던 부인들도 추행 사실을 들었음이 우리 변호인단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검찰은 문귀동의 권양에 대한 폭언과 폭행의 내용을 전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18일 부천서 성고문 공대위(공대위)은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부천서 성고문사건 진상 폭로대회'를 개최하고 성고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성명서를 통해

1. 관련자 전원 파면, 구속, 처단
2. 내무장관, 치안본부장 파면
3. 왜곡조작 책임자 처벌
4. 검찰총장 파면
5. 편향보도 언론 각성.
6. 법원은 변호인단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진실을 밝힐 것
7. 여성의 전화 김희선 원장과 배영미씨를 즉각 석방할 것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8월17일 충북 공대위, 8월14일 공대위본부, 8월17일 경북 공대위도 성고문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7월19일 신민당, 민주협, 민통련, 여성단체, 시민단체 공동으로 '성고문, 용공조작 범국민 폭로대회'를 명동성당에서 열기로 했으나, 당일 경찰은 대회 저지를 위해 성당을 원천봉쇄 하고 김대중 및 민주인사를 가택연금했다. 이날 성당 주변에서 성토대회가 진행되는 중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청소년대책 전문위원 김형배(3급 공무원)은 '부천경찰서 사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검찰 책임자와 이를 지지한 현 정권 담당자는

물러나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22일 권양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문귀동을 구속,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서 공대위는 소식지1호를 발행, 여기서 '2천만 여성들과 전 여성단체는 여성의 수치심을 악용하여 성적 폭행을 고문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번 사건을 전 여성들의 인격과 인권에 대한 유린과 만행으로 받아들이며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 같은 비열하고 추악한 성고문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투쟁을 할 것'을 결의했다.

24일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이 16일부터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항의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4일째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인천 소년교도소 여성동료 11명도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28일 명동성당에서 7월19일 성토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다 해직된 김형배(3급 공무원)가 '양심선언'을 발표했다. 내용은 "공무원은 더 이상 독재정권의 하수인 또는 개가 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악의 세력을 합리화시켜주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에 강제 동원돼서는 안된다"며 상부의 부당한 지시와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29일 고대생 박은미, 김영진, 장근영 등 여학생 3명이 '부천경찰서 성폭행 왜곡 수사한 검찰은 자폭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인천지검 현관복도에 신나를 뿌리며 방화를 했다. 간호학과 4년 박은미는 시위 중 3도 화상을 입었는데도 인천 동부경찰서가 검사의 허락 없이 입원이 불가능하다며 통원 치료만 시켜 상처부위가 악화되었다. 이들 3명 모두 구속됐다.

30일 인천에서는 부천 심곡1동 성당에서 호인수 신부 등 60명의 사제가 공동 집전한 '성고문 추방과 인권회복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에서 인천 사제들은 '비인간적인 고문 행위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원'했다. 경찰은 미사 참석 교우 30명을 연행하며 미사를 방해했다.

8월21일 인천지검은 문귀동에 대해 기소유예, 서장 옥봉환 등 관련 경찰관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9월1일 사상 최대규모인 166명의 권양 변호인단이 검찰 결정에 불복, 인천지검에 재정신청을 냈다. 6일 166명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인천지검이 기각했다. 이어 30일 서울지검도 부천서 성고문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에 다시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11월21일 권인숙양은 1심 재판에서 3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은 2심과 3심을 거쳐 87년 4월 종결되었는데 권인숙양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1년6개월의 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87년 7월8일 가석방되었다.

성고문 사건은 변호인단의 재정신청 노력에 힘입어 88년 2월9일 대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89년 문귀동은 5년의 실형과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진실확인 과정에서 전두환정권의 황포와 부도덕성, 인권탄압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였으며, 전두환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재야, 정치권, 종교계, 여성계가 연합하여 '성고문 옹공조작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부천경찰서

성고문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공동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세력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인물 : 권인숙(서울대 가정과 4)

관련단체 :

1. 인사연 등 인천의 5개 민주화운동 단체
2. '부천경찰서 여대생 성고문 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
3. 전국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련자료 :

1. 변호인단 고발장
2. 인사연 기관지 <인천의 소리>, 1986년 7월25일,
3. 암흑속의 횃불 제7권

관련사건 :

연표 참조

16. 인천의 6월항쟁

발생일 : 1987년 6월

관련일지 :

1.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 4월 13일 전두환 호헌조치 발표
 3. 5월 18일 정의구현사제단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폭로
 4. 5월 24일 4.13호헌분쇄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공대위(이하 공대위) 결성
 5.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족,
 6. 6월 10일 민정당 후보 지명대회,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규탄과 호헌철폐 국민대회.
- *** 인천지역은 5월24일 '공대위'에서 주최한 '광주영령추모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시 민대회'가 6월항쟁의 시작이었다.
7. 연표 참조

배경 :

5월18일 오후 6시 30분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5.18희생자 추모미사가 열리고 있었다. 미사가 끝난 8시 30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인 김승훈 신부

가 단상에 올라가 성명서를 읽었다. 박종철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게 한 하수인은 따로 있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 되었다는 것이다. 이 발표로 국민들은 경악했다. 그리고 5.3인천항쟁과 10.28건대항쟁을 거치면서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던 학생들과 호헌조치 발표 이후 뚜렷한 투쟁 대열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던 민주화 세력들이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내용 :

인천지역의 8개 민주화운동 단체들도 학생들과 연대해 5월 '4.13호헌분쇄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했다. 공대위는 결성의 목적과 활동 방향을 알리기 위해 5월24일 오후 5시 부평역 광장에서 '광주영령추모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공대위는 '호헌책동 분쇄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24일에 열릴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의지를 계승하고 군부독재정권의 호헌책동을 분쇄'하기위한 시민대회를 홍보했다.

당일 시민들의 참여를 두려워한 군부독재정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회 방해 공작을 펼쳤다. 반상회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각 공장마다 일요일인 24일에도 특근을 강요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24일 부평역과 백운역을 폐쇄하고, 5,000명의 경찰 병력으로 역을 봉쇄했다.

오후 5시5분경 백운역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5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경찰의 봉쇄에 항의하며 백운 고가도로 위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5시20분경 부평 로타리 32번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300~400명의 시위대열이 형성되며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위대는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거리에는 스티카를 부착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를 알리는 대중연설도 행해졌다. 시위대는 진격해오는 경찰에 맞서 투석전을 전개하면서 부평1동성당 부근과 시장 안으로 후퇴하여 계속 시위를 전개하였다. 6시경 흩어졌던 시위대가 복구청 앞 도로에 다시 모이자 2,000명의 시민이 인도와 차도 100미터를 점거했다. 시위대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시민들은 시위대의 즉석가두연설에 뜨거운 지지의 박수를 보냈다.

같은 시간 백마장 입구에는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를 외치며 2개의 플래카드를 앞세운 300여명의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가두로 진출하였다. 3명의 학생과 노동자들은 리어카에 올라가 '우리는 왜 여기 모였는가?'라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시위를 주도하였고, 시민들은 힘찬 지지의 박수로 시위대를 격려했다.

시위는 7시20분까지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과 최루탄 세례 속에서 진행된 '광주영령추모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시민대회'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역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85년말 재야와 야당이 공조해 만든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문수사 및 용공조작 대책위원회'(고문 공대위)는 김근태 민청련의장,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군 고문살인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결속을 강화했다. 고문 공대위는 4.13호헌조치 이후 마침내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로 발전하였다.

국본 이전 공대위는 6월10일 오후 6시에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6월 1일 기독교회관 312호실에 국민운동본부 사무실을 차렸다. 그리고 이 대회 명칭을 ‘박종철 군 고문살인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로 확정했다.

6월10일 12.12군사 반란과 광주학살 공범들 간의 권력세습을 자축하는 축제가 벌어지는 시간에 인천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고 있었다. 공대위는 6월 10일 오후6시 부평역과 청천동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당일 인천시내에는 전경이 완전무장을 갖추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동인천 지하상가는 강제로 문을 닫고 있었다.

오후4시 20분부터 가톨릭회관에서 가두방송을 통해 국민대회를 알리는 방송을 10분 간격으로 계속 실시하였다. 오후6시 부평역에서 애국가를 시작으로 하여 택시기사들이 경적 시위를 벌였고, 잠시 후 십자가를 앞세운 시위대가 도로로 나오자 주변의 시민, 학생들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시위를 시작하였다. 시민, 학생들은 유인물을 배포하며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대형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전경과 대치했다. 시위대는 즉석에서 대중 집회를 개최했고, 2,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경찰은 최루탄과 페퍼포그등으로 집회를 막아 보려 했지만, 한때 최루탄 부족으로 경찰이 밀리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후7시가 지나가면서 인근 공단의 노동자, 시민이 합세하여, ‘노동3권 쟁취, 민주노조 결성, 잔업철폐, 임금인상’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계속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야근 노동자들도 조업을 중단하고 옥상과 창문에서 박수를 치며 시위대를 지지하였다. 시위 군중은 계속 늘어나 3,000여명의 시위대는 전열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9시경 청천시장 앞에서 대중 집회를 벌였다. 시위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음료수, 화장지, 물수건들을 전달하며 시위대를 격려했다. 시위대는 즉석에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전투환 화형식을 했으며, 경찰은 시위대를 포위하고 최루탄, 다연발을 쏘아대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잠시 해산 됐던 시위대는 다시 합세하여 행진을 계속하였으며 지나가는 버스속의 시민들은 박수로 환영하였다.

오후10시 효성동 사거리에서 3차 대중집회를 개최하고 해산식을 하려 하자, 시민들이 어느새 시위대와 합세하여 7,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시위대는 힘을 얻어 다시 부평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은 손도 못 대고 구경만 할 뿐이었다. 부평역 병원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는 내일을 기약하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해산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11시30분경 이었다.

인천 공대위 주최 ‘6.10 인천시민대회’가 민주화를 열망하는 인천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후 인천시민들의 민주화 열기에 위협을 느낀 군사정권은 12일 인천 공대위 소속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의 안영근 집행국장, 가톨릭노동청년회 인천교구연합회 강석태 회장,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김영철 회장 등 3명을 연행하여 16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공대위 나머지 대표 5명에 대해서도 수배령을 내림으로써 독재종식을 위한 인천시민의 투쟁을 분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3개단체 대표들은 의연하게 투쟁을 계속하기로 다짐했으며, 수배된 5명을 비롯한 인천 공대위는 3개단체 대표 석방과 군사독재 타도

의 그날까지 인천시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14일 인하대에서는 비상총회를 열어 기말고사를 거부하고 3,000여명의 학생이 ‘호헌철폐’, ‘군부독재 종식’을 외치며 교문을 돌파하여 인천교대 앞 송의로타리, 신흥로타리를 거쳐 답동 카톨릭회관 앞에서 동인천역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20명의 학생이 연행되고, 250명 정도가 학교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15일 인하대는 학기말 고사를 전면 거부하고 단과대별로 가두 진출을 시도하였다. 오후 2시 신기촌 자연우유 앞 도로를 점거하고, 전경과 싸움을 전개하여 시민회관 앞 주안사거리까지 진출하였다. 시민회관 앞에서 4,00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하여 가두집회를 가졌고, 석바위 시장에서도 시민들의 보호 속에 2시간 가량 대중집회를 벌였다. 이날 시위 도중 조선과 3학년 양경욱이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이 되었다. 이날 인하대 학생들은 교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2시간에 걸친 민주화 투쟁을 벌였다.

16일 오후5시 단과대별로 토론회를 마친 인하대생 1,000여명은 교문을 뚫고 시민회관, 주안 제일시장 부근에서 대중 집회를 갖고 학교로 돌아와 철야 농성을 벌였으며, 인하대 역시 시위가 계속 되었다.

17일에는 동인천역 광장에서 노상 대중집회가 열렸고, 주안1동성당에서는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 전 오후 5시경 학생10여명이 동인천역 광장 주위 도로 위에 앉아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를 외치며 대중 집회가 시작되었다. 시민 대중은 순식간에 6~7천명으로 증가했고 이들은 시위대를 둘러싸며 도로를 점거하여 노상 대중집회를 시작했다. 운집한 7천여 군중은 70대 노인에서 10대의 어린 소녀까지 모두 입을 모아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퇴근 중이던 직장인들을 비롯하여 점점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났고, 시민들은 경찰의 자제와 평화적 집회를 주장했다. 운집한 군중을 대상으로 시위대는 즉석 연설을 했고 급기야는 도로에 연좌하여 대중적 정치토론회를 시작했다.

7시반경, 완전 무장한 전투경찰 300여명이 운집한 시민에게 사과탄을 무차별 난사하여 시민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잠시 흩어졌던 시위대는 10분 만에 다시모여 ‘비폭력 평화 시위 보장’을 주장하며 2차 대중 집회를 시작했다. 8시 10분경에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끌려가는 연행자를 시민들이 구출하고 부상자를 응급치료하며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다. 다시 3차로 대중집회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포위되어 시위대는 주안1동성당으로 재집결을 다짐하며 8시 25분경 자진 해산했다.

주안1동 성당에서는 오후8시에 정의평화위원회 주최의 기도회가 열렸다. 이석재 신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제1부 말씀의 전례에서 김병상 신부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군부독재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하고, ‘국민 모두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부 6.10 ‘박종철군 고문치사조작은폐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상황 보고를 마친 9시 45분경, 신부, 수녀를 선두로 1천여명의 시민과 신자들은 주최측이 준비한 촛불을 들고,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최루탄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등의 대형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촛불 시위를 시작했다.

시민회관에 도열한 군중들은 시민 불복종 운동과 그 행동 방침을 결의하고 10시 5분경 다시 신부, 수녀를 선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석바위쪽으로 시가행진을 시작했다. 행진과 함께 시민대중은 점차 불어나 4천명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석바위 4거리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고 대중 정치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 학생들은 전경들에게 꽃을 전달하며 평화 시위를 주장했다. 시민, 학생, 노동자 등 운집한 군중은 자발적인 참여로 토론을 진행했다. 11시경부터 주안1동 성당 주위는 시위대의 점거 농성에 대비하여 철통같이 봉쇄되어 있었다. 11시15분경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중집회를 마치고 3천여명의 시위대가 평화행진을 시작하였으나, 11시 40분경 법원 앞 고가도로에서 경찰은 다연발탄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자 했다.

여기에서 흩어졌던 시위대는 곧바로 다시 석바위 사거리에 모여 대중 집회를 시작했다. 18일 0시30분경 1시간동안 계속되던 평화적 대중집회는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고 다음의 부평 집회를 약속했다.

6.10대회 이후 전국적으로 시민과 학생이 민주화 의지를 확산시켜가자, 경찰은 살인적 최루탄을 사용하여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국민운동본부에서는 6월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정하여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인천 공대위도 동인천역 앞과 부평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인하대, 인천대등에서 오후1시에 출정식을 갖고 개인적으로 각각 부평과 동인천으로 출발했다. 오후 6시 정각이 되자 동인천역 앞 도로변에 흩어져 있던 학생들이 도로 중앙에 집결하면서 순식간에 300여명이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그러나 동인천 광장과 시위대 뒤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섰던 전경들이 일제히 최루탄을 쏘아대며, 10여명의 학생을 무차별 연행하였다. 흩어졌던 시위대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스크럼을 짜고 의연하게 행진하여, 잠시후 오성극장 앞과 송림로타리 등 두 곳에 나뉘어 집결하였다.

학생들 2~300여명이 연좌하고 시민 2,000여명 정도가 주위에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대중 집회가 진행되었다. 군사정권의 기만적인 호헌책동과 공공연히 자행되는 고문과 민주탄압을 폭로하는 대자보가 주변에 붙자 시민들이 모여 관심을 보였다. 집회는 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진행 되었다. 오후 8시 45분이 되자 오성극장쪽의 군중이 송림로타리쪽으로 합세하여 5천여명으로 불어나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거리의 차량을 통제하였고, 시민과 학생 등 시위 군중은 애국가와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가두 대중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중 10여명의 일반 직장인, 노동자, 교사, 공무원 등이 나와 경찰의 폭압적 최루탄 난사에 대한 규탄과 현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만행을 폭로하면서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민주화의 대열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2시간가량 집회가 계속된 후 시위군중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제물포역 쪽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송의철교에 이르자,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일부 시민들은 흩어지고, 일부는 다시 박문로타리쪽으로 퇴각했다. 400명의 시위대는 인천대 앞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가 제물포 철로를 넘어 수봉공원으로 올랐으며, 일부는 도화5거리에서 전경과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다른 시민과 학생 2,000여명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수봉공원을 넘어 19일 12시30분쯤에 인하대 후문에 도착했다. 그 후 500명의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며 인하대 도서관을 점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부평에서도 오후 6시가 되자 광장 앞 도로와 백마장입구에서 동시에 시위와 대중 집회가 시작되었다. 연도에 오가던 시민대중은 곧바로 이에 합세하여, 시위대는 삼시간에 1만여명을 넘게 되었다. 이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각각 세 군데로 나뉘어 대중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대치중이던 전경은 밀려났다. 숫적으로 열세인 전경은 무기력했으며, 성결교회 앞에서는 전경을 상대로 대중토론을 가지기도 했다. 시민들은 방독면을 쓰고 있는 전경을 보면 '방독면을 벗고 최루탄을 쏘지말라'고 설득하였고, 경찰들은 시민들이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청천동쪽의 시위대에 침투되어 있던 경찰 프락치들은 금일 자정을 기해 인천시내 전 지역에 정전을 실시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시위대열을 와해시키고자 공작을 폈다. 그러나 시위대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햇불을 제작하면서 정전시 대책을 논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11시40분 경 개선문 예식장 앞의 1만여 시위대는 전두환 허수아비를 만들어 화형식을 가졌다. 이때 청천동 시위대가 개선문 시위대와 함께 보다 열띤 대중집회를 갖자고 제의하여 시민 대중과 함께 평화행진을 시작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개선문 예식장 시위대도 청천동쪽으로 평화 행진을 시작하여 19일 0시30분경 시위대열은 하나로 합세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계속 함께 하였으며 학생들이 내다 붙인 대자보를 읽느라 자리를 뜨지 않고 있기도 했다. 시민들의 호응은 계속 높아져서, 경찰의 최루탄 발사를 몸으로 저지하고 막으며 평화시위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대중집회를 여는 동안에는 봉고차, 자가용, 택시 등이 바리케이트를 형성, 시위대를 보호하며 대중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 2시가 넘도록 귀가할 줄 모르고 민주화 열기를 드높이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의 수는 1만~1만5천여명으로,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새벽2시30분 시민대중은 집행부의 전국 시위 소식 발표에 환호성을 울리며 전국적인 시위에 끝끝내 동참할 것을 주장했다.

2시30분이 넘으면서 전경은 병력을 지원받고 살인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고자 하는 작전의 실행 준비를 시작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포위하면서 주민들을 귀가시키려고 공갈, 협박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곧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최루탄을 직격탄으로 발사하며 진입했으며, 시민들은 시위대를 보호했다. 또한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리며 전경을 가로막거나, 시위대를 보호하였다. 시민들의 보호속에 진압에 실패하자 3시경 경찰은 일명 백골단을 투입하여 각목을 들고 무차별 폭행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그들의 살인적 폭행을 피하기 위해 골목으로 피신했으나, 최루탄, 사과탄, 페퍼포그차 등으로 중무장한 경찰은 골목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폭행, 연행하였다. 호송차가 모자라 쓰러진 시위군중을 리어카로 실어나르기도 할 정도였다. 마치 제2의 광주사태를 연상케했다.

시위대는 흩어져 인근 주택가의 담을 넘고, 지붕을 넘었으며 심지어 산으로 쫓겨가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도 용기있는 시민들은 피신하는 시위대를 자기집에 숨겨주기도

하고 혹은 최루탄에 의해 당한 부상을 치료해주기도 했다. 새벽5시까지 연행된 시민, 학생, 노동자 수는 700명(그중 인하대 219명)이 되었다. 일부 노동자, 학생들은 청천 파출소, 효성 파출소등에 항의 투석을 하고 철마산을 올라가 산줄기를 타고 내려와 해산했다.

또 다른 시위대 200여명은 효성동 4거리에 모여 계속하여 투쟁할것인가, 다음을 약속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때 대부분이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일단 해산하자는 입장이어서, 10여 시간에 걸친 시위와 대중집회는 일단 마무리되었다.

19일은 비가 오는 관계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일 오후2시 인하대, 인천대 학생 2천여명이 각각 교내에서 '최루탄 추방 인천시민대회 경과보고'를 가진 후 교내 시위를 벌였다.

21일 일요일 오후6시 인하대생 150여명이 동인천에서 시민 5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가두 시위를 벌였다.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시위 양상은 격렬 했다.

인천 공대위는 22일 오후6시, 6월18일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부평 만행사건 규탄대회'를 부평역 광장에서 갖기로 했다.

이날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자 경찰은 전철을 정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으며, 정, 사복 경찰뿐만 아니라 빨강, 파랑, 노랑, 모자를 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거리, 골목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연행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경찰의 가두방송이 실시되는 도중에 40대의 한 시민이 '전두환 물러가라',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자 주위의 사람들이 가세하려 하자 사복 경찰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시민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약2,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부평역에서 백마장 입구까지을 원천 봉쇄해 집회 자체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경찰의 검문검색, 연행속에서도 시민들은 열기있는 대중 집회를 기대하며 전혀 분산되지 않고 민주화예의 열망을 모으고 있었다.

24일 인천지역 변호사 17명이 '조국과 민족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땅에 실현되기를 기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날 인천지역대학생협의회(인대협)는 인하대에서 연합 집회를 예정했으나 경찰에 원천 봉쇄됐다. 이에 1,000여명의 학생들이 기습적으로 동인천역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학교로 돌아와 '평화시위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경해산을 종용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군부독재정권에 최후에 일격을 가하기 위해 6월26일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평화대행진'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국민행동 불복종운동을 밝혔다.

- 1) 불심검문, 검색, 무차별 연행을 거부합시다.
- 2) 주민 신고제를 거부합시다.
- 3) T.V 시청료를 거부합시다.

이에 인천에서도 공대위 주최로 6월26일 오후6시 부평역 광장에서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인천시민 평화대행진"를 개최하기로 했다.

25일 오후2시 인천교대에서 인대협소속 대학생들은 26일 있을 범시민 평화대행진 출

정식을 가졌다.

26일 국민 평화대행진이 부평에서 거행되었다.

이때 공대위 지도부는 경찰과 협상하여 오후9시까지 평화적 집회를 보장받았다. 그리하여 부평역과 백마장 부근 두 군데서 각각500여명과 2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도중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이 창립식이 진행되었다.

집회가 9시를 넘기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제 해산을 시도하였다. 이에 맞서 싸우면서 일부는 석바위로 재집결하여 오후 10시30분경 노동자, 시민, 학생 2,300명이 합세하여 집회를 개최했다. 11시20분경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성당으로 피신한 80여명의 시위대는 경찰에 봉쇄당하기도 했다.

5월에 조직된 공대위의 인천에서의 민주화투쟁은 노태우의 6.29선언을 얻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관련인물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집행국장 안영근, 가톨릭노동청년회 인천교구연합회장 강석태장,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장 김영철

관련단체 :

민주헌법 쟁취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관련자료 :

1. 『실록 6월항쟁』, 월간 말 6월항쟁 10주년 별책 부록
2. 인사연 기관지 <인천의 소리> 1987년 6월4일
3. 정체불명, <인천에서 솟아오르는 민주화의 햇불이어!>
4.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인천교구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 인천교구연합회가 1987년 6월26일 공동발행한 <구원과 해방3>
5. 민주헌법쟁취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1987년 6월25일 발행한 유인물 <민주헌법쟁취1>
6. 「87년도 민주화 운동일지」, 인하대
7. 암흑속의 햇불 제8권

관련사건 :

17.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발생일 : 1987년 7월~8월

관련일지 :

87년 이후 노동일지 참조

배경 :

87년 당시 한국경제는 3저 호황으로 유래없는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조짐은 87년 봄 임금인상 시기에 울산 현대그룹과 대우조선 등에서 나타나고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6월항쟁은 노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퇴근 후 '익명의 시민'이 되어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현장에 참여하거나 구경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과 권리의식이 싹텄다. 또한 「민주노조건설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일동」이 제작 배포한 <공장에서부터 민주화를!> 이나 해고노동자들이 출근길에 배포하는 유인물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 항쟁을 다루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여일간 진행된 6월항쟁은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세상이 뒤바뀐 것처럼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침묵을 깬 것이 50년동안 침묵하고 있던 노동자들이었다. 6.29 선언으로 전두환정권이 후퇴한 공간에서 노동자들의 힘이 걸잡을수 없이 폭발했다. 그 불씨는 울산 현대엔진 노동자들이 처음 지폈다. 7월5일 현대엔진에서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에 들어가자 삼시간에 울산 현대그룹 전체로 확산되었고, 부산, 거제, 마산, 창원, 대구, 대전을 거쳐 북상하였다. 당시 노동법은 합법적인 파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87년 여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노동자 파업은 '모두' 불법이었다. 독재정권 시절 상대적으로 노조운동 경험이 풍부했고 따라서 정권에 의한 탄압과 좌절의 경험이 짙었던 경인지역은 노동자 투쟁의 불길이 붙는데 시간이 걸렸다.

내용 :

인천지역에서 노동자 대투쟁은 여름휴가를 끝내고 난 뒤인 8월6일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 한독금속, 서울조구 등에서 파업과 노조결성이 있었지만 지역적 파급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대우자동차, 삼익악기, 코리아스파이서, 경동산업, 영창악기 등 지역내 웬만한 규모의 사업장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8월 중순경이었다.

대우자동차가 8월10일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25일까지 휴업을 공고했다. 그러나 이 때부터 양상이 달라졌다. 11일 하룻동안 새로 파업에 들어간 사업장만 7곳이었고, 12일 부평 4공단, 삼익악기 6천명, 갈산동 코리아스파이서, 산곡동 한국종합기계 1500명 등 파급력이 큰 대기업이 파업에 들어갔다. 17일에는 영창악기와 맞은 편 경동산업 노동자들이 동시에 '어용노조 민주화', '임금 재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오후에는 경인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부평일대 공단에서 주안 5,6공단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띄었다. 8월21일에는 인천지역의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갔다.

부천지역도 인천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7월27일부터 8월1일까지 우성밀러가 파업을 벌여 상여금 200%, 식사질 개선 등 요구 사항 전체를 쟁취했으며, 8월11일 경원세기,

원방, 12일 동양엘리베이터에 이어 14일에는 화창양행, 미창양행, 재영, 남성제화, 대흥 기계, 영창공업사, 한국스페이서, 대평 등이 파업에 들어갔다. 마지막에는 부천 유일의 버스업체인 소신여객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 도시가 마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임금재인상'을 비롯해 그간 불만이 누적된 사항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고, 그 중 상당수는 파업 중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또 자연발생적으로 벌어진 파업이었지만, 옆 사업장 노동자 파업에 '구사대'가 쳐들어오는 등의 어려움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물러가 함께 막아내 상당수 사업장에서 요구조건을 100% 따내는 성과를 얻었다. 8월27일까지 인천에서만 208건의 쟁의가 발생했고, 6월 107개에 불과했던 노동조합 숫자가 204개로 늘어나, 97개 사업장에서 새로 노조가 만들어졌다. 또한 신규노조를 업종별로 보면 금속이 49개, 화학이 16개, 섬유 2개, 운수 16개였다. 70년대 섬유 중심의 여성사업장에서 금속, 화학 중심의 남성사업장으로 노동운동의 중심이 이동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걸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사태에 넋을 놓고 있던 전두환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난하며 불길을 잠재울 태세를 보인 것도 이즈음부터였다. 언론매체에서 '불순세력', '질서파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8월22일에는 대우 오토조선 파업에 경찰이 개입해 그 과정에서 노동자 이석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석규의 장례식 날인 8월28일 전면적인 개입이 시작됐다. 인천 한영알미늄, 경동산업, 대우자동차, 영창악기 등에서 경찰이 직접 개입하여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무력에 의해 진압을 당하기도 했다. 이어 9월2일 전경련 부회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농성노동자들이 "(영창악기)사장을 드럼 통에 넣고 들었다 놔다 했다", "포크레인 삽 날에 싣고 올렸다 내렸다 했다" "(대우자동차)자동차를 불태웠다" 등의 허위보고를 했고, 정부는 9월4일 현대중공업과 동시에 대우자동차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자 94명 전원을 구속시켰다. 대우자동차는 전날 김우중회장과 '노조위원장 직선 보장'¹³⁾, '임금재인상' 등의 합의를 하고 조인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인천, 부천지역의 중소기업장이 대부분 요구조건을 100% 따내고, 노조결성도 상당히 성공한데 비해, 대기업노조의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이것 때문에 이후 노동운동에서 인천지역의 대기업노조는 인근 부천에 비해서도 좌절과 피해의식이 많이 남아있게 되었다.

관련인물 :

관련단체 :

관련자료 :

1. 『87 노동자 대투쟁 “7,8월 인천지역사례”』, 풀빛출판사,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역음

13) 노조위원장 선출제는 직접선거로 하든 간접선거를 하든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사항이지만 이 때만해도 회사측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2.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 대투쟁』, 들불출판사,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3. 『정치위기와 노동운동』, 거름출판사,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4. <공장의 소리> 속보, 「민주노조건설을 위해 일하는 인천지역 노동자일동」 발행
5. <민주노조> 신문 및 속보,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발행

관련사건 :

1. 87 인천 노동자대투쟁의 시발점 대우중공업노조 민주화 투쟁
2. 대우자동차 87파업 및 대우자동차 노조민주화 투쟁
3. 경동산업노동자 투쟁과 9.4 집단분신 사건

18. 대우중공업 노조 민주화투쟁

발생일 : 1987년 8월6일 - 8월11일

관련일지 :

- * 87년 2월; 임금동결, 호봉승급과 직급조정 노사합의
- * 87년 4월; 인천공장 노동자 9명 인천대공분실 연행. 석방된 후 5명해고
- * 5월30일; 정기대의원대회, 위원장에 유창열 당선
- * 7월25일; 임금재협상에서 사무직만 5.35%인상 합의
- * 7월26일; 대우중공업노동자복지추진위원회 결성 - 85년, 87년 해고자, 강제사직자, 부서이동자 포함
- * 7월27일; 사무직사원만 임금인상한데 항의하여 조합원 150여명 점심시간에 노조사무실에서 농성. 공청회 촉구(30일까지 계속)
- * 8월4일; 창원공장 파업돌입
- * 8월5일; 노조 확대간부회의 9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결의. 인천과 영등포 총 700명 집회
- * 8월6일; 노사협의 결렬 파업돌입. 5개공장 7,800여명
- * 8월7일; 해고자들 농성장 진입하다 회사측 순찰대에 발각돼 실패
- * 8월11일; 노사협의 파업종료

배경 :

적산기업이었던 조선기계를 불하받으면서 시작한 한국기계를 76년 김우중이 인수한 대우중공업¹⁴⁾은 87년 당시 인천본사에서 굴삭기와 자동차, 선박 엔진, 지게차를 생산했으며, 방위산업체인 창원공장은 탱크, 비행기부품을, 안양공장은 철도차량을 생산하고

14) 대우중공업은 98년 대우그룹 워크아웃이후 대우종합기계로 변경 법정관리였다가 2005년 두산중공업이 인수하면서 현재는 회사명이 「두산인프라코어」이다.

있었다. 당시 해고자들이 배포한 유인물에 따르면 86년 한햇동안 78억 흑자를 냈고, 87년 매출액 목표는 5300억원이었다고 한다.

당시 노동자 초임이 5500원에 상여금 400%로, 사무직과 생산직간에 호봉, 직급 등에 있어 차별이 상당히 심했다. 60년대부터 이 회사를 다녔던 노동자에 의하면 회사 식당, 회사 이발소, 심지어 통근버스를 탈 때도 아침 출근길에는 생산직노동자는 자리가 비어도 앉을 수 없었고, 퇴근길에는 정문앞에 경비들이 지켜서서 생산직이 통근버스를 타면 끌어내렸다고 한다. 이런 차별 때문에 생산직 노동자들 중에는 사무직원들(이들은 ‘사원’이라 불렀다)만 달고 다니는 대우중공업 배지를 ‘가라’로 만들어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변에는 가짜 대우중공업 배지를 만들어 파는 가게도 있었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노무과 같았다”고 70년대 중반부터 이회사를 다닌 노동자는 말한다. 그 이전에 다니던 사업장에서 파업을 경험한 적이 있는 그는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러 노동조합을 갔다가 곧바로 총무과로 불려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미 오순부가 대우중공업에서 해고된 바 있었고, 85년 5월에 노조민주화투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년도 흑자에도 불구하고 87년 2월에 회사와 노동조합은 임금동결, 호봉승급과 고과 및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연공적 임금인 직급조정만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 이에 노동자 9명이 어용노조를 규탄하면서 임금재교섭, 민주노조건설,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며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인천 대공분실에 연행돼 조사받은 후 5명이 해고 및 강제사직을 당하고 4명은 정직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이같이 누적된 조합원들의 불만은 대의원 선거에서 기존 유영진 위원장 반대파를 다수 당선시켜 5월30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유창열 위원장을 당선시켰다. 유창열은 민주파 핵심들이 해고, 강제사직으로 제외된 상황에서 당선된 중간파였다. 이 때문에 당시 부위원장에 당선됐던 한 노동자는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파를 제거하기 위해 회사하고 대공분실이 짜고서 별 협의도 없이 9명을 연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내용 :

1. 8월6일 인천공장 파업 이전 상황

여름 휴가를 앞두고 조합원들은 휴가보너스 100%를 요구했으나 새로 당선된 유창열 위원장은 50%만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 과정에서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50,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측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미 조합원들의 불만이 누적돼 있어 현장이 계속 술렁이자 회사와 노동조합은 임금재교섭을 했으나 그마저도 7월25일 생산직노동자는 제외하고 사무직사원들만 5.35% 임금인상을 실시하여, 조합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에 노조와 회사는 8월6일 임금재교섭을 위한 노사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중공업 85년 해고자들과 87년 해고자, 강제사직자, 부서이동자들이 26일 「대우중공업노동자복직추진위원회(복추위)」를 결성하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원직복직투쟁을 계획했다.

7월27일 조합원 150여명이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몰려가 사무직 사원만 임금을 인상한데 항의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여름휴가를 미루더라도 싸울 것을 촉구했다. 복추위는 매일 출근길에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조합원 100-150여명은 여름휴가 전날인 30일까지 점심시간마다 노조사무실로 몰려가 투쟁을 촉구했다.

노동자대투쟁이 영남지역에서 폭발적인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휴가가 끝난 8월4일 창원공장 노동자들이 창원지부 평조합원인 안재석을 대표로 △임금 5만원 일률 인상 △해고자 복직 △보너스 600%, △어용노조퇴진 △노동쟁의, 결사 집회자유 보장 등 16개 항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인천은 휴가가 끝나고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며 노조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8월5일 인천본사에서 노조확대간부 회의를 열고 6일 협상에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2. 노동조합 주도로 진행된 파업

노사협의를 열리는 6일 점심시간마다 농성을 벌였던 노동자 100여명이 이날도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집회를 주도할 노동자를 노조와 회사측이 붙잡고 있자, 모였던 노동자들은 노동가요를 부르다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3시 이후에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오후 3시 9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노조는 보고대회와 아울러 파업을 선언, 인천공장 2,500명, 영등포 500명, 안양 700명, 창원 1300명이 파업에 들어가 공장이 멈춰섰다.

△임금 5만원 일률인상 △보너스 600% 지급 △가족수당 신설 △해고자 복직 △조합활동자유 보장 △토요일 오전근무 실시 등 총 9개항의 요구를 내걸었다. 파업 둘째날인 7일 해고자들이 농성장에 합류하려고 했으나 회사측 순찰대에 발각되어 실패한 가운데 농성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열기와 그 열기를 적절히 무마시키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8월11일 최종 타결된 내용은 △기본급 20000원 인상 △호봉조정 △보너스 그룹차원에서 검토 △부녀노동자 자녀장학금 50%에서 100%인상이었다. 노조 집행부는 9개 요구사항 중 5개 사항은 회사측에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조인식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채 조인을 한 뒤 결과만 발표하고 파업종료를 선언했다. 이같은 결과에 조합원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싸움이 계속되지는 못했다.

당시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회사측과의 양해’ 속에 파업에 들어가는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대우중공업도 그런 경우로 노조위원장도 파업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관리자들과 창원공장에 내려가 “창원지부내 반대파가 주도권을 잡기위해 시작한 싸움이다”고 말했고, 파업 중에도 평조합원들이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면 발언내용을 두세차례씩 사전 검열을 했다고 한다. 또 처음 “먼저 농성을 풀라”며 사무직원들의 인상 수준인 5.35% 인상을 일관되게 주장하던 회사측이 8월10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민주파 주도로 파업에 들어가자 10일 협상에 임해 11일 타결한 것은 대우자동차와 동시에 파업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6일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파업은 인천지역에서는 7월 이전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지만 폭발적인 양상이 아니라 한독금속, 우성밀러, 서울조구 등 중소기업장에서 산발적으로 파업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대공장으로는 처음으로 벌어진 파업이었다.

비록 대우중공업 노동자들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을지라도 전 공장 7,800명이 함께 한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듬해인 88년에도 노조는 조합원들의 열기에 밀려 파업에 들어갔으며, 그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임기종료가 안됐지만 위원장 직선제로 규약을 변경해 염성태가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관련인물 :

유창열, 전재환, 이병희, 염성태 등

관련단체 :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지회

관련자료 :

1. <공장의 소리> 호외 「민주노조건설을 위해 일하는 인천지역 노동자일동」
2. <민주노조> 임투속보, 신문 「공실위임투상황본부」
3.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대투쟁』,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4. 『한국재벌사』, 대명출판사 이한구 저
5. 『한국노동조합운동사』, 한국노총 저
6. 대우중공업 노동자 4인 인터뷰

관련사건 :

19. 중앙병원 산업재활원 산재노동자들의 투쟁과 산재노동자 김성애 투신자살 사건

발생일 : 87년 8월11일 - 11월7일

관련일지 :

* 8월11일; 중앙병원 산재환자 50여명이 재활원 옥상에 모여 산재보상법과 재해환자 우선취업보장 및 복재개선 등을 토의. 오후 4시경 중앙병원 앞 광장서 600여명이 다시 모여 2차 토의 후

가) 마비환자에 대한 치료 종결 후 사망시까지 치료비 지급

나) 장애급수를 자동차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것

다) 회사와 민사소송한 환자에게도 휴업급여는 산재요양 치료 종결시까지 계속 지급할 것

라) 휴업급여는 정부시책에 따른 비율대로 지급할 것.

마) 산재환자 가족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보장하고 환자본인에게 영세민 1종대상 혜택을 부여할 것

바) 보조기 수를 현실화하고 매년 1구씩 다시 지급할 것

사) 재해치료 종결 후 희망 직종 취업 보장할 것을 요구.

* 8월12일; 150여명 모여 노동부를 상대로 8개 요구사항 채택

* 8월13일; 300여명이 병원광장에 모여 집회 후 병원 직원들의 포위선을 뚫고 송내삼거리(경인국도) 점거시위. 전경과 대치하다 해산. 노동부 보상과장 방문

* 8월14일; 병원광장에 600명 모여 집회, 전경이 환자 구타. 격분한 환자들 경인국도로 가두 진출. 시장, 부평시장, 노동부 보상과장 왔으나 별다른 성과 없음. 역곡삼거리까지 가두시위, 10명 졸도하고 50여명이 최루탄 직격탄 등에 맞아 부상. 새벽 3시까지 격렬 시위

* 8월15일; 노동부 차관이 와서 협의 결과 산재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노동부에 접수하기로 함.

* 9월11일; 「전국산재노동자연합협회」(회장 김영술) 결성. 이양원 변호사의 도움으로 호소문 작성. 19개 요구사항 작성.

* 9월22일; 전국 산재환자 1000여명 서명 받은 호소문을 동아, 조선, 중앙, 서울신문과 보사부 국회의원 4명, 민정, 민주, 신민, 국민 등 4개 정당으로 발송, 노동부장관에게도 발송.

* 9월29일; 노동부 앞에서 전날부터 50여명 투숙. 이날 합류한 30여명과 노동부장관 면담 요구. 대표자 6명 청사 민원실 안에서 노동부 국장, 근로복지공사 사장 면담. 19개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고 구두약속 받음.

* 9월30일; 민정당사에 집결기로 함. 민정당 민원국장과 민원실장, 노동분과 위원장과 면담. 요구사항 7-80% 관철될 것이라 함.

* 10월15일; 노동부 보상과장과 연구계장에게 답변 들음. 요구사항 관철 안됨. 병원앞에서 70여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정당 대표와 면담약속이 일방적으로 묵살 당함. 노동자들 격분해 격렬한 시위 10여명 부상.

* 10월16일; 병원 점거시위 진료거부(19일까지 계속)

* 10월20일; 병원직원 20-30명 예비군복 차림으로 농성장 들이닥쳐 약재과장은 “왜 병신들이 설치느냐”며 유리창을 깨. 농성환자들 격렬하게 항의 (10월21일도 병원측과 충돌)

* 10월26일; 병원측 계장 환자들에게 사과.

* 10월28일; 환자대표 12명과 노동부 산재보상국장 협상 결렬. 환자들 재농성

* 11월 3일; 중앙병원 산재환자 김성애 7층 옥상에서 투신

* 11월 7일; 김성애 장례식. 장례행렬 막는 경찰의 무력 진압에 환자들 경인국도서 격렬시위. 환자 21명 연행, 다수 부상.

배경 :

“산재환자 아파죽고, 재해자 가족 굶어죽고!” 87년 당시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쳐도 산

재인정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회사측과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이 싸고 산재가 아닌 것으로 조작하기 일쑤였다. 또 산재인정을 받아도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60%로 살아야 했으며 치료를 받고난 뒤에는 재취업 걱정을 해야하는 형편이었다. 이같은 산재환자들의 불만이 7-8월 노동자 대투쟁 와중에 산업재활원 중앙병원 입원환자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왔다. 환자들은 계속 시위를 벌이며 노동부, 민정당 등을 찾아가 백방으로 호소했지만 번번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11월3일 주안 진흥요업에서 일하다 쓰러져 중앙병원에 입원한 만 17세의 김성애가 병원 7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용 :

본 진정인은 건강한 몸으로 중학교에 다니다 가세가 빈곤하여 어쩔수 없이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부친의 병원비 등이 엄청났기 때문에 계속 하고싶은 학업마저 중도에 포기하고 취업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20세도 안된 어린 나이에 작업장의 환경오염에 의해 졸지에 반신불수의 몸이 되고 보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민정당 총재 각하!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이 가녀린 소녀는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옳단 말입니까?

피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꺾인 것도 억울하고 괴로운데 설상가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의 모친과 외숙을 불러다 놓고 본 진정인이 고혈압으로 졸도한 것이니까 본 진정인의 가정 형편을 감안하여 크게 선심이라도 써 주는 것처럼 소녀의 모친에게 겁을 주어 산재보험처리를 하여 주는 대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본 진정인의 모친과 친권자인 외숙으로부터 서명 날인토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가소로운 것은 완전범죄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인까지 하여 합의각서 인증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정당 총재 각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며 공정한 것이라 학교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도 다있습니까? 피 진정인은 악조건의 작업환경을 철저히 위장 내지는 은폐하기 위해 무지몽매한 본 진정인의 모친과 외숙을 데려다 놓고 이 사건은 공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처리를 해줄 수가 없으니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이 자비로서 치료하겠느냐고 잔뜩 겁을 주어 합의각서에 서명 날인토록 강요하였으며 추후 법망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본 진정인의 모친과 친권자로 자처하고 나서신 외숙이 피 진정인과 같이 학력, 금력, 권력 등을 골고루 갖춘 같은 수준의 어른들이었다면 소녀로서도 아무말 하지 않겠습니다. 못 배우고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와같은 악조건을 약점잡아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고 또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와같은 짓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회사의 배려가 고맙기까지 하더라는 진정인의 모친과 외숙의 순박한 말씀이 소녀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하였습니다.

김성애 양이 노태우 민정당 총재앞으로 보낸 진정서 일부
<고 김성애 장례대책위원회 소식1호에서 옮김>

11월 3일 오후 4시30분경 중앙병원 산업재활원에 입원 치료중이던 김성애가 7층 옥상에서 투신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김성애를 응급실로 급히 옮겼으나 10분 후 숨졌다. 김성애는 1986년 7월24일 인천 남구 신기촌에 있는 도자기공장 진흥요협에 취업했다. 그러나 일한지 채 두달이 되지 않은 9월12일 작업도중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중태에 빠져 성모자애병원에서 두달 넘게 혼수상태로 있었는데 병원측은 오염된 작업환경을 무시한 채 '선천성 빈혈'로 쓰러졌다고 진단했다. 87년 3월6일 중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면서 비록 반신불수가 됐지만 호전되고 있는 것에 희망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8월부터 벌어진 산재환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자신의 모친과 외숙이 회사와 합의한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무척이나 억울함을 느꼈다. 위 진정서도 그 과정에서 작성하여 보낸 것이다. 실제로 그는 산재환자들의 투쟁을 취재하고 지원하러간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공실위)」 홍보부원에게 합의각서를 백지화시킬 방법이 없는지를 상담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위 진정서도 그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다. 당시 상담을 했던 공실위 홍보부원은 “차라리 헛된 희망이라도 심어줬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괴로워했다.

김성애가 숨진 직후 8월 투쟁과정에서 결성된 「산재노동자연합협회」(회장 김영술 당시 32세 국졸 하반신마비)와 중앙병원 환자들로 구성된 「고 김성애 장례대책위원회」는 회사측과 위로금 4500만원, 5일장에 합의를 하고 '산재노동자장'으로 하여 11월7일 오전 9시경 발인 - 부평역 노제 - 장지 순으로 장례계획을 세우고 경찰로부터 장례식을 보호해줄 것을 약속받았다.

당일 문익환 목사, 재야인사, 인천지역의 노동자, 학생, 산재환자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영결식을 갖고 운구차 앞뒤로 흰 광목을 두줄씩 늘어 환자들이 그것을 잡은 상태로 장례행렬이 이어졌다.

그러나 송내삼거리 부근에서 '장례차만 떠나라'며 무장경찰과 가스차가 장례행렬을 가로막았다. 선두에 선 경환자들이 항의하는 순간 경찰이 최루탄 10여발을 터뜨리고 무술경관(당시 백골단이라 불렀음)들이 환자들을 폭행하고 연행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산재환자들의 목발을 빼앗아 그걸로 환자들을 두들겨 패기도 했다.

산재환자들은 몸이 약해서인지 너무 쉽게(?) 다치고, 부러졌다. 순식간에 경인국도는 환자들의 의족이나 의수가 굴러다니고 환자들은 최루탄에 맞아 아우성치고 비명을 지르고 하였다. 경환자들이 중환자들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는데 무술경관이 경환자를 발길질하여 중환자들이 휠체어와 함께 길바닥에 나뒹굴기도 했다. 무술경관들은 “개새끼들 병신들이 왜 지랄들이야”, “병신 육감하네” 등의 욕을 하며 패기도 했다. 산재환자 홍종남의 성했던 오른다리가 부러지고 김성진의 팔이 부러지는 등 상당수 환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결국 21명이 연행된 가운데 장례차는 아수라장이 된 앞뒤의 행렬을 뒤로한 채 경찰차

에 인도되어 김성애 양이 일하던 진흥요업에 들른 후 팔당공원묘지로 향했다. 애초 장례대책위와 유가족이 정해놓은 장지는 부평공원묘지였었다. 18세 어린 소녀는 하늘나라로 가는 날마저 편치 못했다.

“고 김성애 산업재해 열사여!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에 쓰러진 당신을 고이 떠나보내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죽음으로 호소한 당신의 뜻은 남아있는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작은 불꽃으로 김성애야! 활화산처럼 영원히 타올라라!” <고 김성애 양 비문>

산재환자들은 2005년도에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산업재해도 살인이다’며 집회를 했다.

관련인물 : 김영술

관련단체 :

산재노동자연합협회(후에 산재노동자회 바뀜),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외 다수 당시 노동단체

관련자료 :

1. <민주노조> 호외 산재환자소식, 신문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2.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대투쟁』,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3. <소식1> 고 김성애장례대책위원회
4. <노동자의 길> 7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5. 노현기 증언

관련사건 :

20. 세창물산노조 송철순 사무국장 추락사망과 위장폐업¹⁵⁾ 철회 투쟁

발생일 : 1988년 6월28일 - 1989년 5월5일

관련일지 :

- * 1988.06.28; 임금인상 등 요구하며 파업돌입
- * 1988.06.30; 노조결성. 위원장 원미정, 사무국장 송철순
- * 1988.07.15; 송철순 사무장 파업 도중 회사 지붕에서 현수막 걸다가 추락.
- * 1988.07.17; 송철순 사무장 운명
- * 1988.08.26; 송철순열사 49제를 앞두고 관리자 중심 36명이 노조사무실에 와 임금인하. 집행부퇴진 등 요구. 공포분위기 조성 등 행패(27일까지)

15) 당시 ‘위장폐업분쇄투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세창은 이후 투쟁과정에서 노동청조차 ‘위장폐업’의 근거를 확인했다며 “하지만 위장폐업이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장이 싫다고 하면 강제로 회사를 운영하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 1988.09.03; 위장폐업

* 1988.11.03; 서울녹십자, 우리데이터 노조와 평민당사 농성. '위장폐업 철회, 악덕기업주 처단' 구호 외침.

* 1989.03.15; '8개 위장 휴폐업 사업장 결사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강희 사무실 점거농성. 150여 조합원은 평민당사 농성. 원미정 세창물산위원장 등 3인 구속.

* 1989.05.05; 세창물산 투쟁 244일만에 마무리(위원장, 부위원장, 문화부장 구속 중). 신문에 공개사과, 14개월분 임금 지급, 퇴직금, 위로금 지급 등 합의. 전체 지급받은 금액의 30%인 2천7백만원을 송철순 기념사업회를 인노협 사무실에 두는 조건으로 인노협 사무실 기금으로 기부. '세창물산, 신림섬유 위장폐업 분쇄투쟁 보고대회' 8백여명 참석.

배경 :

도자기 인형을 만들어 전량 수출하는 인천 주안5공단 세창물산은 56년에 설립돼 자본금 14억원에 부채비율 106.5%, 연간 매출액 33억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이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도자기 인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돌을 채취할 수 있는 하동광업소를 소유하고 있었다. 세창물산 300여명(여성 260명 남성 40명)의 노동자들은 도자기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열과 신나, 석유 등 유기용제 냄새를 맡으며 근무했다. 임금은 여성초임 4300여원, 남자 4400원, 학생 3700원(이상 일당기준)이라는 낮은 임금이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여성노동자들 90여명, 20대 140명, 30대가 30명 근무했다. 그중 140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기숙사 생활을 했다.

87년 8월 낮은 임금 때문에 원미정과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인 파업이 벌어져 4일만에 임금 일당 450원, 상여금 230%, 식사개선 등을 이뤄냈다. 남성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인한 불만이 상당히 컸으나 여자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87년도에 같이 했던 원미정에게 '한판 벌이자'는 제안을 농담처럼 하기도했다. 원미정과 송철순은 현장 안에서 노동상담소를 방문하면서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상태였고, 학생출신이 박상옥을 비롯 몇 명 있었다.

88년 2월에 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12명의 관리자를 해고하고 서울 무역부를 인천으로 통합했으며, '회사가 어렵다'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상을 하면서 10%인상으로 조정했다. 노동자들은 불만은 있었으나 임금재인상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던 상태였다.

내용 :

1. 첫 파업과 송철순 사무장의 죽음

6월 28일 아침, 성형반 남자 10명이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작업을 거부했다. 애초에 계획됐던 파업 신호였다. 이들은 회사측이 600원을 올려주겠다고 했으나 거절하고, 여성노동자들이 다수 합세한 가운데 파업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노동자 13명이 '소성노동자의 집'을 방문하여 상담을 했다.

그러나 다음날 회사는 휴업공고를 하고 출근하는 노동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통근버스를 세워 내리고 남자 5-6명이 담을 넘어 들어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식당과 운동장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노조결성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300명 중 100여명이 농성에 참여하는 지금 만들지 않으면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 수 있다, 당장 만들자고 주장하여 그렇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곧바로 노조 결성대회를 갖고 위원장에 원미정, 사무장에 송철순을 선출하고 124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이어 남아있던 관리자들과 내보내고 노조활동보장(상근자 3명, 사무실 비품 등), 임금 1450원 인상, 상여금 400%, 여름휴가 5일, 파업 중 임금 100% 지급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장(사장 김세준)은 7월1일 1차교섭 예정시간인 10시를 훌쩍넘겨 12시20분에 관리자 30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성의가 없다며 정문을 가로막자 사장은 담을 넘어 들어오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대기하던 관리자들도 담을 넘어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노동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남성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관리자들을 밀어냈다. 여성노동자들은 이 싸움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고 규찰도 서게 됐다. 그러나 이날 저녁 파업에 처음 불을 당겼던 성형반 남자들이 술을 먹고 와서 횡포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업은 자신들이 주도했는데 임원진은 다수를 여성노동자들이 차지하는데 대해 불만이 있었고, 노동단체의 지원도 못마땅했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진흥정밀화학노조 등 인근 노조들과 자연스럽게 연대투쟁도 하였지만 3차 교섭이후 회사측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노조는 장기파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조합원 교육 등 파업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켰고, 파업기금 마련을 위한 ‘놀이마당’을 7월 16일 열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놀이마당이 계획된 하루전 날(7월15일) 송철순 사무장은 ‘사장놈이 배짱이면 노동자님은 깡다귀다’는 현수막을 옥상에 걸고, ‘노동자의 서러움 투쟁으로 박살내자’는 현수막을 더 걸기위해 옥상 지붕에 올라갔다. 그러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슬레이트 지붕은 힘없이 부서져 내려앉고 송철순은 7미터 높이의 공장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구월동 길병원에서 뇌수술을 했지만 뇌손상이 너무 컸다. 수술은 실패하고 송철순 사무장은 이틀동안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나이 25세였다.

한편 16일 새벽 병원에 도착한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에게 “너희들이 밀어서 떨어뜨리지 않았다. 고발하겠다.”고 자극하였고 뒤늦게 사장과 부사장이 나타나 송철순의 부모에게 “3천만원에 합의보자”는 말부터 했다. 이에 분노한 가족들이 “너희가 인간이나.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똑똑히 보라”며 중환자실로 밀어넣기도 했다. 송철순의 부모와 가족들이 세창물산 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에 든든한 격려자요 후원자가 됐던 것은 이때의 분노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 또한 세창물산의 나이 어린 조합원들이 ‘깡순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치 확고한 ‘투사’가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파업은 26일만에 끝났다. 7월23일 회사측과 경인일보, 한겨레신문에 공개사과, 임금 1250원 인상, 상여금 300% 지급, 89년부터 400% 지급, 하기유급휴가 3일, 유가족보상 5천만원에 합의했다. 그간 유가족들은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상 협상을 할수 없다고 맞섰고 조합원들은 매일 공장과 영안실을 오가며 추모집회를 했다. 그러나 1차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 다수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일부는 노조 반대파로

돌아섰다.

2. 49제를 앞두고 벌어진 ‘사단’ 그리고 폐업

노조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송철순 49제를 며칠 앞둔 8월26일부터 주임급 관리자들 3-40여명이 매일같이 노조사무실에 쳐들어와 ‘임금인하’, ‘현 노조퇴진’, ‘회사를 살리자’ 등의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이미 회사는 여름휴가동안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남자들과 조반장 등 70여명으로 「세창물산발전추진위원회」를 조직한 상태였다. 124명의 조합원들이 비상 조합원 총회를 열고 공장정상화를 촉구했으나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9월3일에서야 나타난 사장은 “노조가 너무 강경하여 경영을 할 수가 없으므로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다. 「세창물산발전추진위원회」는 “너희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며 송철순의 대형초상화를 찢었다. 마침 이날은 송철순 49제 날이었다. 49제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지역노동자들은 송철순의 찢겨진 초상화 앞에서 49제 대신 ‘김세준 악덕기업주 규탄대회’를 가져야 했고, 세창조합원들은 이날부터 89년 5월5일까지 244일에 걸친 기나긴 투쟁을 시작했다.

244일이라는 투쟁기간은 당시로선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 파업농성을 벌인 것이었으며 노조결성부터 치자면 11개월을 투쟁한 것이다. 원미정 위원장과 박상옥 사무장, 문화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회사측과 ‘위장폐업인정 및 공개사과문 게재’, ‘파업기간 8개월분 평균임금전액 및 해고수당 6개월분 지급’, ‘244일간의 파업비용 전액지급’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세창물산 노동자들은 <위장폐업분쇄대책위>와 <위장휴폐업공동투쟁위>를 조직해 2차례 공청회, 문화제, 연극, 노래극공연, 노동부, 민정당, 국회 항의방문, 노동청점거농성, 7차례에 걸친 대중집회와 가두행진, 민정당의원회관 점거농성투쟁 등을 통해 휴폐업 문제가 자본주의 사회질서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악임을 폭로해냈다. 부분적으로는 노동부의 위장폐업 인정, 신립, 멕스테크 사장 구속, 슈어프로덕츠 폐업철회, 임금지급가처분승소 등 위장폐업투쟁의 전술적 모범도 만들어냈다. 1988년 11월13일 5만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행진대열 맨 앞에 지도부들이 들고갔던 ‘노동해방’ 현수막은 집회현장에서 세창물산 조합원들이 혈서로 쓴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투쟁과정에서 세창노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의 목표와 성격, 실천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총회, 조별토론을 통해 확정했고, 다양한 교육과 파업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의식이 성장했다. 그들의 성장 정도는 투쟁을 정리하면서 자신들의 받은 임금과 해고수당의 30%에 해당하는 2,700만원을 흔쾌히 지역노동조합운동 기금으로 내놓은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원미정 위원장은 92년 첫 지방의원 선거에 민중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지만, 민중당 해체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두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의원을 역임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관련인물 :

원미정, 박상옥 등

관련단체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등 당시 지역의 노동단체, 종교단체

관련자료 :

1. <세창물산>, 투쟁이 마무리된 후 세창물산 노동자들이 함께 작성한 투쟁기록 초안
2. <줄어모은 인노협신문>,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3. <새벽출정>, 방현석 소설
4. 원미정, 박상옥 등 세창물산 당시 노조간부 증언

관련사건 :

21. 경동산업 노동자 투쟁과 9.4 집단분신 사건

발생일 : 1987년 ~ 1989년

관련일지 :

아래 사건내용을 일지 식으로 작성함.

배경 :

인천 가좌동에 위치하고 있던 경동산업은 주방용품과 양식기 제조업체로 서울 영등포 본사(A공장)과 인천에 B, C, D공장이 있다. 1960년 종업원 100명으로 시작해 87년 당시 인천에만 2500여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회사였다. 대부분의 공정이 프레스와 연마인 대표적인 산재발생 사업장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또한 견디기 어려운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이직율이 대단히 높아 들어가기도 쉬운 회사여서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가들은 경동산업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그 조건에서 오래 버틴 사람 역시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저 잔업을 한 달에 200시간까지 했어요. 그거 가능해요. 한 달에 20일을 새벽3시까지 철야를 해요. 일요일 네 번은 몽땅 특근을 하고 남은 4일을 10시까지 일하면 잔업이 한 달에 200시간이 돼요. 그때는 그래야 한 달에 20만원을 못 받았어요.”(C씨)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5살짜리 막내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일을 다녔는데 새벽 3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6시에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싸주고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로 8시까지 출근해요. 내가 최고 139시간 잔업을 했어요.”(P씨)

이런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경동산업 일부 노동자들이 85년 1월14일 노조 결성대회까지 마쳤으나, 조합원 1인당 70만원씩 주고 1월12일자로 소급하여 사표를 쓰도록 한 뒤 관리자들을 동원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또 87년 4월에는 이견택, 김학철 등 10여명의 노동자들이 설문지를 배포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회사측이 양성하고 있던 구사대¹⁶⁾들이 식칼과 각목을 휘두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저지하고는 11명의 노동자

를 하고, 1명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내용 :

1. 87년 8월 노조민주화 투쟁

87년 8월 17일 인천지역의 노동자투쟁이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초반부 인근의 영창악기와 같은 날 파업농성에 들어갔다. 그해 봄에 경동산업에서 해고된 이견탁, 김학철 등 10명, 영창악기의 서병철 등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산선)에 있는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인해협)에서 기숙을 같이 하고 있던 터라 마주보고 있는 회사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서 서로 힘을 주고 받자는 생각은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이날 파업은 내부의 선진노동자들과 해고노동자들이 미리부터 준비해온 것이지만 당시 노동자대투쟁 분위기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벌어진 측면도 있다. 즉 ‘파업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회사측에서 ‘2일간 휴업한다’는 공고를 붙이자 400여 노동자들이 휴업반대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농성노동자들은 공장에서 관리자들을 몰아내고 △일당 1000원 인상 △보너스 400% 지급 △어용노조 민주화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파업 이틀째인 18일 노동자들은 ‘어용노조’ 위원장 불신임을 결의하고 반별, 공장별로 ‘민주노조 대표’를 선출했다. 19일에는 구사대 100여명이 돌과 각목을 들고 진입을 시도했으나 노동자들은 산소통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돌을 던지며 저항했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대우조선노동자 이석규 장례식 날에는 영결식을 갖고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 5,6공단 일대의 파업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6일에서야 협상을 요청한 회사측에 대해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협상에 임해 30일 요구조건이 100% 관철된 내용의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노조는 파업을 주도한 임시위원장 이견탁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9월12일 전 조합원 직접투표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것도 잠시, 선거일 이틀을 앞둔 9월10일 구사대는 <임시집행부 놈들의 꿀통을 까부수자>는 제목의 유인물을 현장에 배포하고 ‘임시집행부 누구누구가 여자를 겁탈했다’는 등의 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9월11일 오후 3시경 노동자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시간에 술을 먹은 회사 총무부장과 칼을 들고 휘두르는 전 노조 사무국장 이호연의 지휘아래 200여명의 구사대가 노란머리띠를 두르고 노조사무실로 들어와 각목을 휘둘렀다. 미리 회사안에 봉고차 1대분의 각목과 곡괭이 자루를 실어다 놓은 상태였다. 사무실의 서류와 집기가 불태워졌고, 임시집행부 정정안 등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구타를 당한 상태에서 회사밖으로 밀려나 밖에 대기중이던 경찰에 연행되어 8명이 구속되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소식을 듣고 반수 이상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뛰어 나왔으나, 이미 상황은 종료됐고 공장앞에는 7개중대의 병력이 진을 치고 있었다.

16) 구사대(회사를 구하기 위한 부대) 경동산업은 약 170여명의 구사대를 양성했는데 구사대 활동했던 노동자의 구술에 의하면 “한달에 200시간 잔업을 했는데 어느날 회사 관리자가 구사대하면 월 200시간 잔업을 달아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삼익악기, 영창악기, 대림통상 등도 회사측이 농구부, 축구부 등의 이름으로 구사대를 양성했는데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따라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기초이루며 폭압적 노무관리를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9월12일 출근길에 경찰버스 4대와 페퍼포그차가 대기하고 경찰과 관리자가 양쪽으로 도열한 가운데 관리자가 찍어주는 농성적극가담자 15명을 경찰이 추가로 연행해갔다. 임시집행부 위원장 이건택 후보는 경찰서에 잡혀가 있는 가운데 회사측의 허락을 받은 후보들만을 놓고 투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투표를 거부하고 공장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최다득표자가 100여표를 얻는데 그쳤다. 14일 회사측이 전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2차, 3차 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무효가 되었다. 그러자 회사측은 한명만을 남겨놓고 모두 사퇴시킨 다음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여 김치원이 가까스로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렇듯 상식이하의 폭압적인 노무관리는 극단적인 저항을 불러왔다. 그것이 2년뒤인 89년 9월4일 발생한 집단분신이라는 극한 투쟁으로 나타났다.

87년 투쟁 얼마 뒤부터 회사측은 동남아진출을 계획, 인도네시아에 경동산업이 51% 지분을 가진 '경동 인도네시아'를 설립했다. 이미 이 시기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 폐업 등이 이어지고 있던 때였다.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으로 한국의 경동산업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등 고용조건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회사측의 철저한 비호속에 탄생한 노조 김치원 위원장은 87년 투쟁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무과 혹은 구사대와 다른없는 상황이었다.

2. 89년 9.4 집단분신 사건

87년의 좌절 이후 침체의 늪에 빠졌던 경동노동자들 사이에서 89년 들면서 새로운 씨앗이 형성되고 있었다. 강현중을 회장으로 30여명의 노동자들이 「디딤돌」이라는 친목회를 만들었다. 그중에는 87년 당시 구사대로 활동했던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현장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의 하나로 '일일주점'을 열기로 하고 티켓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판매를 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주점에서는 풍물놀이 등 문화행사도 곁들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디딤돌 회장 강현중을 포함한 2명을 해고시켰다.¹⁷⁾ 징계 사유는 "(1) 해고자와 어울린다. (2)불법티켓을 팔았다. (3)회사 허가없는 단체(디딤돌을 지칭-편집자주)이다. (4)사물놀이를 하며 풍기를 문란케했다."였다.

디딤돌 회원들은 8월31일 <디딤돌 회원이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노무이사 강의신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한 사람 전원을 징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디딤돌 회원 20명이 오후부터 혈서를 사무실 앞에 붙이고 징계 백지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회사와 노조의 대응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구사대 2-300여명을 동원, 농성을 물리적으로 해산시키려고 시도했다. 농성하는 노동자들도 극한 저항을 했다. 콜라병을 깨자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이과정에서 김종하는 실제로 병으로 배를 긁기도 했다.

다음 날에는 노조에서 대의원회의를 진행한 후 박상협 부위원장을 통해 회의 결과를 전달해왔다. "(1)극단적인 징계(해고)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조에서 앞장서겠다. (2)3인

17) 이하 내용은 89년 경동산업 집단분신사건 이후 작성된 자료집 초안(정식 제목을 알수 없음)에 나온 내용 중 농성노동자들이 직접 작성한 대목만을 추려서 실는다.

외 18명은 농성 책임을 져야 한다. (3)디딤돌이라는 친목단체를 건전하게 운영하되 노조와 회사와 관계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4)회장은 노조에 정식 사과해야 한다. 위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원을 조합원 제명하겠다.”

이날 농성자들은 농성장을 옥상으로 옮겼다.

다음 날 토요일 (2일)에는 출근길에 호소문을 돌리던 가족들이 구사대에게 두들겨 맞았다. ‘회원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죽음은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가자 본관앞으로! 강의신과 직접 담판짓자.’고 하는 판에 대의원 3명이 찾아와서 대화할 것을 제의했다. 농성노동자들은 이들과 대화하며 수정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오후에 노조위원장과의 협상이 있었다. “그러나 위원장은 협상도중 강의신 이사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는 ‘두말 필요없다. 형사고발이나? 전원징계냐? 양자택일하라’고 협박”할 뿐이었으며 구사대들이 옥상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일인 9월4일 회사와 노조는 ‘노사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1)노사공동대처 (2)농성자 통제(옥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다)등의 내용을 합의하고는 노조 부위원장과 회사 차과장을 대장, 부대장으로 한 타격대를 30명으로 구성하고, 노조는 1조 10명씩 3개조로 외부차단조를 구성했다.” 회의 직후 노조집행부는 농성자들의 행동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회사는 농성자 전원 해고 및 구속시키겠다는 통보서를 농성자들에게 보냈다.

이날 농성자들은 극한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¹⁸⁾ 최용진은 “진짜 사람 죽겠다”는 생각에 혼자 노조사무실로가 D공장 부위원장에게 호소했으나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시 ‘말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옥상으로 올라왔을 때 이미 분위기는 격앙돼 있었고 채영중이 투신하려는 것을 강현중이 “마지막 협상이나 해보고 죽더라도 죽자”고 말리고는 투신하겠다는 사람 3명을 막기 위해 3명을 따로 배치해 놓고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3층으로 뛰어갔다. “강의신 나와. 담판을 짓자.”고 외치자 여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누군가 “강의신 여기있다”고 소리쳤다. 정문범 전무이사 사무실이었다. 건물아래서는 박선태와 이영식이 몰려든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강현중은 강의신 이사 앞에서 신나를 자기 몸에 부으며(이미 강현중, 김종하는 온 몸에 신나를 붓고 올라온 상태였다) “조합원 앞에서 담판짓자. 담판 안하면 나 죽어”라고 소리쳤고 강이사는 설마 네간놈들이 죽겠느냐는 투로 비아냥 거렸다. 최용진이 강현중에게 붓지마라고 만류하며 강현중을 끌고 나가는데 강현중이 끌려나오지 않으려는 강이사를 잡아끌고 나왔다. 이때 “갑자기 출입문 문턱 안쪽에서 ‘핑’하며 강이사와 김종하씨가 불길에 휩싸였고 이를 보고 멍하니 서있던 강현중씨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다. 안중준 이종화씨도 몸에 튀어붙은 신나에 의해 불이 붙었고, 최운규씨는 이를 보고 넋을 잃고 이방저방을 뒤져 샘플용 나이프로 자신의 배를 그었다.……원흥식씨가 김종하씨의 불을 끄다가 장갑에 불이 붙은채 울면서 실신할 정도가 되어 뛰어내려왔고 박선태, 최용진씨가 조합원들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 뒹굴며 울부짖었다.”

18) 아래 내용은 농성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황을 들은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이다.

3. 집단분신 이후

노동자 강현중, 김종하 그리고 강의신 노무이사가 사망한 '경동사건'은 발생 한달만인 10월4일 강현중, 김종하 두명의 장례식을 치루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간 방화, 자살 방조, 폭력,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1명이 구속됐다.

분신이후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강현중, 김종하는 9일, 15일 각각 숨을 거뒀다. 그리고 30여명이 온몸에 신나를 붓고 정문앞에 비장하게 앉아 농성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무력으로 진압할 수는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 추석휴가 전 모두가 귀향한 9월13일 공장에 화재가 났다. 농성하던 노동자들은 화재를 진화하러 온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소방차 뒤를 따라온 경찰이 들이닥쳐 농성자 전원을 연행해 갔다.

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도 엄청난 비극에 아연해하면서 경동노동자들에게 “분신은 노동자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살아서 싸우라”고 당부했다. 6일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인민련)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이 총망라해 「경동산업노동자탄압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9일과 22일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한강성심병원에서는 매일 규탄집회를 가졌다. 또한 경동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 끝에 9월30일 회사측과 유가족, 공동대책위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10월4일 장례식을 갖게 되었다. 합의내용은 △신문에 사과문 게재 △구속자 석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 석방시 복직 △징계회부 철회 △노조 총회개최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장례비 지급 등이었다. 그러나 인노협신문 17호는 합의내용을 보도하면서 “회사측의 관행으로 보아 이의 성실한 이행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고 적고 있었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석방이후 회사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상당기간 복직투쟁을 벌인 이후에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관련인물 :

이건택, 이종화, 김학철, 박선태, 오동진, 최성춘 등 다수

관련단체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등

관련자료 :

1. 『줄여모은 인노협신문』,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2. <민주노조> 신문 및 속보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3. <어느 농성노동자의 일기>, 9.4 집단분신 사건경과 자료집 초안
4. <“저임금, 장시간노동, 산업재해의 천국...역사 속으로 묻히나?”>, 매일노동뉴스 2000년 5월
5. 박선태, 이종화, 최성춘 외 경동산업 노동자 인터뷰

관련사건 :

22. 협신사 노동자 이재호 피살 사건

발생일 : 1989년 10월 28일

관련일지 :

- * 2월27일; 협신사에 노조가 결성됐으나 회사측 탄압으로 무력화됨.
- * 10월29일; 협신사에서 노조재건 활동을 하던 이재호 주안노동사목에서 집으로 가던 중 살해된 채 발견됨. 인노협, 인민련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이재호피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 * 11월 2일; 협신사 노동자 8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신사노조재건위원회」 구성
- * 11월 3일; 진상규명위원회 기자회견
- * 11월 7일 '협신사 노조탄압규탄 및 이재호 피살 진상규명과 노동운동탄압과 공안통치 분쇄 결의대회'를 개최

배경 :

협신사는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회사로, 새로 조성돼 공장입주가 시작된 국가산업단지 남동공단은 입주예정 사업장 노조 탄압이 심각했고, 이미 입주한 공장의 노조결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안당국과 자본의 공작이 벌어지고 있던 곳이었다. 89년 2월 협신사에 노조가 결성됐지만 회사의 파괴공작으로 무력화되고 이재호는 「주안노동사목(내일을 여는 집)」을 드나들며 노조재건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내용 :

10월 28일 주안노동사목에서 노조재건 상담을 마치고 29일 0시40분경 귀가하던 이재호가 주안노동사목 인근 태양주차장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이재호를 처음 발견한 태양주차장 경비에 의하면 대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았더니 이재호가 쓰러져 있고 '짧은 머리 곤색 양복의 체격좋은 30대 남자가 도주하고 있어 쫓아가다가 워낙 빠른 속도로 도주해 포기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인민련)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호 피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경찰이 이씨 피살과 관련하여 회사측에 의한 청부살해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고 요식적인 수사만을 진행한다고 10여가지에 달하는 경찰수사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즉 ①목격자의 증언은 배제하고 술먹고 다투다가 사망하였으며 피살자를 목격한 사람을 찾는 전단을 범인의 체격이나 복장 등도 제시하지 않고 배포했으며 ②혈흔, 가격의 방향, 피살 당시의 저항정도, 범인의 숫자와 지문 등을

파악할 유력한 증거인 피살자의 피문은 잠바를 세탁(경찰은 전단작성을 위해 세탁했다고 함)한 점 ③경찰이 가족들을 협박하여 사체를 화장토록 한 점 ④피살자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없었음에도 2시간만에 협신사를 찾아내는 등의 의문점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또 협신사에 노조가 결성된 2월27일 이후 수차례에 걸친 회사측의 폭행에 의해 노조간부들이 잇따라 병원에 입원했으며 특히 사장 이희천은 직접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권총을 머리에 겨누고 위협했다고 폭로했다. 이재호는 이렇게 와해된 노동조합을 재건하기 위해 등불회를 만드는 등 활동을 벌여왔었다는 것이었다.

한편 수사를 담당한 형사는 3일 일단 사장을 입건수사하고 있으나 범행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인노협 최동식 의장, 인민련 이호웅 의장, 대우중공업노조 염성태 위원장, 오용호 신부, 오순부, 문병호 변호사 등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관련인물 :

관련단체 :

주안노동사목,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관련자료 :

1. 『줄여모은 인노협신문』,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관련사건 :

IV. 단체항목 기초조사

1. 인천 가톨릭노동청년회

단체약칭 : 인천JOC

소속단체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기간 : 1966년 -

활동지역 : 인천지역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1958년 11월14일 창설자 카르뎅 추기경의 내한을 계기로 1958년 11월17일 간호사 9명과 박성종 지도신부가 함께 모여 결성하였다. 인천에서는 1966년 화수동본당에서 시작되었다.

해산이유 :

주요인물 :

활동목표 :

1. 일상생활을 통하여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하루하루의 생활환경 속에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수련을 쌓아야 한다,
3. 청년 노동자들에게 공동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일치되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청년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가톨릭노동자청년회 규약

조직체제 :

* 각 본당 단위의 썩션

1. 회장
2. 지도신부
3. 월례회
4. 투사회
5. 예비회

6. 일반회

7. 일반회원

*** JOC조직은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팀이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다. 지도투사는 예비팀을 조직할 때 대체로 일반회를 개최한다. 일반회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예비팀 훈련 기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주 1회씩 반드시 모여 회합을 해야 한다.(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규약)

주요활동일지 :

인천에서는 1966년 화수동본당에서 시작되었다. 화수동에는 공장지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노동 청년들이 많았고, 전국 지도신부와 전국 남자회장이 인천 화수동에 와서 가톨릭청년회를 소개함으로써 본당 신자를 중심으로 동일방직, 이천전기 노동자들이 팀을 이루었다. 이어 답동성당에서는 간호사와 은행원 중심의 가톨릭 노동청년회가 만들어졌으며, 도화동성당에서도 가톨릭 노동청년회가 조직되었다.

인천JOC 회원들은 다니고 있는 현장내 동료들에게 인천JOC를 소개하거나 본당 청년중에 관심을 갖는 신자들에 의해 팀이 구성되었다. 정기적으로 팀 회합에서는 생활반성, 성서 연구, 사회 조사 등을 나누는데 서로의 나눔에 있어 옳고 그름을 신앙의 눈으로 판단하고 실천하게끔 도와준다. 사회조사는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의 모든 실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주위를 관찰하고 판단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이로써 인천JOC가 목적하는 바대로 회원이 된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생활하고 일하는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한다.

최초의 인천JOC 사건은 1968년 1월 4일 강화도 심도직물회사의 '박부양 분회장 해고 사건'에서 발생했다. 삼도직물은 종업원 1200명을 헤아리는 섬유제조업체로서 67년 7월 19일 강화도 직물노조 분회장으로 박부양이 피선되자, 온갖 회유와 설득으로 박부양으로 하여금 노조에서 손을 떼도록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무단결근으로 해고했다. 이에 300명의 노조원들이 강화성당(전 미카엘 신부)내 근로자 센터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강화도내 21개 직물업자들이 인천JOC 회원은 고용하지 아니한다고 결의를 했다. 이에 천주교 JOC 본부는 결의사항 취소와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업자측에 발송하고, 천주교 주교단이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비상주교회의'를 소집하고 '사회정의와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강화 심도직물에서 비롯된 사건이 단순한 노사분규 성격을 떠나 종교문제와 결부된 일대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그 후 68년 3월경 여론에 힘을 얻어 박부양은 중앙노동위에서 승소했다.

70년대 동일방직 사건에서는 도시산업선교회와 천주교 JOC 회원들이 최초로 연대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

80년대에서는 원풍모방사건과 관련하여 부평 일대의 노동사목을 담당하던 인천JOC 마틴 라우어리 신부와 윤 수산나 자매를 경찰이 빨갱이라 허위선전하고 인천JOC 회원을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코리아스파이서사가 인천JOC 회원이라는 이유로 6명의 노조 조합원을 탄압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 후 인천JOC 교구연합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인천지역 노동문제 및 인천JOC 탄압 사례'를 열거했다. 또한 인천

JOC는 이리 태창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사건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고자 복직과 취업보장 및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여 교구 및 사회단체에 배포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인천지역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해 대우자동차 사건과 관련 14개 단체 공동 명의로 '노동악법 개정하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장기집권음모 분쇄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도 적극 참여했다. 인천교구 차원의 연대는 가톨릭대학생회, 청년회와 <호헌책동분쇄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으로 답동성당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그리고 광주항쟁 7주기를 맞아 사진전, 미술전, 비디오 상영, 연극공연 등 추모행사를 열었다.

인천JOC의 본당활동은 일반회원의 만남의 장, 풍물강습 등을 통하여 본당 신자와 현장 동료들을 만나고, 교구 사업으로 회원 교육, 공개 교양 강좌, 하계수련회, 피정, 성지 순례 등을 통하여 회원 확장 및 회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인천교구 가톨릭 노동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는 본당은 석남동, 산곡동, 만수동, 송림4동, 삼전동, 원미동이다.

관련자료 :

1. 『인천교구 평신도 단체사』
2.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25년사』, 분도 출판사
3. 암흑속의 횃불

2.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단체약칭 : 인천정평위

소속단체 : 한국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기간 : 1976년 10월 30일 ~

활동지역 : 인천지역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제정한 <현대 교회에 있어서의 사목헌장>의 요청에 따라 1967년 교황 직속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교회의에서 가톨릭구제위원회의 한국지부장 캐를 몬시놀에게 한국 정의평화위원회의 설립을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 8월24일 대전 성보여고에서 전국 가톨릭 대표 24명이 참여하여 설립

되었다. 인천에서는 1976년 10월 30일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천교구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구장의 인준을 받고 결성되었다.

해산이유 :

주요인물 : 김병상 신부, 조성교 신부, 호인수 신부 및 인천 정평위 소속 신부

활동목표 :

복음적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현실을 연구, 검토하여 하느님 백성에게 사회 안에서 시대적 사명을 자각시키고, 그리스도적 증거의 생활을 격려, 권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함

*** 1988년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회칙

조직체제 :

1. 위원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2인
4. 상임위원 10인 내외
5. 위원의 수는 40인 내외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

*** 1988년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회칙

주요활동일지 :

정의평화위원회 인천교구 위원회(인천정평위)는 1976년 10월30일 교구장(나길모 주교)의 인준을 받아 구성되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병상 신부가 선임되었다.

1970년대의 인천정평위 활동은 한국 정평위의 성격이 강해서 본부 정평위의 사업 방향에 입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즉 전국 정평위에서 주관하는 사회 정의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고, 평화의 날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신자 교육으로 사회에 대한 가르침과 그 역할에 대한 의식 개발을 위하여 교구내 사목위원을 위한 피정을 하였다. 또한 신자들의 기도문을 작성하여 본당에 배포하고,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운동을 전개하였다.

78년에는 동일방직 사건 관련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이 사건으로 인천정평위 초대 위원장 김병상신부가 구속되었다. 79년 인천정평위는 동일방직 사건으로 구속된 노동자와 시국 사건으로 구속된 인하대 학생들을 위해 3월18일 주일미사 때 2차 헌금을 모금해서 이들을 도왔다. 또한 8월에는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오원춘 사건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53만원을 모금하여 안동교구에 전달했다.

1980년대에 인천정평위는 많은 신부들의 참여로 독자적 사업을 진행하였다. 광주항쟁 때 희생된 이들을 위한 추모미사를 봉헌하고 희생자를 위해 기도회를 열었으며, 이 땅의 민주화와 정의평화 실현을 위해 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구속자와 가족을

위한 모금을 교구내 각 본당에 의뢰하여 시대의 아픔에 동참했다. 1986년 12월부터는 <정의평화>라는 월보를 발행하여 왜곡된 보도로 숨겨진 내용들을 교회 정신에 입각하여 신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KBS의 공영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하는 시청료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서명’을 전개하고 ‘시국 관련 미사’를 열어 인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국가 권력과 대립 관계를 가져가면서 사회정의 운동에 집중했던 7, 80년대와 다르게 지역운동을 전개하였다.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운동’, ‘계양산 위락공원 반대운동’,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 저지운동’, 생명운동으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 ‘재생용지 사용하기 운동’,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선인학원 정상화운동’ 등을 그 실례로 들 수 있다. 이때도 물론 주요 정치 사안에 입장을 표명하고 신자들과 함께 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구속촉구 운동도 전개하였다.

정평위는 90년대 말부터 본당과 교구에서 사회정의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사목부(국)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 산하 사회사목 소위원회를 만들고 교구와 본당의 사회사목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기초하여 교구 대의원회에서 사회사목국 신설을 제안하였고, 2001년 사회사목국이 신설되었다. 정평위는 사회사목국과 연대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지역내 타 부문운동에서 앓는 미개척 영역운동인 언론개혁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자료 :

1. 인천 정의평화위원회 월보 <정의평화>
2.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나아갈 길>, 오경환 신부

3. 앰네스티 인천 지부

단체약칭 :

소속단체 : 앰네스티 한국 지부

활동기간 : 1978년12월10일 ~ 1980년 5월

활동지역 : 인천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합법

결성과정 :

유신정권하에도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결성되어 있었다. 앰네스티는 정

보부등의 사찰기관에서도 함부로 탄압할 수 없는 국제기구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모임은 어느 정도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앰네스티 인천지부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해산이유 : 신군부의 강제 해산명령에 의해 강제 해산됨.

주요인물 :

황상근 신부, 최분도 신부, 장정옥(시인), 한상희(교사), 김세수(교사), 정세일(학생), 홍덕률(학생)

활동목표 :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권리임을 상기하고 이를 침해하는 일체의 가혹, 부당한 처우를 시정하는데 노력한다.

조직체계 :

1. 지부장 : 황상근 도화동성당 신부
2. 운영위원 : 최분도 송현동성당 신부, 장정옥, 김세수,
3. 감사 : 김병상 답동성당 신부, 한상희

주요활동일지 :

*** 연표 참조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1977년 3월부터 한상희(75년 유신반대 제적)는 제물포에 알파학원을 차리고 김배철(75년 유신반대 제적), 정성현(75년 유신반대 제적), 조용명(교사) 등과 자취하며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세력의 규합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10월경 동기생 백영서(74년 민청학련 제적)을 만나 인천에서 공개운동을 할 것을 제의받았다.

같은 시기 장정옥(시인)은 이복희(학생)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이복희의 소개로 정의평화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황상근신부를 만났다. 황신부는 장정옥에게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에 지부가 있고 거기서 어떻게 양심범을 도와주는지 알려주었다. 장정옥은 양심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공개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양심수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송현동성당 최분도 신부님을 소개 받았다. 최분도 신부님은 메리놀 소속으로 덕적도에서 병원을 세우고, 남민전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했었다. 황상근, 최분도 신부님도 인천에서 종교 밖의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정세일(학생)은 기독교 운동을 하던 중 당시 앰네스티에서 활동 중이던 윤현 목사를 만나 한국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한국 앰네스티는 자국내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학생출신, 가톨릭, 기독교에서 활동 중이던 이들 3명은 송현동성당에서 소모임을 갖고,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임시 사무실을 77년말 송현동성당에 개설하였다. 이후 정창용(학생), 김세수(학생), 조인성(학생), 임용표(학생), 홍덕률(학생), 이진용(학생) 등이 더 합류하였다. 한상희는 운영자금을 종교계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후배인 김세수와 동인천 근처 용동에 사설학원(일명 용동대학)을 차리고 운영비를 마련했다. 77년 한국 앰네스티는 노벨 평화상과 관련 전국순회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인천에서는 11월29일 송현동성당 교리실에서 개최되었다. 78년 5월5일 한국 앰네스티 총회에서 인천교구 주교 나길모가 이사장이 되고, 인천 교구 김병상 신부가 이사로 임용되었다. 78년 7월28일~30일 한국 앰네스티는 전북 내장산에서 하기 수련회를 개최했다(서울, 인천, 전주, 광주, 부산, 대구에서 참가). 이 대회에 전국에서 청년 70명이 참가했고, 인천에서도 10여명이 참가했다. 이때부터 인천지부 창설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인천 지부 준비위는 78년 11월에 대성리로 MT를 가서 창립총회 준비 및 향후 합법적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했다. 그리고 78년 12월10일 인천 지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출범 후 조직은 지부장에 황상근신부, 운영위원에 최분도신부와, 장정옥, 김세수, 감사에 김병상신부와 한상희였다. 추가 회원으로 나준식, 이화선, 최명숙, 강우경 등이 합류했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번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강연회를 열어 유신독재의 실상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했다.

79년 2월6일 인천 앰네스티, 정의구현사제단, 인천교구, JOC 공동주최로 ‘김지하문학의 밤’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문학의 밤은 당시 필화 사건으로 구속된 저항시인 김지하의 작품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강사로 나온 고은 시인은 유신정권의 부당성과 김지하 시인이 왜 감옥에 있는지를 강연했다. 참석자 수는 700~800명 정도가 되었다. 행사 후 회관 앞길에서 회원과 일반 시민들은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자진 해산했다.

한국 앰네스티는 7월26일~28일까지 전국 회원 여름 수련회를 서울 성공회신학대학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인천 지부가 대회 행사 안내 및 프로그램 일부를 책임맡아 진행했다. 26일 오전에는 “양심과 고난”이라는 주제로 김수환 추기경의 강의가 있었다. 오후에는 특강으로 이재정 이사의 강연과 인천에서 준비한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가 상영됐다. 27일 오전에는 “아시아 인권상황과 앰네스티”라는 제목으로 안재웅 KSCF 총무의 강의가 있었고, 임재경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특강이 있었다. 오후에는 인천지부에서 준비한 “노동문제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노동 현실과 노동운동의 상황을 나준식 인천지부 회원이 발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의는 인천 지부에서 주관했다. 밤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회원들과 우리나라의 인권과 유신의 폭력성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28일 “국제 인권규약 비준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한승헌 전무이사가 강연했고, “앰네스티 운동에 관한 대화”가 임헌영 홍보이사의 사회로 전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그동안 앰네스티 운동의 결과 보고와 2박3일 간 행사 평가와 결의대회를 갖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지부가 정식으로 출범된지 1년도 안돼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행사를 책임있게 치러낸 회원들은 자신감을 가졌다.

인천 앰네스티는 지역 양심수를 선정하여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8월에는 송현동성당에서 이우재(긴급조치9호 구속) 석방 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9월22일에는 김동길박사의 “역사와 지식인”이란 주제로 답동 가톨릭회관 304호에서 인권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500명 정도의 학생과 시민이 강의를 들었다.

79년 유신말기에 이러한 대외적인 행사를 소수의 인원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용기와 신념 그리고 종교계의 도움 덕분이었다. 그후 회원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10.26이후 민주화의 봄을 맞아 80년 4월19일 가톨릭회관에서 4.19혁명정신을 기리는 “4월제”를 인천 앰네스티 주관으로 개최했다. 행사는 기념시 낭송, 창, 위령제, 선언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민주화의 봄 당시 회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학교와 지역에서 열심히 민주화운동을 하였다.

5월18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일당은 정치활동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활동도 금지했다. 불법적인 힘에 의해 인천 앰네스티도 강제 해산됐다. 강제 해산 후 일부 회원들은 개인의 집에 모여 모임을 계속했고, 일부는 비합법 공간으로 들어가 군부 독재정권에 저항했다.

앰네스티 인천지부는 악랄한 유신말 인천 최초의 합법 공간으로서 기독교, 천주교, 일반 시민,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모여 유신반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소였다.

관련자료 :

1. 한상희, 장정옥, 정세일, 나준식 구술 및 서술
2. 앰네스티 정기 간행물

4.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단체약칭 : 인사연

소속단체 :

- 1985년 3월 29일 - 1989년 1월 21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내 지역운동협의회
- 1988년 9월 11일 - 1991년 12월 1일; 민족민주운동연합 내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 1991년 12월 1일 - 1992년 해산 시까지; 전국연합 내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활동기간 : 1984년 11월 19일 ~ 1992년 해산

활동지역 : 인천지역

법적상태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1983년 민청련 창립과정에 참여한 이우재가 79년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알게 된 인하대 출신 조용호, 안영근, 80년 8월 포고령 위반사건 때의 공범 이정남 등과 인천지역에서 민청련과 같은 청년조직을 만들 것을 84년 초부터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84년 8월 안동 가톨릭농민회관에서 열린 민청련 하기수련회에도 함께 참여하여 민청련의 경험을 참고로 인천지역내의 청년조직 건설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당시 인천의 운동역량상 청년 단독으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을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에 이우재는 고등학교 선배 이호웅, 인천교구 홍보국에서 근무하던 운동권 선배 이명준과 이 문제를 상의한 결과 인천의 운동역량상 청년 단독의 조직은 불가능한 관계로 종교계까지 포함하여 노동운동권을 제외한 인천의 운동역량 전체를 묶는 공개단체를 세우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가톨릭과 개신교 운동세력과 학생운동의 경험이 있는 인천 출신 활동가 중 노동운동에 투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모으기로 하고, 가톨릭을 대표하여 제정구, 이명준, 김영준, 개신교를 대표하여 김정택, 이민우, 기타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로 이호웅, 황선진, 김도연, 한상희, 이우재, 조용호, 여성으로 장정옥이 발기인이 되어 84년 10월 25일 경기도 시흥 소재 작은자리 제정구의 집에서 발기 모임을 가졌다.

한편 인사연의 출범 전에 가톨릭, 개신교, 일반 활동가들의 연대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84년 9월 3일 인천 가톨릭회관에서 전두환 방일 반대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의 기초 위에 84년 11월 19일 오후 7시 답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인사연 창립대회를 갖고, 의장에 제정구, 부의장에 이명준, 이호웅, 김정택, 총무겸 대변인 황선진, 운영부장 이우재, 사회부장 이민우, 재정부장 조용호, 여성부장 최인숙, 사회부차장 고남석, 운영부차장 권병기를 선임하고, 사무실은 인천 용동 마루턱에 설치하였다.

해산이유 :

90년대 초반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인사연 또한 주요 활동가 사이에 민족민주운동권의 운동 이념에 대한 혼란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또한 6월항쟁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 정치세력화 문제를 둘러싼 운동권의 분열, 91년 5월투쟁 이후 급격한 운동권의 위축 등으로 주요활동가 사이에서 이제까지의 운동 방식으로는 안되겠다는 인식도 팽배하였다. 여기에 인부노회와의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인부노회 회원과 기존 인사연 회원간의 불화도 인사연 운동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갖게 만들었다.

인사연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결과 회원들 사이에서 인사연을 개편하자는 주장과 아예 해산하고 인사연과 무관하게 새롭게 나갈 사람들끼리 따로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우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인사연 주요 활동가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결국 인사연을 해산하고 새롭게 출발할 사람들은 새롭게 알아서 출발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92년 인사연을 공식 해산하였다.

주요인물 :

주요간부; 제정구(초대 의장), 이명준(부의장), 이호웅(2대 의장), 김정택(부의장), 김영준(부의장), 황선진, 이우재, 홍성복(3대 의장), 조용호, 권병기, 김종현, 안재환(4대 의장)
지도위원; 조성교, 호인수, 김용환, 이성득, 홍창만(이상 신부), 조화순, 이은규(이상 목사)

활동목표 :

1. 민주주의의 실현
2. 민족통일
3. 민주노동운동 동참, 지원
4.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제반 문제의 동참
5. 건전 지역사회 조성

*** 84년 11월 19일 창립선언문에 따름.

조직체계 :

1. 총회; 회원들로 구성
2. 중앙위원회; 인사연의 최고의결기구로 의장단, 집행국장 및 각 부서장, 상임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
3. 의장단;
4. 집행국; 인사연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총무부, 사회부, 기획부, 여성부를 설치.
5. 상임위원회; 지역사회의 노동, 주민 등 제반 현장에서의 문제를 연구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노동분과, 주민분과, 홍보분과, 문화분과, 여성분과로 구성.
6. 지도위원회; 신부, 목사나 기타 지역사회내 명망가로 구성되었으며 인사연활동의 지도, 지원이 목적.

*** 1985년 3월 19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조직 개편안에 따름.

주요활동일지 :

*** 연표 참조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 창립에서 85년 9월까지

84년 11월 창립 이후 인사연은 먼저 인천지역 출신으로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청년들과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 청년들을 조직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민청련을 본받아 나이(학번)별로 모임을 만들어 하부 회원구조로 만들고, 이 구조를 중요 정책 결정 시 의견 수립과 집행 시 동원, 회비 수납 단위로 상정하였다. 고남석과 권병기가 차장으로 실무진에 참여한 것은 인천지역 내 자생적인 학생 독서회와의 조직적 연계를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인천지역 내 청년, 학생들과의 조직적 연계는 어느 정도 확립할 수 있었다.

당시 인천지역은 대한민국 유수의 공업지대로서 많은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에 투신하고자 인천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인사연은 이들과의 연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85년 초 인사연에 합류한 김진태, 임해규는 인사연과 노동운동과의 연계를 위한 것이었고, 85년 3월의 조직 개편(상임위원회 설치)은 이들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인사연은 이들을 통해 노동운동의 동향을 읽고 노동운동에 투신한 인사들의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애썼다. 이런 작업은 85년 2월 7일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인천노복)가 창립되면서 인천노복과의 연대 활동을 통하여 집행되었다. 인사연이 단독 또는 몇몇 단체와 연대하여 제작한 <노동자의 벗, 85/1>, <최저임금 10만원 이상 의무화, 85/1>, <올해 임금 얼마나 올라야 하나, 85/3>, <인천지역 제조업 실태조사, 85/4> 등은 이런 작업의 소산이었다. 인사연은 인천노복과, 때로는 가톨릭이나, 개신교 단체와도 연대하여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제반 투쟁에 대한 지원 사업도 병행하였다. 그런 것은 주로 성명서 발표나 집회 개최, 또는 시위 동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사연은 공개운동단체로서 민주화투쟁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기관지 <민주화의 물결(이후 2호부터 “인천의 소리”로 개편)>을 84년 12월 25일 창간하였다. 기관지는 원래 매월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 그 배포는 성당이나 교회를 통하여 또는 관련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때로는 회원들을 동원하여 일반 가정집에 직접 투입하기도 했다. 그리고 4.19나 5.18과 같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요 기념일에 집회를 개최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집회 때에는 반드시 뒷풀이라 하여 후속 시위를 자연발생적으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직하였다. 시급한 현안이 떠오를 때면 관련집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성명서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형식으로 현안에 대한 인사연의 입장을 밝혔다. 85년의 4.19 기념집회, 5.18기념집회, 각종 유인물이나 성명서 등은 이런 작업의 소산이었다.

85년 여름 수련회는 영종도에서 실시되었다. 이 수련회에서 인사연의 방향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하나는 인사연의 활동을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자는 의견이었고, 하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치투쟁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었다. 논쟁의 결과 정치투쟁에 중점을 두자는 쪽이 우세를 점하면서 노동운동쪽에서 파견된 김진태, 임해규와 고남석이 인사연을 이탈하였고, 그에 따라 조직의 위상도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의 가톨릭, 개신교와의 연합 조직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실질적으로 빠지고 일반 청년들의 단일 조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85년 9월의 총회에서 제정구의장과 이명준, 김정택 부의장이 사퇴하고 이호웅이 의장을 맡게 되었으며, 상임위원회가 폐지되고 집행국 단일 구조로 일원화되었다. 황선진 집행국장이 물러나고 이우재가 신임 집행국장을 맡았고, 홍성복이 제반 홍보를 책임지는 편집실장을 맡았다. 이 조직 변화는 인사연의 역량을 대폭 약화시켰으나 한편으로는 단일한 성격으로 일원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 실무진의 주요 멤버였던 이우재, 홍성복, 조용호, 권병기, 김중현은 향후 인사연이 해산될 때까지 인사연과 실질적으로 행동을 같이했고, 인사연의 핵심이 되었다.

*** 85년 9월부터 86년 5.3인천항쟁까지

이 시기의 인사연은 그 역량이 많이 축소된 결과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대신 인사연은 민통련과의 연계 속에서 민통련 산하 각 지역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였고, 지역 내에서도 노동운동보다는 천주교인천교구청년회 등 지도위원들이 많이 있던 가톨릭과의 연대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 그런 관계로 집회도 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집회나 아니면 정치 현안과 관련한 집회에 주로 치중하였고, 홍보 활동도 주로 인사연 단독으로 유인물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기관지 <인천의 소리> 제작, 배포에 집중하였다.

86년 들어 인사연은 신민당 개헌추진위 각 도별 지부결성대회가 국민들의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에 주목하여 5월 3일 예정의 인천지부 결성대회를 민주화운동의 일대 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온힘을 집중하였다. 인사연은 민통련 산하 각 지역운동단체들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인천 5월 3일의 계획을 준비하였다.

당시 운동권은 운동 이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개헌 문제만 하더라도 삼민헌법을 위시하여 여러 논의가 오고갔고, 미국에 대한 문제, 소위 CNP 문제 등을 둘러싸고 많은 운동 집단끼리 의견이 엇갈렸다. 인사연은 회원간의 토론을 통하여 헌법문제는 민주헌법, 미국에 대한 문제는 직접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제기한다, CNP논쟁은 현단계에서 혼란만 가져올 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민통련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이런 입장으로 5월 3일을 맞이하기로 하고 준비하였다.

5.3인천항쟁 준비 과정에서 인사연은 천주교인천교구청년회, 인하대, 인천대 학생운동권과의 합의를 거쳐 함께 행동을 같이하기로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인노련 및 기타 노동운동권, 서울지역의 학생운동권과는 연락 미비와 의견불일치로 행동 통일을 꾀할 수 없었다. 그 결과 5월 3일 인천항쟁은 운동권의 분열상을 노출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5월 3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사연은 호인수 신부 등 가톨릭 신부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호인수 신부는 사전 모임 장소인 고잔성당을 교섭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위용품 제작 및 사전 집결장소 주안1동성당의 사용도 섭외하여 주었고, 시위에 필요한 자금 300만원을 마련하여 주었다. 이 결과 형성된 인사연과 신부들과의 관계는 향후 인사연이 제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 5.3인천항쟁부터 87년 대선까지

5.3인천항쟁으로 인사연은 이호웅 의장, 황선진 전집행국장, 이우재 집행국장, 홍성복 편집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지명수배됨으로써 지도력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였다. 후임 집행국장으로 안영근이 선출되었으나 운동권에 대한 전두환정권의 극심한 탄압으로 활동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인사연은 신임 집행국장 안영근과 권병기, 김중현을 중심으로 가톨릭과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아갔다.

86년 11월 24일 인사연은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천주교인천교구청년회, JOC 등 5개 단체와 함께 「장기집권음모 분쇄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건설하였

다. 인사연은 이 공대위를 중심으로 87년 상반기 투쟁과 6월항쟁을 전개하였다. 공대위는 공개된 6개 단체 외에 노동현장의 비공개단체와도 함께 논의구조를 갖고 87년 싸움을 이끌어갔다. 인사연 지도부가 구속, 수배되어 있던 관계로 상층 교섭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인천지역에서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지 못했다. 인천에서는 공대위가 국본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인천국본은 6월항쟁이 끝난 87년 9월 6일에야 결성될 수 있었다. 그것은 6월항쟁이 끝난 후 황선진, 홍성복 등 인사연 지도부가 일부 수배 해제되고, 억압적 상황이 완화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이런 결과로 인천국본은 결성 후에도 타 지역 국본과 같은 위상을 갖지 못했다. 인천에서의 정치투쟁의 제반 문제는 5.3인천항쟁을 주도한 인사연이 중심이 되었다.

87년 10월 12일 인사연이 가맹단체로 있던 민통련 중앙위원회에서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결정하였다. 수배 중이었던 이우재는 황선진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한 결과 민통련의 비지 결정은 옳지 않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우재와 황선진은 당시 집행국장 홍성복과 협의하여 민통련 중앙위원회에 비지 결정에 대한 재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통련 중앙위원회가 재차 비지 결정을 확인하면서 민통련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놓고 11월 계산동 성당에서 인사연 주요 활동가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민통련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쪽이 한 표 차이로 다수가 되었다. 이 표결에 대해 박귀현, 황선진, 안영근 등이 수용 불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인사연은 둘로 갈라졌다. 황선진, 안영근 등은 나중에 따로 인천민중연합을 결성하였다. 인사연은 이우재, 홍성복을 중심으로 다시 조직을 추스르고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 활동을 전개했다. 8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이 패배하면서 인사연은 인천 내에서 그 책임을 져야만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인사연은 자의반타의반으로 비판적 지지파(소위 NL진영)의 정치적 중심이 되었다.

*** 87년 대선 패배 이후부터 91년 1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부노회)와의 통합까지 87년 대선 패배로 인사연은 분열의 아픔을 겪었으나 곧 홍성복을 중심으로 조직을 추스르고 일상활동에 나섰다. 88년 2월 구속 중이던 이호웅 의장이 석방되고, 6월에는 이우재가 석방되면서 인사연은 86년 5.3인천항쟁 때의 지도력을 회복하였다.

87년 6.29선언으로 형식적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인사연 활동의 대외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인사연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대중과의 접촉을 강화하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었다. 기관지 인천의 소리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발간하였고, 인천민주시민학교를 개설하여 공개 강좌를 통해 시민 상대의 의식화 교육을 진행하고, 회원 확충을 도모했다. 인천민주시민학교는 후에 인천시민강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청년강좌, 노동 강좌 등의 부설 강좌도 개설하였다.

인천시민학교 수강생들 중 상당수가 인사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인사연의 조직 구성도 변화하였다. 이전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이전의 나이(학번)별 중심의 회원 구조가 각 활동반, 혹은 지역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인사연은 88년 12월 북부 지부를 개설하였고, 89년 상반기에는 남부지부가 창립되었다. 회원들은 지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대외 업무는 본부 실무자들이 맡았다. 이무렵 이호웅의장이 88년 9월 창립된 인민련 의장을 맡으면서 의장에서 물러나고 홍성복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인민련이 창립되면서 인사연의 대외활동은 주로 인민련 내에서 이루어졌다. 인사연은 인천민주청년회, 가톨릭청년회 등과 정치적으로 NL진영에 속해 있었다. 인사연은 인천 NL진영의 중심으로 정치세력화 문제에서 민족민주세력의 독자 정치세력화에 반대하고 평민당 등과의 연대(범민주연대)를 강조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인사연과 PD진영간의 갈등은 깊어져갔다. 사실 이우재, 홍성복 등 인사연 핵심 지도부는 일방적인 범민주연대(골수 비지)에 찬성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NL진영의 중심 노릇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연의 결정은 늘 NL진영의 정치적 입장으로 경도되곤 했다.

일반 시민이 회원의 다수를 점하면서 회원들 중에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는 회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인사연 지도부의 활동 경력이 주로 정치투쟁에 치우쳐 있어서 인사연 지도부는 회원들의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한 고심 끝에 인사연 지도부는 정치적으로 NL진영에 속하면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부노회)와의 통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인부노회와의 통합은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최대의 논점은 인사연이라는 명칭의 존속 문제였다. 인사연 지도부는 인사연이라는 명칭에 대해 끝까지 고집하였다. 결국 인사연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인부노회와의 통합이 타결되었다.

*** 92년 해산까지

인부노회와 통합하면서 인사연의 NL적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인사연은 명실상부한 인천 NL진영의 대표였다. 인사연은 91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평민, 민주 양당과 연합하여 범민주야권단일후보를 추진하였다. 지루한 협상 끝에 91년 5월 범민주단일후보가 성사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중당 진영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인사연과 PD진영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한편 91년 기초의회 지자제 선거에서 인사연 북부지구 회원 김종구가 북구의회에 의원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인부노회와의 통합으로 인사연 활동의 중심이 급격히 노동운동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런 이동의 결과 기존 인사연회원들이 인사연 활동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다. 인부노회쪽 회원들이 오랫동안 노동현장에서 운동 경험을 쌓아왔던 것에 비해 기존 인사연 회원들이 운동경험이 일천했던 것도 기존 인사연 회원들의 소외감을 더욱 깊게 하였다.

이런 와중에 91년 6월 27일 인사연 정기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인사연 회원 유재관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공개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인부노회쪽 회원들이 총회 준비를 위하여 인사연 본부 사무실에서 밤늦게 회의를 하던 중 경찰이 습격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도피하다가 유재관이 3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기존 인사연회원과 인부노회쪽 회원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었다. 인부노회쪽 회원들이 그동안 인사연 내에서 가명을 써왔던 것이 발각된 것이다. 유재관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사태 때문에 가명 문제가 일단 봉합은 되었으나 양측의 감정의 골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91년 가을 총회에서 홍성복이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인부노회 회장이었던 안재환이 인사연 4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안재환은 의장이 되면서 인사연회원들에 대한 사상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안재환의 이런 방침은 기존 인사연 회원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기존 회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인사연 현직에서 물러나 있었던 이우재가 기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나섰다. 이우재는 현 운동 상황이 이미 80년대 가두에서 전두환정권과 투쟁하던 시대와는 많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이우재가 보기에 이제 80년대식의 운동은 시대에 맞는 운동이 아니었다. 그런데 인사연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80년대식의 운동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우재는 인사연을 해산하고 각자 운동 노선에 맞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길을 어떻게 가는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이우재, 홍성복 등 인사연 구지도부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우재의 이 방침에 일부 회원들의 반대도 심했으나 이우재의 강력한 주장으로 기존 인사연 회원들은 인사연의 해산에 동의하였다. 이우재는 이 방침을 인부노회 지도부에게 통보하고 곧바로 인사연 해산 절차에 착수했다. 이것으로 84년 11월 창립된 인천 최초의 공개 민주화운동단체인 인사연은 해산되었다

관련자료 :

1. 인사연 발기문과 창립선언문
2. 인사연 기관지 <민주화의 물결(창간호)>, <인천의 소리>와 기타 각종 유인물들
3. 이우재가 작성한 인사연 해산 제안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의 바다로 나아가자>
4. 이우재 증언

5.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단체약칭 : 인천노협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존속/활동기간 : 1985년 2월7일 - 86년 2월7일(인노련 결성과 동시에 활동정지)

활동지역 : 인천, 부천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인천노협의 핵심멤버들은 모두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에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노협이 블랙리스트 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부딪치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특히나 서울지역보다 인천은

훨씬 ‘절박한 투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한국노협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문제인식이 강했다. 이런 문제인식이 점철되어 양승조를 중심으로 70년대 민주노조 활동가들 중 인천지역 출신들과 80년대 새로이 형성된 노동자 출신활동가, 그리고 학생출신 활동가 일부가 85년 2월7일 인천노협을 창립했다.

해산이유 :

공개,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투쟁은 노동조합 활동 및 투쟁 지원,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법적인 상담 등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화국면 때 만들어진 노조들이 85년도에 탄압으로 깨져나가고 독재정권의 탄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회변혁없이는 노동자의 처지도 개선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정치 투쟁조직’인 인노련이 결성되면서 인천노협은 활동 정지상태가 되었다.

주요인물 : 양승조, 김지선, 전희식, 서기화, 김용자, 최연봉, 신정길 등

활동목표/강령 :

창립선언문을 통해 “역사 발전의 주인공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절대적 다수인 우리 노동자들이 어둠이 깊고 날이 추울수록 불꽃같이 산화되는 등불이 되어 밝은 새봄의 길목을 밝혀줄 것”임을 선언.

조직체계 :

1. 의장: 양승조 (전 청계피복노조 지부장, 인천산선 간사)
2. 부의장: 서기화(삼익악기 블랙리스트 해고자), 최순영(YH노조 전위원장)
3. 회계감사: 이충각(동일방직 전지부장), 조금분(반도상사)
4. 기획담당: 이교일(코리아스파이서 해고자), 진금숙(코리아스파이서 퇴사자)
5. 사무장: 김복자(김지선, 삼원섬유 해고자)
6. 사무차장: 김일섭(진도 해고자, 학생출신)
7. 조직부장: 김명종(삼익악기, 경신공업 해고자)
8. 교육부장: 전희식 (대우자동차 노동자)
9. 홍보부장: 정명자 (동일방직 해고자)
10. 정책실장: 한덕희 (경동산업 해고자, 학생출신)
11. 상담실장: 박윤배(대우중공업 노동자)
12. 여성부장: 김용자(동일방직 해고자)
13. 조사통계부장: 유재홍(목공 노동자)
14. 사업부장: 권우철
15. 후원단체 :
 - 천주교인천교구 홍보교육국
 -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국

천주교인천교구 JOC
 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청년회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회
 기독교노동자총연맹
 교회노동야학총연합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주요활동일지 :

- * 1984.09.27;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 노동법개정촉구인천대회 개최
- * 1984.10.03; 한국노협 노동법개정 청원서 국회제출, 제3자개입법 폐지 등 요구
- * 1985.01.17; 한국노협 민한당사에서 농성중인 블랙리스트 해고자들 관련 성명발표
- * 1985.02.07;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인천노협) 인천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창립대회
- * 1985.03.10; 한국노협 등 7개단체 공동 노동절 성명발표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국내 소수 재벌들과 외국 기업 그리고 특권층만을 살찌우는 특혜로 일관한 현 군사독재정권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임을 직시하고, 이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복지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민주화운동의 장정에 설 것”을 다짐. 이날 한국노협 주최로 서울 홍제동 성당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근로자의날 기념행사를 가진 뒤 투석시위.
- * 1985.04.10; 한국노협과 인천노협 공동주최로 노동운동탄압규탄대회를 부평1동 천주교회에서 열려고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무산되자 미리 들어가 있던 21명의 해고노동자들이 농성 돌입, 나머지 사람들은 부평역, 부평시장로타리 등서 부당해고 중지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 이날 시위로 25명 연행됨. 한편 부평1동 천주교회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인천 가톨릭회관에서 농성 해단식을 가지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강제 해산됨.
- * 1985.04.18; 인사연과 공동으로 4.19학생혁명 25주년 기념대회 개최.
- * 1986.02.07; 인노련 창립과 함께 활동정지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한국노협과 인천노협

“우리들은 유신독재의 어두운 시대에 민주노동조합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권력의 잔인한 탄압에 의해 희생된 당사자로서, 비조직적이고 고립분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운동의 주체성, 연대성을 드높이고자 한다.”

1984년 3월10일 서울 홍제동성당에서 2천여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이 모인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진 한국노협은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피복, 반도상사, YH무역, 콘트롤데이타 등 70년대 민주노조활동을 했던 간부, 조합원들과 원주 이창복 등 노동운동을 지

지, 지원하는 인사와 단체가 응집된 ‘노동운동의 구심’이었다. 이미 전두환정권은 폭압 정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여 소위 ‘유화조치’를 실시한 상황이어서, 민주통일국민회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등의 공개운동단체들이 결성되어 있었다.

한국노협은 기관지 <민주노동>을 발간하고 운동단체와 연대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두환 등장 이후 80년말 개정된 노동법개정운동에 나섰다. 84년 10월12일 민주한국당 김병오 의원 등 18명의 서명을 받아 노동법개정 국회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노동법개정 서명운동과 함께 인천, 원주, 광주, 대구 등에서 노동법개정촉구대회를 열었다. 60년대 이후 처음 시도된 대중적 제도개선 투쟁이었고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당장 현실에서 눈 앞의 탄압’을 보고 있던 인천의 활동가들은 이를 매우 답답하게 여겼다. 양승조, 전희식, 김지선, 최연봉 등은 블랙리스트와 그해 만들어진 민주노조들에 대한 탄압(인천지역은 84년 하반기 이미 상당한 탄압을 받고 있었다)에 한국노협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 양승조를 중심으로 하여 인천노협이 만들어졌다. 이후 1년 뒤에 “노협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인노련으로 전환했지만, 이때까지는 ‘인적구성’의 문제였다. 외형적으로는 한국노협의 확대, 강화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독자적인 조직을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인천노협의 핵심들은 대부분 중앙의 한국노협의 직책도 같이 맡으면서 긴밀한 유대를 갖고 활동을 벌였다.

인천노협은 창립이후 1년동안 지역 노동운동의 구심으로 기능했다. 당시 노동자출신과 학생 출신을 가리지 않고 인천의 핵심 활동가 상당수를 포괄하고 있었고,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산선, 인사연, 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련), 교회노동야학총연합회 등 친구교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또 공개적인 공간을 가질 수 없던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인천노협 사무실(부평3동성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를 인천노협은 수용했다.

또 85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대우자동차 파업농성을 밖에서 지원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등 중요한 투쟁과 사건에서 구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당시 인천으로 엄청난 학생출신 활동가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인해 ‘새로운 노동운동의 조류를 흡수하는데 용이했던’ 인천노협 활동가들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이 장점도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이에 85년 말 새로운 조직적 틀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결국 86년 2월 인노련을 창립하면서, 인천노복은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관련자료 :

양승조, 김지선, 전희식, 최연봉의 구술

6.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단체약칭 : 가청

소속단체 : 천주교 인천교구

활동기간 : 1984년 4월 22일 ~ 1992년

활동지역 : 인천지역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1984년 인천교구 홍보교육국이 추진하던 대사회 사업인 민중대학의 기획과 운영을 맡기 위해 결성되었다.

해산이유 :

1989년 1월10일 발족한 인천교구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와 통합하여 1992년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연합회로 발전하면서 해산함.

주요인물 :

김용환 신부, 곽한왕, 김철우, 나준식, 고규홍, 한이심, 박영대, 이기선

활동목표 :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분단 극복 운동, 인천지역 가톨릭 청년으로서 올바른 지역운동의 모색을 추구해 나가면서 교회운동에 매진 하는 것

*** 1984년 12월27일 창립 선언문에서

조직체제 :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
4. 교육부
5. 홍보부
6. 문화부

*** 1984년 창립 당시

주요활동일지 :

이른바 유화국면이라고 불리던 1984년 4월 22일 곽한왕, 고규홍, 나준식 등 5명의 가톨릭 청년들이 '인천가톨릭청년회'를 결성하였다. 이처럼 급히 가칭이 결성된 것은 인천교구 홍보교육국(국장 김용환신부)이 추진하던 대사회 교육사업인 민중대학의 기획

과 운영을 맡기 위해서였다.

당시 독재정권에 의해 교단에서 쫓겨났던 해직교수협의회 아카데미가 각종 종교사회기관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인천교구 홍보교육국이 적극 받아들이면서 민중대학의 개설이 추진되었다.

제1기 민중대학은 민주 시민으로서 교양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1984년 6월 12일 개강하였고 10월 20일까지 진행하였다. 민중대학은 전국 최초로 열린학교 방식의 사회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민중대학의 과목은 문학, 미학, 과학, 경제사, 경제원론, 세계경제론, 한국사 입문, 사회학, 정치 커뮤니케이션, 한국 정치론, 행정학, 한국 경제, 한국 노동 경제, 국제 정치 이론, 한국 농업 경제, 철학, 서양사, 종교학, 신학, 한국 근대사, 교육학 등 일반 대학의 교양과정 수준과 맞먹는 21개 과목이었고, 총 60개 강좌로 짜여졌다. 강의 내용 및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민중대학 강의 시간표

날짜	1교시	2교시
6월 12일	민중과 민중문학 / 송기숙	고대 한일관계론의 검토 / 이만열
6월 13일	일제하 식민지 문학 이론의 전개 과정 / 송기숙	식민주의 사관의 극복 문제 / 이만열
6월 19일	농민문학론 / 김병걸	한국 사회와 사회과학 / 김진균
6월 20일	노동문제와 문학 / 김병걸	한국 사회구성체 / 김진균
6월 26일	예술과 민중 / 김윤수	변동 이론의 전개 / 김진균
6월 27일	현대 과학, 어디까지 왔나 / 김용준	발전과 내쟁적 변동 이론 / 김진균
7월 3일	농민선교 / 이석영	정치와 언론 / 장을병
7월 4일	경제의 역사와 사상 1 / 정윤희	한국의 언론 / 장을병
7월 10일	경제의 역사와 사상 2 / 정윤희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 / 장을병
7월 11일	경제의 역사와 사상 3 / 정윤희	한국의 정치 문화 / 장을병
7월 18일	경제 일반 이론 1 / 김윤환	한국의 권력 구조 / 장을병
7월 24일	경제 일반 이론 2 / 김윤환	한국 민주주의의 명암 / 장을병
7월 25일	경제 일반 이론 3 / 김윤환	한국 정치의 역사적 과제 / 이광우
7월 31일	상호 의존의 국제 사회 경제의 동향 / 조용범	한국민의 고난과 행정 / 이문영
8월 1일	신식민주주의의 본질과 실태 / 조용범	고난을 수용하는 행정 / 이문영
8월 2일-8월 20일 방학		
8월 21일	경제학의 주류와 비주류 / 변형운	한국 노사 관계의 특징 / 탁희준
8월 22일	한국의 경제 개발 이론 / 변형운	한국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 / 탁희준
8월 28일	한국 경제의 구조와 성격 / 유인호	중소 대립의 해부 / 이영희
8월 29일	한국의 무역과 적자 / 유인호	한반도의 주변 정세 / 이영희
9월 4일	한국의 농업 경제 / 유인호	역사의 개념과 역사관의 유형 / 이상신
9월 5일	철학하는 방법 / 서광선	역사 서술의 발달 / 이상신
9월 11일	인간과 과학 / 이명현	서양 근세사에 있어서 혁명의 유형 / 이상신
9월 12일	현대 문명의 빛과 그늘 / 이명현	서양 근세사에 있어서의 민족주의 / 이상신
9월 18일	사회정의 / 이명현	서양 근대사와 역사가 / 김동원
9월 19일	비교종교학 / 김승혜	실학론 / 강만길
9월 25일	신론 / 박도식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 / 강만길
9월 26일	구약의 예언자 신학 / 김찬국	개화기의 민족 운동 / 강만길
10월 2일	역사와 예수 / 안병무	식민지화의 원인 / 강만길
10월 10일	예수운동과 힘의 이동 / 임영천	일제하의 민족 현실과 민족 교육 / 성래운
10월 16일	해방 후의 사회 현실과 민족 교육 / 성래운	민중 교육의 기초 / 노희관
10월 17일	종강제	
10월 20일	심포지엄	

강의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매주 2개 강좌씩 열렸다. 29명의 교수진 대부분은 해직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들이었다.

전국 최초로 열린사회 교육 프로그램인 민중대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매우 컸다. 제1기 수강생은 200명으로 정원을 제한하였으며, 전체 수강생의 약 80%가 여성, 특히 여성 직장인들이었다. 이 가운데 50명은 근대사, 경제학, 정치학, 교육학, 철학, 종교학, 신학, 자연과학반 등 단순한 피교육자에 머물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분반활동 8개 학습소모임에 참여해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민중대학의 개설은 인천지역 사회운동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뒤 민중대학은 해마다 개설되었으며, 매기마다 평균 150명이 수강하였다.

기	개강 기간	강사진
1기	1984년 6월 12일-10월 17일	송기숙, 김병걸, 김윤수, 김진균, 김용준, 이석영, 변형운, 유인호, 정운형, 조용범, 탁희준, 이광우, 이문영, 이영희, 안병무, 김찬국, 김승혜, 박도식, 임영천, 강만길, 김동원, 이만열, 이상신, 이명현, 노희관, 성래원
2기	1984년 12월 3일-1985년 2월 19일	김병걸, 김윤환, 박현채, 백기완, 백낙청, 서광선, 성래원, 송건호, 안병직, 유인호, 이명현, 이상신, 이우재, 임재경, 장을병, 함세웅
3기	1985년 10월 8일-12월 11일	강만길, 김윤수, 김윤환, 김정환, 김진균, 노희관, 박현채, 백기완, 성래원, 송건호, 송기숙, 유인호, 이명현, 이상신, 이석영, 이효재, 장을병, 지은희
4기	1986년 9월 30일-12월 3일	고은, 김병걸, 김진균, 노희관, 박현채, 성유보, 송건호, 신경림, 심선보, 양성우, 유인호, 이광우, 이상신, 이우재, 이철국, 임진택, 장을병, 정대현, 제정구, 조광, 조용범, 지은희
5기	1987년 10월 13일-12월 17일	강만길, 강원돈, 고정희, 김대환, 김윤환, 박현채, 방용석, 백기완, 양호민, 이명준, 이우재, 이오덕, 이우정, 이상우, 이해찬, 유인호, 장을병, 정상모, 정양모, 정호경, 제정구, 최원식, 최열, 황석영
6기	1988년 11월 1일-12월 15일	김낙중, 장명국, 장을병, 성유보, 김상덕, 백기완, 최열, 조용명, 고광석, 김근태, 이호철, 지은희, 강원돈, 연성수
7기	1989년 10월 24일-12월 15일	강상호, 권영길, 김낙중, 김무용, 노미화, 박창신, 도중환, 서경석, 서준식, 신명호, 이우재, 이청연, 이효인, 원종찬, 장을병, 지은희, 최열
8기	1990년 10월 31일-12월 13일	김남주, 박대웅, 박성준, 박세길, 박준성, 양요한, 이상목, 이영미, 장을병, 지은희, 채만수, 허헌중
9기	1991년 10월 28일-12월 12일	박세길, 박준성, 최성, 양재원, 원일형, 지은희, 채만수, 이봉수, 이영미, 엄주용, 김철수, 최열, 김정범, 한영환

한편 가청은 민중대학 개설을 위해 급히 만들어진 단체였기 때문에, 1984년 12월 8일 총 15명의 가톨릭 청년들의 이름으로 천주교 인천교구청년회 발기대회를 가졌고, 12월 27일 답동성당에서 송년미사를 겸한 창립총회를 통해 천주교 인천교구청년회로 정식 창립되었다.

이날 50여명의 청년들이 모인 창립총회 제1부 송년미사에서는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간사 제 정구씨의 특별 강론이 있었다. 제2부 총회에서 청년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분단극복운동, 인천지역 가톨릭청년으로서 올바른 지역운동의 모색 등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면서 교회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곽한왕, 부회장에 김철우, 총무에 고규홍이 각각 선출되었다.

초기 청년회는 민중대학 출신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인천의 사회단체와 연대해 활동을 했다.

그러다 1985년 용현동성당 아모스청년회를 시작으로 석남동성당 이사야청년회, 송림동성당 작은예수회, 주안5동성당 노릇부치, 답동 청년회, 주안3동 청년회 등 본당 청년회들이 창립 되었다. 각 본당 청년회들은 천주교 인천교구청년회의 주관으로 회장단 모임을 가져 오다가 1989년 1월 10일 인천교구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로 발전하였다.

1984년 말에 창립되어 2년 넘게 활동해온 청년회는 민중대학 등의 활동을 통해 착실하게 대중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부천서 성고문 폭로투쟁으로부터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대의 소명을 다했다.

87년 8월26일 오후4시 카톨릭 회관에서 가청 임시총회가 열렸다. 임시총회에서 가청은 '민주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하는 한편 새로이 청년회를 이끌어갈 회장에 박영대, 부회장에 이기선을 선출하여 면모를 일신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가청은 1988년 10월 23일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가 구성되는 데도 적극 참여하였다. 1991년말부터는 천주교 인천교구청년회와 인천교구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의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1992년 천주교 인천교구청년연합회를 창립하였다.

관련자료 :

1.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기관지 <인천의 소리>
2. 박영대 서술

7.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단체약칭 : 인노련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주로 사안별 연대를 하나 「서울지역노동자연합(서노련)」과 긴밀한 협력

존속/활동기간 :

86년 2월7일 결성. 5.3인천항쟁과 5월30일 한미은행 점거농성 이후 사실상 활동 불가

능 상태에 빠짐. 6월경 조직적으로는 해체를 결의한 이후 평가를 위해 모인 자리에 경찰이 들이닥쳐 일부 회원이 검거되었다. 이후 전망을 고민하기 위해 '구인노'라는 그룹으로 남아 활동하였다. 구인노가 없어진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음.

활동지역 : 인천

법적상태(공개/비공개, 공개의 경우 합법/임의/법외) : 비공개/반(半)공개?

결성과정 :

84년 1월6일 원풍모방 전 지부장이었던 방용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노협)」이 결성됐다. 여기에 전 청계피복노조 지부장 양승조, 전 삼원섬유노조 김지선 교선부장, 전 동일방직노조 최연봉 등 인천의 노동운동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그러나 84년부터 인천에서는 블랙리스트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투쟁을 치열하게 벌여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인천의 활동가들은 노협의 투쟁이나 활동이 지극히 한계적인 영역에만 머물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인천 노동운동가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85년 2월7일 양승조, 김지선, 최연봉 등이 중앙 노협과 별도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부(인천노협)」를 결성해 활동한다. 물론 인천노협이 노협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인천노협의 간부들이 대개 노협의 간부직도 같이 맡아 활동하는 등 유기적인 연결을 갖고 활동했다.

84년 유화국면때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이 85년도 들면서 심각한 탄압으로 깨져나가고, 한일스텐레스 등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심각한 폭력을 당하면서 해고되고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인천노협 지도부들은 근본적인 사회변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개 단체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노조결성지원, 현장 투쟁 상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담 등으로는 노동자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고, 그 정도의 한계적 지원조차 탄압을 당한다고 현실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천노협이 열려있는 공간이어서 다양한 학생출신 활동가들이 들락거렸는데, 이들 학생출신 활동가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컸다.

인천노협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86년 2월7일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이 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출신 노동운동가들로 구성된 「인천지역 노동3권쟁취위원회(인삼쟁)」도 인노련에 참여하였다. 학생 출신 활동가들과 노동자 출신의 주요 활동가들이 함께 정치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조직을 만든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인천노협이 통째로 인노련으로 전환한 것인데, 인노련으로의 전환에 반대했던 최연봉, 정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평3동 성당' 측에 알리고, 인천노협 사무실 문을 봉쇄¹⁹⁾하고 인노련 결성을 알렸다. 이때 전환에 반대한 최연봉, 정명자는 87년 3월 인천노협을 복구했다.

19) 그러나 인노련의 유인물에는 여전히 부평3동 성당을 연락처로 적고 있다.

해산이유 :

인노련은 2월7일 조직 결성 이후 왕성한 동원력으로 활발하게 가두시위, 현장투쟁 등을 주도했다. 그러나 5.3 투쟁을 경과하면서 급격히 해체의 길로 접어든다.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활동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내부적으로 인노련의 '선도적투쟁방식'에 대한 비판과 당시 격렬했던 '노선투쟁'이 진행된 것이 해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해산을 앞두고 지도부들이 인노련에 대한 평가와 당시 막 터진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가 경찰에 의해 일부 연행되면서 대부분의 자료가 압수되었다. 인노련은 해체 이후 '구인노'라는 서클로 상당기간 존속하였다.

주요인물 : 양승조, 김지선, 전희식, 노병직, 서기화, 박윤배, 김명종 등

활동목표/강령 :

- 강령, 규약, 조직원칙 등이 '지금처럼' 완결된 형태는 아니었으나 활동 목표, 수칙 수준의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안기관의 추적근거가 될까봐 그걸 문서로 남기진 않았다고 한다.
- 일반적으로는 군부독재타도, 생활임금쟁취, 삼민(민주·민중·민족)헌법쟁취, 노동해방 등을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체계 :

- * 의장; 양승조(인노련의 모든 투쟁, 인노련내 성원의 모든 활동에 대해 (밖에서 결정해 온 것도) 모두 자신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 * 부위원장 겸 사무국장; 김지선
- * 부위원장 전희식(삼민투쟁위원장), 서기화
- * 전희식이 조직담당(현장관계 총책임으로 3개지역 팀장회의 주재)
- * 하인천팀장, 주안팀장(박유순-주안지구 임투위원장), 부평팀장
- * 인천지역해고자투쟁위원회(해투)
- * 일명 '안개' - 서노련, 인노련에 대한 비공개 지도부로 인노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도부라기보다는 지도부를 자임했던 그룹으로 보인다. 박윤배(대우중공업 해고노동자), 이용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직책이 어쨌든 인노련의 실질적 지도부는 양승조 의장을 정점으로 노병직, 박윤배, 전희식, 김지선, 양승조, 이용선 외에 두명 더 있었다고 한다.(두명이 누구인지를 기억못함, 김건호, 서기화?)

주요활동일지 :

- * 1986.02.07; 인노련 결성
- * 1986.03.10; 86 임금인상투쟁 전진대회를 계양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봉쇄로 강화 전등사까지 밀려가 격렬한 시위. 경찰봉쇄로 2박3일(?)만에 해산.
- * 1986.03.24; 주안6공단 가두시위

- * 1986.04.12; 부평역앞 가두시위 야사 2명 포함 36명 연행
- * 1986.05.03; 5.3인천항쟁
- * 1986.05.30; 인노련, 서노련 소속 해고노동자 16명 한미은행 영등포지점 점거. "노동자의 피땀사는 미국을 몰아내자" 주장. 31일 전원 구속.
- * 1986.여름; 인노련 지도부 7인 평가회의 위해 모였다가 양승조 등 도망가고 김지선, 전희식외 1명 연행됐으나 석방.
- * 날자 미상; 부평 4공단 외환은행 점거농성 - 현장활동가와 해고자들 투입해 점거농성
- *** 인노련의 3개 지역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 투쟁의 경우 4명의 회의에서는 논의 점검만 하고 해당 지역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투쟁이 다수 있음.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인노련은 서노련과 함께 이른바 ‘선도적 투쟁론’에 입각해 86년 상반기 “막강한 물리력”으로 왕성한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5.3 투쟁을 경과하면서 경찰의 추적이 광범위하게 들어오고 내부 논란도 격화되면서 급격히 해체되었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 출신들이 결성한 공개조직인 인천노협이 학생출신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그룹인 인삼쟁과 만나 통째로 비공개 정치투쟁조직으로 전환한 것이 인노련이다. 공개조직의 지도부가 비공개 조직을 결성하는데 통째로 전환된 사례는 유례가 없었다.

이점에 대해 전희식은 서울 노협이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세력이 응집된 형태였지만 지도부는 이창복처럼 노동운동가가 아닌 재야세력도 일부 포함됐으며 지도부도 일종의 ‘기득권’이었다고 평가한다. 반면 인천은 모두가 개별관계여서 새로운 정치적 노동운동의 흡수가 용이했다고 증언한다. 거기에 덧붙여 인천이 서울에 비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훨씬 심각하게 당해 ‘공개 조직으로 너무 많은 한계를 느꼈다’고 평가한다.

문건이 모두다 경찰에 압수돼 남아있는 근거자료가 거의없어 양승조, 전희식, 김지선, 김용자의 기억에 의존해 서술했다.

1. 86임투전진대회 - 이른바 ‘전등사 투쟁’

당시 ‘경제투쟁이 활성화되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은 자연스럽게 고양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공장(지역) 노동자들이 정치투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선도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이 활동가들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이같은 임무에 따라 인노련은 결성이후 86년 봄에 3단계투쟁을 계획했다. “노동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제기해 공장내 화제거리를 만든다, 하나의 공장에서 투쟁이 활성화되면 지역의 공장 문제로 확산시킨다, 이를 통해 정치투쟁을 벌어나간다.”

이런 현실인식에 따라 인노련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장에서 ‘임금인상 쟁취하여, 군부독재타도하자’, ‘생활임금 쟁취하여 삼민헌법쟁취하자’는 식의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구호가 조합된 구호를 많이 제기했다.

그러나 이런 ‘선도적 투쟁’은 조직원들을 너무 쉽게 정권에 노출시키는 모험적 투쟁이었다는 내외적 비판에 시달리면서 심각한 논란을 겪었다. ‘뭔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지

는데 단순히 독재정권타도 만으로도 안되고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조직이 인노련이었다. 그러나 노선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조직들도 노선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말았다.

“5.3 투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애들(인노련 지도부)한테 맘껏 싸워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하라.”고 했다. 당시 의장으로 인노련의 모든 시위를 ‘배후조종’하고 ‘주도’한 것으로 돼있는 양승조의 회고다. “이미 애들이 각자 자기조직이 있어 탄데서 결정을 다 해갖고 오는거야. 이런 조직은 더 유지되기 힘들다고 판단한거지.”고 양승조는 말한다.

5.3 투쟁때 지도부가 모두다 현장 주동자로 댔는데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김건호(후에 ‘삼민동맹’ 핵심조직원)가 영등포역 한미은행 점거농성을 하겠다고 했다. 양승조는 “해라. 나아 어짜피 대여섯개에 하나 추가된다고 형량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고 말하고, 이것 역시 자신이 주도한 것으로 했다. 31명 전원이 구속된 한미은행 점거투쟁은 잡히지 않고 남아있는 야사들이 한꺼번에 ‘정리’(구속된)된 투쟁이었다.

인노련의 내부 논란의 조짐은 3.10일 임투전진대회, 소위 ‘전등사 투쟁’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애초 계양산 예비군훈련장 부근에서 임투전진대회를 하려고 했으나 원천봉쇄되었다. 여기서 ‘점조직’으로 동원된 500여명의 인노련 조직원들은 차량을 막고 시위를 벌이다 강화행 버스를 탔다. 이렇게 해서 강화도 전등사 투쟁이 시작됐다. 전등사로 그날 참가자 전원이 들어갔고 경찰은 전등사를 완전 봉쇄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전등사 주지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협상하는 동안, 지도부들은 경찰병력 투입에 대비해 미리 전등사를 빠져 나왔다.

한편 경찰은 참가자들 전원에 대해 신원조회에 들어갔다. 어쨌든 “안 갔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된 이날 투쟁을 놓고 비공개 지도부인 ‘안개’는 인노련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이점에 대해 전희식은 “안개에서 평가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한다. 전등사 투쟁을 평가하면서 안개의 일원인 이용선과 후에 인민노련 핵심이 된 황광우가 가장 많이 부딪쳤다고 한다. 황광우는 “안개쪽에서 기획하고 진행해 놓고 (안개가) 먼저 재단하고 비판한다”며 이용선과 대립했다. 심지어 갈산동 박남수(코리아스파이서 해고자) 집에서 회의를 갖다가 각목으로 난투극을 벌여 박남수에게 쫓겨날 정도로 내부 논란이 심각했다고 한다.²⁰⁾

대략적으로 전등사 투쟁은 △500명의 현장활동가들을 ‘홀랑’ 노출시키고 △퇴로없는 전등사라는 고립된 공간에 현장활동가들을 몰아넣어 불안에 떨게하고 △그 와중에 지도부만 먼저 빠져나온 것은 잘못됐다고 평가됐다. 이같은 평가에따라 인노련 지도부들은 공개적인 자기비판을 문건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지도부 전원이 한달동안 아침마다 유인물 배포라는 ‘노동’을 하였다고 한다.

이런 내부논란 속에서도 인노련은 계속적인 가두시위, ‘타격투쟁’등을 벌였다. 철저하게

20) 당시는 안개와 다른 지도부간에 의견대립 혹은 감정적 대립이 꽤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안개도 소중하게 보고 새로운 제안과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점조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동원력과 조직원들의 높은 헌신성은 한 달에 몇차례씩 타격투쟁 혹은 가두시위를 가능하게 했다. 4월12일 대한극장 앞 가두시위는 황광우가 공사 중인 한국통신 건물에 올라가고 김건호는 대한극장 위에서 ‘동21)’뜨는 식으로 입체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5명이 야사가 뺏는데 3명이 잡히지 않아 이들이 다음투쟁에서 또 동을 뺏다.

현장활동가와 해고자들을 투입해 점거농성을 벌인 ‘부평4공단 외환은행’ 점거농성, 4.30, 5.3 투쟁으로도 안잡힌 사람들이 몽땅 정리한 투쟁인 ‘영등포 한미은행 점거농성’ 등과 각 지역팀별로 동원돼서 벌인 가두투쟁이 그런 투쟁이었다.

영등포 한미은행 점거농성은 김건호 등 31명이 점거에 들어갔는데 첫 직원이 출근한 뒤에 들어가 문을 쉽게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쇄구멍에 나무조각을 박아넣고 농성을 벌였다.

2. 5.3인천항쟁

인노련의 5.3투쟁 전술은 두고 두고 회자됐다. 특히나 리어카를 옴프를 실은 이동식 연단으로 개조해 사용한 것은 인천지역 노동운동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거리였다.

양승조에 따르면 5.3투쟁이 인노련의 마지막 투쟁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한달 수차례의 투쟁으로 공안당국의 추척도 심했지만 내부 논란때문에도 더 이상 조직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딴데서 결정해 오는’ - 인노련 내부 결정에 구속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직이 더 유지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양승조를 제외한 지도부 전체가 5.3투쟁의 ‘야전사령부(야사)’가 됐다. 양승조는 인노련의 모든 시위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든 ‘알리바이’가 양승조에게로 맞춰져 있었다. 최대한 잡히지 말아야 할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5.3투쟁에서 노동자 투쟁의 공동주최는 인노련 외에 청계피복노조, 서노련(서노련은 몰락 단계였으나 존중의 의미로 이름을 넣었다고 한다) 등 수도권 일원에서 활동하던 ‘노동자 정치투쟁조직’들이 공동주최였고 내용적으로는 인노련이 주도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손잡고 이민우를 내세워 만든 신민당은 86년 3월부터 ‘직선제 개헌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합법적인 집회공간이 필요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들의 개헌추진본부 현판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이날 낮 2시에 개헌추진본부 현판식이 있기로 했는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저녁에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인노련 등 노동단체들은 이틀전(?) 쯤부터 12시에 집결하라는 유인물을 대대적으로 살포했다.

이에 대해 인노련 내에서 두차례에 걸쳐 인천도시산업선교회(산선),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과 회합을 가졌던 김지선의 기억으로는 노동운동진영에서는 신민당 현판식을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고 한다. 김세진, 이재호 분신 등 운동권에서 반미구호와 극한적 투쟁이 벌어지면서 신민당은 반미, 폭력 시위는 안된다고 운동권과 금을 긋는 성명을 4월말 경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직선제’로 집중된 야당의 개헌운동에 비판적인 흐름이 있던데다가 야당이 노동자들이 겪는 탄압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신이 존

21) ‘동뜨다’는 표현은 합법적인 집회가 불가능하던 박정희, 전두환 시절 학내시위나 가두시위 때 주동자를 동뜨다고 표현했다.

재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신민당이 ‘운동권’과 선을 긋겠다는 발표는 5.3투쟁을 준비하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진영을 더욱 자극했다.

한편 학생조직인 ‘민민투’와 현장조직 책임을 맡고 있던 전희식은 민민투와 전술토론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주안역(5, 6공단) 방향으로 진출해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인노련의 전술과 동인천방향으로 진출하자는 민민투의 주장이 합의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5월2일 밤 늦은시각, 서울 이화여자대학 부근의 한 지하 카페에서 각 학교별 동원책임을 지고 있던 학생 10여명과 전희식이 만나 3일 새벽 최종결정을 내렸다. 민민투는 동인천 방향으로, 인노련 등 노동자들은 공단방향으로 ‘역할분담’ 방식으로 시위를 벌이기로 봉합을 했다. 시간이 촉박해 학생들은 동원책임자들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는 위험부담까지 감수하며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민민투 학생들이 막상 현장에서 주안쪽으로 진출한 것은 경찰병력 때문에 주안역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한편 주안 시민회관 부근 곳곳에 유인물과 화염병이 숨겨졌다. 인노련은 이미 도화동 부근에 자취방을 얻어 ‘화염병 공장’을 가동했다. 김지선은 수만장의 전단을 주안4거리 주안1동 성당 부근의 임선미라는 후배 집에다 맡겨놓았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임선미의 오빠는 전단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임선미의 엄마가 “동생 고생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나”고 역정을 내면서 신고를 말렸다고 한다. 이것을 김일섭이 리어카로 운반했다.

한편 이십몇만원을 주고 청계천에서 구입한 엠프를 설치한 화제의 리어카²²⁾ 연단에는 8명의 리어카 운전사가 배치됐다. 이들 운전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돌을 들지 않고, 마이크를 잡은 전희식, 서기화 등이 지시하는대로 리어카 운전만을 담당했다. 저녁이 되어 경찰에 밀려 도망가면서 주안역에서 담벼락을 무너뜨릴 때 엠프를 인근 가게에 맡겼다고 한다. “나중에 찾으러 올테니 맡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한다.

5.3투쟁 당시 ‘7인의 야전사령관(야사)’가 있었는데 전희식과 3개지역 임투위원장, 앞서 투쟁(4. 12 부평역 시위)에서 잡혀가지 않은 이춘식 등이었다. 전희식은 노병직, 서기화, 김건호, 이미정(이영희 교수 딸), 이미경(가명일 수도 있다) 등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날 7인의 야사는 아무도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지도부는 평가작업에 들어갔고 그 외 인원은 5월30일 영등포역 부근 한미은행 점거농성으로 전원 구속되었다.

5.3투쟁 관련자에게는 ‘소요죄’가 적용되었고, 인노련 지도부에 대한 공안당국의 검거작전 과정에서 부천서성고문사건 등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게 된 여러 사건들이 터져나왔다.

3. 노병직 집에서의 지도부 전원 검거위기²³⁾

22) 방현석의 『아름다운 저항』(작은책)에 따르면 애초 노동자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트럭을 준비하기로 하고 전희식이 준비해 오기로 했으나 그때만해도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이라 못구하고 리어카로 대신했다는 박유순 주안지역 임투위원장의 증언이 나온다.

23) 이 대목은 전적으로 김지선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인노련이 내용적으로는 이미 해체를 결의한 상태에서 ‘마지막 평가를 하자’는 제안에 따라 부개동 노병직의 집에서 양승조를 비롯한 핵심 지도부들이 모임을 가졌다. “남자들이 더워서 옷을 벗고 런닝셔츠 차림으로 있었던 것으로 봐서 여름으로 기억한다.” 노병직 집의 이층에 모여서 인노련 활동평가와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합도중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부천서성고문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자리로 ‘알리바이’를 맞췄다.

평가자리이기 때문에 그간 인노련에서 발행했던 모든 전단과 각자 갖고 있던 모든 문건, 심지어 양승조 명의의 통장까지 모두 갖고 왔다.

알리바이를 맞추고 본격적인 논의를 막 시작하려는데 아래층에서 심상치 않은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었다. 집주인인 노병직이 런닝셔츠 차림으로 나가기로 했다. 김지선은 양승조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양승조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료들은 보자기에 묶어 한쪽으로 치운 후, 이미 노병직과 경찰이 실랑이 하는 자리에 가서 김지선이 항의하고 ‘개기기’ 시작했다.

그사이 창문이나 난간으로 양승조, 전희식 등이 도망쳤다. 노병직도 도망치고 김지선만이 잡혀갔다. 서울 관악경찰서로 기억하며 여름휴가철이라 경찰이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모두들 옷도 벗어 놓고 회의를 하려던 상황이라 돈도 한푼 없었다. 김지선은 머리를 굴렸다. 자료까지 ‘곱게 모아서 갖다 바친 격’이지만 양승조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부천서 성고문사건 대처 방안을 위해 모인 것’이라고 우기면서 버티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또 돈도 한푼없고 필요한 물품도 가져와야 한다며 가족에게 연락하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김지선이 전화한 사람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철용이었다. 상황 파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했기 때문이다.

유치장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데 뒤에 전희식과 다른 한 명이 더 잡혀온 것이 보였다. 한편 그 사이 김지선, 전희식 등을 잡아온 경찰은 인노련 지도부 일부를 잡고도 비상이 걸렸다. ‘수괴’ 양승조를 놓치고 ‘피라미(?)’만 잡은 격이었으니 후에 있을 책임추궁이 두려웠던 것이다. 경찰은 김지선을 불러놓고 “너 이년 아무것도 모르는 년이 아니라는 거 다 안다. 하지만 시키는대로 쓰면 풀어준다.” 경찰은 양승조는 그 자리에 없었고 김지선, 전희식과 함께 부천서성고문사건 대처를 위한 회의를 했다고 쓸 것을 제안했다. 김지선 입장에서는 ‘횡재’를 한셈이었다. 물론 경찰은 일단 풀어줬다가 바로 다시 잡아들일 계획이었다. 부개동 노병직 집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잡아온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를 김지선도 짐작하고 있었다.

김지선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고 어찌됐든 전희식 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재들 돈 한푼 없이 잡혀왔는데 차비를 줘야 한다”고 전희식을 만나게 해달라고 ‘개겼다.’

경찰이 허용하자 김지선은 돈 만원을 전달하면서 전희식에게 신호를 보냈다. 석방된 김지선은 그길로 다방에 근무하는 여동생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도망쳤다. 전희식은 경찰이 전희식의 형에게 형네집까지 데려와 ‘형님에게 인계하고’ 왼쪽길로 갔다. 전희식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형님 나중에 연락하리다”라는 말만 하고 오른쪽으로 튀었다. 예상대로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전희식 형님 집으로 경찰이 다시 들이닥쳤다.

그날 잡히지 않은 사람들 중 집주인 노병직은 난간과 담을 넘어 근처 야산으로 피신했다. 피신하고 보니 바지는 물론 팬티까지 찢어져 있었다. 어딘가를 넘을 때 걸렸던 것이다. 물론 10원짜리 한푼 없는 상황이었다. 노병직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런닝셔츠를 갖고 아프리카 원주민들 팬티처럼 만들어 두르고는 조깅하는 행색으로 거리로 나왔다. 집에는 갈수도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 차림새로 길거리에서 20원을 구걸하는데 행인들은 변태취급하면서 도망갔다. 우여곡절 끝에 김근태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고 야산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후 김근태 부인이 준비해온 옷가지와 돈을 가지고 도망길에 나섰다.

4. 인노련 이후

점조직으로 비밀리에 동원하는 조직력이 5-6백명에 달할 정도였던 인노련은 5.3이후 해체의 길을 걷는다. 인천지역은 정치 노선에 따라 각각 비공개 서클형태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비슷한 경향의 서클들과 공동투쟁을 벌였다. 5.3 투쟁을 경과하면서 학생운동 진영도 민민투가 급격하게 몰락하고 자민투가 세를 얻기 시작했으며 인천지역 역시 NL이 급부상했다.

인노련은 해체됐지만 김지선, 전희식은 남아있던 인노련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이후 전망을 모색했다. 이 모임을 '구인노'라 불렀다. 이후 전희식은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공실위)' 건설을 주도하고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으며, 김지선은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이 되었다. 비공개 지도부였던 '안개'는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을 결성해 활동했으며, 노병직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핵심으로 활동했다.

관련자료 :

1. <박살내자! 노동자를 구속, 고문하는 강간하는 군부독재정권을!> 16절 양면 필사 유인물 사본
2. 김지선, 전희식, 양승조 구술

8.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단체약칭 : 인기노련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기독교노동자연맹 등

존속/활동기간 : 1985년 12월2일 ~

활동지역 : 인천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87년 이전 합법적인 틀을 가질 수 없던 시절 종교는 민주화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부, 목사 등 양심적 종교계인사들의 활동뿐만아니라 노동자, 학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은 교회 청년이나 노동자들의 각성으로 이어져 전국적, 지역적 조직화로 이어졌다.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은 백마교회 등 당시 민중교회 청년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해산이유 :

주요인물 : 이형곤, 정동근

활동목표/강령 :

조직체계 :

1. 회장
 2. 총무
 3. 각 교회(주로 민중교회) 노동자(청년회) 회장 모임
- *** 초기 조직

주요활동일지 :

- * 1985.03.10; 기독교노동자연맹 노동절대회 1,500여명, 가두시위
- * 1985.12.02; 인천지역기독교노동자연맹 창립대회
- * 1986. 여름;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수련회 개최 매포수양관에서 약 150여명 참여해 진행
- * 1986.08.17; 제1회 웅변대회
- * 1987.07.06; 민주헌법쟁취 전국노동자공동위원회에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산선, 인민노련, 인기노련 등 17개 단체 참여.
- * 1987.07.26; 인천지역 구속노동자 협의회 창립. 인해협 등 5개 노동운동단체가 부평 백마교회에서 창립대회 진행
- * 1987.08.01; 인천기노련 수련회 도중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고 노동자 김현욱, 이대용, 박용선, 유인식 등 4명 사망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인천지역 노동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월동 창신교회에서 이형곤을 회장으로 인천지역기독교노동자연맹(인기노련)을 창립할 당시만 해도 '기독교'라는 종교적 정체성보다는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더 강했으며, 이는 '변혁적 노동운동세력'이 의식적으로 추

동한 결과였다. 엄혹했던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집회, 시위는 물론 문화활동조차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공장의 현장활동가들은 주변에 동료들과 상대적으로 부담없이 참여하여 보고 느끼는 가운데 정치사회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인기노련의 창립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기노련이 조직한 각종 노동자옹변대회나 여름수련회 등은 그 일환으로 준비한 것이었으며, 각종 가두시위의 '합법적'인 동원망으로 비공개 서클이나 조직들이 의식적으로 인기노련을 활용하기도 했다. 5.3투쟁은 인기노련이 합법적인 가두시위 동원망으로 이용된 대표적인 석이었으며, 임투전진대회 등 상대적으로 공식성을 띤 집회는 직접 주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87년 8월 여름수련회 도중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김현욱, 이대용, 박용선, 유인식 등 4명의 노동자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행하면서 인기노련은 급격한 좌절과 침체를 겪고 이후 상당기간 활동이 정지되었다. 1990년대 후반들어 그 이전에 비해 '기독교'라는 종교적 정체성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활동을 재개했다.

관련자료 :

9. 인천민주노동자연합

단체약칭 : 인천노련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존속/활동기간 : 1987년 3월 복구 ~ 1993년

활동지역 : 인천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인천노협의 지도부들이 인노련으로 전환할 당시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동일방직 최연봉, 정명자 등이 부평사목과 JOC에서 활동하던 이경자, 박명규 등과 함께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이후 활동중단 상태였던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부(약칭 : 인노협)」를 재결성한 조직이다. 88년 「인천민주노동자연합(인천노련)」으로 이름을 바꿨다.

해산이유 :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투쟁력이 회복되는 시기에 노동조합 결성지원 및 활동지원을 활발히 했으나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이 만들어지고 노동조합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늘어나면서 해산을 결의했다. 내적으로는 후에 상근활동가로 결합한 사람들이 인천노련을 “노동조합 내부에 자신들 조직원을 늘리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인천노련은 해산을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유인물에 담아 지역에 배포했다.

주요인물 :

최연봉, 정명자, 이경자, 박명규, 김보성, 신정길

활동목표/강령 :

조직체계 :

1. 회장 최연봉(상근)

2. 사무국장 정명자(상근)

*** 이경자, 박명규 등이 부회장으로 비전임이었다. 후에 김보성, 신정길 등이 결합해 상근활동했다.

주요활동일지 :

* 1987.03; 인천노협 지도부가 인노련으로 빠져나간 이후 활동정지상태였던 것을 동일방직 최연봉 중심으로 재건.

* 1987.07.06; 인천노협, 한국노협, 인천산선, 인민노련, 인천기노련 등 17개 단체와 함께 민주헌법쟁취 전국노동자공동위원회 구성.

* 1988. 초; 조직명칭을 「인천민주노동자연합」으로 변경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1) 인천노협에서 비공개 조직인 인노련 결성을 논의할 때 이의를 제기하던 사람이 있었다. 동일방직 최연봉, 정명자였는데 이들이 1987년 3월 인천 부평사목에 있던 이경자와 JOC의 박명규 등과 함께 인천노협을 복구했다. 부평3동 구 인천노협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먼지투성이 자료를 정리하고 인천노협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는 노동운동의 자연발생적인 투쟁력이 활성화 되던 시절이어서 인천, 부천지역의 상당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상담활동을 수행했다.

최연봉에 따르면 당시 한해에 60여개 꼴로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했다고 한다. 87년부터 89년 동안 노동조합운동이 폭발적으로 고양되던 시기에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공실위)」가 아직 공개단체로 전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천노협은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지원을 자기 임무로 하는 거의 유일한 단체였다. 따라서 그 역할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2) 88년 초 인천노협은 조직명칭을 「인천민주노동자연합(인천노련)」으로 바꿨다. 최연봉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날 황재철(당시 인노협 준비위 의장)이 찾아와 “인노협을 결성하려고 하는데 약칭이 똑같다. 인천노협이 이름을 바꿔줄 수 없느냐”고 부탁해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²⁴⁾ 89년 1월 복구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역시 인천을 따라 「한국민주노동자연합」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3) 인천노련이 해산을 결정하게 된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성장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당시는 이미 인노협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조합 연대활동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이들이 다시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 모이고 있는 추세였다. 또한 90년이후 노조운동이 퇴조를 맞으면서 신규노조 결성이 거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노조결성과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인천노련은 자기 임무를 다했다”고 밝히고 해산했다. 그러나 부차적인 이유로는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하는’ 학생출신 활동가들과의 갈등이 해산을 앞당긴 측면이 있다. 나중에 인천노련에 결합한 활동가들이 “인천노련 고유의 임무보다는 통일운동이나 혹은 자신들의 조직원을 늘리기 위해 노동조합과 접촉하는 창구로 이용했다”는 생각이 컸다. 이같은 활동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 갈등을 겪기도 했었다.

관련자료 :

10.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단체약칭 : 인민노련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존속/활동기간 :

1. 1986년 5월 - 1987년 6월; 인민노련 창립이전
 - ㄱ) 인천지역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
 - ㄴ) 살인강간고문정권 타도투쟁위원회(타투)
2. 1987년 6월 - 1989년 8월; 인민노련 창립과 지도부 이원화(전국조직준비직전)
3. 1989년 9월 - 1990년 1월; 전국조직준비, 인민노련 피검 및 재건
4. 1990년 1월 - 1991년 10월; 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한사노)
5. 1991년 10월 - 1992년 4월; <신노선> 이후 한국노동당(준), 통합민중당
6. 1992년 4월 총선이후 -;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

활동지역 : 인천, 부천을 중심으로 했으나 후일 전국으로

24) 단체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최연봉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구심체를 만드는데 양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과 후배들과 이름갖고 싸우는 것도 불쌍사나운 일이라 생각해 회원들을 설득하게 됐다고 말한다.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1. 1986년 5월 - 1991년 10월; 비공개
2. 1991년 10월 -; 공개합법

결성과정 :

85년 인천, 주안, 부천 세 팀의 서클 대표자들이 만나서 반합법 조직을 같이 만들기로 했다. 최종목표는 비합법정당을 만드는 거였으나, 일단은 ‘반합법 정치노동자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천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있는 서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때 기준은 “하나는 반교조주의”였는데 내용적으로는 ‘반주사’, ‘반CA’였다.

김영환의 강철서신으로 한국 운동권에 상당한 사상적 혼란이 있던 시절이었다. 이미 그 이전 많은 대학 출신 활동가들이 ‘한국의 빼빼르부르그’라고 불리던 인천으로 위장 취업해 들어오고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출신학교의 선배들을 찾아가 자연스럽게 서클을 형성했다. 그 중 최봉근, 정태윤, 노회찬이 만나 삼자합의를 하면서 인민노련 조직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지역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이 만들어졌다. 노동해방투쟁동맹은 ‘주체사상과 반미직투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추진’하여 이를 토대로 “운동가들의 사상 이론적 줄기를 바로잡고, 노동대중과 결합하기 위한 지역의 소모임들을 구축”하는 일에 착수했다. 애초 최봉근, 정태윤이 구심이었고, 이후 노회찬, 권우철, 황광우가 결합하였다.

87년 1월14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터진 후 15일 곧바로 「살인강간고문정권 타도를 위한 인천노동자투쟁위원회(타투)²⁵⁾」 결성을 결의했다. 87년 2월5일자 “타투결성을 알린다”를 부제로 한 <장기집권 획책하는 살인강간고문정권 타도하자>라는 문건에서는 “본 타도투위는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심 형성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하면서 당면의 투쟁 속에서 노동자 계급이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며 “대중에 뿌리내린 반군사독재 민주주의연합전선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범국민적저항운동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자고 하였다. 타투는 정태윤, 황광우, 김상준, 정은호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6월항쟁의 초기 2.7투쟁, 박종철 49제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며, 4월로 넘어가면서 인천투쟁 과정에서 인천지역의 여러 소모임, 서클들과 연계하여 지역의 정치조직을 준비했다.

그렇게 하여 6월항쟁이 한창 불붙고 있던 87년 6월26일 부평역에서 범시민평화대행진이 열리고 있는 와중에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결성식을 가졌다. 당시 인민노련은 타투와 지역의 NL경향이 함께 창립한 것이었다.

해산이유 :

조직 확대에 따른 전환 혹은 정세변화에 따른 노선변화에 의한 해산이었다. 최종적으로 진정추가 민중정치연합 일부와 통합하여 진보정치연합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97년 국민승리21이 결성되어 모두 다 국민승리21에 통합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25) 타투의 결성을 알리며 낸 유인물에서는 약칭을 ‘타도투위’라고 했으나 인천지역에서는 대부분 ‘타투’로 불렀다.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기 직전 공식 해체를 결의했다.

주요인물 : 노회찬, 최봉근, 황광우, 정광필, 김창한, 박병우 등

활동목표/강령 :

인민노련 강령은 87년 타투와 NL이 동거할 시기에 작성한 초안이 있다. 그러나 10월 대의원대회를 거쳐 NL이 인민노련을 탈퇴한 이후 애초 초안을 전면 수정한 내용의 강령을 88년 2월20일 확정했다. 88년 2월20일 개정해 확정된 강령이 『정치위기와 노동운동』(거름출판사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엮음) 34쪽-39쪽에 실려있다.

조직체계 : 여기서의 조직체계는 인민노련이 전국조직을 준비하기 전(즉, 인민노련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조직체계와 인천지역조직을 재건한 이후부터 <신노선>을 통해 「한국노동당(준)」을 창당하기 직전까지만 다뤘다.

1. 전국조직 준비를 위한 이원화 이전;

ㄱ) 10월 대의원대회 이전;

조직담당 노회찬, 정책담당 주대환, 대외활동 정태운, 특수사업부 최봉근.

조직은 하인천, 주안, 부평, 부천으로 나뉘어 있었고, 특수사업부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정치활동공간(민중의 당 등)이나 기타 협의체 등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담당했다.

ㄴ) 10월 대의원대회 이후;

대의기관; 대의원대회

집행기관; 중앙집행위원회(경영진)가 있었고 중앙위원회(이사회)가 도입되었다. 조직부(노회찬), 홍보부(황광우), 특수사업부(최봉근) 산하에 3개 지구위원회로 1지구(부평, 오동렬), 2지구(부천, 노용진), 3지구(주안, 노병직) 밑에 분회를 두었다.

2. 1989년 9월 지도부 이원화 이후;

주대환, 노회찬, 최봉근, 황광우 등 이전 지도부가 전국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인민노련에서 나가고 오동렬, 윤철호(선전), 정광필(조직)을 새 지도부로 구성하였다. 89년 봄부터 인천지역의 서클이나 조직들이 와해되던 상황이었다. 89년 여름 조직보위에 관한 점검과 함께 조직을 위와 같이 개편하지만, 89년 10월 오동렬, 윤철호, 노병직 등 21명이 치안본부로 검거되는 ‘인민노련 사건’이 발생했다.

3. 조직재건이후;

인민노련 사건 이후 박병우(대표), 김창한(조직1, 대공장), 진현철(조직2), 이성희(선전), 박동수(조직, 중소사업장), 박종현(특수사업)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였다. 한사노 결성 즈음 지역의 다른 서클들과 통합하면서 김창한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대표, 대공장 조직, 중소사업장 조직, 선전, 특수사업 등의 부서를 두었다. 한사노로 되면서 김창한이 대표를 맡았다.

주요활동일지 :

- * 1986.여름; 비합법정당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인천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 결성.
- * 1987.01.15; 살인강간고문정권 타도를 위한 인천노동자 투쟁위원회(타투) 결성 결의.
- * 1987.02.05; 살인강간고문정권 타도를 위한 인천노동자 투쟁위원회(타투) 결성 선언.
- * 1987.02.07; 부천역 광장에서 살인강간고문정권 규탄 가두시위.
- * 1987.06.26; 인민노련 결성식을 부평역 광장(이날 범국민평화대행진 참여인원이 많아 백마장 입구까지 들어차는 관계로 실제 결성식은 백마장입구에서 진행됨)에서 거행.
- * 1987.?.; 박종렬 목사와 함께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개설
- * 1987.10; 대의원대회에서 독자후보론과 김대중 비판적 지지론이 대립. 12:4:1로 독자 후보론이 채택되고 소수파가 된 NL계열이 인민노련을 탈퇴(『정세와 실천』 2호에 87년 10월15자로 과정 평가 보고).
- * 1987.11.23; 백기완 대통령후보등록, 「백기완대통령후보 선거운동본부(백선본)」 구성. 노동운동의 각 정파와 조직들이 선거에서의 공동행동을 위해 「군부독재종식을 위한 노동자선거대책위원회(노동자 선대위)」 결성.
- * 1987.12.12; 백선본 “군정종식과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대학로에서 15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백기완 후보 “민주세력의 대연대를 위한 제휴 5원칙과 반노태우 3원칙”을 밝힘.
- * 1987.12.14; 백기완 후보, “노태우에게 표를 찍지 말 것”을 호소하면서 민주대연대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
- * 1988.03.06; 「민중의 당」 창당. 인천 북구을에 대우자동차해고노동자 송경평 국회의원 후보 출마 선언.
- * 1988.03.29; 「한겨레민주당」 창당. 인천 서구에 대우중공업해고 노동자 오순부 국회의원 후보출마 선언.
- * 1988.04.10; “민중후보 추대 인천시민대회”를 인천 십정동 샘터교회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여 민중후보로 송경평, 오순부 지지 결의.
- * 1988.10; 2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2차 강령안 의결. ‘사회주의 선전, 선동’이 중요 의제로 채택되었고, 인천 부천지역의 활동가들을 울산, 거제 등으로 파견하기로 결정.
- * 1989.09; 전국조직 준비를 위해 구지도부가 인민노련을 나가고 오동렬, 윤철호 등으로 신지도부 구성. <사회주의자> 창간.
- * 1989.10.19; 오동렬, 윤철호 등 인민노련 관계자 17명이 검거됨. 검거된 인민노련 관계자들은 기소 후 법정에서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사회주의 운동’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법정공방을 벌이기로 함.
- * 1989.10.23;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부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가 인민노련사건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 * 1989.12.25; 2차 인민노련 사건. 노회찬 등 4명 검거
- * 1989.03.28; 김진균 교수 외 147명과 권호경 목사 등 목사 85명 인민노련의 정당성 주장 성명 발표
- * 1990.01; 한국사회주의노동당준비위원회(한사노) 결성을 준비하면서 전국 20여개 서

클들을 통합. 인천지역은 인민노련을 재건하던 노회찬의 검거로 정광필을 중심으로 재건에 나섬. 90년 초반 경 인민노련 재건 완료.

* 1991.06; 제1회 지방의회선거에서 세창물산 노조 전위원장 원미정후보 집중지원. 선거 전 인천에서는 평민, 민주, 민중, 재야가 범민주단일후보 논의. 사실상 민중당에 대해서는 '구색맞추기'로 끼워넣은 측면이 있었다. 이와 별개로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에서는 원미정후보를 인노협이 공식 지지하는 노동자후보로 추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임.

* 1991.09 - 10; '합법적인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자'는 <신노선> 놓고 한사노 전조직원 투표.

* 1991.10.16; 이후 한사노 임시중앙위원회를 열어 각 지역중앙위(경영진) 의견 취합.

* 1991.12.03; 한사노 2차 임시중앙위. 전위조직노선 폐기, 폭력혁명노선 포기, 프롤레타리아독재노선 포기 등 신노선 전략 채택. 한노당 준비모임인 '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노정추)' 발족 결의.

* 1991.12.26; 노정추 발족. 이즈음 인민노련은 대표를 김창한으로 하고, 인천지역의 노동계급, 삼민, CPC그룹 등과 통합.

* 1992.01.15; '한국노동당창당추진위원회(한노당)' 인천지역 발기인대회 및 설명회

* 1992.01.19; 한국노동당 창당 발기인대회. 전국 5천여명 참석

* 1992.01; 한노당과 민중당 통합 합의. '민중당'으로 당명 결정

* 1992.04.13(?); 통합민중당 인천 6개 선거구에 후보 출마. 송경평(북을), 전희식(북갑), 황선진(서구), 박귀현(남동), 안영근(남구), 이원주(중동웅진)

* 1992.04; 민중당 중앙위 지도부들이 민중당 해산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인천의 전희식 북갑위원장이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진정추)' 건설안을 제출하여 통과됨으로써 진정추 결성됨. 지구당위원장 중 황선진, 전희식이 남아 진정추 북갑지구당과 서구지구당을 중심으로 있다가 이듬해 93년 두 지구당이 통합하여 진정추 인천본부 구성.

* 1992.10; 진정추 대의원대회, 92대통령선거에서 독자후보 출마 결의.

* 1992.11; 백기완 대통령 후보 인천지역 노동자 선거대책본부 구성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1. 영역별 활동

1) 편집, 선전

초기에 <노동자의길>, <정세와 실천> 등 두 개의 기관지를 발간하였다. <정세와 실천>은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주요 이론적, 전술적 쟁점을 다룬 A4용지 크기의 책자였으며, <노동자의 길>은 파업현장, 노동자들의 생활 등을 담아 매주 발간했던 노동자 대중신문으로 타블로이드 판이었다.

이 두 기관지는 88년 여름 회의에서 전면 개편되어, 단순한 '대중신문'이 아니라 '선진 노동자를 위한 신문'을 발간할 것을 결정하고, <정세와 실천>을 폐간하고 <노동자의 길>을 A4용지 1/2 크기의 소책자로 발간했다. 개편된 <노동자의 길>은 민중운동, 노동운동에 대한 당면 실천적 지침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노동운동의 동향을 전달했다.

또한 '선진노동자들의 계급적, 정치적 각성을 촉구'하고 매춘, 주책, 마약 등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본 원인과 해석을 통해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자임했다. <노동자의 길>은 학습모임, 독서회, 시사토론회 등 노동자 조직사업과 결합해 집필, 제작, 배포되었다.

전국 조직을 준비하면서 '전국적 정치신문'을 지향하며 발행한 <사회주의자>는 인노협 의 일부 역량과 다른 그룹의 멤버가 결합돼 4호까지 발행했으나 인민노련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되었다. 편집, 선전라인은 주대환, 윤철호, 신진화, 신명화, 김창덕, 구인회, 권우철, 황광우, 마은혁, 정종주, 김용숙, 유인열, 이성희 등이었다.

2) 조직

(1)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지도, 지원활동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지도, 지원 활동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87년 7-8월 이후 개화된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인 투쟁과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에 발맞춰 매시기 "노동조합운동의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합법칙적 발전대안 제시, 노동조합운동의 올바른 이념 정립과 단일한 대외형성에 일조"했다. 각종 문건과 정세와실천, 노동자의 길 등을 통해 주로 문서 형태로 제안되었는데, '지역민주노조협의회 건설',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법개정 투쟁을 결합'한 1일 총파업 제안, 전노협의 성격과 임무, 건설방안 제출, 민주노총과 산별조직 건설의 방향과 관련한 제안 등이 있는데 노동조합 운동의 실제 흐름 속에서 대부분 현실화됐다. 당시 노동조합운동과 관련해서는 정파와 무관하게 인민노련의 제안이 노조 활동가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2)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및 '선진노동자' 조직사업

지역별, 혹은 사업장 규모별로 조직원을 편제해 관리하는 한편, 노동조합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을 위해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인천민교연)', 새날상담소, 주안골목(내일을 여는집) 등 상담소를 거점으로 세우거나, 종교기관에서 하는 공개적인 공간에 조직원들이 들어가 연구원, 상담원 등으로 활동을 했다.

노동조합이나 사업장에 대한 지원 단위로 조직원을 편제하여 관리했는데, 초기에는 부천, 부평, 주안, 하인천으로 나뉘어 각각의 책임자를 두고, 책임자가 4-5인으로 구성된 분회 책임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인민노련 사건'이 터지고 90년 조직이 재건된 뒤에는 중소기업장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관리했다. 이같은 구분 방식은 이 시기가 전국조직 준비로 구지도부가 빠진데다가 조직사건으로 20여명이 구속되고 상당수 인원이 수배돼, 그 이전보다 적은 규모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소극적인 해석이다. 동시에 이즈음이 87년 7-8월 어용노조민주화투쟁의 실패 이후 대기업에서 민주파들이 현장의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확대해가는 시기여서, 그 이전보다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었다.

<노동자의 길>이라는 매체를 통한 공개적인 접근과 상담소나 연구소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라는 활동 방식은 인민노련의 노동조합 지원에 대한 신뢰를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직사건이 터진 직후 연경전자, 부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인천지역노동조합

협의회 등이 노보나 성명 등을 통해 ‘인민노련 조직원 구속수사’에 대해 항의한 것은 전례없던 일이었다.

(3) 조직원 선발과 관리

조직원(사원), 예비조직원, 관련활동가로 구분해 예비사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었다. 보통 3개월 후에 사원이 됐고 예비사원 기간 동안에 인민노련의 철학, 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학생출신은 예비조직원의 단계가 훨씬 길었고 조직원이 되는데 더 엄격했다. 조직원은 절반 이상을 노동자 출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89년 경에는 전 조직원들에게 『공산당선언』 등 원전학습을 실시했으며, 6회 이상의 원전학습 지침이 조직으로 시달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정세에 대한 기관지의 해석을 기초로 각 조직원이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을 갖고 활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문건에는 답이 없다. ‘조직의 철학과 정신에 근거’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같은 방침은 공안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으나, 적어도 인민노련 조직원들은 ‘세세한 지침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다는 ‘사상적 통일성’에 대한 자부심의 발로이기도 했다.

한사노의 경우 조직원 2인이상의 추천과 지역위원회 이상의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되 노동경력에 따라 3개월에서 1년의 학습기간을 가졌다.

인천을 중심으로 한 조직라인은 노회찬, 오동렬, 정광필, 노병직, 노용진, 김창한, 박병우, 이희경, 최봉근, 이현영, 주은경 등이었다.

3) 특수사업

특수사업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정치활동과 대중정당 활동에서의 조직원들의 활동을 총괄하는 사업이었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 민통련, 인천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인노운협), 인천지역노동조합건설추진위원회(공실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등에서의 활동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특수사업은 완전한 공개활동이었으며 다른정파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조직원 관리보다는 공식적인 내용은 기관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고,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은 해당단체의 조직원들끼리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 시기별 주요 논쟁 및 회의 결정

1) 88년 10월 대의원대회

처음 인민노련은 NL과 타투가 동거하는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조직노선 논쟁이 벌어졌다. NL의 ‘정치적 대중조직(PMO)’ 노선과 타투의 ‘정치조직(PO)’노선인데, 정치적 대중조직은 일종의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향하는 것이며, 정치조직은 ‘정당조직(당시는 비합법 전위정당의 의미가 컸다)’을 지향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비판적 지지노선’과 ‘독자노선’사이의 논쟁이었다. (『정치위기와 노동운동』 192쪽 <인노련 활동평가 보고서> - <정세와 실천> 2호에 실렸던 글 참조)

이 두가지 주장은 10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독자노선’으로 정리되었다. 정태운, 최봉근, 황광우, 이희경, 홍승기, 김상준, 이호곤, 신정길, 고남석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표결 결과 독자노선: 비판적지지: 기타가 12:4:1로 결정됐다. 애초 '정치적 대중조직'을 표방한 NL이 "조직원수에서 꽤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었고 따라서 다수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NL의 일부 사람들이 독자노선을 주장하는 조직원을 대의원으로 선출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NL성향의 김두수가 토론 결과 독자노선을 지지하면서 표의 향방이 바뀌었다.

2박3일 동안 진행된 이날 대회 결과 NL은 퇴장했고 이후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 인민노련에서 NL이 탈퇴하여 별도의 조직을 건설했고, 인민노련은 88년 이전의 강령초안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강령을 다시 채택했다.

10월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기초해 인민노련은 백기완후보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해 대통령선거에 임하면서, 민주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연정안을 갖고 양김 후보단일화를 추진하였으나, 양김 특히 김대중의 완강한 반대로 실패했다. 대통령선거 이후 인민노련은 「민중의 당」을 창당하여 송경평(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후보와 '후보단일화' 진영의 일부가 결성한 「한겨레민주당」의 오순부(대우중공업 해고노동자)를 민중후보로 추대하여 선거운동을 했다. 이후 「민중의 당」과 「한겨레민주당」이 통합해 「진보정치연합」을 거쳐 「민중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인민노련은 각각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민중당 노동자위원회」는 각 지역에 위원회를 두고 "민중당의 우경화를 막기 위해 활동"했다.

2) 전국조직건설준비 및 <사회주의자>창간, 인민노련 검거와 재건(88년 초 - 1990년초)
인민노련은 88년 들어 매우 왕성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임금인상투쟁과 노동법개정투쟁을 연계한 '1일 총파업'을 주장하여 지노협이 결성되기 이전 부천지역에서 이를 성공시켰고, 노동조합운동과 관련하여 김승호, 장명국, 이목희 등과 공개적인 논쟁을 벌였다. 주로 '전국민주노조총연합(제2노총)' 건설의 경로로서 전노협 건설의 필요성과 관련된 논쟁으로 '노총민주화론'을 주장하는 장명국과의 논쟁, 전노협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김승호와의 논쟁이 주였으며, 88년 초에는 '즉각적인 제2노총 건설'을 주장한 이목희와의 논쟁이 부차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노동조합운동 내에서 전국조직 건설논의가 진행되자 이미 86년부터 조직원을 지방으로 파견하기 시작한 인민노련은 10월 대의원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울산, 거제 등에 조직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박신철(거제), 신지호, 최봉수(울산), 한승주(창원) 등이 파견되었다. 이 대회에서 가장 핵심 논점은 '사회주의 선전, 선동'의 문제였다. 대다수 대의원들이 '사회주의 선전, 선동'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고, 황광우 등 소수 견해로 '사회주의 선전을 시작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신 89년 봄부터 <정세와 실천>과 <노동자의 길>을 통합하여 <노동자의 길>을 발간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이과정을 거쳐 통일문제는 주대환, 노동조합운동은 노회찬, 사회주의 선전의 문제는 황광우 식으로 분야별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와 다른 한편 치안본부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감지하면서 '전국조직 건설'을 위한 조직이원화가 결정되었다. 89년 여름 주대환, 노회찬, 최봉근, 황광우 등 구 지도부가 인민노련을 나가고 오동렬, 윤철호, 정광필 등으로 신지도부를 구

성했다.

인민노련을 나간 구지도부는 다른 그룹에서 합류한 유인렬 등과 함께 '전국적 정치신문'을 표방한 <사회주의자>를 8월25일 창간했다. 애초에 <사회주의자>라는 제호를 정할 때 '혁명의 불꽃', '선봉' 등의 제호는 진부하다며 친근감있게 '전태일'같은 제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그간 "한국의 민족민주운동에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회주의자로 추궁당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선언만 있었지, 스스로 자기를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며 "모든 금기를 무시하는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다"며 <사회주의자>를 제호로 내세웠다. 그러나 인민노련 사건이 터지고 이어 2차 인민노련사건으로 노회찬 등이 검거되면서 <사회주의자>는 4호로 중단되었다.

한편 치안본부에 의해 인민노련 신지도부와 주요 조직라인이 검거된 이후 구속자들은 "사회주의자임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을 상대로 사상투쟁을 벌이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검거된 관련자 전원에게 병합심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검사의 조사, 법정최후진술에서 주요 내용을 모아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남한 사회주의자들의 법정선언-』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신지도부가 검거된 이후 인민노련을 재건하려던 노회찬이 검거되고 인천의 조직재건임무는 정광필이 맡았다. 정광필은 검거를 면한 박병우, 김창한, 박종현, 진현철 등을 규합하여 90년 초에 조직을 완전히 재건했다. 이와 관련 김창한은 "89년 초부터 치안본부의 수사망이 상당히 좁혀지는 것을 감지하고 조직보위지침과 함께 A급 비상경계령을 전 조직에 시달렸다. 한사람이 검거를 감지하면 모두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하고 연락을 위해 각 집에 전화도 났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김창한의 부인 이희례가 검거 '조짐'을 눈치채고 「새날상담소」에 있던 김창한에게 연락, 김창한은 박종현, 진현철, 박병우 등에게 연락해 이들은 체포를 면할 수 있었다. 이면재는 예비군 훈련중이어서 연락을 받지 못하고 검거됐다. 이들이 90년 초 재건된 인민노련의 지도부가 됐다. 재건된 인민노련은 특히 영창악기, 경동산업, 대우중공업, 진도 등 대기업 노동조합운동을 집중 지원했다.

3) 한사노 결성(1990년 1월 - 91년 10월)

90년 8월 결성된 한사노 준비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인민노련사건으로 구속된 노회찬과 「노동계급」의 이진경이 옥중에서 통합에 동의하고, 밖에 있는 각각의 조직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부터였다. 이후 '독자적인 정당'을 주장하는 그룹들의 통합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의 이용선과 주대환이 만났고, 「안산노련」의 전성과 통합에 합의했다. 이밖에 광주, 대구, 울산, 거제, 전주, 청주, 태백 등 전국 20여개 도시의 서클들이 통합되었다. 인천에서도 김창한이 인천의 삼민, 노동계급 등과 만나 통합에 합의하는 등 전국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했다.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91년 7월 서면으로 한사노를 결의하고 계룡산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대의원은 17명, 전원이 등산복 차림으로 만나 '동창회'로 가장하여 모임을 갖고 저녁이 되기 전에 끝냈다.

4) 한사노 해산과 한국노동당 창당, 민중당과의 통합 그리고 진정추

한사노가 창립될 당시 소련이 몰락하면서 한국의 운동세력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 한

사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당시 주대환, 황광우, 권우철 등이 ‘소련 몰락 조짐’을 이야기하면서 신노선과 유사한 합법적인 노동자당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나 방담 정도로 그치고 합법적인 월간지를 구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길>과 같은 유형의 글은 합법적인 잡지로 나와도 손색없는 글인데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비합법 기관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방담으로 그친 ‘신노선’이 한사노 창립과 거의 동시에 중앙지도부부터 공론화되었다. <노동자정당 건설 전략에 대한 재고를 요청함>(1991.9.29)이란 주대환(필명 김철순)의 글과 황광우(필명 최윤희)의 <새로운 전략을 지지하면서>(1991.10.6), <회사의 기존 노선에 대한 재고>(필명 신준희, 1991.10.15) 등이 조직원들에 대한 회람문건으로 제출돼 - 당시 한사노 문건은 A, B, C로 구분돼 조직원, 예비조직원, 관련조직원 순으로 배포범위가 구분돼었다 - 전 조직원 토론을 공고했다. 이후 1991년 10월16일자로 임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역 지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 두달에 걸친 토론을 진행한 끝에 1991년 12월3일 제2차 한사노 임시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여기서 전위조직노선 폐기, 폭력혁명노선 포기, 프롤레타리아독재노선 포기 등을 골자로 한 <신노선>을 채택했다. 27명의 지역대표와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였다. 그리고 여기서 합법적 노동자정당 건설을 결의했다.

사실 소련공산당의 해체 등으로 인해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따라서 공개적인) 노동자정당 건설’은 조직원들에게 대단히 반갑게 다가왔다. “치안본부나 수사기관은 각 비공개 조직들을 ‘조직원들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비공개 정당조직은 ‘조직원들에게만 비공개’되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동조합이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졌다.

91년 12월15일 <노동자정당건설 추진위원회 결성대회>와 12월16일 기자회견 이후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전노협(지노협)의 지도급 인사들을 놓고 1월에 열린 전노협 중앙위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근 1박2일에 걸친 논쟁 끝에 “개인의 정치활동으로 허용하되 직책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신노선 결정이후 인천에서도 비중있는 민중운동 관련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민중연합의장으로 있던 황선진과 산마루 교회 김정택 목사였다. 인천 노동계급쪽 인사의 소개로 민중연합과 진현철이 연결되었고, 진현철이 1차로 황선진에게 접근하여 황선진, 김정택, 김창한, 주대환이 만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황선진이 합류해 1월19일 27개지역 5000여명이 한국종합전시장에 모여 개최한 <한국노동당(가칭-이하 한노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전희식, 광주정봉희와 함께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위원장은 주대환이었다.

그러나 한노당은 ‘정당’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과 능력이 취약했다. 비공개 조직의 지도부들은 공개, 합법 조직의 운영원리에 익숙치 않았고 당의 골간을 책임질 역량과 정치력은 더욱 취약했다. 게다가 주대환 위원장 등 4명이 공안당국에 연행되어 ‘폭력혁명노선 포기, 전위정당노선 폐기, 프롤레타리아 독재노선 폐기’를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조직내외적으로 심각한 공격에 시달렸다. 이런 와중에 민중당의 김문수, 신철영, 한노당의 이용선, 전성, 최봉근이 양당통합을 위한 교섭대표로 선출돼, 한노당과 민

중당은 당명을 '민중당'으로 통합에 합의했다. 이를 놓고 2월에 송실대에서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김창한은 인천, 서울, 광주, 대구, 원주 등과 통합반대를 주도했지만, 49:51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합이 결정되었다.

당시 통합을 주도한 최봉근, 권우철 등의 현실적 고민은 한노당만의 독자적인 창당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때문이었다. 지지 혹은 중립을 지키리라 예상했던 전노협 의 반대와 좌파진영의 신노선에 대한 반대 때문에 창당 가능한 지구당이 정당 창당 요건인 30개 지구당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중당은 1석 획득 혹은 전국 2%득표에 실패하고 정당법에 의해 해산당했다. 이에 이우재 등 민중당 지도부는 '패배를 인정'하고 해산을 결의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해산 선언에도 불구하고 92년 4월9일 민중당 중앙위원회에서는 '해산을 해야 한다'는 안과 정당법에 의한 해산일뿐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의지를 꺾어서는 안된다며 제출한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진정추)²⁶⁾로 전환 빠른 시일 안에 재창당'할 것을 골자로 한 인천 북갑 전희식이 제출한 안이 표결에 붙여져 전희식안이 결정되었다. 이후 진정추는 '지역구 방식으로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수 정당후보에 지지를 보낸 다수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제도라며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훗날 민주노동당의 입장으로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에 남은 지구당은 전희식이 위원장으로 있는 북갑과 황선진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구지구당 뿐이었다. 상당수의 조직원들은 좌절감 혹은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일선에서 떠났다. 그렇지만 그해 10월 서울시립대에서 1박2일에 걸쳐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는 92년 대통령선거에 '독자후보'를 결정하고 사노맹 등 좌파진영과 함께 백기완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했다. 인천에서도 '백기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활동했다.

한편 그해 4월 총선 이전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민주당, 민중당을 포함한 '민중후보'를 선정했다. 각 지역별로 논의된 결과를 모으는 것이었는데 당시 인천연합과 부천연합은 "민주당과 민중당 후보 선별 지지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예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인민련)」의 김성진 사무처장과 「인천지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정평실)」의 이진목사 주도로 민중당 북구을지구당 송경평과 나머지 6명의 민주당후보를 '범민주단일후보'로 선정했다. 이같은 내용이 한겨레신문에 보도되고 두단체 명의의 신문²⁷⁾으로 제작되어 지역에 배포되자 한노당 발기인으로 참석했던 노조위원장들이 인노협 대의원대회장에 반박대자보를 붙이는 등 반발했다. 이들은 <노동자탄압 주역을 지지하다니 누구를 위한 '범민주후보'인가>라는 글을 통해 '언론통폐합때 조선일보 언론대학살의 주역, 육성희장으로 전교조 조용명 인천지부장 해직을 주도한 인물, 낙하산 공천

26) 진정추라는 명칭은 후에 결정됐다.

27) <민주정부>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대관신문에는 '범민주단일후보'로 정해진 후보들의 사진과 경력을 실고 "민자당 심판을 위해 민주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밀실야합으로 빼앗긴 여소야대, 민주국회를 되찾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민자당과 '붙어볼만한 후보'이며 민주후보"라고 적고있다고 당시 영원통신노조 위원장 김미운은 <전노협신문> 92년 3월26일자 기고에서 적고 있다. 김미운의 이 기고문은 당시 인노협 대의원대회 장에 위원장들 연서명으로 붙였던 반박대자보를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인사 등을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 민중운동을 해왔던 인사가 후보로 나온 지역에 공천했다'며 '노동단체 스스로가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노동운동탄압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노협 내부의 '비판적 지지' 경향과 한노당 발기인 출신들이 상당한 논란을 벌였다. 이후 대통령선거부터 인노협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방침도 논의하지도 않았고, 결정하지도 않았다.²⁸⁾

관련자료 :

1. 『정치위기와 노동운동』, 거름출판사, 인민노련 역음
2.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일빛출판사 윤철호 외
3.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소나무 이진경, 노회찬 외
4. 『MBC스페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국의진보' 3부작』,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5. 한국노동당-민중당 통합 합의문
6. 민중당 마지막 중앙위원회 보고 공문
7. 그 외 인민노련 각종 회의자료, 조직보위지침, 학습지침, <신노선>관련 내부 회람문건 등 문건 다수
8. <전국노동자신문> 축쇄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발간

11. 인천지역민주노조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단체약칭 : 공실위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인노연합) 등

존속/활동기간 :

1987년 봄 -; 비공개로 '민주노조조건설을 위해 싸우는(일하는) 노동자 일동'으로 활동
87년 8월 26일; 공실위 창립, 공개활동으로 전환
88년 10월 26일 해산

활동지역 :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신문 <민주노조>는 전국적으로 배포됨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단, 전신인 민주노조조건설을 위해 싸우는(일하는) 노동자 일동은 비공개

결성과정 :

<민주노조조건설을 위해 싸우는(일하는) 노동자 일동 결성과정>

28) 인노협은 '92년 대선방침과 관련한' 전국연합과 전노협의 논의지침에 '논의, 결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인노련이 해체된 후, 남은 인노련 멤버들이 학습과 함께 이후 전망 등을 고민하면서 그룹을 형성한 「구인노」와 기타 NL성향의 비합법 서클들이 인천에 7-8개 존재했다. 이 서클들이 「서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가투 등을 논의했다. 서클협의회에 참여하는 각 서클 대표는 허명구, 이태영(기노) 등과 구인노의 전희식 등이었다. 86년말 이야기 도중 허명구가 “대중적 노동자 조직 건설을 위한 캠페인 운동을 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전희식이 “민주노조운동의 지원조직을 만들자”고 다시 제안하여 조직 건설이 구체화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지원조직은 각 서클이 민주노조운동을 지원할 사람을 파견하되, 파견할 때는 기존의 조직관계를 정리하고, 지원조직의 논의에 따라 활동하며, 각 서클들은 자신들 조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투쟁이 있을때 그 지원을 민주노조운동의 지원조직에 맡기기로 하는 등 역할에 합의하였다. 민주노조 지원조직은 만들어지기는 86년 말에 만들어지나 활동은 87년 초에 시작하였다.

87년 4월경 「고문정권, 살인정권 타도투쟁위원회(약칭 타투. 인민노련의 전신)」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 전희식과 타투의 정태윤, 이원주가 역곡역에서 서울방향으로 있는 지하다방에서 만났다. 여기서 정태윤은 “직선제 투쟁으로 올인하는 것은 안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전희식이 이에 동의하자 정태윤 등은 민주노조지원 조직에 결합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전희식은 “조직적 결합은 안돼고 실무역량만 내라”고 하여, 세명이 실무진으로 들어왔다. 그 세명은 이보영, 정책실장(?), 신보연이었다.

민주노조 지원조직은 「민주노조건설을 위해 싸우는(일하는) 노동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봄에 임투관련 교육자료를 발간했고, 여름에 <전국적 민주노조연합 건설하자>는 소책자도 발간하였다. <전국적 민주노조 연합 건설하자>는 이한열의 장례식이 끝난 후, 허명구의 서클에서 결합한 이성우(가명)의 집에서 이성우가 기초하고 함께 검토해 작성하였다.

87년 6월항쟁의 와중에는 홍보부에서 <공장에서부터 민주화를!>이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공장에서부터 민주화를!>은 노현기(가명 청아)가 청천동의 홍보부 사람 자취방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홍보부가 검토하여 발간하였다. 신문 <공장의 소리>와 호외도 함께 발간하였다.

<조직공개 논의 - 공실위 창립 과정>

6월항쟁을 경과하고 6.29선언으로 신군부가 후퇴한 공간을 노동자들이 치고 일어났다. 노동자대투쟁이 울산 현대엔진에서 발화되어 북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전희식은 <민주노조건설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 일동>을 공개조직으로 전환하여,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공실위)>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즉, 공개적이고 합법적 조직인 노동조합을 비공개적 조직에서 지원 지도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터져올라오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건설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공개조직으로 전환하여 자발적인 노동자 투쟁에 신속하고 공개,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실위는 △민주노조 결성 및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단일의 민주노조 지원조

직 △전국적 민주노조연합의 지역조직 결성을 목표로 하며 △노동조합의 지역조직 결성이라는 자기임무를 완성하면 스스로 해산하는 것을 임무와 목표로 정했고, 공실위의 모든 성원은 공실위 활동기간 동안 자신이 속한 서클 혹은 조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공실위 내에서의 결정에 따르며, 공실위가 해소되고 난 후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본래 속했던 자기 조직, 서클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다(서클들간의 합의+공실 내부 합의).

이같은 활동원칙은 하나의 사업장에 수십명의 활동가가 각자 속한 조직이 달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대중투쟁을 그르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지역에서 노동조합이나 현장의 투쟁과 관련해서 어느 조직이나 모두 공실위로 집중해 대중조직인 노동조합과 관련한 지역적 통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공실위 창립은 상담부 일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목희, 홍영표, 엄주웅(이후 이목희 진영이라 불렀으며 나중에 한국노동연구소를 창립 한노연 진영으로 불렸다) 등이 공개조직으로 전환에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비합법 조직과의 관계 속에 맺어진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간부들을 갑자기 공개조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권의 탄압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조직 건설에 반대했다. 논란을 벌이는 사이 시간은 흘러갔고, 그 사이 노동자투쟁도 복상을 하여 인천에서도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에 공실위를 창립하되, 상담부 일부를 비공개로 남기며, 비공개 상담부는 기존에 관련을 맺고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들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조직으로 이관하고, 비공개 상담부도 공개조직으로 단일체계를 형성하기로 하고 일단 병합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전국조직과 지역조직의 성격, 건설경로 등에 대한 이견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시 병합한 것으로 실제 87년 9월부터 인노협 결성 이후까지 두고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다.

해산이유 :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약칭 '공실위')는 활동 1년 3개월만인 88년 10월 26일 100여 지역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인 해체식을 가졌다. 공실위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며 통일적인 노조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87년 8월27일 지역노동자와 노동운동단체들의 합의속에 탄생되었으며, 교육, 상담뿐만아니라 <민주노조>라는 신문을 발행하여 노동조합운동에 아낌없는 지원활동을 벌여 왔다.

이날의 해체는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와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인노운협)가 인천지역의 노동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으로 공실위 결성의 조직적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는 부서원 전체의 합의와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주요인물 :

운영위원(인천지역의 각 노동단체 대표자들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됨)
전희식(사무국장), 최상림(사무차장), 정책실장, 상담부장, 교육부장, 홍보부장

활동목표/강령 :

민주노조 결성 및 투쟁지원, 인노협 결성지원, 임무완성 후 해산을 목표로 함.

조직체계 :

- 운영위원회; 인천지역의 각 노동단체 대표자들이 운영위원으로 구성. 주로 지역의 노동현황 공유, 지역적으로 공동대응해야 하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 집회나 투쟁에 조직동원 역할을 함.
- 사무국장; 전희식 (공실위의 실질적인 대표자. 공실위는 대표를 두지 않고 사무국장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이같은 조직구성은 공실위가 '인노협 결성 지원'을 임무로 지역의 단체들로부터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해소가 목표'였기 때문에 공실위 자체를 부각시키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결성 취지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무차장; 최상림
- 교육부; 가명사용
- 상담부; 임영탁(가명 이보영)
- 홍보부; 유봉인(가명 최광복)
- 정책실; 가명사용

주요활동일지 :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영역별 활동>

1. 노동관련 주요 현안에 대응한 집회, 시위; 산재노동자 투쟁, 산재노동자 김성애양 투신자살 관련 투쟁, 경기교통 김장수 장례투쟁, 인노협 결성지원, 인천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인노연합) 결성 추동
2. 노조운동 방향관련 토론회 공청회 등. 노동조합 활동 실무지원.
3. 11월22일 69개노조 600여명이 일신동 신광기업 운동장에서 '신규노조 창립대잔치' 개최-노동조합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현판식을 진행하는데 대해 조합원들이 연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신규노조들이 7-8월에 결성된 것에 착안해 제안. 이는 이목희 진영이 <노조운동의 정치적 핵심을 강화하자>는 문건을 내고 간부 중심의 비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노동조합의 지역적 구심을 만들려고 한데 대한 문제제기로 공실위에서 제안하고 실무지원을 하여 개최한 사업이었다.
4. 노조탄압저지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및 결함; 태연물산, 한광산업, 동성개발 등에서 빚어지는 심각한 노동조합 탄압에 노동조합들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노동조합 사무국장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공실위 상담부에서 결함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며, 88년 접어들면서 <임금인상준비 특별위원회>로 전환했다.
5. 88년 3월10일(계산동 성당? 700여명 참여) '88임투전진대회 및 공실위임투상황본부 발대식' - 공실위 등 8개 단체 공동주최로 발대식을 갖고 임투 시기 각 단체와 조직들로부터 추가 역량을 지원받아 주로 집회와 필요한 가두시위에 공동의 동원을 담당하였다.
6. 88년 임투시기에 새로 만들어지는 노동조합의 경우 공실위를 거치지 않은 노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인노협 결성과정에서의 역할이 지대했다. 이같은 경향은 인천지역의 서클과 조직들이 해당 조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투쟁이 벌어질 때 모두 공실위로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주변에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노동조합으로 배우러 갔다가 공실위를 소개받아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부서별 활동>

1. 상담활동; 노동조합 결성 상담 및 활동지원. 노조 사무국장 모임들로 구성된 '노조탄압저지특별위원회' 결함.
2. 교육활동; 노동조합 준비과정 및 결성이후 간부교육 조합원교육, 교육자료 발간 등. 교육부장 모임 결함.
3. 홍보활동; 「민주노조」 신문 및 호외 발간 (2주 1회 타블로이드 4면→국반절 4면→타블로이드 8면 각부 100원씩 판매). 호외(16절 혹은 8절 양면), 유인물. 노동조합 홍보부 결함 노보 제작 지원 및 홍보부 모임 결함.
4. 정책활동; 노조운동의 전망, 방향과 관련한 내용 생산. 리플렛, 문건 등 발행.

1) 출판; 『87년 7-8월 인천지역 노동자 대투쟁』 (들불출판사)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진』 (거름 출판사)

2) 자료; <노동조합 신문을 만들자>- 이것은 홍보부원이었던 노현기가 노조 홍보부장들에게 노보를 만드는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춰 만든 것으로, 쉬운 내용에 직접 그린 간단한 삽화를 첨부하여 자료로 제작해 그때그때 복사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상당한 인기를 얻자 사무국에서 자료집으로 제작했다. 2-3백부 마스터로 찍었으나 다른지역의 요청으로 추가제작하고 나중에는 다른지역에서 명의만 바뀌어서 자체적으로 인쇄를 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공실위 해산>

인천지역에서 인노협 결성 이전에는 인천지역 노조운동의 실질적인 구심역할을 담당했다. 이것은 단순히 인천지역의 조직이나 서클들만의 합의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조직의 파견자 혹은 프락션으로서가 아니라 공실위 자체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면서 노조운동의 전망과 관련한 내부 통일성이 높았던 데서 기인한다. 실제로 공실위는 노조운동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역의 각 서클이나 조직에서 공실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원을 받아들라는 개인적, 조직적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희식 사무국장은 증언한다. 전희식의 증언에 따르면 공실위 사무국장을 하면서 “무슨무슨 조직(서클)에 속해 있고 공실위에서 일하고 싶다”는 요구가 쇄도해 지역에 그렇게 많은 그룹이 있는지를 공실위 사무국장을 하면서 알았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인노협이 결성된 이후에도 애초의 목표와 무관하게 공실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내외적 요구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홍보부원 노현기의 기억에 따르면 이 점에서는 애초에 공실위 결성을 제안했던 전희식 당시 공실위 사무국장이 단호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공실위 해산에 훨씬 앞서 인노협이 결성됐지만, 공실위는 조직을 유지하면서 공실위 운영위원회에 결

합된 단체들에게 「인천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인노운협)」 결성을 추동해, 그해 9월 인노운협이 공식적, 공개적으로 조직된 상황이었다.

이에 공실위는 내용적으로 공실위 활동평가에 해당하는 '87년 7-8월 이후의 노조운동과 이후 전망과 관련한 토론회'를 운영위원회에 결합했던 단체대표자들과 진행하고 이를 「민주노조」 중간호에 실는 것과 함께 결성 1년3개월만인 88년 10월26일 해체식을 가졌다. 공실위원 중의 일부 인사들은 해산이후 인노협의 집행국장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당시 인노협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공실 해체 이전 이미 임명돼 있던 노조간부 출신 해고노동자를 제외하고) 모두를 공실위 성원 중에서 임명한 것이었다.

이를 보도한 인노협신문 제7호 기사에 따르면 “이날의 해체는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와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인노운협)가 인천지역의 노동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공실위 결성의 조직적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는 부서원 전체의 합의와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적고 있다.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런 이유로 결성식 없이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사무실에 더부살이로 시작한 공실위가 해산식은 그해 봄 이사한 당시 동암의 안기부 맞은 편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가졌다는 점이다. 보통 결성식은 거창하게 하고 해산할 때는 조용히 하는 법인데 결성식은 할 거를이 없었고 해산은 ‘떠들썩하게’한 셈이다.

관련자료 :

1. 신문 「민주노조」 및 호외, 신문 「공장의 소리」 및 호외
2. 『87년 7-8월 인천지역 노동자 대투쟁』 (들불출판사)
3.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진』 (거름 출판사)
4. <인노협신문> 제7호 88년 11월4일자 공실위 해체관련 기사

12.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단체약칭 : 인해협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1. 공실위 운영위원회
2.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

존속/활동기간 : 1987년 7월19일 -

활동지역 : 인천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경동산업, 영창약기, 대우자동차, 남일금속, 흥양교역, 제일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장에서 87년 임금인상 투쟁과정에서 해고노동자가 다수 발생해 이들이 화수동 인천산업선교회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경과하기 이전 현장노동자들에 대해 지원 투쟁을 벌일 수 있는 공개단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현장과 공안당국에 신분이 노출된 해고노동자들의 조직을 구성하여 과감한 지원투쟁을 수행하는 문제인식이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인해협)」의 출발이 됐다.

인해협 결성의 윤곽이 잡히면서 당시 인천산선 이민우 간사의 소개로 대우중공업의 해고노동자 오순부를 소개받아 의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인노련 활동으로 수배됐다가 경찰이 산속으로 끌고가 '죽이겠다'고 협박, 취조한 것을 폭로해 더 이상 비공개조직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진 김지선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창립준비에 들어갔다.

해산이유 :

주요인물 : 오순부, 김지선, 조광호, 이형진 등

활동목표/강령 :

창립선언문에서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의 해고노동자들이 원직에 복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당한 해고가 이땅에서 추방될 때까지 싸울 것"을 선언.

조직체계 :

의장과 사무국장을 기본으로 부서체계나 인적구성은 매 시기 여건에 따라 바뀌었다. 즉 복직되거나 취업, 혹은 다른공간에서 활동할 생각으로 옮겨가는 일이 상대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이다. 88년 현재 조직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2. 운영위원회; 중요 운영 방향을 결정하며 산하에 각 사업장별 해고자조직이 있다.
3. 집행위원회; 사무국장과 그 밑에 연대부, 후생복지, 교선부가 있고 상담실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주요활동일지 :

- * 1987년 7월19일;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창립. 인천 답동성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의장에 오순부(대우중공업 해고노동자), 사무국장에 김지선(삼원섬유 해고노동자) 선임
- * 1987년 7월말-8월초; 인천지역노동자 여름수련회, 비공개 노동운동조직이나 서클들의 현장활동가와 주변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당으로 기획된 행사로 두차례에 걸쳐 약 500여명이 참여했다. 1988년 여름에도 여름수련회를 개최했으나 89년부터는 인노협이 주최했다.
- * 1987년 10월; 인천지역 노동자 등반대회를 열어 관악산에 갔다. 역시 비공개 노동운

동조직이나 서클들의 현장활동가가 참여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 1998년 IMF이후에는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부당노동행위근절특별위원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은 독립적이다.

※ 노동현안과 관련한 각종 지역 연대조직에 참여해 활동을 함(87이후 노동일지 참조).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1. 해고자 복직 투쟁 지원 및 공동의 복직 투쟁;

인해협 초기에는 해고자 복직 투쟁 지원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고자 복직 투쟁은 당시 해고의 부당함 제기와 ‘복직’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했지만, 복직투쟁을 함으로써 자신이 해고된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선전, 선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이같은 투쟁은 87년 7-8월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특히 영창악기, 경동산업 등에서는 해고노동자들이 앞장서 투쟁을 이끌어 어용노조 집행부를 밀어내고 노조 임시위원장 등에 추대되기도 하고, 파업 투쟁의 와중에 회사측과 복직합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의 복직 투쟁은 노조민주화투쟁의 성공과 맞물려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더 컸다. 따라서 이 시기 인해협은 항상 해고노동자들이 복직거리는 곳이었고, 필요한 시기 ‘기동타격대’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2.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 - 현장투쟁에 대한 지원 투쟁, 각종 법적 구제활동 지원;

인해협의 활동은 갈수록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해고이후 법적 구제활동의 비중이 커졌다. 87년-89년까지만 해도 법정투쟁을 통해 승소하거나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노조민주화투쟁에 성공해 노사합의로 복직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노동부 역시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강해 합법적인 구제신청과 법정싸움은 거의 기대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게 되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더더욱 인해협에 의지하는 경향이 컸다.

3. 노동현안 관련 연대사업;

87년, 88년에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비공개조직(서클)들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기획했다. 여름수련회, 등반대회 등이 그것이다. 인천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인노운협) 등에 참여하면서 인노운협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분쇄 투쟁 등 현안대응, 노동법개정투쟁, 기타 지역현안에 관여했다.

관련자료 :

13. 인천문화운동연합

단체약칭 : 인문연

소속단체 : 인민련

활동기간 : 1987년 11월 ~

활동지역 : 인천지역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1. 1987년 4월 「우리문화사랑회」라는 대중조직으로 시작
2. 1987년 11월 「인천문화운동연합」으로 개편
3. 1988년 12월 「우리마당」을 흡수, 통합

해산이유 :

주요인물 :

활동목표 :

1. 문화를 매개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노동자문화상담소' 운영
2. 전문적 예술 역량을 가지고 선전, 선동을 공연으로 '민족예술극회' 운영

조직체제 :

1. 총회
 2. 중앙집행위원회; 인문연 주요사업 의결 및 집행을 총괄, 주1회 회의
 3. 노동자문화상담소; 노동자문화활동 상담 및 지원, 진보적 예술작품 보급 및 유통
 4. 민족예술연구회; 예술작품 보급, 대중예술역량 강화, 진보적 문화 기획공연. 산하에 연행분과, 노래분과, 미술분과
 5. 정책실; 교육정책 입안
 6. 사무국
 7. 총무부
 8. 홍보편집부; 기관지 편집, 유인물 작성
 9. 기획사업부; 재정, 기획 사업
- *** 1988년 창립총회 규약에 의거

주요활동일지 :

1. 투쟁사업

인문연의 활동은 '민족예술연구회'의 활동과 '노동자문화상담소'의 활동으로 나누어 진

행되었다. 우선 민족예술연구회의 주요활동은 공연을 통해 당면시기의 투쟁과 내용을 선전, 선동했다. 내용은 한국 자본주의 탄생과 더불어 노동자 기구의 형성과 투쟁과정, 인노협 결성, 전노협 결성, 노동자 계급과 봉신, 명신 노동자들의 투쟁들이다. 이러한 공연은 대부분 현장 중심의 집체극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노동자문화상담소는 노사분규가 발생한 인천의 거의 모든 사업장과 결합하여 위장폐업 분쇄투쟁, 임투의 의의와 과제 등 파업투쟁 현장에서 제반의 문화운동을 통해 노동운동의 과제를 해결하였다.

2. 선전활동

인문연은 기본 사업 자체가 선전, 선동이다. 「인천노동자조합협의회(이하 인노협)」의 강화, 대공장 노조 민주화 투쟁을 통해 「전국노동자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 결성투쟁, 전교조 합법성 쟁취투쟁, 반노전선의 강화로 집중되도록 공연을 통한 선전, 선동을 수행해 나갔다.

관련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

14. 기차길옆 공부방

단체약칭 :

소속단체 : 인천지역공부방연합회

활동기간 : 1987년 ~ 현재

활동지역 : 인천지역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해산이유 :

주요인물 : 최흥찬, 김향숙, 심상범, 정승원, 강길재, 오정미, 이선우, 김중미

활동목표 :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결손가정,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교육환경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조직체계 :

1. 대표
 2. 임원
 3. 실무책임자
- **** 2000년 현재

주요활동일지 :

1. 주요사업내용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괭이부리마을 아이들”의 공부방이다. 여기서는 기차길 옆 공부방 발표회 ‘우리 아이들의 나라’와 만석동 마을잔치 개최, 기차길 옆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다

2. 단체연혁

- * 87년 기차길 옆 아가방 설립
- * 88년 기차길 옆 공부방
- * 91년 주민도서실 개설
- * 95년 우리쉼터(청소년 쉼터) 개설
- * 96년 마을신문 ‘만석신문’ 창간

3. 간행물

- 1) <기차길 소식>(계간, 년4회)
- 2) <칙칙폭폭>(비정기, 통권28호)
- 3) <만석신문>(월간, 통권33호)

*** 2000년 현재

관련자료 : 『인천민간단체총람』, 인천가톨릭환경연대

15. 인천민중연합

단체약칭 : 민연

소속단체 :

1. 1988년 9월 11일 - 1989년;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2. 1990년 - 92년; 「민자당 일당독재분쇄 및 국민기본권쟁취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
3. 1992년 10월24일 -; 전국민중교육단체협의회(추)

활동기간 : 1988년 12월 ~ 2000년 12월

활동지역 : 인천지역

법적상태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87년 10월 홍성복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의장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대선 후보 김대중, 김영삼 중 김대중을 비판적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당시 수배 중이던 인사연 집행국장 이우재와 전 집행국장 황선진에게 전했다. 인사연은 민통련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따라야 했다. 이우재와 황선진은 민통련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인사연은 민통련 중앙위원회를 재소집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민통련 중앙위원회의 재소집을 요구했다. 인사연의 요구에 의해 중앙위원회가 재소집되었지만 민통련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우재는 비판적 지지는 반대하지만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했고, 황선진은 절대 승복 할 수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사연은 11월 계산동 성당에서 긴급 비상회의를 중요 활동가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었다.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결국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처음 투표에서 기권이 3표가 나오자, 회의 참석자들은 기권 없이 자기의 의견을 찬, 반으로 정하기로 확인하고 투표를 다시했다. 결과는 1표 차이로 민통련의 입장을 따르는 쪽이었다. 하지만 황선진, 안영근(전 집행국장) 등은 결정 상황을 승복할 수 없고, 민중독자후보 및 민중의 정치세력을 만들기 위해 인사연을 탈퇴했다.

대선 이후 황선진, 안영근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독자적 정치세력을 만들 수 있는 단체를 만들 것을 논의했다. 이후 나준식(서점운영), 이용식(대학원생), 이덕희(환경운동가)등이 합류 했다. 이들은 88년 3월 1일 인천우리문화사랑회와 공동으로 인천시민공동회를 창립했다.

한편 인하대 대학원생 김창수는 동료 15명과 함께 87년 9월 인천지역민주화실천협의회를 결성하고 활동 중이었다.

인천민중연합은 인천시민공동회와 인천지역민주화실천협의회와의 통합을 통해 결성되었다.

해산이유 :

2000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전국 「노동자의 힘」 연합단체 인천지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중연합을 해산하였다.

주요인물 :

김영규(교수), 황선진(시민활동가), 김창수(학생), 나준식(서점 운영), 문계봉(활동가), 김남수(노동 운동가)

활동목표 :

단일한 계급, 대중에 국한되지 않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청년, 학생, 지식인 등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는 진보적 대중운동의 전개.

*** 1988년 12월 18일 창립선언문에서

조직체계 :

1. 총회;
2. 중앙위원회;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월1회 개최, 각급조직의 대표와 간사, 조직위원회내의 각 모임단위별 대표가 참여. 산하에 진보정치연합 남구 연락소(시민공동회), 인천 민중학교
3.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주1회 개최.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정책실장, 청년위원장, 조직위원장이 참여. 산하에 청년위원회, 민중생존권 대책위
4. 조직국;
5. 정책실;
6. 조직위원회; 산하에 지역별 분회, 노동자반.

*** 1988년 12월 18일 규약에 따라

주요활동일지 :

*** 연표 참조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창립 후 인천시민공동회는 총선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4월 인천민중후보추대위에 참여하여 서구지역 민중후보 오순부(대우중공업 해고자) 선거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총선 후에는 대중교육사업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일시민학교」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모색했다.

또한 87년 9월 김창수(인하대 대학원생)를 중심으로 발족한 인천지역민주화실천협의회(민협)은 88년 6월 16일 신천리에 위치한 작은 자리에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민공동회와의 통합에 관해 논의하고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통합을 결정했다.

민협과 인천시민공동회는 7월10일 통합하기로 하고 임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명칭은 임시로 민협-시민공동회로 결정했다. 17일 조직 통합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은 조직 들을 설치했다.

총회, 총운영위, 상임위, 사무국, 정책실, 지구조직위, 분과특별위, 회원 교육(주1회), 일일 시민학교 운영, 빈민지역 활동가협의회, 진보정치 남부연락소.

회원 교육으로는 '내부 정치학교' 을 매주 진행했고, 대외사업으로는 청소년여름학교를 개설하고 독서실을 운영했다.

이후 민중생존권대책위를 구성하고 세창물산 위장폐업투쟁, 주안5동 세입자대책위 참가, 학익동 철거민을 위한 바자회 개최 등을 지원했다. 또한 지방자치제대책위에 참가

했으며, 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부평국민운동본부,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와 공동으로 만수동 경로잔치와 '5공비리와 반민주악법철폐'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회(강사 노무현 국회의원)를 열기도 했다.

88년 12월 18일에는 총회를 열어 임시 명칭을 폐기하고 「인천민주시민공동회(이하 민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89년 창립 후 첫 사업으로 인천 시민회관에서 백기완 선생 초청 대중 강연회(참가인원 1800명)를 가졌다.

그리고 교육 사업으로 '민중학교'를 개설 하였다. 민중학교는 예속과 굴종을 거부하고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의 방도를 찾는 민중들의 배움터로 개설되었다.

89년 2월14일 제1기 강좌가 시작된 이래 3기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총 150여명이 입교 하였다. 개관을 보면 제1기(2.14~ 3.21)는 42명이 입교하고 27명이 수료했고 9강좌로 진행되었다. 제2기(7.4~8.8)은 39명이 입교하고 27명이 수료했고 10강좌로 진행되었다. 제3기(10.17~11.21)은 28명이 입교하고 28명이 수료했고 10강좌로 진행되었다.

민중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노태우 정권은 폐쇄공고문 부착, 강제 폐쇄조치 등 끊임없는 탄압을 가해 왔다. 제2기 수료식 이후 동부서에서 형사 7명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의장 및 5명을 연행, 황선진의장을 구속했다. 그로인해 제1기를 제외한 2,3기 강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더욱이 강좌 운영기술의 미숙으로 인하여 참배움의 기회를 찾으려 왔던 많은 입교생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입교생 비율 대 수료생 비율이 50% 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안정적으로 강의를 진행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분반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 엄격한 강사선정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 다른 대중교육사업으로 풍물강습을 시작했고, 독서토론을 활성화시켰으며, 민중영상 시사회를 개최하여 '오! 꿈의 나라'를 관람했다(부평 실험회관, 2000여명 관람).

그리고 그해에 민회 이름으로 광주민중항쟁순례단(38명)을 광주에 보냈다.

대중사업으로는 5월 '노래를 찾는 사람들' 공연을 부평1동 성당에서 가졌고(참가인원 1,000명), 대우중공업 염성태위원장 초청강연회 '대기업 노동자가 본 인천의 노동운동'을 개최했으며, 제1회 민중역사기행(장소; 갑오농민전쟁터, 참가인원;50명) 등을 주관했다.

연대활동으로는 3월 효성동에 위치한 마미손 위장폐업에 항의하는 평화대행진 참가, 임투 전진대회, 현대 테러 규탄대회, 주안5동 세입자대책위, 노정권 불신임대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5월에는 '이철규열사 진상규명대회'와 전교조 지지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결성에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경동산업 노조탄압 규탄대회', '노동악법철폐 및 전노협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등반대회', '전국 노동자 대회', '전국 민중 대회' 등에 참가했다.

이러한 내외사업을 통해 민회는 89년도 평가를 다음과 같이 했다.

"민중대학에서 보듯이 전면적, 지속적 탄압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해내지 못하고 지도부 부재로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 90년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조직을 정비한다. 1) 조직위에서는 조직 보위력의 양적 담보인 회원 확대와 지부 건설을 통한 대중 접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와 더불어 회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치 학습

및 다양한 대중사업을 통한 훈련을 한다. 2) 정책실에서는 외연으로 확장되는 조직이 단순히 형식적인 모습으로 국한되지 않게끔 지속적인 정세평가와 시사토론회, 회원 강좌를 통하여 우리의 이념(민중해방)을 지역내 대중에게 선전할 수 있는 올바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수행한다.

3) 교육국에서는 지역 대중을 대상으로 민중학교, 역사교실, 노동교실, 문예교실, 여성교실 등의 대중교육강좌를 통하여 지역대중에게 올바른 민중의 이념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에 대한 내용을 선전하고 민중해방을 앞당기는데 기여한다. 4) 재정국에서는 독자적인 재정 사업을 통한 조직의 재정자립화를 이루는데 만전을 기한다. 5) 이러한 계획들을 무리 없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각 국간 업무 협조와 지원을 해 나가며, 타조직과 연대해 인민련, 전민련사업을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본 조직의 성과물이 지역 및 전국적인 민중운동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조직의 명칭이 활동지역, 조직대상, 이념의 결합 형태가 명확하지 못한 관계로 인천 지역의 대중 및 활동가들마저 단체의 명칭을 ‘시민공동회’, ‘시공위’, ‘인시공’, ‘시공’, ‘민회’로 약칭하거나 심지어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로 호칭하고 있어서 각기 다른 조직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비상설공동대책위원회인 것으로 오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조직 명칭을 인천민중연합으로 변경 할 것을 제안하여, 90년 1월31일 중앙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제2기로 출범한 민연은 정기총회에서 조직의 중심으로 노동자위원회 건설 계획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회 건설은 조직의 중심을 노동자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역 노동운동에 참여하여 노동운동의 흐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89년도 전민련(인민련)중심의 연대활동을 기층대중조직 중심의 국민연합과 사업연대를 하기로 전선이동을 했다. 하지만 국민연합은 집행력과 실무역량의 부족으로 가맹조직의 결합도가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또한 변화하는 정세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고 연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동활동, 연대투쟁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그 실천에 책임감 있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민련 특위’, ‘노금노후보 지원 인천대책위’에 참가하면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 활동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회원 관리 계획으로 3월 조직위원회에서는 분반 활성계획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회원을 분반으로 편성, 배치하려는 의욕적인 계획은 계획 자체의 결함과 회원의 요구와 상태에 대해 면밀한 검토 부족과 분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무역량에 대한 미비로 분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되고 말았다. 또한 지속된 분반마저 조직위원회의 축소와 관련하여 지도 관리가 사무처로 이관되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회원 및 분반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교육사업으로는 ‘민중문예교실’, ‘민중역사교실’, ‘노동교실’, ‘여성교실’, ‘민중교양강좌’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역민중의 요구에 응답했다. 그러나 ‘민중문예교실’의 경우 수강생 사후 관리 부재와 실무팀의 문예교육 경험의 부재로 많은 인원을 동원한 만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노동교실’, ‘민중교양강좌’는 수강생 동원에 실패함으로써 교육의 성과가 극히 미비했다. 또한 실무자들의 대중 활동 경험의 부족과 정치 지도력 부족은 각 강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였다.

문화 사업으로는 ‘5월 광주(5.27)’, ‘골리앗 그보다 더 높이(12.1)’, ‘민중흔레마당(3월25, 5월12)’ 등이 있었다. 5월광주는 판소리라는 전통적 양식이 현실적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지 시험적 의미가 있었지만 비대중성과 공연 시기 선택의 문제점을 남겼다. 골리앗은 90년도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기록될 현대중공업 파업투쟁을 소재로 하여 노동운동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 지역의 노동자를 비롯한 1,500명의 관객에게 현대중공업 투쟁을 통한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시하고, 민연의 노동자위원회를 홍보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문화 사업은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문화선동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계획된 민중미술전을 개최하지 못한 것과 각종 공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조직화하지 못한 것, 문예활동가를 양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것은 향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91년 민연은 조직사업으로 90년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 성과물을 다음과 같이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1) 조직을 부문과 지역의 연합체로 한층 발전시킨다. 2) 선진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편재와 조직운영을 실시한다. 3) 조직체계는 총회 - 중앙위 - 중집위 - 지부 - 분회로 민주 집중제를 철저히 실시한다. 이전에는 대중교양강좌를 통한 회원 확대사업이었으나, 이제는 노동자 위원회와 지부를 통한 조직건설 및 강화사업으로 중심 잡았다. 4) 특별회원과 후원회원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5) 효율적인 조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조직의 응집력을 강화한다.

정책 사업으로는 1) 시기별 정세분석과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치적 선동 및 선전물을 작성한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통일, 단결된 대오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 2) 사업의 축적물을 시국토론회와 실무자 토론회를 통하여 회원교양, 선전, 선동을 한다. 3) 조직의 대내, 대외 선전물을 제작하고 기관지 <여럿 함께>를 발간한다.

연대 사업으로는 국민연합에 ‘인천지역 임투지원 대책위’를 구성을 제안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투쟁 사업으로는 수서비리 규탄농성과 91년 임투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 사업으로는 대중 교양강좌를 축소하고, 회원에 대한 교육으로 중심을 전환했다. 문예 사업으로는 풍물반과 노래반을 결성하고 사진반을 강화했다.

91년 민연의 활동은 12월 10일을 기점으로 한국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방침을 놓고 지도부의 상반된 견해로 조직분화가 이루어졌다. 지도부의 의견은 크게 다음의 둘로 갈라졌다.

한 그룹은 “ 민중연합은 그동안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현정세 하에서 합법적 노동당을 건설하자는 제안이 있다. 이것의 의미를 인정하고 이의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92~93년 권력 재편기에 민중운동의 정치적 과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와 파쇼세력에 재집권과 정통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수야당의 영향력 축소와 민중운동 진영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것

의 결과로 파쇼, 보수야당, 민중운동 진영의 3자구도를 이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중운동진영에 좌파세력의 총단결이 필요하며, 이는 총선 전 단일한 합법정당의 건설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강력한 방침은 민중당 외에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세력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제 세력이 노동당 건설로 집결하고 이것을 지지하는 대중의 힘으로 민중당을 견인,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견은 “민중연합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이번 총선 시기에 현재의 연석회의를 강화하고 좌파진영의 전체의 결집을 이루어내며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당 건설 추진위에 대해서는 좌파결속을 어렵게한다고 보며, 민중연합이 이를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했다.

이러한 지도부의 의견 차이로 많은 논란 속에 92년 5월 30일 정기총회에서 노동자정치추진위원회에 동의하는 회원들이 정당으로 공식적으로 분리를 했다. 그리고 임시 집행부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과도기 기간은 7월4일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사업계획을 통과시킴으로써 조직내 분열과 혼란을 정리했다.

민연의 새로운 지도부는 제4기 사업기조로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1) 조직 자립도를 높이는 것(재정, 전문적 실무역량, 정책능력고양). 2) 회원들의 조직 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및 강화. 3) 대중사업 확대 강화 등.

조직사업은 노정추로 인한 지도역량과 분반구조의 분산 등으로 조직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 현실조건에 맞는 조직운영체제를 재정비할 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이전 확대된 조직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러한 운영은 조직편제가 흐트러져 실무집행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사업으로는 ‘민중교양강좌’, ‘여성교실’, ‘사진교실’, ‘한글교실’을 개강했다. 제7기 민중교양강좌를 10~11월에 걸쳐 10회의 강좌와 체육대회, 수련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총30명이 입교하고 22명이 수료하였으며 5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여성교실은 10월22일~11월19일 사이에 열렸다. 시기적으로 인천지역의 다른 단체들이 여성교실을 열고 있어 중복되었고, 민연의 교양강좌와도 중복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가 저조하고 실무자들의 배치가 적극적이지 못했다. 사진교실은 6월27일~10월4일까지에 걸친 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공개강좌를 9~10월에 열었다. 그러나 사진교육은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민연이 내용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어려웠다. 단지 홍보등 실무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한글교실은 안양 민청련등의 사업을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민중들의 문자 해독을 돕고 조직의 재정에도 주는 차원에서 기획 진행되었다. 30명이 교육을 받았고, 재정적으로 민연의 월 재정의 1/3을 충당했다. 문제점으로는 교사들의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아주머니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교재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대외사업으로는 민연은 백기완 민중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역량을 표출하였으며, 지역 민중운동단체로서 그리고 전국노련 가입단위를 가진 조직으로서 주어진 임무만이 아니라, 모금활동을 비롯하여 유세장예의 회원참여를 적극 조직하였다. 특히 남구갑 연락소에서 준비한 시민회관유세는 많은 인원이 모여 성공적이

었다.

연대사업으로는 전국민중교육단체협의회(전민교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전민교협은 89년 공안정국 초기에 민중교육 탄압에 대해 공동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민중교육단체에 대한 폐쇄명령과 고발조치, 조직침탈이 확대되는 속에서 전국적 연대기구가 결성되었다. 92년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에서 서울민중연합(서민련), 인천민중연합에 민중교육사업에 대한 논의의 확대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서민련, 인민연이 이에 동조했다. 위의 3단체는 9월16일 첫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10월25일 3단체를 포함한 민중교육단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민중교육단체협의회(가칭)를 결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9월23일 제2차 대표자회의에서는 각 단체의 현황 보고와 연대의 폭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였고, 25일 3단체 연명으로 전국의 15개 민중교육단체 앞으로 '민중연대 체육대회 참여요청에 관한 건'이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10월24일 전까지 3단체 대표자회의 3회, 수도권 대표자회의가 3회, 전국 대표자회의가 2회 열려 연대의 수준과 위상, 포괄범위, 사업기조와 주요사업, 결성 일정 등이 논의되었다. 10월24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전국민중교육단체협의회(추)를 결성하고 추진위원장으로 인천민중연합 의장이 선출되었다.

관련자료 :

1. <인천민중운동연합10년사>, 1998.12.10
2. 이우재, 안영근 구술

16.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

단체약칭 : 인부노회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

존속/활동기간 :

88년 2월 창립 -

91년 인사연과 통합하여 활동하다가 인사연이 해산된 92년 이후 공개임의단체로 한겨레노동자회 창립

활동지역 : 인천, 부천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비공개임의조직

결성과정 :

86년 서노련, 인노련이 해체되고 86년 8월 부평역에서 가두시위를 거치면서 인천지역

에서 NLPDR(NL)경향이 급부상했다. 그러나 NL진영은 단일한 조직결성을 서두르지 않고 주로 학연을 기반으로 6-7개의 서클의 형태로 존재했다. 이들 서클들은 대표자 모임격인 '서클협의회'를 통해 필요할 때 공동 투쟁을 벌이는 한편 서클별로 조직원들에게 주체사상, 강철서신, 김일성 선집 등을 학습시켰다.

87년 격변기에 들어서면서 6월항쟁 과정에서 '직선제개헌투쟁'에 집중하는 한편 '정치적 대중조직(PMO)' 결성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정치조직(PO)'을 주장하는 '살인강간고문정권 타도 투쟁위원회(타투)'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을 87년 6월26일 결성했다.

그러나 선거방침 결정을 위한 인민노련 10월 대의원대회²⁹⁾에서 '독자노선'이 결정되고 '비판적 지지'입장이 채택되지 않자³⁰⁾ 인민노련을 탈퇴하여 10월 12일 「인천지역노동자연합 준비위원회(인준위)」를 결성하고 '비판적지지' 활동을 벌이다 인준위 일부 회원과 안재환 등이 88년 2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부노회)」를 창립했다.

해산이유 :

공안당국으로부터 안재환 회장을 비롯해 핵심 10명이 구속된 후 사실상 활동 정지 상태에 있다가 91년 인사연과 통합.

주요인물 :

안재환, 손형민, 이동진, 신정길, 이성우, 고남석

활동목표/강령 :

<회칙>

첫째, 노동형제와 조국을 위해 의로운 삶을 살며 상부상조하고 노동자로서 올바른 품성을 함양한다

둘째, 회원 나아가 노동형제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앞장선다

셋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모든 노동단체와 단결하며 각계 각층의 민주단체와 협력한다

조직체계 :

회장; 안재환

대외협력담당; 고남석

주요활동일지 :

* 1987.10.12;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인준위)³¹⁾

* 1988.02; 창립

29) 인민노련 기록 참조

30) 인민노련 10월 대의원대회에 NL진영은 다수파였으나 대의원 선출결과는 독자노선 7표, 비지노선 5표였으며 신정길, 고남석, 김두수 등이 참석했으나 김두수는 독자노선을 지지한다.

31) 인준위는 인부노회와 그대로 연결되진 않았으나 일부인원이 인부노회로 들어오면서 활동이 정지됨.

* 1989.02.16; 손형민 등 조직원 6명 공안당국에 연행

* 1989.04.03; 조직원 3명 추가 구속

* 1989.06.05; 회장 안재환 구속

* 1991.01; 인사연과 통합

※ 주요 활동은 대부분 인천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인노운협)에 참여해 인노운협 이름으로 연대활동을 벌였다. (인노운협 일지 참조)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인부노회는 비공개 단체라기 보다는 공개 노동운동 조직에 가깝다. 인천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인노운협)에 참가하여 활동하며 노조활동 지원, 노동법개정투쟁 참여, 광주항쟁현장순례, 전두환, 노태우 구속투쟁 등을 인노운협이나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내부적으로는 다른 서클들을 흡수하는 작업도 벌였다. 인민노련 10월 대의원 대회에 참가했던 신정길 그룹은 인부노회 시절 들어왔으나 조직원 전체가 들어오질 않고 일부만 들어와 인부노회 내부에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부노회는 1년만인 89년 2월 16일 공안당국에 조직원 6명이 구속되고 6월에 회장 안재환마저 구속되면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89년 2월에 발생한 '인부노회 사건'은 노태우 정권이후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조직사건이었다. 안재환은 당시 치안본부에 들어가니 인천지역의 각 비공개단체들의 조직표를 그려 벽면에 붙여놨다고 한다. 실제로 인천에서 잇따라 조직사건이 터지는데 84년 유화국면 때 상대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노출된 활동가들을 추적하여 '그림표'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보다 앞서 88년 말 노태우는 "노동운동을 좌익으로 규정"하고 특별담화, 공안대책회의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잇따라 갖는 한편 새해 벽두에 풍산금속 안산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노동운동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정책을 실시했다.

한편 1차 검거자인 손형민 등 6명이 연행된 후 서울지방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담당판사는 '인부노회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단순한 노동운동단체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판사를 바꿔서 영장을 발부하였다.

한편 이때 연행되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던 최동은 육체적인 고문과 정신적인 압박으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90년 8월 7일 한양대에서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했다.

관련자료 :

1. 인부노회 유인물 1종
2. 안재환 증언
3. 『MBC스페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진보' 3부작』 문화방송 교양제작국

17. 인천여성노동자회

단체약칭 : 인천여노회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존속/활동기간 :

1988년 1월17일 일하는 여성의 집(여노회의 전신) - 현재

활동지역 : 인천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 임의조직으로 출발/ 현재는 사단법인으로 합법

결성과정 :

70년대와 80년대 초반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 '70년대 민주노조' 출신 여성노동자들이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이 어려워지고 나이가 들면서 결혼, 이성문제, 재취업, 육아 등으로 활동에서 멀어진다. 이에 83년 초부터 경인지역 민주노조운동 출신 여성노동자들과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던 여성들이 여성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그 결과 인천지역 여성나눔의 집을 개원하여 어린이 집, 여성재취업 교육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1년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88년 1월17일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여성나눔의 집)」을 개원했다. 여성나눔의 집이 개원된 시기가 노동자투쟁이 고양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노동자운동의 토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여성노동자 대중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여성나눔의 집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인천지역의 뜻있는 여성활동가들을 규합해 89년 2월25일 「인천지역여성노동자회(인천여노회)」를 창립했다.

해산이유 :

주요인물 : 조화순, 안순애, 김지선, 최상림, 남인숙, 조성혜 등

활동목표/강령 :

조직체계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주요활동일지 :

- * 88.01.17; 일하는 여성나눔의 집 개원, 12시간 보육시설 '나눔어린이집' 개원
- * 88.03.08; 3.8 여성의날 기념 '일하는 여성 대동잔치' 개최
- * 89.01.13; 인천여성노동자회준비위원회 구성
- * 89.02.25;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
- * 89. <인천여성노동자> 창간
- * 89. 전국여성지도자 세미나 공동개최/ 인천지역 여성지도자 교육
- * 90. 올바른 택아법 제정을 위한 활동
- * 90. 모성보호쟁취 평생직장가꾸기 등반대회
- * 91. 남녀차별임금 실태조사와 지침서 제작
- * 91. 고용안정기금마련 정태춘 공연
- * 91 <깨어있는 여성 당당한 노동자> 출간
- * 91 나눔공부방 개원
- * 92.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창립
- * 92.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책활동
- * 92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여성유권자 캠페인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1.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 개원

여성나눔의 집 개원준비는 87년 1월부터 시작됐지만 그 이전 83년 초부터 여성노동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고민이 있어왔다. 70년대 독재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처절하리만큼 훌륭하게 투쟁을 벌였던 동일방직, 삼원섬유, 반도상사 등 70년대 민주노조 출신 여성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에 묶여 재취업의 길이 봉쇄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나이가 들어 결혼, 육아, 재취업 등 온갖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이들이 노동운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안순애, 김용자, 석정남, 이혜란, 김지선, 조옥화 등 여성들이 조화순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 여성노동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 인천지역의 여성나눔의 집을 개원하기로 하고 운영위원과 실행위원을 구성하여 87년 1월 31일부터 11월11일까지 준비작업을 했다. 당시 조화순 목사는 동일방직 노동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여성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일들을 해야 한다. 70년대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라고 말하며 “인천에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지원”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88년 1월 이사장에 이효재 교수, 원장은 조화순 목사 그리고 동일방직 안순애가 총무. 김지선, 조옥화, 남인순, 석정남, 이혜란 등이 운영위원이 되었다. 인천도화동 소재 이충단독집에 「일하는 여성나눔의 집」을 열기 위해 1년 동안 준비한 것이다.

여성나눔의집과 함께 24시간 어린이집을 함께 개원했다. 주야맞교대, 3교대 근무를 하는 여성노동자를 배려한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24시간 보육을 했다.

여성나눔의집은 공동구매소비조합, 기술개발교육, 나눔독서실 등 공간 운영과 함께 노

동조합의 여성사업 지원과 여성관련 교육, 여성간부 설문조사, 여성지도자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송철순 사무국장이 현수막을 걸다 추락해 숨져 더욱 관심을 모았던 '세창물산 위장폐업 대책위원회' 활동은 여성나눔의집의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일하는 여성 대동잔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시기 핵심활동은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으로 「인천여성노동자회」의 결성준비였다. 그간 내부 논의를 진행해온 여성나눔의집 운영위원들은 10월부터 약 세차례에 걸쳐 지역의 여성나눔의집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여성노동자운동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 이후

1) 89년 - 91년

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여성노동자의 일터가 중요한 대상이었다. 이미 폐업을 한 세창물산, 신림섬유에 이어 코스모스전자 등 노조가 있는 경우는 물론 노조가 없는 곳도 폐업이나 감원이 늘어났다.

89년 2월 정식 창립을 한 인천여노회는 산업구조조정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모성보호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여론화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한편 탁아법개정과 근로기준법상의 모성호보관련 조항 후퇴 저지, 노동조합의 모성보호 관련 조항 정착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외에도 파업사업장 교육 및 가족협의회 조직결성 지원, 여성사업장 공권력 투입에 대한 대응 등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인모임, 여성사업장 간부모임인 현장분과 등 조직활동과 여성관련 교재, 소책자 등을 발간했다.

2) 92년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결성돼 여성단체연합(여연)과 함께 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한 재정립을 하면서 '부문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이 아닌 '여성 고유의 과제를 해결하고 조직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자기 위상을 정립했다.

인천여노회는 조직이 안정화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했다. 노동법개정투쟁과 관련 산전후휴가 90일 확보 등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조항 개정을 위한 활동, 여성사업장의 용역문제 토론회, 불법용역과 파견법 제정 반대 등 여성관련 제도개선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여성단체들과 함께한 '성폭력 추방 및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92년 총선을 맞아 민주후보를 선택해 지원하는 한편 회원들과 공명선거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관련자료 :

<여성노동자의 노래, 여성의 희망> 인천여노회 창립 10주년 기념 자료집

18. 인천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단체약칭 : 인노연합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존속/활동기간 :

1988년 5월25일 - 1990(?)

활동지역 : 인천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노동운동 혹은 민주화운동에서 공통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대들은 인노연합의 창립 이전에도 있어왔다. 6월항쟁 기간에 ‘민주헌법쟁취 노동자 공대위’, ‘군정종식 노동자선거대책위원회’ 등 사안에 따른 모임이었다. 또 지역내 노동단체들이 ‘노조운동에 대한 통일적인 지지, 지원 단위’로 합의해 만든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공실위)」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지역의 노동단체 대표자 회의로서 지역의 중요한 노동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였다.

88년 들어 인천에서 황재철 인노협 준비위 의장 구속 등 노조탄압과 노동법개정 등 노동운동에 요구되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동단체들의 상설적인 협의체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황재철 의장 구속으로 노조대표자들과 지역노동단체들이 평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논의돼 공실위,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인천카톨릭노동청년회 등 8개 공개, 반공개, 비공개 단체들이 인노연합 발족을 결의하고 5월25일 발족했다.

이어 88년 6월7일에는 전국의 노동단체들이 회의를 갖고 전국노연합을 결성했다.

해산이유 :

공안당국에 의해 비공개단체나 반(半)공개 단체들의 성원들이 검거되면서 참가단체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단체 구심으로서의 새로운 연대틀 형성이 요구되어 인민련이 결성되면서 인노연합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90년 후반부터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주요인물 :

활동목표/강령 :

1. 인노협과의 연대
2. 지역노동자들의 당면 생존권투쟁, 민주적 권리 쟁취 투쟁 지원
3. 전국노동단체와의 연대
4. 지역 내 타 계층과의 연대.

조직체계 :

1. 운영위원회 : 각 단체 대표자 회의
2. 실행위원회(?) : 각 단체의 실무책임자 회의로 당면현안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대표자회의보다 긴밀히 논의
3. 사무국

주요활동일지 :

- * 1988.05.25; 인천의 노동단체(공개, 반공개, 비공개)들이 모두 참여 인노운협 발족
- * 1988.07.27; 인노협, 부노협 등과 '위장폐업분쇄' 문화대동제
- * 1989.08.15; 인천시민대잔치 개최(수봉공원), 인민련, 인노운협, 인노협, 민주지향의 대공장노조 공동주최
- * 1989.09; 인노협, 인노운협 등 경동산업집단분신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 1990.06; 인노협과 '노조파괴 전문가 제임스리³²⁾' 수배전단제작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1. 노동운동 탄압 저지 투쟁

황재철 의장 구속, 최동식 의장 구속, 노조파괴전문가 제임스리에 대한 공동대응 등 인천지역에서 자행되는 노동운동탄압에 대한 대응에 인노협과 함께 구심역할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전국교직원노조 사수투쟁 등 전국적인 노동현안을 여론화시키기 위해 지역에서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했다.

2. 노동법개정운동

전노협이 한국노총과 별도의 노조운동구심체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노동법개정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노동법개정운동은 인노운협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복수노조금지조항(3조5호)' 등 노동조합운동의 전망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노동법개정투쟁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논의하기는 어려웠다.

3. 기타 인천노동계가 부딪친 현안 공동대응

세창물산 등의 위장폐업, 경동산업, 경기교통 등 노동자들의 분신자살 등 지역에서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지역대책위' 혹은 과제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경동산업집단분신대책위원회', '위장폐업대책위원회' 등이 해당된다.

32) 현대중공업, 현대엔진 등 현대그룹 노동자들이 테러를 당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는데 수사결과 회사와 울산 노동청, 경찰이 논의하여 노조파괴전문가로 알려진 '제임스리'를 고용해 노조파괴 공작에 나선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제임스리가 인천의 한 노조에 교섭대표로 나타나는 등 인천에서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공동대응에 나선 것.

4. 여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현안 공동대응

관련자료 :

1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단체약칭 : 인노협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상급단체: 전노협

연합단체: 인민련, 인천연합

존속/활동기간 : 1988년 6월18일 - 1995년 12월

활동지역 : 인천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인천지역에서는 87년 봄 인천지역의 주요 비공개서클들이 노동자들의 현장투쟁 및 조직결성을 지원, 지도할 단일한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민주노조건설을 위해 일하는 (싸우는) 노동자 일동(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리플렛을 발간하고, <공장의 소리>라는 신문, 유인물을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일동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이 터지면서 공개단체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공실위)'라는 이름의 공개단체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공개의 시기와 관련하여 이목희를 중심으로 한 몇몇 인사와 논란을 겪으면서 결국 이목희, 홍영표 등 조직부 일부가 비공개 상태로 남은 상황에서 공실위를 결성하여 '민주노조' 신문발간 사업 등을 추진했다.(공실위 참조) 양측 모두 제2노총(전국민주노조총연합) 결성이 조직 전망으로 합의돼 있던 터였다.

당시 인천지역의 각 정파, 서클간에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자투쟁 지원에 대해서는 공실위로 집중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서클이나 조직과 관련을 갖고 결성된 8개 사업장 노동조합위원장 모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위원장 모임을 중심으로 한 연대활동만으로는 한국노총과 구별된 독자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조직 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한 공실위는 공개적으로 대중적인 연대활동을 주장하여, 한축에서는 위원장 모임을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 다른 한축에서는 간부와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신규노조창립대잔치, 인천지역노조탄압저지특별위원회(노조 사무장 모임)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88년 들어 노조탄압저지특별위원회를 임금인상준비특별위원회로 개편하여 2회에 걸친 노동조합 공동교육을 2월3일과 10일 각각 실시했다. 이런 연대활동을 기초로 2월29일 16개노조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노협 준비위 결성 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16일 12개 노조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노협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이과정에서 이목희 진영과 공실위 간에 인노협 결성일정과 조직대강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는데, 당시 이목희 진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태연물산노조 박인숙위원장, 코스모스전자노조 김해숙위원장, 대한마이크로전자노조 김미령위원장이 인노협 결성과 관련한 일정과 조직대강을 제출했다. 그 안에 따르면 3월16일 인노협 결성 대의원대회를 갖고, 가입자격은 노동조합과 개인(해고노동자)까지 넓히며, 임원 중 3인을 해고자로 하여 이들이 상근하는 것이었다.

공실위에서는 위 일정과 조직 대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것은 우선, 조직의 가입과 탈퇴가 뚜렷한 인노협 결성을 지나치게 서두르면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축소된다. 따라서 가입과 탈퇴가 뚜렷하지 않은 인노협준비위를 결성해 인노협(준)으로 임투를 진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인노협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 과정을 만들자. 또한 가입범위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며 노동조합은 최소한 대의원대회 이상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의무금, 사업 참여 등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인노협(준)은 우선 의장만으로 정하되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탄탄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맡아 초기 탄압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두 주장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들은 공청회를 거쳐 3월16일 인노협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3월27일 인노협 준비위 발족 및 88임투전진대회를 인천대에서 22개노조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고 황재철 한독금속노조 위원장을 의장으로 추대했다.

87년 7-8월 대투쟁에 이어 여전히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이 고양돼 있던 88년 임금인상투쟁 시기 노동조합들은 인노협준비위 이름으로 인근 사업장간에 공동집회, 구사대의 침탈에 대한 공동대응 등 공세적인 임금인상투쟁을 벌여나가는 한편, 5.1메이데이기념식을 당시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던 콜트악기(부평IC옆) 앞에서 열고 4공단으로 행진하면서 임투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런데 5월18일 4공단 동국무역노조 해고자가 구속되는데 대해 인노협준비위가 '구속자석방촉구대회'를 갖는 도중 황재철 인노협준비위 의장을 포함한 49명이 연행되었다. 이에 이날밤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평경찰서앞 가두시위와 연행을 반복하여 이틀간 총 187명이 연행되었다. 한편 위원장들이 대거 연행된 상황에서 노조 부위원장, 사무장 등으로 20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1일을 기해 하루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에 경찰은 20일 오후 황재철의장만을 구속시키고 연행자 전원을 석방했다. 인노협준비위는 인천의 노동단체들과 함께 '노조탄압저지와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평민당 김용석 사무실 점거농성, 집회 등의 투쟁을 벌이는 한편 인노협 결성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편 6월 18일 인노협이 결성되면서 앞서 제기된 이목희와 공실위간의 논쟁은 없어졌다. 이는 마창노련, 서노련 등 먼저 결성된 지노협들이 개별가입(해고노동자) 없이 노동조합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이 예외없는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민주노총의 경우 건설 당시 대산별이나 소산별이나 등의 내부 조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란이 되었는데, 인노협은(다른 지노협도) '지역노조협의회'로, 즉 지역적 단결체를 만드는 것으로 아무 논란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지노협 건설 당시 비제조업이 지노협에 가입을 하고서도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가입하지 않은채 업종연맹만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데 반해, 제조업의 경우 산별노조(연맹)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역적 연대에 더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이나 '구사대' 등을 동원한 자본의 물리적 탄압이 집중되면서 이에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근지역단위의 모임(연대)가 형성된 데서 기인한다. 당시에 흔히 '우리는 우리 회사 사장을 상대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경찰이 막느냐?'는 의문이 술자리에서 많이 오간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인노협의 경우 88년 임금인상 투쟁과정에서 공동투쟁이 활발했던 부평 4공단과 그 인근 지역노동조합이 창립 당시 주역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89년 상대적으로 공동임투가 활발했던 주안 5-6공단 노동조합들이 대거 가입해 들어오면서 비로소 인천 전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체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장 노조들 중심이었고 대기업은 민주파가 집행부에 당선된 이후에도 별도의 경로를 거쳐 민주노총인천본부에 참여하게 된다.

해산이유 : 민주노총 창립과 함께 대의원대회를 거쳐 해산

주요인물/임원 : 황재철, 최동식, 박인숙, 김지자, 조태천

활동목표/강령 :

1. 우리는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굳건히 연대하여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2. 우리는 노동3권의 완전한 확보와 자본과 권력의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한다.
3. 우리는 8시간 노동제의 확립과 생계비 쟁취 등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리 및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4. 우리는 민주적 노동조합의 역량강화와 민주노조의 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 우리는 노동자의 대의에 함께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에 봉사하는 모든 노동자, 민주세력과 연대한다.

*** 인노협 강령에 의거

조직체계 :

창립 당시 27개노조 5천여 조합원이 참여했고 89년 정기대의원대회 때는 81개노조 1만1천명 조합원이 있었다.

* 창립당시의 조직체계

의장; 황재철 한독금속노조위원장 (당시 구속중)

수석부의장 겸 의장 직무대행; 신안식 대흥기계노조위원장

부의장; 최승기 남일금속노조위원장, 류권상 정보산업노조위원장

사무처장; 김혜숙 코스모스전자노조위원장

회계감사; 박복록 신광기업노조위원장, 박평숙 진성전자노조위원장

운영위원회; 가입노조 위원장들로 구성

대의원대회; 대의원 배정기준은 100명 미만까지 1명, 100-299명까지 2명, 300-499명까지 3명, 그 이상은 500명 단위로 1명씩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가 지나치게 대공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중소기업장에서도 최소 1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됨.

사무처; 교육국, 조직국, 쟁의지도국(초기에 잠시 쟁의국 산하에 선봉대가 있었음), 조사통계국, 대외사업국, 홍보국, 편집위원회(후에 홍보국과 편집위원회를 통합). 각국장은 위원장 중에 선임하고 부서별로 사무처장과 집행부장(초기에는 간사)을 선임하고 이들에게는 소액의 활동비(초기 2만원 후에 3만원)를 지급하여 채용 형식을 취함.

사무실; 부평역 대한극장 부근에 보증금 2백만원짜리 월세사무실을 구해 입주, 89년 '월세에서 전세로!'라는 구호로 임금인상 후 조합원 1인당 1만원씩을 납부해 보증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으나 주로 중소기업장이 많았고, 장기투쟁사업장이 납부하지 못하면서 약 600만원이 걸렸다. 최선을 다한 금액이었으나 전세값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이때 244일간의 투쟁을 마무리지은 세창물산노조가 위로금과 투쟁기간 중 임금 등에서 30%를 떼어 '송철순추모사업회'를 인노협사무실에 두는 것을 전제로 인노협에 사무실 기금 2700만원을 쾌척하여 개선문 예식장 부근 전세사무실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활동일지 :

<인노협 창립까지의 활동일지>

* 1987. 9월-11월말; 7,8월 대투쟁을 거쳐 만들어진 노동조합들간의 친목, 문화, 노조 활동교류에 치중.

1. 간부수련회; 10월10일-11일, 14개노조 간부 35명 참가

2. 신규노조창립대잔치; 11월22일 69개 노조 600명이 참가하여 신광기업 운동장에서 거행됨.

3. 홍보부, 문화부, 교육부, 쟁의부 등 부서장 모임 진행, 각 노조 현판식 참여

* 1987. 10월 말-88년 1월; 노조탄압 공동대응

1. 동성개발 해고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위원장 모임; 10월20일, 30여개 노조 참가

2. 노조탄압저지특별위원회 결성; 노조 사무국장들로 구성

3. 노조탄압 규탄대회 개최; 12월9일 부평1동 성당

4. 태연물산, 한광노조 탄압에 공동지원 투쟁 전개

* 1988. 2월초-3월말; 임금인상투쟁 공동준비 및 인노협 결성준비

1. 노조탄압저지특별위원회를 임금인상준비특별위원회로 개편
2. 임금인상준비특별위원회 주최 간부, 조합원 교육 2회 실시
1회; 임금과 임금인상, 2월3일 16개노조 100여명 참가
2회; 임투사례 및 투쟁계획 수립, 2월10일 12개노조 80명 참가
3. 인노협 준비위 결성에 관한 공청회 실시; 2월29일 16개노조 60여명 참가
4. 인노협에 관한 교육실시; 3월16일 12개노조 70여명 참가
5.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 발족 및 88 임투전진대회 개최; 3월27일 인천대에서 22개노조 1500여명 참가

* 1988. 4월-6월 인노협 창립까지

1. 한독금속 직장폐쇄에 맞선 공동투쟁
2. 메이데이집회; 4월30일 콜트악기 앞마당에서 700여명이 참가하여 4공단 코스모스 전자로 행진
3. 코스모스, 동성상공, 콜트악기 등에서 인노협준비위 차원의 공동투쟁
4. 인노협 간부 연행에 대한 항의시위; 5월19일-20일 부평경찰서앞에서 400여명 참가
5. 인노협 준비위 황재철 의장 구속; 5월21일
6. 황재철의장 석방 및 구속노동자 전원석방 촉구 평민당 김용석 사무실 점거농성; 5월21일-6월10일까지 인노협 준비위 산하 노동조합들 참가
7. 노동악법철폐와 구속노동자 석방촉구 평민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5월30일-31일 인노협 40명 참가
8. 1차 황재철 의장 및 구속노동자 석방촉구대회; 5월22일 부평1동성당, 600여명 참가
9. 2차 석방촉구대회; 6월4일 인하대 700여명 참가
10. 평민당 점거농성 평가회; 6월10일 20개노조 70여명 노조간부 참석
11. 폭력구사대 완전추방 결의대회; 6월13일 미미양행 앞마당 400여명 참가
12. 인노협 창립총회; 6월18일 효성동성당서 27개노조 250명 참가

<창립이후 해산까지 주요활동>

87이후 노동일지 참조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영역별 활동>

1. 중요노동현안 대응; 전국적 혹은 지역적 노동현안에 대응하였다. 전국적 현안으로 현대그룹 식칼테러사건(89년 1월 발생), 현대중공업노동자 골리앗 농성(89년), KBS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파업농성에 공권력 투입(89년), 전교조 사수투쟁(89년), 노동법개정투쟁(88년-) 등이 있었으며, 지역현안으로는 매해 공동임투와 세창물산노조 등 위장폐업사업장 공동대응, 송철순 사무국장 사망, 지역의 노조탄압 공동대응(대우전자, 대우자동차 그 외 사업장), 단체협약변경 명령, 손해배상청구 등 신종노조탄압에 대한 대응

등 지역의 노조운동 구심으로서 중요현안에 대응한 투쟁을 벌였다.

2. 기관지 발행; 인노협신문(임투속보, 인노협 준비위 속보, 인노협 신문), 주간노동뉴스, 선전지침, 시기별 주요 속보 등 역량이나 조직적 강조점에 따라 신문(소식지) 이름이 바뀌었다.

3. 부서별 기획사업, 노조 부서장 모임; 조직쟁의부장(선봉대 포함), 교육부장, 홍보부, 문화부의 모임이 여타 부서에 비해 활발했음. 이중 조직쟁의부장 모임은 89년 파업선봉대를, 문화국 산하에 문화선봉대를 구성하여 활동했다. 파업선봉대는 지역노동단체 파견자와 각 지구별³³⁾ 노조쟁의부장 모임 대표로 구성되어 인노협의 중요 집회 시위에 대한 전술을 논의했다. 여전히 합법집회가 어려웠던 시절 다분히 자발적인 열의로 구성된 모임에서 논의한 가두시위 전술이 정보기관에 모두 노출되어 가두시위가 무산되는 일이 잦았는데, 나중에 소속노조 쟁의부장 한명이 프락치였음을 양심선언하여 지역의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4. 지역노조연대; 인노협 결성 이후 노동현안에 대한 지역의 대응은 인천지역노조대표자회의(인노대) 결성 이전까지 인노협을 중심으로 때로는 노동단체와의 연대, 때로는 인천지역노동조합활성화추진위(노활추), 한국노총 금속노조 인천본부와 공동으로, 때로는 가입노조 연서명 등의 형태로 노조들간에 연대활동을 해왔다.

또 노동현안뿐만아니라 지역의 노동, 사회단체와 함께 한시적인 공동투쟁단위나 전선조직을 만들어 정국의 주요현안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다. 노동현안 이외의 대정부투쟁의 경우 전노협의 방침에 따라 인노협도 논의없이 함께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때문에 인노협 운영위에서는 전노협이 지나치게 일부 선진적인 노조 간부 중심의 사업을 펼친다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노동현안은 아니지만 91년 지방의원선거, 92년 총선과 대선 등에서 후보방침 혹은 후보지지방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공식 혹은 비공식 단위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도별 주요 투쟁>

1. 88년 창립이후;

지역마다 '지역노조협의회'가 창립되어 8월에 전국의 지노협 대표자와 노동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노동법개정 전국회의'를 연 이후 지역에서도 인노협과 인천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인노운협)가 공동으로 노동법개정 등반대회, 웅변대회, 노동가요제, 평민당사농성 등 노동법개정투쟁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했다. 인노협 결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같은 행사에 지역 노동조합의 참여는 대단히 활발했고 열기가 있었다.

이같은 지역사업을 토대로 11월13일 '전태일열사정신계승 노동악법개정 전국노동자대회'에 인천에서 2천여명이 참가했다. 이후 12월 인노협, 서노협, 마창노련 등 9개지역노조협의회와 전국건설노조협의회, 외국기업노조협의회, 민주출판언론노조협의회 등 3개 업종협의회와 대전에서 회의를 갖고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전국회의)'를 구

33) 지구별 모임; 89년 인노협의 가입노조가 80개노조로 확대됐을때 전체 노조대표가가 모이는 운영위원회의에서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워 1, 2, 3, 4지구 4개지구로 편제한다. 4공단·부개일신동, 주안5·6공단, 작전서운동, 청천·효성동으로 나뉘었으며 이와별도로 업종협의회가 두고 있어 주로 병원노조들 병원의 특성에 맞는 연대투쟁을 벌였다. 인노협은 부의장도 이러한 지구편제를 염두에 두고 선출하였다.

성하여 전노협결성을 결의하는 한편 89년 투쟁을 위해 산하에 ‘노동법개정, 임금인상투쟁 전국본부(전국본부)’를 설치했다.

한편 세창물산과 신립섬유, 삼효정공, 한국데코레코 등이 폐업을 하면서 이들 사업장노조와 인노협, 인노연합 등은 ‘위장폐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벌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인상 파업과 동시에 노조를 결성한 세창물산노조의 파업 18일째에 송철순 사무국장이 현수막을 걸다 공장지붕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임금협상과 노조 인정 등이 노조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됐으나, 송철순 49제에 주임급 관리자들이 노조사무실로 쳐들어와 임금인하 등을 주장하며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이 벌어지고 회사측은 폐업을 공고했다. 이후 세창물산노조를 중심으로 서울, 부천 등지의 폐업 사업장과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244일에 걸친 투쟁을 벌여나갔다.

2. 89년;

노태우 대통령의 ‘불법파업 특별지시’에 따라 1월2일 새벽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1월8일에는 현대중전기 대의원과 현대그룹 해고노동자 사무실이 야구방망이와 곡괭이자루 등을 휘두르는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 당시 울산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에 직권조인하고 잠적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현대엔진노조도 파업 중이었고 현대중전기도 파업에 들어갈 태세였다. 더구나 수사결과 테러사건이 자본과 안기부, 경찰이 공모하여 노조파괴전문가 일명 ‘제임스 리’를 채용하여 벌어진 것임이 드러나면서 현대그룹 테러와 풍산금속 공권력투입이 새해초부터 전국의 주요 노동현안으로 대두돼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부노협, 마창노련이 1일 총파업을 벌이는 등 투쟁을 벌였다. 이 와중에 인노협도 1일 총파업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공식 발족한 이후 첫 임투를 맞이하여 인노협은 동시교섭→동시쟁의발생신고→동시파업의 순으로 공동임투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88년 인노협결성과정에서 활발한 연대투쟁을 벌였던 부평지역에서는 쟁의신고 직전 혹은 파업 직전에 회사측이 요구조건을 거의 100% 수준으로 받아들여 비교적 잠잠한 편이었으나, 주안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대투쟁이 벌어졌다. 주안지역 사업장은 봉신, 명신노조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노조들이 합동 확대간부회의와 1일 총파업을 벌이는 등의 투쟁을 거쳐 대거 인노협에 가입했다. 그 결과 임투를 마무리할 즈음 열린 인노협 2차 대의원대회에는 창립당시 27개노조 5천여명이었던 것이 80개노조 1만여명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인천조선노조의 가입으로 한층 고무되었다.

그러나 정권의 노조탄압은 강도를 더해 각 지노협 의장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노동자를 구속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동계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게다가 6월 결성된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 정부의 강도 높은 공격이 시작되면서 전국회의는 ‘노조탄압분쇄, 전교조 사수’투쟁을 벌이는 한편 합법적인 시위가 거의 봉쇄된 관계로 87년 이전과 같은 방식의 가두투쟁을 벌여나갔다. 게다가 9월4일 경동산업에서 강현중, 김종하 두명의 노동자가 분신자살을 하는 등 극한적인 투쟁이 벌어져 지역적으로도 강도 높은 투쟁이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구속된 최동식 의장 석방을 촉구하며 11월 인노협은 총파업을 벌였다. 파

업에서 중식집회까지 각자 노동조합의 처지와 여건에 맞게 전술 선택의 폭을 준 이 투쟁은 상당히 폭넓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투쟁과정에서와 파업이후 지역에서의 가두투쟁은 빈번히 경찰의 선제공격으로 실패했다. 곧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쟁의지도국 산하 파업선봉대원 중 한명이 ‘프락치였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이었다. 한 해 동안 지역, 전국 현안이 끊임없이 터져 한시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투쟁과정에서 ‘각개격파’되는 노조도 늘어갔다. 이런 가운데서도 전교조 지지성명에 인천지역 110개 노조가 서명을 하고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련 인천지부에 민주성향의 집행부가 당선되기도 했다.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금성사 1, 2공장 등 전국최대규모 사업장들과 함께 인천에서도 대우전자 인천지부 등 대공장 노조에서 선거를 통해 민주파가 당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3. 90년 -;

눈보라가 치는 월요일 인노협 사무실은 새벽부터 봉쇄됐다. 이미 2-3일 전부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전노협 파견대의원들은 가택연금을 피해 집을 떠나 있던 상황이었다. 수도권 일원에 갑호비상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전노협이 창립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이 합당한 날이었다.

이미 전노협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노태우 정권은 전노협 가입사업장에 탈퇴종용, 업무조사를 실시하고, 파업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지침을 내린 터였다. 이후로도 단체협약변경명령, 노조간부에 대한 손배가압류 등 새로운 유형의 노조탄압이 잇따랐다. 전국적으로는 90년 현대중공업노동자들의 이른바 ‘골리앗 투쟁’, KBS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농성장에 잇따라 공권력이 투입되고, 모든 집회가 불허되면서 전노협은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벌였다. 인천은 대우전자노조 인천지부가 지부장 등 간부들이 구속되고 집중적인 포화를 맞는 가운데 공동대책위를 꾸려 대응했지만 노조는 다시 어용화되었다.

90년 말에 민주파가 당선된 노동조합들이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를 구성해 공동교육을 실시하던 중 공권력이 투입돼 대우자동차노조 이은구위원장이 구속되면서, 91년 상반기 대우자동차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파업, 가두시위가 벌어졌다. 한번 총파업을 할 때마다 두세개 노조가 집중적인 탄압으로 탈퇴 혹은 파괴되었고, 산업구조조정으로 인노협의 주력사업장, 특히 여성사업장들이 폐업하면서 가입노조 숫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91년 4차 대의원대회 때에는 가입노조가 30개로 줄어들었고 인노협 사업에 대한 두개의 평가서가 대의원대회로 올라오고 일부 대의원이 퇴장하는 사태까지 치달았다.

이런 가운데서 지역에서는 민주화된 대공장노조들이 구성한 ‘인천지역대공장노조연대모임(연대모임)’, 인노협도 부담스럽지만 한국노총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노조들이 모인 ‘인천지역노동조합활성화추진위(노활추)’ 등과 ‘91임금인상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대우자동차노조 탄압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이들이 민주노총 결성 이전에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인노대)를 구성하여 초기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구성하는 핵심이 되었다.

관련자료 :

1. 인노협 신문 영인본
2. 인노협 정기대의원대회 자료
3. 선전지침
4. 민주노조 및 호외 (공실위 발행 신문)
5. 인노협 참고자료

위원장 모임 경과보고;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모르나 87년 7-8월 결성돼 인노협 결성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한명이 쟁점 없이 정리한 5쪽짜리 경과보고 문서.

6. 인노협 참고자료

※ 편집자 주; 인노협 홍보부장이었던 노현기가 97년도에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모를 2005년 자료확인을 통해 수취, 날자 등을 수정한 자료.

인노협 결성과정 및 운영의 주요 논란;

@ 87년 봄 일명 '상록회³⁴' 구성; NL계열 서클연합의 결정으로 노조결성 지원지도 단위->후에 타투(인민노련)를 비롯 비NL도 인사들 들어옴(여기 들어오려면 해소전까지 자신들의 조직관계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 87년 7-8월 공개화 논란

--- 공개화(전희식 주장) -> 대중적 힘, 자발성, 자생성 중시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노조결성의 흐름을 비합법단위에서 수용할 수 없다.

--- 공개화 반대(이목희 주장) -> 정치적 핵심 중시

; 양 의견이 합의 안돼--상담부가 일부만 공개되고 나머지 일부(비합법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서클적 관계속에 노동조합 결성된 곳의 위원장 모임 관리(약 8개 사업장 모임 관리)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개단위로 이양을 하고 나머지 상담부도 차차 공개단위로 들어오기로함.

; 이에 따라 8월 중순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공실위) 결성

공실위는 사업목표로 노조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센타 역할을 하며, 지역 민주노조연합(협의회) 결성 지원, 지도. 자기 임무를 완료한 후 해소를 목표로 한다.

@ 9월경

이목희씨 진영 공실위 이름으로 "노조운동의 정치적 핵심을 강화하자" 문건발표, 위원장 모임을 비밀리에 계속가짐

이에 공실위 이름으로 반박문건 "전국적 민주노조연합 건설하자" 발표(「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진」 공실위 발행 1, 2장)

반박의 활동으로 ① '신규노조창립대잔치'제안; 대중적 힘으로 연대활동의 분위기,

34) 상록회; 민주노조건설을위해 싸우는(일하는)노동자 일동. 결성시기는 87년이아 니라 86년 봄일 수도 있음.

조건을 형성한다. 60개노조 참석. 신광기업에서 열려 (민주노조 신문 참고)

- ② 노조탄압저지특별위원회 구성(노조 사무장 모임이 구성원으로 집행실무를 담당)
태연물산, 한광산업 등의 노조탄압에 대응

@ 88년

- 2월말 공동임투 교육에서 이목희씨 진영과 연결을 갖고 있던 위원장들(태연물산 박인숙, 코스모스 김혜숙, 대한마이크로 김미령) 인노협 결성 일정과 규약안을 위원장모임(운영위원회) 기습제안

- ① 일정 통과; 3월16일 인노협결성대의원대회, 3월27일 인노협 결성보고대회

- ② 규약안 유보; 개인가입허용, 임원중 3인을 해고자로 하여 상근토록 한다

- 그러나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 사이에서 이의제기 된다. 이들은 “간부들조차 인노협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의원을 선출하고 가입하나?”

- 공실도 위원장 3월5일 회의 결정에 반박하며 대안제시

- ① 현재 조건에서 가입, 미가입이 명확한 구도로 창립되면, 인노협에 가입할 수 있는 노조들이 몇 개 되지 않으며 출발이 왜소하면 갈수록 가입은 제한된다.

- ② 대중적 힘이 뒷받침되는 대중조직이 되려면 조직가입을(개인가입이 배제되는) 원칙으로 해야 한다.(이목희씨 진영은 이에 대해 집중 반박하는데 요지는 내부외부를 가르는 것은 안기부의 논리와 다를바 없으며, 노조 위원장들은 더 선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공실위가 노동자들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반박)

- 위원장들은 공실 반박에 힘입어 3월16일로 예정됐던 결성 대의원대회를 인노협 결성 공청회로 전환하고 3월27일 예정된 인노협결성 보고대회를 ‘인노협준비위 결성대회’로 하고 준비위는 의장 1인만을 두고 의지가 있는 노조 누구나 함께 하도록 한다.

인노협준비위 이름으로 임투지원, 노조 결성지원 등을 한 후 임투 마무리 시점에 인노협을 정식으로 발족하자고 결정함.

- 인노협준비위 이름으로 콜트악기, 미미양행, 몬트레스, 코스모스 등의 노조결성 및 구사대침탈에 공동대응을 힘있게 수행한다(주로 부평중심).

당시 메이데이투쟁은 부평 4공단 일대 노조들 연대투쟁의 절정이었다. 당시 메이데이는 콜트악기 앞에서 집회를 하고 코스모스전자 앞까지 행진하는데 행진도중 4공단 안에서(삼익악기 부근) 경찰과 대치한다. 경찰은 페퍼포그를 들이대고 해산을 경고. 이에 인노협준비위 황재철 의장이 페퍼포그차 위로 올라가 ‘만일 여기서 페퍼포그를 쏘고 한명이라도 연행하면 내일부터 노조 총파업을 하겠다’고 경고. 조합원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로 경찰을 밀어붙이고 경찰은 후퇴한다.

- 5월18일(?) 인노협 준비위 속보, 민주노조 신문 참고)

동국무역 노조탄압 항의집회 시 황재철 의장을 비롯해 50여명이 연행. 이날밤 4-5차례 50여명씩 부평서 앞에 몰려가 밤새 투석적. 수차례 연행으로 약 230여명이 하룻밤새 연행됨.

다음날 노조 비상대표자 회의에서 총파업 결의했으나 황재철의장만 구속되고 모두다 풀려나 총파업은 무산됨. 한독금속노조는 인노협의장 구속 항의 파업을 벌임.

노동조합+노협=> '노동운동탄압저지공동대책위' 구성 공동대응

- 6월18일 인노협 창립대의원대회. 구속중인 황재철씨를 의장으로 27개노조 3천여명 가입. 별다른 논란없이³⁵⁾ 주로 인물선정에서 자파(한노연 對 반한노연)를 추천하면서 끝남

- 평가 정리(민주노조 신문)

- 10월(?) 임시대의원대회 사업기조와 계획수립

주로 노총내 중간노조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

노총내 중간노조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

① 이목희진영(한국노동연구소)-박인숙 사무차장, 김혜숙 사무처장(코스모스 위원장) 김미령 교육국장(대한마이크로 위원장)-은 인노협 내부 중심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다며 자체결속을 강조.

② 조태천 조직국장(경일화학 위원장), 이종군 쟁의국장(몬트레스 위원장), 대외협력국장(미미양행 위원장) 중심은 '87년도 결성된 노조들 중 노총에 있는 상당수 노조는 어용이라기 보다는 노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중간노조' 성격이 강하다.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노총인천시협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두안을 놓고 상당한 논란을 겪으면서 운영위(위원장들로 구성)에서는 후자로 결정해 대의원대회 조직국 사업계획안으로 올렸으나 자료집에 누락됐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조태천위원장이 누락된 원인을 물었는데 박인숙 사무차장이 "명확히 합의된 사항이 아니어서 뺐다"고 답변. 이후 상당기간 사무차장 사퇴논란을 겪다가 사무차장이 실무진 회의 이외에 모든회의(임원진, 집행국, 운영위 회의)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마무리됨.

@ 89년

- 임투가 주로 주안지역에서 활성화됨

주안지역 중심으로 노조결성과 임투가 활성화 되면서 그간 주로 부평지역 중심이던 인노협에 주안 5, 6공단 노조들이 상당수 가입해 들어오면서 인노협 가입노조들이 지역에 골고루 퍼짐(임투후 80개 노조 1만명 포괄)

- 메이데이 1일 총파업 논쟁

<배경> 당시 현대중공업 공권력 투입 등 노조탄압에 대응 전술로 1일 총파업이 제안됨. 그러나 한노연진영(이목희씨 진영; 최동식, 홍상철, 박인숙, 김미령(회의 불참) 강력하게 반대한다. "총파업하면 (노조) 몽땅 다 깨진다.", "내가 회의 참석전 어떤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총파업하면 다 망한다더라." 등.

황재철 당시 의장을 비롯한 위원장들은 '총파업 불가론'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고 남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제기했다. 황재철 의장은 '인노협 결정을 위원장들이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의 판단에 의존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 없다'며 의장직 사퇴의사를 표하고, 직무대행을 최동식 부의장이 하게됨.

- 1일 총파업이 3인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자 당시 이종군 쟁의국장(몬트레스 위원장)

35) 이미 결성된 다른 지노협들이 조직가입을 원칙으로 해 인노협만 개별가입 어용이 의미 없었다.

은 인노협 전 조합원들이 30분 조퇴후 '전 조합원 총회'를 하자고 제의, 통과됐고 4월 26일 동성상공에 3천명이 모여 '인노협 조합원 총회' 형식의 집회를 개최했다.

- 5.1 총파업논쟁으로 황의장이 사퇴한 후 쟁의국장, 대외협력국장도 사퇴하고 황의장은 뒤이은 한독금속 노조 위원장 선거에 불출마, 한독금속 위원장에 김명기씨(한노연 진영)가 당선됐다.

@ 2기 대의원대회

최동식 직무대행 의장으로 피선.

조태천 경일화학 위원장이 인노협 수석부의장에 피선

사무처장으로 한노연진영에서 미는 김명기 한독금속노조 위원장과 반한노연진영에서 미는 김기자 명성전자 위원장이 경선. 근소한 표차로 김기자씨가 피선됐다.

이를 놓고 항간에 "실무와 투쟁이 겨뤄 투쟁이 이겼다"고 표현하기도 함.

- 대의원대회 이후 실무자들 사이에 박인숙 사무처장의 비조직성 문제제기. 실무진일동의 문건과 박인숙 차장 문건 두가지가 운영위가 제출되기도 했다.

- 2기 대의원대회는 그 이전 황재철씨가 한노연 代 반(反) 한노연 구도에서 균형감을 갖고 중간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데 반해 한노연 진영이면서 의장으로서도 한노연에 경도된 판단과 사고를 갖는 최동식씨의 의장 선출로 숫적으로는 열세이지만 인노협을 한노연 진영이 장악했던 완성으로 봐야 한다. 즉 90년 신년초부터 김기자 사무처장, 조태천 수석부의장이 수배되면서 반한노연진영은 구심을 잃어버리며 최동식의장-홍상철 대흥기계위원장-박인숙 사무처장으로 이어지는 한노연 진영 주도의 인노협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 91년 지자체 참여논쟁

* 90년말 대공장들에서는 전국적으로 민주집행부가 들어선다-선거를 통해. 이들은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연대회의)」 구성. 연대회의 침탈(회의도중 경찰투입, 대표자 전원연행)로 대우자동차 이은구 위원장이 구속되고(90년 2월) 대우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투쟁을 벌인다.(인노협신문 축쇄판 참고)

-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원선거³⁶⁾에서 조태천 수석, 김기자 사무처장, 신광기업 위원장, 동신공업 위원장 등이 모여 인노협에서 지지하는 '노동자 후보 추대'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원미정 세창물산 노조위원장을 인노협의 결의로 '노동자 후보'로 추대코자 하였으나 임투시기에 전선이 이완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요지의 반대에 봉착한다.

우여곡절끝에 표결로 원미정씨를 노동자후보로 추대키로 결정하고 찬성위원장 18명의 서명까지 한다. 그러나 다음날 수배중인 최동식 의장이 '비선'³⁷⁾으로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한다. 비선으로 소집된 운영위에서는 전날 표결에 문제가 있다.- 참관노조들은 표결권이 없다- 며 다시 결정하자고 제의. 노동자 후보 추대안이 번복되는 결정이 내려

36) 이때 선거는 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었고 광역, 기초의원 선거만 했다. 광역, 기초단체장은 기존과 같이 임명제였다.

37) 비밀리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의장의 갖은 수배로 생겨난 것이며 평소에는 수배된 의장이 빠진 상태에서 인노협사무실에서 회의를 갖지만 비선으로 회의를 할 경우 인노협 사무실 외의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한다.

진다.

- 특기사항은 이 논쟁은 인노협 주요 논쟁 때와 같은 한노연 대 반한노연 구도가 아니라 NL경향의 위원장+한노연 對 반한노연 일부+주안지역 노조로 되었다. 원미정씨가 주안 세창물산 위원장 출신으로 인간적, 동지적 유대가 깊은 주안지역 노조위원장들이 정파관계 없이 추대에 동의한다.

그러나 최의장이 비선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전날 결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한노연 진영 모두가 문제제기를 한다. 특히 비선회의에는 평소 인노협 활동의 결합이 약한 병원노조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이후 4기 대의원대회에 한노연진영-최동식 의장이 문제제기를 받는 대표적인 이유가 됐다. (인노협 회의 속기록 참고)

@ 91년 4차 대의원대회 논쟁

- 경일화학 조태천 위원장, 몬트레스 양인곤 위원장, 삼원플라스틱 우만형 위원장, 신광기업 하태식 위원장, 김기자 사무처장 등을 중심으로 한 반한노연 진영이 최의장 중심의 한노연 진영의 사업운영 기조와 방식에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함.(평가자료 참고) 숫적으로 열세인 한노연 진영의 대의원(최동식 의장, 대한특수위원장, 대흥기계 홍상철 위원장 등, 코스모스노조 대의원)이 4인이 퇴장하고 정족수 미달로 대회는 무산된다. 이에 남은 위원장과 대의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문건 ‘경과보고’, ‘우리는 왜 대의원 대회장을 퇴장할 수밖에 없었나’ 참고)

비상대책위는 최의장이 비록 수배중이나 교체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김기자씨를 차기 의장 후보로 내정했다. 그러나 1주일뒤 속개하기로 한 대의원대회 전날 단병호 전노협 의장과 단독면담을 한 김기자씨는 본인이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대의원대회 자체에 난항이 예상되는데다가 대회장 주변에 경찰병력이 배치되면서 대의원대회를 다시 1주일간 연기했다.

그 사이 최동식 의장이 불신검문에 걸려 연행, 구속되어 속개된 대의원대회에서는 최의장을 다시 의장으로 추대하고 김기자씨를 수석부의장에 조태천 사무처장, 양인곤 조직국장 등을 피선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직후 조태천씨 사업장인 경일화학이 부도나고, 몬트레스(양인곤)는 몇 달뒤 노조가 해산되면서 다시 최의장 중심의 한노연 체계가 굳어진다.

당시 김기자씨를 만난 단의장은 ‘① 최의장도 열심히 한 사람인데 너무 코너로 모는 것 아니냐 ② 수배중인 의장을 밀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³⁸⁾는 요지로 설득했다는데 김기자씨는 이를 두고 두고 비판받았다. “당시가 유일하게 의장을 교체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20.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38) 이 대목은 김기자씨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단체약칭 : 천사협

소속단체 :

활동기간 : 1988년 10월23일 -

활동지역 : 인천 지역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1988년 4월 천사협 준비위 구성단체; 「천주교인천교구청년회」, 「천주교도시빈민인천지역위원회」, 「인천교구가톨릭노동사목」, 「인천교구가톨릭대학생연합회」, 「인천교구가톨릭노동청년회」

해산이유 :

주요인물 :

활동목표 :

1. 천사협 가입단체들의 내부회원들과 나아가 천주교 내의 신자들을 활동 대상으로 설정하며, 좀 더 명확한 천주교사회운동의 '주체' 설정과 활동대상으로 한다
2.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면서 복음의 사회화와 제도교회의 쇄신을 통해 250만 가톨릭 신자들의 의식화, 조직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 변혁운동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모든 영역을 종교 부분운동이라는 일관된 영역 아래에서 진행한다.

*** 1988년 창립 선언문에서

조직체계 :

1. 대의원총회(년2회)
2. 집행위원회(월2회 정기총회, 주1회 비상회의); 일상적인 사업진행의 의사결정기구, 소속단체의 대표자,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이 참여
3. 사무국; 산하 총무, 교육, 홍보부
4. 민중대학
5. 문화기획실

*** 1989년을 경과하면서 인천교구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본당 청년조직협의회), 가톨릭 민중교육연구, 인천교구가톨릭민주시민공동체(민중대학 동창생)가 들어온다.

*** 1989년 천사협 조직체제

주요활동일지 :

제도권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반합법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천사협 차원에서 구태여 제도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천사협은 천주교사회운동의 올바른 구현과 일반 가톨릭신자들의 대중조직화 속에서 자신의 활동범위와 내용이 어떻게 검증되는 것인가를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했다. 단 천사협의 개별 구성단체는 공히 제도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즉 재정적 후원이 되고 있는 단체로 구성하고 있다.

1. 투쟁사업;

전두환, 이순자 처벌 서명 등 주로 본당 신자들 대상의 선전, 선동 사업(유인물, 대자보, 서명, 자료판매)과 동인천 주변의 가두 유인물 배포, 서명 작업

2. 선전사업;

주요 선전의 내용은 일상적으로 천사협내의 단체 소식과 정치 사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 내용풀이, 규탄 등을 다루었다, 방법은 후보, 정평위회지, 각 단체 월간홍보지, 성명서, 유인물등을 이용하였고, 자체 선전지는 없었다. 89년 7월15일 이후부터 전국천사협신문이 발간되었고, 배포체계는 단체배포와, 단체회원을 통한 본당 배포망을 가졌다.

3. 조직적 전망;

종교부분 조직으로 천사협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전민련」 중집위에 대표 1인이 참석하였다.

관련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

21. 인천기독교사회운동연합

단체약칭 : 인천기사연

소속단체 :

활동기간 : 1989년 6월18일 -

활동지역 : 인천지역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1988년 9월5일 인천지역민중교회협의회,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등 3개 기독교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박종렬목사, 사무국장 남규우전도사)를 구성하여, 1989년 2월21일 인천부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추가로 참가했고, 89년 3월 정책협의회를 거쳐 89년 6월18일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해산이유 :

주요인물 :

활동목표 :

1. 가맹단체와 일상 활동을 상호 공유하는 것을 통하여 이해의 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상호 발굴과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2. 각개약진하고 있는 현재의 고립 분산성을 극복하기위해 각 부분의 동일한 실천으로 묶어 세운다.
3. 신학연구, 교육훈련과 같은 전문적 실천영역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노동자, 목회자, 청년 학생 등의 대중조직의 구성을 촉발시키는 실천단위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4. 전체 민족민주운동 대오에 주체적으로 참여해나간다

조직체제 :

1. 고문
2. 대의원총회; 년1회, 개별 단체 파견대의원으로 구성. 중앙위 결의로만 개별대표 선임 가능.
3. 지도위원
4. 감사
5. 중앙위원회
6. 의장(공동의장)
7. 위원회; 산하 신학연구위원회와 '민주민생투쟁위원회를 둠.
8. 사무국; 총무부, 교육부, 조직부, 선전부를 둠.
9. 임원회; 총회와 중앙위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기구. 공동의장, 사무국장과 차장, 각 위원장, 각부 부장으로 구성.

주요활동일지 :

* 투쟁사업

1. 각종 정치집회 개최 및 조직적 참가 (89년 5월21일 5월 광주항쟁기념 예배, 6월 11일 고이철규군 사인진상규명촉구 및 전국교직원노조결성 경과보고대회 개최)
2. 문익환목사 구속을 규탄하는 목회자 단식 투쟁
3. 노동문제 대책사업으로 노동운동 탄압사례집 발간, 사업장투쟁과 결합하여 지원활동 수행

* 선전사업

1. 노동, 청년학생 대상 선전물 배포
2. 자체 선전지 사안에 따라 발행.

* 조직적 전망

1. 인천기사연은 89년 상반기 동안 본 조직건설에 집중적인 역량을 투여해온 관계로 인민연 활동에는 소극적으로 참가해왔다. 그러나 인천기사연 본 조직 건설이 이루어졌고 조직체계를 정비한 이후 하반기부터는 연대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2. 인천기사연은 4개단체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인민연 투쟁사업이 중장기적 계획과 방침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사안별 연대투쟁식으로 일관될 때에는 매 투쟁마다 인천기사연 회원들의 참여율이 사안에 따라 기복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 1989년 조직전망 문건

관련자료 :

<인천지역 민중운동단체 실태조사>, 인민련

22.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단체약칭 : 삼민동맹, 인천에서는 흔히 인노맹이라고 부름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존속/활동기간 :

88년 10월 창립 - 90년 4월 공안당국에 17명 검거

91년 인민노련, 노동계급 등과 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준위 결성

92년 민중당 선거패배 후 핵심인사는 경실련 등으로 감.

활동지역 : 경인지역 주로 인천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비공개

결성과정 :

서노련, 인노련(서인노)의 안개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결성한 조직이다. 서인노 와해 이후 경인지역에서는 NLPDR(NL)이 급부상했다. NL진영은 서클 등 소그룹형태로 존재했다. 그들은 조직방향으로 “아직 우리 운동이 전위 조직을 건설할 역량이 준비되지 못하였고, 여건이 성숙치 못했으므로, 모두 산개하여 대중속에서 단련

받고 검증받는 것이 시급하다”는 ‘산개론’을 주장했다.

삼민동맹의 초기 핵심들도 처음에는 조직건설을 고민하지 못한 채, 서인노의 실패에 좌절하여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노동운동의 역사를 실천적으로 계승하는 가운데, 그 성과와 오류 모두로부터 배우며, 당장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조직건설이 시급하다고 믿고 작은 그룹”을 만드는데 그것이 삼민동맹의 출발이었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가 사회변혁의 이론적 기초를 확보하고 지역의 활동가와 공장과의 연결망을 원활히하기 위해 <노동자의 깃발>(깃발)을 제작 배포했다. 동시에 강령 초안에 해당하는 소책자 <우리의 현실과 계획>을 발간하고 깃발에 강령초안을 연재 해설하면서 이 강령초안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을 규합했다. 이러한 작업진행의 성과로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 창립대회를 1988년 10월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에서 가졌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노동운동 정치조직’으로 자기 성격을 규정하였다.

해산이유 :

90년 4월 핵심 조직원들이 공안당국에 검거된 이후 서클형태로 명맥만 유지하다가 한 사노에 결합하였다. 민중당 이후에 지도부는 경실련으로 갔고,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결정(판단)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일임했다.

주요인물 :

이용선, 박윤배, 김진국 등

활동목표/강령 :

삼민동맹의 강령에 해당하는 것이 소책자로 발간된 <우리의 현실과 과제>이다. 김진국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올 민족통일 민주주의 민중혁명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승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강령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당면한 혁명의 승리와 민중권력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이 긴급히 요청되는 바, 그 조직적 표현으로서 노동자당의 건설을 현시기 임무로 설정하고 있는 노동자 정치조직”이라고 한다.³⁹⁾

조직체계 :

주요활동일지 :

- * 1987년 11월; 노동자 정치신문을 표방한 <노동자의 깃발> 처음 발행 이후 월 1회꼴로 발행(90년 4월 28호까지 발행)
- * 1988년 8월22일; 인천노동회관 개관(노동상담, 교육기관이었는데 삼민동맹의 공개·외곽으로 알려짐)
- * 1988년 10월;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에서 창립대회

39)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102쪽, 소나무 출판사 김진국

- * 1989년 1월; 전민련 투쟁방향을 돌려쓰고 'B안'이라 명명된 투쟁방침 제출
- * 1989년 6월10일; 2차 중앙위원회 <현시기 우리의 전략적 과제와 조직상 과업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결정.
- * 1990년 4월25일; 공안당국에 조직원 17명 검거
- * 1991년 10월; 인민노련, 노동계급 등과 <한국사회주의노동당>으로 통합
- * 1992년; 국회의원 총선후 지도부 다수가 경실련으로 감.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1. 기관지 <노동자의 깃발> 제작

삼민동맹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자 소그룹을 삼민동맹으로 발전하게 만든 매개였다. 깃발은 87년 11월부터 90년 4월까지 월간지 형태로 28호까지 제작되었으며, 29호 제작 완료단계에서 배포하지 못했다고 한다. 조직원들의 토론의 매개였고 주변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무기였다는 깃발은 발행 간격이 긴 이유로 투쟁에 신속히 대응치 못하거나 노동자들과 공공연히 접촉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감시와 탄압 속에 제작비용 마련, 인쇄, 제작, 배포가 “조직 전체의 결의와 의지의 담보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김진국은 밝히고 있다.

2. 노동조합 결합 및 조직사업

삼민동맹의 외곽 노동상담소 격으로 인천 청천동에 「노동회관」을 설립 운영했다. 노동회관을 통해 노동자 기획강좌 등을 했는데, 당시 노동조합이나 현장 노동자들을 공공연하게 만나기 어려운 비공개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공개 노동운동단체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했다.

삼민동맹의 활동 목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장노동자 조직을 가장 중요한 조직의 임무로 봤고, 중요 역량을 현장노동자 조직에 투여했다. 대우중공업, 한일스텐레스, 진도 등의 사업장 노동자들과 결합이 있었다.

3. 한국사회주의노동당(준) 창당 작업 참여

공안당국에 조직원들이 검거되고 난 이후에는 서클구조를 유지하고 있던 와중에 삼민동맹의 핵심 이용선이 인민노련 주대환을 만나 조직 통합의 밑그림에 동의한다. 91년 7월 계룡산에서 있던 한사노 창준위 결성대회에는 삼민동맹에서 이용선, 안명균(삼민동맹 안양대표), 유병진 등 3인이 참여했다. 합법적인 노동자당을 만들기 위한 <신노선> 결정 자리에도 역시 이용선, 안명균, 유병진 등이 참석했다.⁴⁰⁾

삼민동맹 지도부의 상당수는 민중당의 선거 패배이후 경실련으로 가 가장 우경화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사노 창당과 합법적 노동자당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용선은 “동구와 소비에트 붕괴과정을 보면서 더 이상 혁명에 의한 체제전복론은 잘못됐다”는 각성이 컸다고 한다. 이미 깃발을 통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했던 삼민동맹은 “혁명이 아니라 체제내적 개혁이 올바르며, 삼권분립

40) 단체기록 「인천민주노동자연맹」 참조.

과 선거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 외에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관련자료 :

1.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소나무 출판사 김진국 등
2.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진보 3부작』,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3. 인천지역주민회

단체약칭 : 주민회

소속단체 :

활동기간 : 1989년 2월25일

활동지역 : 인천지역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인천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와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부평지부」가 동참하여 1989년 2월25일 창립

해산이유 :

주요인물 :

활동목표 :

지역 주민의 교육, 문화, 지역문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조직체제 :

1. 총회(연2회)
2. 운영위원회(2주 1회); 운영위원회는 동대표, 사무국장, 회장으로 구성
3. 지부국
4. 동모임

*** 1989년 창립조직표

주요활동일지 :

「인천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는 87년 12월 빈민지역의 교회, 의료, 공부방, 탁아소 등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빈민지역의 대중조직을 지향하고 구성된 조직으로 대내적으로는 ‘주민활동가 훈련(월례회)’, ‘주민교육(생활나눔, 어머니교실, 마을잔치, 주민신문)’, ‘지역문제연구(지방자치제, 임대차보호법)’와 대외적으로는 「인천지역철거민협의회」, 「만수동노점상」 등을 지원해왔다.

「민주쟁취국민운동 부평지부」는 87년 공정선거감시단에 참여했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반조직을 골간으로 ‘주민도서실’, ‘동네독서회’, ‘풍물패’를 조직하고 ‘지역신문’, ‘동네잔치’, ‘시청료거부운동’ 등의 주민활동을 해왔다.

*** 결성이후의 주요활동**

1. 투쟁사업;

십정동 D.D.D 설치투쟁, 산곡2동 통장선출운동

2. 선전사업;

- 1) 탁아소회지 및 마을신문 발간
- 2) 지역의료보험 및 지자체에 관한 유인물 발간, 배포
- 3) 인천민족민주운동연합 및 기타 발간 유인물 배포

3. 연대사업

「민중교회연합」, 「탁아소위원회」 등과 동별로 연대사업 전개

관련자료 :

24. 인천지역노동조합활성화추진위원회

단체약칭 : 노활추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인노대)

존속/활동기간 :

1990년 5월 - 1995년

활동지역 : 인천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87년 7-8월 대투쟁 기간에 인천지역 대부분의 대공장은 ‘노조민주화투쟁’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때 노조위원장 선거가 간접선거 방식에서 직접선거로 전환되어 새로 노조위

원장들을 선출했는데 이들 중 ‘한국노총을 민주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위원장들이 ‘인노협은 부담스럽고 한국노총은 좀 문제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노조대표자들을 모아 「인천지역노동조합활성화추진위(노활추)」를 구성했다.

해산이유 :

민주노총 창립과 96-97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 무효 총파업 과정에서 노활추 소속 사업장 상당수가 민주노총으로 가입해 들어오면서 해산됨.

주요인물 :

염성태, 박한주

활동목표/강령 :

한국노총민주화, 노동조합간의 연대교류

조직체계 : 대표자회의

주요활동일지 :

- * 1989.06; 한국노총 소속 민주지향의 금속노련 위원장들이 한국노총인천시협 의장 선거에 대우중공업노조 염성태위원장을 내보냈으나 낙선.
- * 1989; 인천지역노동조합활성화추진위원회 준비위 구성
- * 1990.05; 인천지역노동조합활성화추진위원회(노활추) 결성
- * 1990.08; 「단체협약변경명령 철회 인천지역 노조대책위」 활동
- * 1990.11; 대우전자 노조탄압 인천공동대책위 활동
- * 1991.03; 물가폭등저지와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인천지역 임금인상투쟁본부 활동
- * 1992;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 활동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한국노총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대우중공업노조 염성태 위원장과 코리아스파이서 박한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은 아닌 것 같고 인노협은 부담스러워 하는” 노조위원장들을 규합, 친목모임을 시작한 것이 노활추의 출발이다. 이미 그 이전 ‘인우회’라는 중간적 성격을 띠는 노조위원장 친목모임이 있었는데 인우회에 참여하는 노조위원장들이 노활추의 기반이 된 것이다. 이들중 금속노련 소속 위원장들은 한국노총 인천시협을 민주적으로 바꿔내기 위해 89년 6월 대의원대회에 염성태 위원장을 출마시키지만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다.

노활추는 대표자 중심의 연대모임으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갖기도 했지만 대중적인 연대활동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단체협약 변경명령 철회를 위한 노조대책위’, 전교조지지 성명 등 대표자 선에서 할수 있는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1991년도에는 인노협 가입사업장 4곳이 맹비를 납

부하여 금속노련 인천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투표권을 확보한 후 노활추 소속 금속사업장 노조위원장들과 공동으로 코리아스파이서노조 박한주 위원장을 당선시키기도 했다.

관련자료 :

25. 인천지역공부방연합회

단체약칭 : 인공연

소속단체 :

활동기간 : 1990년3월~ 현재

활동지역 : 인천지역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1990년 「기차길 옆 공부방」, 「햇살어린이 공부방」 등 인천지역 15개 공부방들이 연대해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이루기 위해 결성했다.

해산이유 :

주요인물 : 이성수, 이례교, 서정화, 이혜정, 조설희

활동목표 :

가난 때문에 억압되고 실직과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정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교육, 문화, 복지, 상담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연대하여, 지도력을 향상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이루어 지역사회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조직체제 :

1. 회장
2. 임원
3. 사무국장

*** 2000년 당시 조직체계

주요활동일지 :

1. 주요사업내용

- * 교사훈련; 수련회, 실무훈련, 교사양성,
- * 프로그램 기획; 5월 행사, 여름캠프, 송년회
- * 프로그램 개발; 현장학습, 환경, 심성학습, 적응훈련
- * 특별기획; 테마별 기획, 프로젝트사업
- * 교육사업; 소식지, 자료집제작
- * 상담사업;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성훈련

2. 단체연혁

- * 90년3월 인천지역공부방연합회 창립총회
- * 90년5월 제1회 어린이날 행사 '야야 이리 나와라'를 인천대 숲골공원에서 공연
- * 91년8월 자원교사 교육 강좌- 빈민아동의 이해, 빈민아동의 생활지도, 글쓰기, 자원 교사의 역할과 자세
- * 91년 10월 연합회 소식지 '햇볕한줌' 발행
- * 92년 4월 상반기 자원교사 교육
- * 92년 5월 소식지 '햇볕한줌 2호' 발행

3. 향후계획

- * 단기계획 -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
- * 장기계획 - 특별기획프로그램

*** 1992년 현재

관련자료 :

『인천민간인단체총람』, 인천가톨릭환경연대

26. 인천지역대공장노조연대모임

단체약칭 : 대공장연대모임

소속단체/참여한 연합단체 :

물가폭등저지와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인천지역 임금인상투쟁본부(인천 노조공투본)⁴¹⁾

존속/활동기간 :

1990년 말 - 1992년(?)

41) 91년 구성된 한시적 연대조직

활동지역 : 인천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임의단체

결성과정 :

87년 7-8월 대투쟁 기간에 인천지역 대부분의 대공장은 '노조민주화투쟁'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때 노조위원장 선거방식이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전환되어 새로 노조위원장을 선출했는데 그 임기가 끝나고 실시한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민주파가 대거 당선되었다.

이미 전년도인 89년 대공장에서 민주파가 밀었던 후보들이 당선되어 기대를 가졌던 인노협 등 지역의 노동운동진영은 대공장 노조는 인노협과 다른 방식의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었다. 이에 따라 90년 새로 집행부가 교체된 노동조합 대표자들로 「대공장노조연대모임」을 구성해 대공장노조의 현실에 맞는 연대활동을 추진했다. 이같은 흐름은 전국적으로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를 구성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해산이유 :

조직의 공식적 결의없이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 참여하는 연대모임의 한계로 인해 집행력이 담보되지 못한 가운데 임기후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유아무야됐다.

주요인물 :

김동교, 김동천 등

활동목표/강령 :

대기업노조의 일상적인 교류, 공동교육 등의 연대활동

조직체계 :

공동의장 (인천제철노조 김동교 위원장 등)

노조 대표자 모임

집행부서장 모임

*** 가입이 노동조합 내 공식 대의기구에 의한 조직적 결의방식이 아니어서 참가노조가 명확하진 않지만, 인천제철노조, 영창악기노조, 진도노조 부평지부, 대우전자노조 인천지부, 한라중공업노조, 대우자동차노조 등이 참여했다. 한라중공업노조는 인노협 가입사업장이었고 대우자동차 노조는 연대회의에도 참여했다.

주요활동일지 :

* 1990.7-8월; 대공장노조 잇따라 민주파 후보 당선

* 1990.하반기; 대공장노조 대표자 모임 「대공장노조연대모임」 구성 결의

- * 1990.11; 대우전자 인천지부 노조탄압에 지역 8개 노조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 * 1991.03.15; 「물가폭등 저지와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인천지역 임금인상공동투쟁 본부(노조공투본)」 발대식
- * 1991.봄; 대공장 사측이 일제히 ‘체결권’⁴²⁾시비
- * 1991.10; 노동법개정투쟁 위한 간부수련회

주요활동/관련사건 개요 :

대표자 모임과 각 부서장 모임을 통해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공유하고 공동간부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이 주였다. 대공장연대모임이 90년 하반기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주로 91년 임금인상준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다.

대우전자노조 인천지부 지부장 등 간부 2명이 구속되었을 때 인노협 등과 지역대책위를 구성했고, 91년에는 인천노조공투본을 발족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대공장노조들의 집행부 교체이후 첫 임투에서 자본측이 일제히 ‘체결권 시비’를 걸어 왔을 때, 이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주도적으로 끌어왔던 노동조합들이 집행부 사퇴와 보궐선거를 실시하면서 대공장연대모임도 유야무야되었다.

관련자료 :

『줄여모은 인노협신문』 인노협 발행

27. 실업극복 인천본부 남동지원센터

단체약칭 : 청솔의집

소속단체 : 실업극복 인천본부

활동기간 : 1991년

활동지역 : 인천지역

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 : 공개합법단체

결성과정 :

1. 민관협력 차원의 실업극복 문제를 위한 민간차원의 주체단위 형성
2. 사각지대의 실직가정 발굴 지원

42) 노사협상이후 잠정합의를 한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노사합의에 대한 조인을 하는데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

해산이유 :

주요인물 : 이총각(동일방직 위원장 역임)

활동목표 :

남동구 지역내 노동자와 저소득층 주민 지원을 통한 살기좋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여 IMF구제금융 이후 실직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등 자활 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함.

조직체제 :

1. 대표
2. 사무장
3. 상근자

주요활동일지 :

1. 주요사업내용

결식아동 무료급식, 공부방운영, 주민 교양강좌 개설, 실직자 취업알선, 긴급 생계비지원, 실직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자활 지원사업 수행

2. 단체연혁

- * 1991년 9월; 청솔의 집 창립
- * 1992년 2월22일; 어린이 공부방 개원
- * 1993년 5월27일; 무료법률 상담사업 시작
- * 1994년 6월1일; 청소년 공부방 개원
- * 1997년 9월3일; 한글어머니교실 개원
- * 1998년 12월21일;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의 남동구센터로 지정되어 자활지원사업 시작
- * 1998년 3월27일; 이, 미용 봉사모임(월1회)
- * 1988년 4월20일; 간석3동에 실직자쉼터 개소
- * 1998년 4월20일; 무료건강검진실시(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주관)
- * 1998년 6월3일; 한글어머니교실

관련자료 :

인천민간단체총람

V. 참고 자료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간 『민주화운동사건일지』
- *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발간 『민주화운동관련 사건, 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사업』
- *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발간 『안흑속의 햇불』
- * 한국노총 발간 『한국노동조합운동사』
- * 인천기독교민중연구소 발간 『87년 노동자대투쟁』
- *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87년노동자대투쟁』
- * 인하대 교지, 『인하대30년사』, 『인하대40년사』
- * 인사연, 인노협 등 인천지역 민주화운동단체에서 발간한 각종 유인물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인천

발행일: 2005년 12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